

무극(소림사 편 – 제 3 권)

부 서 명	개발6팀 기획팀	Story Writing	정영무(필명: 시니어)
Story Design	이희성	검 수	이희성
최초작성일	2009-09-30	최종수정일	2009-10-05

목차

목차 1

1. 서(序) 3

2. Story 4

2.1. 제 7 장 4

2.1.1. 제 73 화 [남겨진 문제들] 4

2.1.2. 제 74 화 [소림에서 온 서신] 9

2.1.3. 제 75 화 [걸림돌] 14

2.1.4. 제 76 화 [선택] 19

2.1.5. 제 77 화 [내공심법] 24

2.1.6. 제 78 화 [자라탕] 29

2.1.7. 제 79 화 [유혹] 34

2.1.8. 제 80 화 [질투] 39

2.1.9. 제 81 화 [심화] 44

2.1.10. 제 82 화 [검의 이유] 49

2.1.11. 제 83 화 [미끼] 54

2.1.12. 제 84 화 [나한기공] 59

2.2. 제 8 장 64

武極 - Story Book

2.2.1.	제 85 화 [개방과 무당]	64
2.2.2.	제 86 화 [부관]	69
2.2.3.	제 87 화 [백결공자]	74
2.2.4.	제 88 화 [기인]	78
2.2.5.	제 89 화 [의심]	83
2.2.6.	제 90 화 [불화]	88
2.2.7.	제 91 화 [단형도장]	93
2.2.8.	제 92 화 [삼파전]	98
2.2.9.	제 93 화 [또 다른 삼파전]	103
2.2.10.	제 94 화 [실타래]	108
2.2.11.	제 95 화 [결정]	113
2.2.12.	제 96 화 [소림으로]	118
2.3.	제 9 장	124
2.3.1.	제 97 화 [일주문]	124
2.3.2.	제 98 화 [협력]	129
2.3.3.	제 99 화 [지객당]	134
2.3.4.	제 100 화 [사대금강]	139
2.3.5.	제 101 화 [소림연환권]	144
2.3.6.	제 102 화 [공양간]	149
2.3.7.	제 103 화 [공양주]	154
2.3.8.	제 104 화 [활약]	159
2.3.9.	제 105 화 [원류]	163
2.3.10.	제 106 화 [선인공수]	168
2.3.11.	제 107 화 [기문진식]	173
2.3.12.	제 108 화 [파진]	178

武極 - Story Book

1. 서(序)

- ① 본 소설은 그 장르를 ‘게임 연상 소설’의 장르로 규정하며 ‘무극’의 세계관을 보여줌과 동시에 개발자들로 하여금 게임의 플레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② 정통 무협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무협 소설의 형태로 잠재적인 ‘무극’의 게임 유저의 관심과 집중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③ 옴니버스 구성의 그 첫 편으로 태산 복두 소림을 테마로 하여 게임 내 성도와 게임의 유저 플레이 모델을 제시한다.
- ④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스토리는 Teaser Campaign 계획의 일환으로 오픈 카페와 오픈 클럽, 무협 동호회, 무림 클럽 등에 공개하여 ‘무극’의 브랜드 마케팅에 기초 전략으로 삼는다.
- ⑤ 소림사 제 1 권: ‘무극’의 기초 세계관과 ‘수호’, ‘출정’의 2가지 전장에 대한 표현.
- ⑥ 소림사 제 2 권: ‘공성전’의 모습과 월드 구성 및 성도와 분타 기능, 정파 진영 주요 영웅 NPC에 대한 표현.
- ⑦ 소림사 제 3 권: 내공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무공의 승단과 무공 승단을 위한 시작 과정인 ‘문파본산(테마인던)’의 공략에 대한 표현으로 ‘왜 문파본산을 공략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부여와 동기 설명.

2. Story

2.1. 제 7 장

2.1.1. 제 73 화 [남겨진 문제들]

낙양성 북풍표국의 전각 지붕.

내려다보면 아찔한 높이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역시 도 총관의 눈은 정확하군. 내 생각이 틀렸어.”

북풍의 장주 벽소군은 면사 너머로 총관 도상운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도상운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사실 누가 예상했겠나. 아무 것도 뿌리지 않은 맨 땅에서 그토록
튼실한 나무가 자라날 줄이야. 그것도 소림에서 말이지.”

도상운은 미미한 웃음을 머금었다.

벽소군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웃음이었다.
그는 늘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기에 벽소군은 그 웃음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어때? 저 아이가 그를 불러낼 수 있을 것 같나?”

“미끼는 낚시꾼이 던지지만 고르는 것은 물고기의 몫이죠.”

벽소군이 껄 하고 웃음소리를 냈다.

“그를 물고기라고? 정말 그가 물고기라면 성 한 채썸 대뜸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일걸?”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저희에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래.”

벽소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성문에 가득 몰려 있는 인파와 수많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사람 한 명이 개미처럼 자그마하게 보이는 거리지만 벽소군에게는 코 밑의 점
하나까지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도상운도 마찬가지다.

둘의 무공 수준이라면 그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훑어보던 벽소군의 시선이 멈추었다. 기진맥진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젊은 무인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다.

진명이다.

혈무련의 수백 무인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일령을 구출해낸 소림의
속가 제자.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처음 나한권 1초식 하나를 배워 소림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애송이가 지금은 낙양성의 영웅이 되어 있다는 걸.

"그나저나 평일지도 불쌍하게 되었군. 그의 생각에는 정말 하찮은
애송이었을텐데. 그런 애송이에게 밀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어."

평일지는 벽소군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목표 중 하나였다. 지금은 영웅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그는 다른 의미로 벽소군에게 가치
있는 인물이다.

"화산이라는 배경을 짚어졌다고는 하나 젊은 나이에 낙양성 지부장까지
올랐으니 유망한 인재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화산의 꼴도 참 볼만해지겠어. 소림에 한 대 얻어 맞은 기분일거야."

武極 - Story Book

잠시 생각하던 벽소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자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일지에겐 꽤 공을 들였었는데 말야."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도상운에게는 작은 말 하나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화산파와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는?"

"평일지라면 곧 재기할 겁니다. 무엇보다 화산에서 그를 이대로 내버려둘 리 없습니다."

"좋아. 그렇게 해."

"문제는 진명입니다."

"말해봐."

"진명은 저희를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절을 당한 것을 마음에 둘 것입니다."

"뭣."

가벼운 웃음에 벽소군의 면사가 흔들렸다.

"계집아이 하나를 구하려고 사지로 뛰어든 사내가?"

"그렇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젠 그가 저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저희가 주지 못할 테니까요."

"계집아이의 아버지가 일주엽이었지? 만수전장의."

"그렇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주엽은 진명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진명이 저희를 찾아와야 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흠."

벽소군이 말했다.

"세상에 약점 없는 인간은 없어. 원하는 것이 없다면 원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도 총관의 일이야."

"물론입니다."

잠시 후 벽소군이 도상운에게 명령을 내렸다.

"등봉 분타주를 끌어들여. 그를 낚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상관없어. 낙양성의 재건에 들어가는 돈 전부를 달라해도 내줘버려."

도상운이 허리를 숙여 읊을 했다.

"존명! 주군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전각의 지붕위에서 나눈 두 사람의 담소를 들을 수 있는 이는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낙양성의 다른 사람들처럼 진명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손 안에 든 것을 공짜로 줄 만큼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여어, 아우님. 그래, 몸은 좀 어떠신가?"

진명이 당청의 의방에서 자리를 깔고 누운 지도 벌써 사흘. 그간 진명은 병문안이랍시고 몰려드는 인파를 상대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당의원의 말에 의하면 저 혼자 벌써 나아도 나아갈 상처가 여직 제자리 걸음이라니, 그 곤욕이야 짐작이 가고도 남았다. 더군다나 병문안 오는 사람들 태반이 진명은 이름도 못 들어본 자들이었다.

덕분에 정말로 병문안을 와야 할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꼴이 되었다. 임완춘 역시 사흘을 내리 참다가 이제서야 올라온 것이다.

평소와 다름없는 임완춘의 얼굴을 본 진명이 빙긋 웃었다.

"몸이야 괜찮은데 정신이 산만해 죽겠습니다. 그간 자기 이름 석자를 알려주고 간 사람들만 해도 수십이 될 듯 하군요."

그러자 진명이 누운 침상 옆에서 약재를 썰고 있던 당청이 끼어들었다.

"수십이 아니라 기백은 되겠더라. 원, 그간 고생할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던 것들이, 이제 와 지들 살 곳을 챙겨줬다고 살살 꼬리를 치는 꼴이..... 쫓쫓, 그런 꼴을 보니 사람이 아프지 않고 배겨?"

임완춘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아니, 그 정도였다고? 우와, 아우님이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긴 했나 보지."

武極 - Story Book

사람들이 어떻게든 친분을 쌓으려고 눈을 벌개지는 것을 보면 말이야. 아우님, 이 참에 뭐든 해볼 생각 없냐?”

그러자 당청이 약재를 써는 작두를 들고 탕탕 날을 쳐댔다.

“아, 이놈이? 그게 지금 환자한테 할 소리야? 애 골골하는 게 안보이냐?”

“위위, 진정하쇼. 까닥하면 약 치다가 사람 잡겠네. 내가 지금 당장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아, 시끄러워! 볼 일 다 끝났으면 냅다 나가라! 네 놈도 그 때 낙양성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던 놈들 중 하나 아니냐!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디서 뭘 하거나 말거나야?”

임완춘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의원님. 그리 말하시면 이 임 모 진짜 서운하오. 내가 어디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소? 나야 위에서 시키니 그냥 죽었다 싶었던 게지. 그리고 내가 우리 아우님을 마음 속 깊이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 고만하고 나가라니까! 그런 변명 써부러봤자 누가 들어주거나 한다냐?”

당청이 좀 더 위협적으로 작두날을 치켜들자 임완춘이 주춤대며 물러섰다.

“아, 알았소. 내가 이쯤 해야지 뭐. 아우님, 그럼 내 가보오. 오자마자 쫓겨나가는 거니 너무 이 형을 원망 마시게나.”

진명이 하하, 하며 웃었다.

“아닙니다. 부러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지금 낙양성 복건에 다들 정신 없이 바쁠 때라는 걸 알면서도 저만 이리 누워지내는 게 불편할 따름입니다. 저도 어서 자리를 털고 나서서 거들겠습니다.”

진명이 이렇게 말하자 임완춘은 그게 기회라는 듯, 잽싸게 다가와 침상 한 칸에 걸터 앉았다.

“아, 그래서 말인데..... 평일지가 그래 쫓겨났으니 누구든 새 지부장이 되어야 하지 않아? 아우님 생각은 어때?”

“그야 물론 새 지부장이 있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 그렇지. 그럼 아우님도 관심이 있다 이거지?”

“예? 그게 무슨 말씀.....”

챙챙!

득달같이 작두 소리가 울렸다.

“쫓쫓..... 몸도 성치 않은 녀석에게 지부장 자리를 꿰차라고 컷바람을 넣고 있구나. 지금 말해봤자 어디 들린 다냐?”

당청의 훈수에 진명이 손사래를 쳤다.

“형님은 언제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지금 말은 못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엥? 왜? 좋은 기회 아냐? 여기 문병 온 사람들 모두가 다음 번 낙양성 지부장은 아우님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왔을 텐데?”

“그건 저와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분타주의 자리만 하더라도 제게는 힘에 부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잉..... 그래? 뭐, 아우님이 그렇담 더는 어쩔 수 없고.”

임완춘은 내심 섭섭한 눈치를 흘렸다. 그러면 분명 벌써부터 진명과 친분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흘리고 다녔을 게 뻔했다. 이 점을 눈치챈 당청은 곱게 작두날을 치켜들었다.

“아, 말 다했으면 고만 나가 봐. 이 놈은 더 쉬어야 하니까.”

“알겠수다. 거, 아우님. 내가 내일도 올 터이니 그때까지 폭 쉬라고. 일 소저는 만나 봤나? 그리 누워있으니 일 소저 안부를 챙길 경황도 없었지? 내가 내일 올 때는 일 소저 안부도 물어 올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그럼 이 우형은 가네.”

“예. 살피 가십시오.”

또다시 정치적인 번잡한 이야기에 휩쓸리기 싫었던 진명은 그대로 반갑게 임완춘을 보냈다.

그가 떠나고 나자 당청은 아예 의방의 문을 걸어 잠궜다. 더는 병문안을 핑계로 사람들이 진명을 귀찮게 하는 꼴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진명이 씩씩하게 웃었다.

“사람들이 참.....”

武極 - Story Book

“엥? 뭐가?”

“아뇨. 공연히 사람들 덕분에 의원님도 피곤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폐를 끼치는군요.”

당청이 히죽 웃었다.

“세상살이가 워낙 그런 법이야. 가진 자가 있으면 나눠달라는 놈들이 줄을 서게 마련이지. 그런데 그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란 말씀이야. 내가 의술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걸 나누기 위해 돈을 주고 나를 찾는 게 아니냐? 네 놈도 내가 의술을 몰랐다면 여기 누워있지도 않았겠지. 내가 가진걸 주고, 내가 없는 걸 받고..... 사는 게 그런 거야. 너무 고깝게 생각지 말아라.”

“고까워서가 아니라..... 뭐랄까, 자꾸만 제게 없는 것을 나누길 원하는 듯 보여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텐데요.”

“혈. 그것은 모르는 게지. 네 눈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 바보라서 있지도 않은 걸 받아먹으려 덤비는 듯 보이냐? 그건 속단할 게 아니지. 저들도 생각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장 임형만 해도 자꾸만 저런 애길 하시니.....”

“그건 그 놈 주판알이 워낙 형편 없는 거라 그러는 거다. 통긴다고 통겨봤자 사람 바보만 되는 거지. 그런 놈은 신경 쓸 것 하나 없다.”

간단히 말해 임완춘이 바보라는 소리다. 진명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당청은 그가 웃는 것을 바라보다가 조금은 알 수 없는 얼굴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진짜로 주판알 제대로 굴리는 놈들도 있지. 그런 놈들은 절대 임 가 놈처럼 바보가 아니니 그런 건 너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게다.”

"알겠습니다."

"이놈아,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냐.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

"하하. 알았다니까요."

진명은 웃으면서 연신 당청의 말에 답했지만, 생각보다도 그 사실을 깨달을

시간은 빨리 왔다.

도상운이 진명을 찾아왔다.

당청도 잠시 출타를 한 종이라 참으로 공교로운 방문이었다.

도상운은 한 손에 말린 약재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진 소협, 몸은 좀 어떠신지요."

처음 봤을 때처럼 여전히 도상운은 예의 바른 문사의 행동을 그대로 취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도상운의 방문에 진명은 얼떨떨했다.

"아, 많이 나왔소. 그런데 도 총관께서 어떤 일로 찾아주셨는지....."

"혈무련의 공습을 막아내는 데 진 소협께서 크게 활약하셨다구요."

"난 별로 한 일이 없소. 그저 그들 스스로 물러난 것 뿐이오."

아무래도 예전에 북풍표국의 장주에게 매몰찬 거절을 당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진명도 기분이 그리 개운하지는 않았다.

"어쨌거나 진 소협이 아니셨다면 낙양은 혈무련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덕분에 저희도 피해를 입지 않아 감사 인사를 드리려 왔습니다."

도상운이 공손히 약재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것은 저희 장주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 약재를 달여 드시고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명은 선뜻 선물을 받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오. 북풍표국이라면 단심맹에도 혈무련에도 분타를 두고 있지 않소? 혈무련이 낙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북풍표국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진명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도상운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까지 띄우며 말했다.

"진 소협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 당장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날씨가 며칠만 늦어도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혈무련이 낙양 입성을 했다면

武極 - Story Book

아무래도 쉽게 수습이 되지 않았을 터이니까요."

"흠."

도상운이 허리를 숙이며 다시 약재를 내민다. 누가 보아도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이어서 진명은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도 겸한 것입니다."

"그 일이라면 사과할 것 없소.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으니."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도상운은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진명이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내 아무 것도 모르는 전이었다면 정말로 기분 좋게 받았을 것이나, 지금은 그렇지 않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하는 일이 워낙 답답했는지 어르신 한 분께서 이리 말씀 하시더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도상운의 표정이 미미하게 흔들렸으나 고개를 숙인 채여서 진명은 도상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 돌아가도록 하시오. 보아하니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게는 과분하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오."

도상운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 내키지 않으신다면 이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까만, 한가지는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무얼 말이오?"

"진 소협께서는 머잖아 이것보다도 더 큰 것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도상운은 길게 읊을 하고는 자리를 물러났다.

진명은 착잡한 눈으로 도상운의 뒷모습을 쫓았다.

도상운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일반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좀처럼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럴 때 령 아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걸."

진명은 머리를 굽적거렸다.

武極 - Story Book

2.1.2. 제 74 화 [소림에서 온 서신]

슬슬 몸이 굳어간다고 느낄 무렵, 드디어 당청에게서 퇴원 허락이 떨어졌다.

“이제 대충은 몸을 써도 되겠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진명은 당청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할 일도 많았고, 알 일도 많았다. 갑자기 그는 마음이 급해졌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진명이 성급하게 작별 인사를 던지자 당청은 서운하다는 투로 눈을 흘겼다.

“이 놈 보소. 그간 내가 밤낮으로 지 병수발 들어준 공은 생각도 않고, 가라니까 좋다고 나선다 이거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할 일을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

진명이 허둥대며 변명을 던지자 당청이 피식 웃었다.

“안다. 내가 괜히 농을 한 번 던져 본거야. 어서 가 봐라. 몸이 이상한 것 같으면 재빨리 튀어오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때 진명의 등 뒤로 반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벌써 퇴원이야, 진 형? 설마 또 무리하는 건 아니지?”

뒤를 돌아보니 일령이 밝게 웃고 있었다. 덩달아 진명의 입가에도 그녀만큼이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우, 아우야 말로 몸은 괜찮아? 아우도 많이 다쳤었잖아.”

“나야 뭐 진 형에 비하면 다친 것도 아니지. 며칠 폭 쉬니 다 나았어. 그런데 영감님, 진 형이 벌써 퇴원해도 되는 거예요?”

당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남은 거라고는 폭 쉬고 잘 자는 것뿐인데,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하도 물려와서 쉬지도 못하니 내보내는 게 낫지.”

“사람들이 오다니요? 진 형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있어, 그런 게. 그런데 처자는 뭣 하러 왔어?”

“아, 진 형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마침 잘됐다. 진 형, 우리 사고가 진 형을 좀 보자 하시는데 기왕 퇴원하는 길이니 지부에 들렀다 가지 않을래?”

일령의 사고라면 아미파의 정화사태다. 평소 일면식도 없던 상태라 진명으로서의 의아한 얘기였다.

“정화사태께서? 나를?”

“응. 무슨 일인지는 나도 잘 몰라. 그런데 지부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야.”

“문제라니..... 평일지 그 자도 더 이상 없는데 왜 그런.....”

문제라는 얘기에 진명이 인상을 썼다.

이제 지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잠이 깰 진명이었다. 다 끝났다고 싶었던 일이 아직도 남았다 하니 흠짓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

진명의 표정에 일령이 그 마음 다 안다는 듯 코 끝을 문질렀다.

“그게..... 평일지 그 자가 사라져서 생기는 문제인가 봐. 화산파 내에서도 평일지의 거취를 두고 말이 많은 데다가, 소림을 비롯한 다른 문파에서도 반발하고 나서서 말이지. 자칫 하다가는 화산파를 두둔하는 파와 그렇지 않은 파들로 갈라질 낱새도 보이나 봐. 아미파도 이래저래 입장을 정해야 하고..... 그러니까 진 형에게서 직접 얘기를 듣고 싶으신 모양이던데? 아무래도 진 형은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잖아.”

“그래. 그런거라면 어쩔 수 없지. 아, 혹시 범여 대사님께서도 지부에 계셔? 먼저 대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계시지 않을까? 일단 가서 알아보지 뭐.”

진명과 일령은 일단 지부로 향하기로 합의를 본 뒤 당청의 의방을 나섰다.

武極 - Story Book

의방에서 지부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진명과 일령은 몸 상태를 고려해 여유롭게 움직였음에도 생각보다 빨리 지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어서 오시게.”

일전에 화산의 수량진인을 단독 대면했던 방이었다.

진명과 일령을 맞아주는 사람은 정화사태였지만, 방 안에는 범여와 수량진인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진명은 범여를 향해 꾸벅 절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인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부 내에 어디 계신지 몰라서.....”

“괜찮다. 여기 계신 정화사태께서 나도 이리 초대해 주셨으니 번거로움을 덜지 않았겠느냐. 어서 앉거라.”

“예.”

진명과 일령은 빈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그런데 위낙 각 문파의 장로급 인사들이 근엄하게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 서자니 혼 줄이 나기 위해 불러온 기분이 들었다.

“사고. 원래 이렇게 불편한 자리였어요?”

참지 못한 일령이 입술을 삐죽이며 말을 걸었다. 평소라면 일령이 어떻게 어리광을 부려도 대충 받아줄 법한 정화사태였으나, 지금 그녀는 더없이 엄하고 진지한 자세였다.

“조용히 하거라. 인사만 건네자고 부른 자리인줄 알았더냐?”

“그래도 아무런 언질도 없으시고.....”

일령이 쫓알대는 소리가 이어지자 수량진인이 칼 같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두 분타주를 부른 이유는 긴히 할 말이 있어서일세. 원래는 여양 분타주도 자리했어야 하지만 은밀히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상의 끝에 두 분만 불렀네.”

슬슬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했다. 청성에서도 몰라야 될 정도로 은밀한 이야기란 대체 무엇일까.

수량진인은 장내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다.

“장안성에서 연락이 왔네. 평일지의 처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군.”

“그래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심맹 내에서의 모든 직위를 해지하고, 본 파의 참회동에서 일 년을 거하는 것으로 했다네.”

내심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처벌이었다. 그런데 일령은 수량 진인의 말에서 뭔가를 짐작했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참회동이라구요? 그건.....”

“맹진 분타주의 생각이 맞을 걸세. 참회동이라 말은 하지만 기실 폐관수련이 되겠지. 일 년 뒤 평일지는 더욱 무서운 인물이 되어있을지도 모른다네.”

“그런.....”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진명과 일령의 표정이 변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자파의 기밀이자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숨김없이 말해주는 수량진인이었다.

“저어..... 외람된 질문인지는 알지만, 진인에게 꼭 여쭙야 되겠습니다. 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해주시는 거지요?”

수량진인은 일령의 질문에 진명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내가 등봉 분타주와 약조한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약조라고요?”

일령이 새삼스럽다는 표정으로 진명을 돌아보았다.

수량진인이 말했다.

“혈무련이 낙양을 치기 전에 등봉 분타주가 내게 와서 그 사실을 미리 알렸지. 그러나 나는 평일지를 더 믿었다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네.”

간결히 말하는 수량진인의 얼굴에는, 그러나 결코 간결하지 못한 고뇌가 진하게 묻어 나왔다.

자 파에 반하는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는 정화사태와 범여 대사는 나직하게 불호를 외었다.

“아미타불.....”

武極 - Story Book

그러나 수량 진인은 곧 담담한 신색을 회복했다.

“지금 화산과 내부에서는 작은 분열이 일고 있다네. 단심맹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화산에서 단심맹주의 자리를 차지한 뒤로 권력욕에 물든 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무는 도를 닦기 위한 수단임을 결코 잊지 않은 자들도 소수 남아있다네. 그들은 평일지의 파문을 요청하고 있네.”

그러니까 수량 진인도 그들 중 하나라는 소리였다.

정화사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허나 적전제자를 칼날처럼 파문할 수 있는 문파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외다. 진인께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도 좋소. 평일지가 저지른 일이 아무리 꽤심하다고는 하나,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역시 벌을 받고 있는 상태 아니겠소?”

수량 진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벌이 벌이라 할 수 없으니 반발하는 자들도 생기는 것 아니겠소. 허나 이 몸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너무도 보잘 것 없소이다. 평일지가 본 파에서 파문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뜻을 나눌 결심이 생긴 것이외다.”

진명이 물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자네가 낙양성의 지부장을 맡는 것일세, 등봉 분타주.”

“예에?”

놀람의 소리가 양 방향에서 터져 나왔다. 진명과 일령 모두에게서였다. 일령은 진명을 바라보았고, 진명은 범여를 바라보았다.

사실 등봉 분타주를 맡을 때만 하더라도 스스로 범여에게 얼마나 눈치가 보였던가. 그건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해도, 지부장이라는 위치는 결코 내켜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진명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범여는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방법이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하, 하지만..... 하지만 제자는.....”

진명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왜 낙양성 지부장이 되면 안 되는 가에 대한 이유가 순식간에 열댓 개는 떠올랐다.

하지만 모두다 사소하고 개인적인, 크게 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이유였다. 진명이야 생각이 다르겠지만 임완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말해줄 것이다.

말을 더듬는 진명을 보며 수량 진인이 입을 열었다.

“화산에서는 평일지를 그리 쉽게 내치지 않을 걸세. 그가 적전 제자라는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고수이기 때문일세. 그것도 매우 뛰어난. 지금은 한 명의 고수라도 아쉬운 판국. 결국 가진 힘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기이니 그런 자도 뻔뻔히 비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속가인데다가 배운 것이라고는 나한.....”

이번에는 범여가 진명의 말을 끊었다.

“무공은 더 배우면 된다. 뼈가 굳기 전부터 온갖 영약과 정성으로 무공을 익힌 자와 뒤늦게 시작한 네가 어찌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허나 네 자질만은 평일지보다 못하지 않는구나. 지금부터라도 네가 배우지 못했던 무공들을 익히면 된다.”

“하지만 무공이 배운다고 해서 똑딱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지부장이라고 하면 그만한 인맥과 재력도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너는 스스로 네 자신에게 인맥과 재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무도 태연한 범여의 반문에 진명이 입을 벌렸다. 진명과 임완춘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속가제자인데다가 배운 무공이라고는 몇 초식 되지 않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가지 정도가 다라는 것이었다. 그나마 인맥에 있어서는 진명이 외려 임완춘에게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범여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인맥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정화 사태와 수량 진인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고, 재력에 있어서는 만수 전장의

武極 - Story Book

일 대인과 등봉 세가의 등 가주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게다. 이만하면 평일지에 못지 않는다고 본다.”

“저, 그렇지만 그게.....”

“평일지가 일 년의 폐관수련을 마치고 돌아온다면, 그가 어떤 인물이 되어 있겠느냐? 무공은 더 강해진데다가 너에 대한 원한을 더욱 깊숙이 갈무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너는 그런 평일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지만 제자는 그 자와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자와 경쟁을 하고 싶지도, 그 자를 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같은 정파의 무인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반하는 관계에 두려 하십니까?”

“네가 원하지 않아도 그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아마 단심맹주도 말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단심맹주가 그의 손을 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 점은 진명 또한 지겹게 겪은 것이었다.

평일지는 마치 무턱대고 그에게 돌진해 오는 벽 같았다. 아무리 비켜가려고 해도 늘 그의 면전에 박치기를 하려고 들었다. 진명은 그 갑갑함을 뺏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꼭 제자가 분에 넘치는 직위에 오르지 않아도.....”

“그러니 너의 직위가 필요한 것이다. 설령 단심맹주라 할지라도 선불리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번듯한 지위가 있어야 한다. 낙양성의 지부장은 외려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여는 엄숙한 눈빛으로 진명을 응시하며 말했다.

“이것은 나의 뜻이기도 하고, 소림의 뜻이기도 하다. 네가 끝끝내 지부장의 직위를 사양한다면, 분명 단심맹에서는 새로운 지부장을 보낼 것이다. 그가 어느 파의 사람일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단심맹주라면 반드시 화산파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래야 일 년 뒤 평일지가 잡음 없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범여의 말에 수량 진인이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확신을 심어주었다.

“평일지가 지부장을 맡아 낙양성이 어찌 되었느냐? 너와 맹진 분타주가 없었다면 낙양성이 입은 피해는 더욱 더 막중했을 것이다. 너는 그런 일이 또다시 생기길 바라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네가 직접 나서서 잘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냐?”

그 말에 진명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어찌 없을 수 있었겠는가. 그 역시 생각이 많았다.

그가 평일지와 대등한 위치였더라면, 아니 아예 평일지의 위치에 있었다더라면, 겪지 않아도 좋을 일도 있었고 해볼 수 있는 일도 많았다.

무엇보다 일령의 목숨이 벼랑 끝에 매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맹진 분타의 수많은 백도군이 그토록 넋 놓고 희생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해준다.

다른 누구도 아닌, 범여 대사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자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범여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그리 말할 줄 알았다.”

정화 사태도 고개를 끄덕여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수량 진인이 말했다.

“그러면 맹에 서신을 보내겠소. 낙양은 차기 지부장으로 소림의 진명을 천거한다고. 그러나 분명히 한 차례 반발이 있을 것이외다. 그 점은 등봉 분타주도 각오를 해야 할걸세.”

진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정화사태의 말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견을 합치를 보았으니 이제 청성이 어떻게 나울지를 알아봐야겠소. 그쪽에서 행여라도 자파의 청풍을 천거한다면 골치가 아파질게요.”

그 말에 일령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꾸를 달았다.

“아마도..... 아닐걸요?”

武極 - Story Book

“음?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그대로예요. 청성에서 진 형이 지부장이 되는걸 반대하고 나설 리가 없다고요. 안 그래, 진 형?”

일령의 마지막 말은 새침하게 진명을 향하고 있었다. 진명이 순진하게 눈을 치켜 떴다.

“응? 그게 정말이야? 하지만 청풍 대협이라면 평일지와 같은 지부장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일령의 눈이 새침하게 가늘어졌다.

정말이지 꽤 씹힐 정도로 둔하고 순진한 남자다.

武極 - Story Book

2.1.3. 제 75 화 [걸림돌]

일령은 진명을 붙들고 얘기해봤자 더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포기했다.

“제가 알기론 청성에서는 아직도 진 형을 자파로 포섭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걸요? 그러니 걱정하실 것 없을 거예요.”

“흐음, 그러냐?”

문주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문주희 본인 뿐이겠지만, 일단은 한시름 던 셈이다.

수량 진인이 마무리를 지었다.

“나는 지금 즉시 맹에 보낼 서신을 준비하겠소이다. 여러분들은 각자 맡으신 일을 해주시길 바라오.”

다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나서려는 순간, 범여가 진명을 불러 세웠다.

“너는 잠시 나를 좀 보자꾸나. 네가 낙양의 지부장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해줄 터이니.”

범여의 음성에는 결코 속단할 수 없는 비장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범여는 진명을 지부 깊숙한 내원 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보는 눈이 있을까 경계하는 눈치였다.

진명도 덩달아 오감을 곤두세우며 다른 자를 경계했다.

“자, 이것을 보아라.”

범여가 건넨 것은 낡은 옷자락이었다.

군데군데 피가 뒤엉켜 붙은 그것은 고약한 냄새마저 풍기고 있어 시체에서 벗겨낸 듯 보였다. 진명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아라.”

옷자락을 들여다 보자 희미한 얼룩 같은 것이 뽀뽀하게 묻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얼룩이 아니라 누군가가 적어놓은 글씨였다.

…… 에 와서…… 보았…… 그러나

저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 정과 마가 어디에서 왔으며

근원…… 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여 도무지 알 수가 없습…… 하여 답을 구하러…… 좀 더 깊게……

글씨도 고르지 않았거니와 워낙 많이 훼손되어 있어 내용을 일거에 파악하기 힘들었다.

더듬더듬 글자들을 읽어나가던 진명은 범여에게 그것을 돌려주었다.

“제자는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서신입니까?”

“그렇다.”

범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범우 사형을 기억하느냐?”

“물론입니다. 제자가 처음 장안성에 갔을 때 저를 제자로 맞아주신 분이셨습니다.”

“이 서신은 범우 사형이 보낸 것이다.”

“예에? 범우 대사님이 살아계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범여는 찬바람이 뽀뽀 도는 돌부처나 다름없었다. 그에 비해 범우는 아무 것도 모르는 진명을 소림의 제자라며 다정히 대해주었다.

그러나 범우는 마교의 손에서 낙양성을 수복할 때, 마교의 고수인 염옥마와 맞서다 양패구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진명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한데 그 범우가 살아있다니!

진명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디에 계십니까? 장안성으로 돌아오셨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거동이

武極 - Story Book

불편하셔서 장안성까지 오시지 못하고 계신 것이라면.....”

범여는 가능한 냉정을 유지하려 하며 말을 이었다.

“이런 서신이 지난 몇 달간 해각 사숙께 전해졌다고 하더구나. 범우 사제는 살아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우 사형뿐만이 아니라 범문 사제도 살아있다는 것이다.”

진명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딱 벌렸다. 범문은 대화합의 날에 진명을 살리기 위해 대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자였다.

한사코 살아 남아서 해각을 만나라며 자신의 등을 떠밀던 범문을 어찌 잊을 수 있었겠는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진명의 주먹을 더욱 날카롭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범문의 목숨을 자신이 이어받았다는 죄책감과 사명감일 것이다.

“기쁘냐?”

진명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범여가 물었다. 진명은 가슴이 벅차올라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그러나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 남아있구나.”

“그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서신이 온 곳은 소림 본산이다.”

“예에?”

연이는 놀라운 소식에 진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범우 대사님과 범문 대사님이 소림에 계시다고요?”

“그래.”

범여는 말을 멈추고 짧게 불호를 외었다.

“그간 전해진 서신에 의하면 범문 사제는 실혼인이 된 듯 하다고 한다. 범우 사형은 어떻게든 그를 섭혼술에서 풀 방도를 구하다가 몇 가지 사실을 알아내었다고 하지. 그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 일단은 함구령이 떨어진 상태다.”

“제자 역시 몰라야 하는 일이라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니 꺼낸 말이다. 범우 사형의 서신에

의하면, 소림의 무공이 어찌면 마교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구나. 비단 소림뿐 아니라 정파의 모든 무공이 마교에서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듯 하다.”

“그..... 그런!”

진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자 갑자기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마교의 적나한. 살기 넘치는, 압도적으로 강맹하고 패도적인 나한권을 구사하며 그는 원래 나한권은 마교의 무공이라고 말했다.

설마하니 그 말이 사실인 걸까.

진명은 범여에게 적나한이 나한권을 썼다는 얘기를 했다.

“기운은 매우 상이었지만 분명히 그것은 나한권이었습니다. 적나한 본인도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우, 아미타불..... 아무래도 범우 사형이 알아낸 것이 전혀 근거없는 사실은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저쪽이 무공의 원류라 하면, 그렇다면 단심맹은..... 단심맹의 각 문파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범여는 손을 들어 진명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진명아. 그에 대한 대답은 지금 누구도 해줄 수가 없구나.”

새삼 그가 진명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는지, 그 짐이 대체 얼마큼이나 무거워질 수 있는지 애처롭게 다가왔다.

“그러니 너는 지부장이 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라.”

“어떤 준비 말입니까?”

“소림 본산을 칠 준비 말이다.”

“.....!”

범여의 손끝이 진명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이는 비단 범우 사형을 찾기 위함만이 아니다. 마교가 정파 무공의 원류를 갖고 있다면, 그 연유와 진위를 파악해야만 우리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지

武極 - Story Book

알겠느냐. 실로 네 책임이 막중한 것이다.”

범여의 음성에서는 안타까움과 더불어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진명이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제자 부족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지부장이 되는 것부터 생각하자꾸나.”

“예, 대사님.”

진명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착잡한 얼굴로 대답했다.

임완춘은 진명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평일지가 쫓겨나간 이 마당에 차기 낙양성 지부장을 할 인물은 진명 외에는 없다고 확신하는 중이었다.

맹진 분타주인 일령은 너무 어리고, 여양 분타주인 청풍은 문주희의 그늘에 너무 가려져 있었다. 더군다나 서문강이 이끄는 혈무련에 진명이 어떻게 맞섰는가를 떠올려보면, 확실히 그 말고는 다른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이쿠. 이거, 나도 이제야 아우님 덕을 좀 보겠군. 이제 이 임완춘이나 높은 것들 눈치나 보면서 설설 기는 시대는 끝이 났다 이거로구먼? 으하하하하.”

아무리 생각해도 신나는 일이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확실히 그에겐 사람 보는 안목이 제법 있었다.

“암암, 그렇지. 사람이 자고로 실력이 모자라면 줄이라도 잘 서야 되는 거야. 그게 다 생존의 지혜 아니겠나. 으흐흐흐.”

임완춘은 이런 생각들로 만족감에 깊이 젖은 채 침상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이 구질구질한 객잔 구석방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낙양성 지부장의 오른팔이라면, 지부 건물의 내원에 독립된 별채를 받을 지도 몰랐다.

“그렇게 된다면 시비는 특별히 예쁜 아이들로 골라 뽑으라 시켜야지. 내가 부관이라는데 누가 뭐랄쏘냐. 흐흐흐흐흐.”

그때였다.

탕, 탕탕.

누군가가 임완춘의 방문을 두드렸다.

달콤한 만족감에 젖어 막 꿈나라로 향하려던 임완춘으로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시간에 대체 누구야? 예의는 어디 갖다 팔아 먹었수?”

탕, 탕!

“어서 열게!”

상대는 조용히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했다.

“이런, 니미.....”

황!

임완춘은 성질대로 쿵쿵 걸어가 문을 확 열어 제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꼬리를 만 강아지처럼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엇, 아니 화순 진인께서 여긴 어쩐 일로다가.....?”

“긴히 할 얘기가 있어 왔다. 자리를 좀.....”

화순 진인은 원래 ‘자리를 좀 안내해라’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러나 쿼퀴한 냄새가 나는 임완춘의 비좁고 더러운 방 안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는지 이렇게 말했다.

“자리를 옮기자. 따라 나오너라.”

“아니, 이 야심한 시각에 나가긴 어딜..... 예서 말해도 엇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아는데요?”

“잔말 말고 나오너라.”

화순 진인은 불쾌감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리고는 핵 찬바람을 일으키며 방을 나섰다. 임완춘 역시 울며 겨자먹기로 그의 뒤를 따라야 했다.

“할 얘기란 게 무엇입니까?”

화순 진인이 은밀한 얘기를 하기에 안심되는 장소로 꼽은 곳은 이번에는 자신의 처소였다.

武極 - Story Book

‘내 방이나 지 방이나..... 원 참, 영감 하는 짓 하곤.’

임완춘은 얼굴 근육 위로 툭툭 불거져 나오려는 불만을 감추느라 꽤나 고생하며 입을 열었다.

“일단 앉아라.”

화순 진인은 임완춘의 지저분한 방 못지않게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애써 외면하며 근엄한 척 말을 건넸다. 사실 혼인도 안 한 중년 남자 혼자 사는 방이 말끔한 것도 이상한 노릇이다.

“그럼요.”

임완춘은 의자 위에 착 없어 있는 옷가지 하나를 밀어 떨어트린 다음, 그 위에 앉았다. 화순 진인이 일순 눈썹을 꿈틀했으나 그는 도사다운 아량으로 그 꼴을 묵인했다.

“너도 알다시피 본문의 일대제자 평일지 덕분에 내 입장이 좀 곤란해졌다. 소림에서는 딱히 그 일로 시비를 걸 움직임은 없다만, 사람 마음이야 짐작할 수도 없고 짐작해서도 안 되는 법. 화산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비라니요? 어떻게 말입니까?”

“평일지가 등봉 분타주라는 자를 해하려 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이 쪽에서도 할 말이 없다만 나는 평일지를 믿는다. 그가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내 너와 등봉 분타주가 약간의 친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끼익, 탁탁.

임완춘의 머릿속에서 당청이 말한, 그다지 성능이 좋지 못한 주판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약간의 친분 정도가 아니라 호형호제하고 있습죠. 그런데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냐? 그렇다면 더욱 좋구나. 네가 화산을 위해 큰 일을 해주어야겠다.”

“큰 일이라니요? 그게 우리 아우님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임완춘은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며 반문했다.

직감적으로 이 늙은 너구리 영감이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평일지가 그를 죽이려 했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라 하지 않았느냐. 유감스럽게도 평일지가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압송되었으니, 남은 우리라도 그것을 찾아야 한다. 가령 등봉 분타주가 사파의 밀정이었다면.....”

임완춘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어이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우님이 밀정이라니요? 나 참, 그럴 일은 세상이 두쪽나도 없을 테니 염려치 마십시오, 진인.”

“허허, 답답하구나! 그 점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네 임무가 참으로 크다는 것이다.”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요? 저더러 아우님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지 뒤라도 밟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수상한 짓거리가 있다면 마땅히 밝혀 내야지! 때마침 그가 너를 지인으로 알고 있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 아니더냐?”

“아니, 그러니까 수상한 짓거리가 있어야 말이지요. 진 아우가 어떤 사람인지 설마 제가 그런 것도 모른 채 의제로 삼았겠습니까? 까서 뒤집고 탈탈 털어도 먼지 한 발 날리지 않을 사람이 바로 진 아우란 말입니다! 나 이거, 답답해서 돌겠네.”

임완춘이 씨근덕대며 화순 진인에게 대들었다.

“답답한 것은 이쪽이다! 먼지 한 톨 없는 인간이라고? 내버려 두면 쌓이는 것이 바로 먼지니라! 천년만년 깨끗한 것이 세상만사 어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라고요?”

“내 긴밀히 얘기를 들었다. 보아하니 소림에서는 낙양성 지부장의 자리에 등봉 분타주를 앉힐 모양이다. 허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화산의 꼴이 너무 우습게 되지 않겠느냐? 너도 화산의 제자라면 이 점을 필히 생각해 보아야 할 터!

武極 - Story Book

그에게 암전히 평일지의 자리를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무슨 수라도 생각해 내야지 않겠느냐!”

임완춘은 입을 꾹 벌렸다.

“그, 그러니까 지금.....”

흥분해서 화급히 말을 쏟아내던 화순 진인이 수염을 쓰다듬는 척 하며 호흡을 골랐다.

잠시 후 그는 소맷자락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임완춘의 앞으로 밀어 넣었다.

“속가들의 사정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다. 지금 같은 때에 어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런 와중에도 본문을 위해 애써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이것은 내 성의라 생각하고 넣어두거라.”

임완춘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그 주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화순 진인은 몸을 낮춰 임완춘에게 좀 더 가까이 얼굴을 대고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어떤 것이라도 좋다. 꼭 사파와 연관 짓지 않더라도 흠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려주어라. 그리만 된다면 내 네 형편을 보아주십사 본 문에 청을 넣을 수도 있다. 나이든 속가가 정식 제자로 입문하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툑툑.

화순 진인의 손이 다정하게 임완춘의 어깨를 두드린다.

순간 임완춘은 묻고 싶었다.

‘당신, 내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있어? 그보다 내가 화산의 속가제자라는 건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분명히 요 며칠 사이에 들었겠지?’

라고.

그러나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알차 보이는 돈 주머니였고, 들리는 것은 정식 제자라는 말 한 마디였다.

“결심이 굳었다면 이제 그만 나가보거라. 혹여 보는 눈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武極 - Story Book

2.1.4. 제 76 화 [선택]

다음 날.

진명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갈 채비를 마쳤다. 그간 몸이 아프다는 구실로 벌써 분타를 내버려둔 지 몇 주야가 지났다. 밭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지부장이 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라지만, 아직 진명에게는 등봉 분타주라는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진명이 씩씩히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처럼 또 다시 시체부터 치워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이번에는 마음이 좀 더 가볍겠지.”

그가 막 대로를 지나 성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아우님! 아우님!”

저 멀리 어깨 너머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명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 형님. 이른 아침부터 어떤 일이십니까?”

임완춘이었다.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온 그는 진명의 근처에 와서야 달음질을 멈추고 땀을 닦았다.

“헉..... 아니, 아우님은 왜 그리..... 헉헉, 걸음이 빨라? 내 저어기서부터 이리 뛰어왔다고.”

생사를 오가는 연이은 전투를 겪으면서 진명의 무공은 한층 진일보했다. 전보다 몸도 더 가벼워졌고 당연히 발걸음도 빨라졌다.

“저런. 그러셨습니까? 제 귀가 아둔하여 형님 목소리를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아니. 그건 괜찮..... 하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그런데 아우님은 아침부터 어딜 가시나?”

“저야 등봉 분타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며칠 내버려 두었으니 손 볼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임완춘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뭐어? 또 뽕 밭에 나간다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아? 그게 다 평일지가 간악한 수를 부려서 그랬던 것 아닌가.”

“그래도 제가 해 온 일인걸요. 상전을 맡아줄 다른 자가 나서기 전까진 저밖에 돌 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등뇌달의 생각이 떠오른 진명은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평일지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진명이었다.

등뇌달의 시신은 벌써 등봉 세가로 옮겨가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진명은 상전에서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거야 등봉 세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냐? 왜 아우님이 계속 그 고생을 하는 건데?”

진명이 고개를 저었다.

“꼭 고생이랄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법 밭 일이 손에 익어 그런지 할 만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제 손으로 작물을 키운다는 게 참으로 보람찬 일이더군요. 그나저나 형님은 어떤 일이십니까? 제게 볼 일이 있으신 겁니까?”

진명이 묻자 임완춘이 손으로 이마를 탁, 쳤다.

“아차, 내 정신 좀 봐. 아니 그냥 아우님이 보이길래 얘기나 할까 하고 따라왔지. 그나저나 일전에 내가 의방에서 한 얘기는 좀 생각해 봤나?”

“의방에서 한 얘기라면, 지부장이 되라는 그 말씀 말입니까?”

“응. 그렇지. 나 말고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되지 않았어? 듣자 하니 소림에서도 아우님을 지부장으로 밀고 있다던데 말이야. 범여 대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던가?”

진명이 씩스럽게 웃었다.

武極 - Story Book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 정말? 그래서 아우는 뭐라고 했는가? 또 매몰차게 거절한 건 아니겠지?”

“이유가 있어서 한 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더는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다 싶더군요.”

어제만 같아어도 임완춘은 펄쩍 뛴 듯이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화순 진인과 잠시 얘기를 나눈 지난 밤 때문에 임완춘은 솔직히 기뻐할 수가 없었다.

“그래. 거 참 다행한 일일세. 아우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니 정말 다행이로구만.”

“걱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말 마시게. 범여 대사님께서 저리 밀어주고 계신데 뭐가 걱정인가?”

임완춘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은 어딘지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진인이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소림에서는 정말로 아우를 지부장에 앉힐 생각이야. 이거 정말로 화산의 처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인가?’

진명이 임완춘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만 들어가셔서 쉬시는 게 어떨지요.”

“응? 내가 그런가? 아, 그럼 가야 하나?”

임완춘은 어딘가에 정신을 빼놓은 사람처럼 허둥대며 대꾸했다. 그래서 진명은 정말로 그가 걱정스러워졌다. 평소와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던 탓이다.

“예. 들어가서 쉬십시오. 다른 걱정 마시고요.”

“아, 그래. 그럼 살피가시게, 아우님.”

“예. 몸조리 잘 하십시오.”

임완춘을 보낸 진명은 다시 걸음을 돌려 등봉 분타로 향했다. 그러나 잠시 뒤, 또 등 뒤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님! 아우님! 기다려!”

진명이 또 다시 걸음을 멈춰 섰다.

“응? 왜 저러시지? 오늘 정말로 어디가 안 좋으신 모양인데?”

헉헉 대며 달려온 임완춘이 진명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말했다.

“나도 같이 가세.”

“어딜 말씀입니까?”

“아, 등봉 분타 말일세. 생각해 보니 아우님이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예? 가서 쉬시는 게 낫지 않고요? 여차하면 제가 당의원님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임완춘이 열심히 고개를 저었다.

“아냐, 아냐. 나도 꼭 가야겠어. 나는 상관 말고 앞장 서시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가서 발 일을 해야 하니 형님께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서 가자고.”

그렇게 임완춘은 진명을 따라 나섰다.

진명은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안색만을 걱정했다.

‘오늘따라 임 형이 조금 이상하시군.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진명은 몸이 안 좋은 것 같음에도 자신을 굳이 따라가겠다고 하는 임완춘의 마음이 고맙기만 할 따름이었다.

마침내 상전에 도착한 진명은 임완춘에게 분타 건물로 들어가 쉴 것을 권했다.

“오늘따라 별이 뜨겁습니다. 누추하지만 형님은 여기서 몸을 추스르고 계십시오.”

“아우는 뭐 하게?”

“저야 하던 일을 해야지요. 일을 하려고 왔으니까요.”

“음, 그런가? 그럼 나도 예 있겠네. 아우님도 없이 나 혼자서 저 안 들어가 뭘 하라는 게야.”

“하지만 형님은 지금 몸이.....”

“아, 됐으니까 아우님은 빨리 볼 일 보시게. 나는 나대로 있을 테니.”

武極 - Story Book

임완춘은 뽕나무 그늘 아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어, 바람이 시원하니 별이 뜨거운 것도 모르겠구만. 지상낙원이 따로 없네.”

임완춘이 행여라도 쫓겨날까 있지도 않은 말을 둘러대며 자세를 잡는 것을 본 진명은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정 그러시다면 형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할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응, 그래. 다녀오시게나.”

진명은 빠른 걸음으로 임완춘의 곁을 떠나 상전으로 들어갔다.

일부 불에 탄 나무들과 무너져 내린 수로, 한차례 태풍에 휘말린 듯 우수수 떨어져 나간 뽕 잎들.

초위 일당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전은 복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진 않았다.

밭을 죄 갈아엎고 묘목들을 다시 심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진명에게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하지만 밭 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자무식인 임완춘의 눈에는 엄청난 일처럼 보인다.

“아, 아우님! 정말 이걸 다 손 볼 생각인가?”

임완춘은 진명을 향해 크게 소리를 내어 물었다. 저 멀리서 진명의 대꾸가 들려왔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보단 그래도 괜찮습니다. 얼마 안 걸리겠는데요?”

“뭐어?”

임완춘이 혀를 찼다.

“저 인간 무식한 거야 내 일찍이 일었지만, 설마하니 이걸 혼자 다 하겠다고?”

그때만 해도 임완춘은 긴가민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명은 정말로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불 탄 가지들을 잘라주고, 흙을 모아다 무너진 독을 채우고, 커다란 물독을 등에 메고는 열심히 뽕 나무에 줄 물을 실어 날랐다.

진명이 잠시도 쉬지 않던 몸을 멈춰세운 것은 정오가 다 되었을 무렵이었다.

“후우..... 며칠 자리를 비웠더니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군요. 형님은 좀 어떠십니까?”

진명은 임완춘이 먼저 자리를 잡은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오며 물었다. 사실 나무 그늘이라고 해봤자 뽕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간신히 콧등이나 가릴 수 있을만한 수준이었다.

자리에 앉자 진명은 주머니 안에서 땃잎으로 싼 만두 두 개를 꺼내어 하나를 임완춘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형님이 오신단 생각을 못해서 가져온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

임완춘은 진명이 준 만두를 손에 쥐고는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기만 할 뿐, 통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정말로 어디 편찮으신 게 아닙니까?”

진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었다. 그제서야 임완춘은 고개를 들고는 엉뚱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우님, 우리가 의형제를 맺은 게 언제지?”

“예? 아, 그건.....”

진명이 씩스럽게 웃었다. 사실 그들은 정식으로 의형제를 맺은 적이 없었다. 임완춘이 사람들에게 진명과 자신의 친분을 과시하느라 한 마디 꺼냈던 게 전부였다.

“아우님은 왜 나와 의형제를 맺었나?”

왜냐하면 임완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으니까, 가 정답이었다. 하지만 진명은 싱긋 웃으며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제게 형님 같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의형제를 맺을 분이라고는 형님뿐이니 그렇지요.”

“어째서 그런가?”

武極 - Story Book

진명은 새삼스러운 질문에 임완춘을 다시 걱정스럽게 쳐다보았다. 정말로 그는 뭘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잘못 먹어서 단단히 탈이 나가거나 한 모양이었다.

“아우님, 대답하시게. 나 정말로 묻는 걸세. 대체 아우님은 왜 나 같은 인간과 의형제를 맺었는가? 나도 아네. 난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우님께 폐가 될지언정 득이 될 리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도 왜 아우님은 날 형님이라 부르는 건가? 아우님은 이제 곧 낙양성 지부장이 될 몸 아니신가? 이제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 될 거란 말일세.”

이쯤되면 진명도 솔직한 대답을 해야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처음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상태로 장안성에 들어섰을 때에도 형님은 저를 아우로 대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그건.....”

양심이 있다면 진명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뭘 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의 임완춘은 그런 이유로 진명을 골랐다. 하나 알고 보면 더욱 진국인 것이 이 진명이란 사내의 매력이었다. 임완춘은 그 매력에 빠졌던 것이다.

임완춘은 좌우로 고개를 내저으며 다시 물었다.

“그, 그것 말고! 다른 이유!”

“제가 등봉 분타주가 되어 처음으로 분타로 나오던 날에 형님께서 새 옷도 사주셨지요. 제가 다쳐 당의원께 신세 질 때마다 형님께서는 늘 처음으로 병문안을 오셨고, 제가 잘 될 때마다 늘 곁에서 가장 먼저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쩌서 형제 사이가 아니란 말입니까?”

임완춘은 버럭 성질을 냈다.

“그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병문안? 그게 뭐 어렵던가? 이번에 병문안 온 사람만 해도 낙양성 절반은 채우겠는걸! 그리고 그 날 그 새 옷은 내가 사준 게 아니라 범여 대사님께서 부탁하신 걸세!”

진명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아, 그런 것이었습니까? 어쩐지.....”

“어쩐지? 그래, 어쩐지겠지! 내가 그런 새 옷을 척 사줄 만한 인간이 아니란 걸 아우도 알고 있다는 소리잖아!”

“오해 마십시오, 형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형님 사정도 뻔한데 그럴 만한 돈이 없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형님께서 혹여 어디서 돈을 꾸거나 하지 않았을까 저어 되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다행이네요.”

“다행? 다행이라고? 그게 어쩌서 다행인가! 그 옷을 범여 대사께서 주셨다고 진작에 털어놔요면 아우님은 그 분을 오해할 일도 없었을 것 아닌가!”

“오해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 그 옷을 형님께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저는 죄스러우면서도 기뻐고, 실은 범여 대사님께서 주신 것이었다고 하니 그것도 죄송하면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이 그거 아닌가! 내가 진작에 말했더라면 아우님은 더 기뻐했을 것 아닌가!”

“형님, 자꾸 왜 이러십니까. 정말로 어디 아프신 게 아니니까?”

지난 일을 털어놓아도 진명은 한 걸 같이 비슷한 말만 되풀이했다. 임완춘은 토악질을 하듯 한숨을 털어냈다.

“우리 솔직해 지자고, 아우님. 아우님 말대로, 아우님이 처음 장안성에 나타났을 때는 아우님은 그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강호초출이었지. 그런데 지금 아우님은 어떤가? 흑도군 대장이었던 야차를 죽이고, 마교의 적나한도 죽이고 등봉 분타주가 되더니 이제 낙양성 지부장까지 한다질 않은가? 아우님은 그 속에 실로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까짓.....”

임완춘은 아직도 손에 들고 있던 만두를 진명의 눈 앞에 들이댔다.

“이까짓 만두가 다 뭐란 말인가! 싹 다 갈아엎어야 될 이 뽕 발은 또 뭐고! 솔직해 지게, 아우님. 아우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겹지 않단 말인가? 이런 게 지긋지긋해서 지부장이 되겠다는 것 아닌가! 나 같은 인간이 아우님 옆에서 형입네 어쩌네 하는 게 지겹지 않냐는 말일세!”

임완춘이 외친 말은 기실 자신에게 향하는 말이었다.

武極 - Story Book

그는 정말로 진명이 그런 사람이라면 좋을 것 같았다.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지부장 자리를 덤석 하니 받아 챙기고, 그래서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가려서 의형제를 맺고..... 진명이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 진심이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양심이 들쑤시진 않았을 테니까.

임완춘이 제 멋대로 펄떡거리는 양심을 억지로 내리누르며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진명은 암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 지부장이 아니라 등봉 분타주입니다. 상전을 가꾸는 것은 등봉 분타주가 할 일이고요. 이 만두는 제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저뿐 아니라 낙양성에 사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매일 같이 점심으로 만두를 먹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거나, 질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형님이 계셔야 제가 낙양성 지부장 노릇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명은 임완춘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등봉 분타주를 할 때도 그랬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때 형님이

찾아와 주시곤 했지요. 제가 낙양성 지부장이 되어도 형님은 그럴 것이고, 혹여 제가 평일지처럼 쫓겨난다 하더라도 형님은 또 저를 찾아와주실 분 아닙니까?”

“옥..... 나는..... 그, 그런.....”

평일지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는 주먹으로 양 눈가에 번져나오던 눈물을 닦아냈다.

“나 가봐야겠네, 아우.”

“예? 갑자기 어딜 가십니까?”

“갈 데가 있어. 아우님은 따라오지 마시게.”

아무지게 말한 임완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명의 곁을 떠났다. 가는 방향으로 보아 낙양 성내로 돌아가는 듯 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오늘 따라 왜 저러시지?”

진명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남은 만두를 마저 먹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오늘 할 발 일을 마저 해놓고, 등뇌달을 위해서 분향이라도 한 다음 나한권 수련을 해야 했다.

武極 - Story Book

2.1.5. 제 77 화 [내공심법]

낙양성 지부의 집무실.

화순 진인과 수량 진인이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놓인 싸늘한 찻물과 손도 대지 않은 다식이 두 사람 사이의 거센 침묵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둘은 벌써 한 마디 말도 없이 한 시진을 보냈다. 수량 진인 측에서 화순 진인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고 있었던 탓이다.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가 아닐 터. 노쇠한 측이 먼저 암전히 자리를 내놓고 물러남이 어떨는지?”

수량 진인은 화순 진인보다 이십여 년 가까이 오래 살았다. 그가 낙양성에 와서 고문이랍시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가 이제껏 이 환란에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순전히 그 이십 년이라는 세월 탓이었다.

장문보다 나이가 많으니 문에서는 그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뒷방 늙은이라 할지라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호로 문파라는 욕을 들어먹을 게 뻔하니까.

수량 진인은 화순 진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시진이 넘게 조개처럼 꼭 다물려 있던 입이 웬일인지 툭 터져서 말들을 쏟아낸다.

“자네 말이 틀리지는 않네. 나도 물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허나 이 상태로 물러날 수 없지. 화산에도 질서와 기강이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말일세.”

그 고집스럽던 노인네가 이제서야 본심을 털어놓는다. 화순 진인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고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질서와 기강? 그런 건 너무 속 편한 소리가 아니오? 화산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와 함께 기회를 맞이하는 중. 그런 식의 늙은이들 향수에 젖어 시국을 그르칠 때가 아니외다!”

“그래도 정도는 밟아야 하지 않겠나? 정도라는 것은 세월과 같아서, 한 번 비켜나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까마득히 흘러가 버리는 걸세.”

화순 진인의 입에서 저절로 쌍 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자보자 하니까, 이 늙은이가! 기어이 문파를 배신하고 소림과 손을 잡겠다는 거요?”

황!

그 때였다.

마치 누군가 적절한 순간을 노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문이 황 열렸다. 깜짝 놀란 화순 진인은 일순 검을 뽑아들 뻔 했다.

“죽고 싶으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 건방지고도 무례한 자는 일전에 그가 친히 돈 주머니까지 쥐어서 보낸 바 있는 속가 제자였다. 이름이 뭐였더라, 임 어찌구라고 했을 것이다.

“당장 나가지 못해! 예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드는 게야!”

임완춘은 어깨에 힘을 꽉 주고는 시퍼런 눈길로 자신을 노려보는 화순 진인을 응시했다.

“돌려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한참 찾았네요.”

“뭐라고?”

화순 진인이 혀를 찰 새도 없이, 임완춘은 품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돈주머니를 꺼내어 바닥에 툭 집어 던졌다.

“이딴 것, 필요 없습니다.”

가뜩이나 노친네와 되지도 않는 신경전을 벌이느라 심기가 불편했던 화순 진인은 눈에서 쌍심지가 피어 올랐다.

“뭐, 뭐라는 것이야! 지금 어느 앞이라고 이리 건방지게 구는 것이냐? 필요가 없다고? 주제를 알아야지, 대체!”

武極 - Story Book

솔직히 말한다면 임완춘은 그가 무섭기도 했다.

그러나 사내가 마음 먹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개갱하며 꼬리를 말고 돌아설 순 없었다.

“내 주제에 그런 돈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온 겁니다. 진 아우에게 뭐 구린 게 없나 뒤를 캐보라 하셨지요? 그 대가로 이 돈을 주셨고요? 저는 그럴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돈, 돌려드립니다.”

임완춘이 어젯밤의 비사를 폭로하자 화순 진인은 당장에 그가 꽤 씹하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수량 진인이 어떨까가 염려되었다. 황급히 수량 진인을 돌아보자 그는 늘 물처럼 멀뚱멀뚱하던 표정을 싹 지우고는 노기에 달라올라 있었다.

“헛..... 돈을 쥐어주며 남을 약점을 캐라고 했다고? 그것이 정녕 화산의 기회란 말이더냐?”

수량 진인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자네 때문에라도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내놓지 못하겠네. 이 점은 장문에게도 이를 것이니 그리 알고 있게!”

수량 진인은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무실을 나섰다.

문파의 어른이 저리 나오자 임완춘은 한층 더 용기를 얻어 하고픈 말을 마저 토해냈다.

“거, 제가 아직 진인 만큼 살지는 못했지만 세상살이가 아무리 더러워도 지켜야 할 정도는 있는 법입니다! 지금 십대문파가 모두 개박살난 통에 니 파 내 파 가리는 게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게 소위 명문정파라는 우리 화산에서 할 짓입니까?”

“.....”

화순 진인에게서 호통 소리가 나오지 않자 임완춘은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다.

“평일지 그 자는 아무리 같은 화산이라고는 하지만 하는 짓은 음험하고 조잡스러워 험잡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 자는 백을 데려다 놔도 우리 진

아우 하나보다 못할 줄 압니다! 낙양성 지부장은 마땅히 진 아우가 해야지요. 암, 그렇고말고요!”

“.....할 말은 다 했느냐?”

어느 순간, 화순 진인이 물었다.

서늘한 눈빛에 살기가 즐기줄기 뿜어 나온다.

임완춘이 화순 진인의 살기를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순간 임완춘은 등골을 쭉 훑는 긴장감에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예? 아, 그게 그러니까 저어.....”

“할 말은 다 했느냐 물었다. 네 놈이 이승에서 할 말 말이다.”

임완춘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와중에 진명이 생각났다.

그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늘 앞으로 나아가던 진명!

살아 생전 진명처럼 한 번은 살고 싶지 않았던가.

임완춘은 다리를 부들거리고 떨면서 있는 힘껏 소리쳤다.

“에, 에이 씨발! 그래 말 다 했수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뭐, 뭐라고? 씨, 씨발? 이 놈이 지금 누구 앞에서...!”

잠시 움츠러들었던 임완춘의 어깨가 다시 펴졌다. 고민하던 어제가 거짓말 같았다. 할 말을 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것을, 뭘 끄끄대며 앓았을까 싶기도 했다.

“여튼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저는 가보겠수다!”

존대말과 반대말이 섞인 기묘한 어투였다.

화순 진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가보겠수다?”

“가보겠수다!”

이왕 이렇게 된 것, 거의 막가는 수준이 된 임완춘이었다.

임완춘은 당당하게 떠나려 했다.

그러나.

“잠깐.”

武極 - Story Book

“뭐요?”

뻥!

느닷없이 눈에 별이 보였다.

쿠당탕탕!

임완춘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화순 진인이 주먹을 쥐고 뒤흔들었다.

“이 주제도 모르는 것이! 감히 누구 앞에서 그 천박한 혀를 놀리는 것이냐! 정도가 어찌구 어째? 평일지가 뭐 어떻다고? 너란 놈이 화산의 속가제자랍시고 강호에서 굴러먹었다간 화산의 이름이 더럽혀질 터! 오늘 여기서 네 그 하찮은 목숨을 거두겠다!”

화순 진인은 자비와 아량이라는 두 글자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공들여 임완춘을 두들겨 찼다. 아마도 좀 전에 수량 진인에게 당한 화풀이성 보복도 독하게 포함되어 있는 듯 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임완춘과 수량 진인뿐 아니라 범여와 진명도 싹 다 같이 묶어 두들겨 패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일장에 박살을 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임완춘을 때려 죽일 수는 없었다. 이미 수량 진인이 다 알아버린 이상 임완춘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 점이 원통해서 화순 진인은 더 임완춘을 정성껏 두들겨 찼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낙양을 떠나기 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였다.

임완춘은 화순 진인의 인정사정 없는 손아귀에서 벗어나자마자 당가 의방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나 죽겠다, 한 마디 만을 남긴 채 실신해 버리고 말았다.

어지간해서는 놀라지 않는 당청도 임완춘의 꼴을 보고는 꽤나 놀랐다.

“이건 어디서 쥐 터졌길래 사람이 아니라 걸레 짝이 됐어?”

소식은 빠르게 전해져서 그 다음 날 일령과 진명은 바쁜 시간을 쪼개 문병을 왔다. 그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임완춘은 이제까지의 일들을 전하며 이를 박박 가는 중이었다.

“아, 정말이야! 정말이라고! 내 두 번 다시 화산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을 테다. 내 앞에서 화산이 어찌구 하는 작자가 있거들랑 이 임모와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줄 알라고!”

일령은 깔깔대고 웃고 싶었으나 얼굴이 통통 부은 임완춘의 앞에서 차마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다.

“킁, 킁킁..... 그러게 누가 겁도 없이 장로한테 덤벼들래요? 그것도 씨..... 하고 욕을 했으니. 킁킁.”

“큘.”

“진인께서 손속에 인정을 뒀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한 칼에 그어버렸으면 어찌려고 했어요?”

“아, 진인께서는 무슨! 나 이제 화산 아니래도! 이제사 하는 말이지만, 화산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알량한 삼류 무공 초식 두어 개가 전부 아냐!”

임완춘이 침을 튀며 말하자 일령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삼류라니요? 화산의 무공이 어째서 삼류예요?”

“죽자고 배워봤자 쓸 데도 없으니 하는 말이지! 아우님을 보라고! 나한권 한 초식만으로도 야차를 때려잡지 않았나? 진짜 명문 정파의 초식이라면 능히 그래야지!”

답이 없다는 듯, 일령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거야 진 형이 다른 건 몰라도 나한권 만큼은 제대로 하니까 그렇죠. 임 형이 어디 그래요? 우리 앞이니 망정이니, 혹여 화산파 다른 사람이 들어 봐. 임 형은 그대로 파문일걸요?”

임완춘이 왈각 성을 내며 외쳤다.

“그깟 파문! 하라 그래! 누가 무서워 한다고 그래? 아니, 내가 먼저 나와버릴 테다.”

“아이 참, 큰 일 낼 양반이야. 파문이 어디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문을 떠나려면 당연히 문에서 얻은 것은 두고 가야죠. 단전도 파괴하고 근맥도

武極 - Story Book

절단한단 말이에요.”

“뭐? 그..... 그, 그래도! 니미, 내가 더러워서라도 그 끝은 못 보겠네. 까짓, 할거면 하라고 해!”

임완춘은 단단히 화가 난 탓인지 결코 입을 쉬지 못했다.

그러자 당청이 나섰다.

“냅뉘. 보아하니 저 놈 저거, 무식해서 단근절맥이 뭔지 모르는 게야. 백 날 애기해 봤자 입만 아프지.”

임완춘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영감? 나는 무식한 게 아니라 그까짓 게 두렵지 않은 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응, 그렇지. 단전 파괴가 두려울 게 뭐 있겠나. 어차피 내공심법은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단전도 없을 게 뻔한데 말이야. 암암.”

“노인장!”

여기서 진명이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임완춘은 다 죽을 정도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는 기어코 당청과 한 판 붙었을 것이다.

“저어, 내공심법이라는 게 무공을 배우는 데 많이 중요한가?”

진명의 물음에 일령과 당청이 황당한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설마 진 형..... 이제껏 내공도 쌓지 않았던 거야?”

“허. 이거 참, 정말로 나한권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생 초짜였구만.”

진명이 곤혹스러운 얼굴로 뉘통수를 긁었다.

“그게..... 나한테 처음 무공을 가르쳐 주신 각원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소림사의 내공 심법이 적힌 비급이 소실되었다 하셨어. 그래서 삼대 제자 이후로는 내공을 익히기 지난하다고.....”

“그렇구나.”

당청이 끼어들었다.

“소림 뿐만이 아니다. 다른 문파들 역시 마찬가지야. 본래 마교에 맞서기 위해 단심맹에 속한 문파들은 각각의 내공심법을 모아 하나의 내공심법을

만들었느니라. 그것으로 막강한 후인들을 양성할 계획이었지.”

그 이야기는 일령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쫓쫓.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교의 역습이 더 빨랐지. 아마 그것들은 대부분 폐허가 된 문파 본산 어딘가에 굴러다니거나 마교의 손에 들어가 있을 게야.”

일령이 고개를 살짝 고덕여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진명을 위해 설명을 마저 이었다.

“무공은 크게 내공과 외공으로 나뉘는데, 외공이 신체를 단련하는 것이라면 내공은 기를 축적해서 그것을 단련하는 거야. 무공을 배우는 초기에는 누구나 외공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내공은 천천히, 단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신체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대자연에서 오는 기는 한계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면 당연히 내공이 외공의 성취를 훨씬 뛰어넘게 되지. 뛰어난 무인은 내외공이 고루 발달한 사람이라지만, 사실 내공이 훨씬 더 중요해. 내공을 익히면 신체적으로 불리했던 점들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절정의 신법 같은 거, 그런 건 사실상 내공 없이는 불가능해.”

일령의 자세한 설명에 진명은 대충 내공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

“그럼 평일지 그 자도 내공을 익히고 있나?”

“그렇지. 그 자가 진 형보다 무공이 한 수 위인 건, 내가 볼 때 순전히 내공 탓이야. 진 형이 진작에 내공을 익혔으면 지금쯤은 어마어마한 고수가 되어 있었을걸. 그 자, 서문강 못지 않았을 거야.”

서문강이라는 말에 진명이 잠시 주먹을 꼭 움켜 쥐었다.

아직도 생생했다. 그 자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패도적이고도 섬뜩하던 기운.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파괴적이면서도 눈물이 흐를 만큼 아름다웠다.

“흠, 그래. 그런 게 내공이란 말이지.”

“그리고 보니 내공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수들과 대적했담?”

일령은 새삼 진명을 다시 보았다.

진명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내공을 익히고 싶었다. 아니, 어떻게

武極 - Story Book

해서든 익혀야 한다는 생각에 진명은 갑자기 조바심이 들었다.

“저기, 나 갑자기 가볼 데가 생각 났어. 먼저 가 볼게.”

진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다들 놀랐다. 무공에 관해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진명이었다. 그만큼 무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크다는 증거다.

“앵? 이대로 가게? 아, 아우님. 거 너무하네. 오자마자 후딱 가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병문안이야?”

임완춘이 서운했던지 투정을 쏟아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진명의 편에 섰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명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으니 은근 속이 상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내일도 올 터이니 몸 조리 잘 하고 계십시오. 지금은 제가 급히 생각난 일이 있어서요. 그럼.”

후다닥 인사를 마친 진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의방을 떠났다.

진명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이 저마다 어이 없는 눈빛으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저 놈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왜 저래?”

“글쎄요. 아무래도 내공 심법을 익힐 방도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그게 찾는다고 뚝 떨어지나? 그럼 십대 문파가 요 모양 요 꼴이 났을라고?”

“아무래도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던 일령이 갑자기 한숨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진 형이 내공을 익힌다면 정말 대단한 고수가 될 텐데.”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허나 그 전에 진명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2.1.6. 제 78 화 [자라탕]

진명이 달려간 곳은 지부 내에 범여 대사가 있는 곳이었다.

“범여 대사님! 여쭙 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범여는 땀투성이가 되도록 달려온 진명을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워낙 무표정한 얼굴인지라 진명은 그게 미소인지조차 몰랐다.

“그래, 무슨 일이냐? 모습을 보니 어지간히도 마음이 급한 모양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내공 심법을 찾을 수 있는 방도가 없겠습니까?”

“내공 심법을?”

잠시 범여의 얼굴이 굳었다.

마교의 침공으로 인해 중원의 문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젊은 고수들의 목숨이 아니었다. 바로 십대 문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요 무공들을 소실했다는 점이었다.

각 파의 장로들과 일대제자들이 포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시기는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마교와의 오랜 전쟁을 끝낸 훗날을 위해서라도 젊은 세력들이 계속 양성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젊은 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간인 무공 비급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다. 그야말로 강호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소림의 장경각에는 천 년의 역사와 함께 모아오고 발전해온 수 많은 무공 비급들이 있었다. 비단 소림의 무공뿐 아니라 다른 파의 무공도 있다. 개 중에는 오래 전에 실전되어 비급으로만 남은 무공들도 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마교의 손아귀에 남게 되었으니 실로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 장경각에 출입할 수 있다면 오죽 좋겠냐 마는, 우리 둘만의 힘으로 그럴 수는 없거니와 마교가 장경각을 온전히 보전해 놓았다는 보장 또한 없구나.”

설명이 길었다.

단지 방법이 없구나, 라는 말을 내뱉기가 싫어 이렇게 빙 돌렸는지도 모를

일이다. 말을 마친 범여의 얼굴에는 짙은 수심이 가득했다.

“어느덧 네 녀석도 내공 심법을 욕심 낼 때가 되었구나. 나 역시 너에게 내공을 전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만..... 후우, 하늘도 무심하구나. 어째서 우리는 본산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지냐.....’

“그렇군요.”

진명 역시 안타까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범여는 그런 진명을 달래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다.

“외공만으로 내공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외공을 한계까지 익힌다면 어느 정도는 내공이 가져다 주는 이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 너는 이제껏 나한권만으로 너보다 훨씬 강한 고수들을 상대하지 않았더냐?”

그 점은 진명도 알 수 있었다.

범여는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진명의 생각을 내공 심법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했다.

“나한권은 강맹한 무공이다. 그것을 연달아 펼칠 수 있다면, 강맹함은 배가 된다. 허나 초식을 연이어 잇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절정의 고수들이 초식을 잇는데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이유는, 모자라는 신체의 힘을 대신해 주는 내공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허나 너는 내공이 없으니 오로지 네 힘으로 초식을 이어야 한다.”

진명이 대답했다.

“제자는 같은 초식을 연이어 두 번 시전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적나한을 상대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범여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진명은 그를 놀라게, 그리고 즐겁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초식 수련의 극한에 이르러 외공만으로 내공에 가까워진 것이다.

범여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초식을 연이어 전개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힘의 배분이다. 두 번째로 펼친 초식이 처음에 비해 힘이 약해진다면 상대에 따라 쉬이 막힐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속도다. 두 번째 초식을 전개할 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힘을 낼 수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초식을 이어야 한다. 너는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련에 임해야 한다.”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진 범여였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진명에게 주고픈 범여는 갈수록 말이 많아졌다.

진명이 나한권을 다 익히면 무엇을 가르쳐 줄까를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는 범여였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 번 해보거라.”

진명은 범여의 지도아래 나한권을 펼쳤다. 나한권을 연이어 펼쳐내기 위해서는 범여가 말한 것처럼 힘의 배분이 중요했다.

진명이 뻗는 주먹과 발에 세찬 바람이 인다.

극한까지 초식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증거.

보기만해도 범여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지금은 위력보다 어떻게 초식을 이을지 몸으로 생각하며 움직이거라."

"예!"

진명이 다시 초식을 연이어 펼쳤다.

"나한권은 강맹하지만 곧은 나무는 부러지기 마련이다. 대나무처럼 부드럽고 탄력있게 초식을 전개하거라. 그리하면 위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되느니."

진명은 범여의 말을 되새기며 초식의 수련에 열중했다.

조금씩 초식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진명을 보며 범여는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다.

'내공이 있었다면 이 녀석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터인데.'

진명도 범여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초식 수련에 열중해야 했고, 열중할 수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진명은 적어도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세 초식을 연달아 쓸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입원 이튿날.

임완춘은 뜻밖의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임 대협?”

이 달콤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문주희였다.

문주희가 의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꽃이 만개한 화원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임완춘은 저도 모르게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무무무무무.....문소저! 어어어어어어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야!”

임완춘의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언제 어디서나 기름칠 한 듯 술술 굴러가는 혀였는데, 문주희를 본 순간 안타깝게도 그는 말더듬이가 되고 말았다.

문주희는 임완춘의 환대에 호호, 하며 웃었다.

“몸도 불편하시다 들었는데 가만 누워 계세요. 이리 멀쩡해 보이면 문안 인사를 온 소녀가 되려 민망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그그그그렇군요요! 제가 생각이 짜, 짧았습니다!”

기세 좋게 대답을 마친 임완춘은 다시 잼싸게 침상에 드러누웠다. 그 동작에 문주희가 또 다시 웃음소리를 높였다.

“호호. 임 대협께서는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네요. 곁에만 있어도 소녀가 지루할 틈이 없겠습니다.”

“그그그그그러십니까? 이거 여영광입니다!”

한 차례 웃음이 잦아들자 문주희는 병문안용으로 들고 온 보따리를

武極 - Story Book

풀어놓았다. 풀자마자 구수한 냄새와 함께 따듯한 기운을 내고 있는 그것은 자라탕이었다.

“이것, 별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회복에 도움이 되라고 가져왔습니다. 애석한 것은 소녀의 손재주가 일천해서 맛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요.”

임완춘의 눈이 휘둥그레 졌다.

“이이이이이이것을! 문 소저께서 직접! 고고고고고고고으셨다는 말입니까아! 이렇게 황송할 데가!”

임완춘은 저도 모르게 자라탕이 담긴 솥을 덥석 집어 들었다.

“앗 뜨거!”

그러다 곧 울상을 짓고는 손을 떼었다. 문주희는 다시 한 번 깔깔대며 웃었다.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아직 매우 뜨겁습니다. 소녀가 한 그릇 떠서 드리겠습니다.”

“어이쿠, 그런! 그런 황송한 일이.....”

임완춘은 열에 들뜬 어린애마냥 안절부절 못하며 방정을 떨었다. 곁에서 그 꼬락서니를 지켜보던 당청이 찻찻 혀를 찼다.

“하는 짓 하고는..... 아, 그 자라탕 주지마. 먹으면 더 아플 게 뻔한 것을 왜 주나.”

임완춘의 안색이 핵 변했다.

“아, 영감! 그게 무슨 소리슈? 우리 문 소저께서 이 고운 손으로 직접 고아온 자라탕이 병을 키우다니. 그럴 리가 있나!”

“밤새 불끈불끈하다 그 다음 날이면 기운이란 기운은 쪽 빠질 게다, 이 놈아! 자라탕은 뭐 아무나 먹는 줄 알아? 고집 피우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그럴겐 못하오!”

임완춘은 뜨거운 솥을 와락 끌어안고는 아예 입을 대고 왈각 마셔버렸다.

“어머나, 임 대협!”

문주희는 깜짝 놀란 척 임완춘을 바라보았다. 임완춘은 삶은 솥 단지 같은

얼굴이 되어 간신히 이런 말을 토해냈다.

“마마마마.....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 소저! 아, 뜨..... 아 뜨거!”

혀가 푹 익어버린 탓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임완춘을 보며 당청은 그저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간신히 눈물을 참아낸 임완춘이 인사랍시고 이런 말을 꺼냈다.

“정말 문 소저께서는 얼굴 못지 않게 마음도 고우십니다. 저는 이제껏 이렇게 정성스러운 병문안 선물은 처음 받아봅니다. 아주 황송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어머나. 그럴 리가요. 진 대협이나 령 아우가 진작에 다녀갔을 텐데요.”

“어이쿠! 어찌 그것과 이것을 비교합니까! 두 아우들은 과자나 좀 사왔을 뿐이고, 그나마 그것도 저기 있는 당 영감이 훌쩍 다 먹어버렸습지요. 이렇게 직접, 그 꽃 잎처럼 보들보들 고운 두 손으로 직접 끓였을 이 귀한 자라탕하고 어디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자라탕은 소요루의 숙주가 대충 만들어줬을 뿐이었지만, 알게 뭐란 말인가. 임완춘은 설령 소요루의 숙주가 와서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문주희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믿을 게 틀림 없었다.

이 정도 거짓말로는 속눈썹 하나 떨릴 리 없는 문주희는 태연한 안색으로 본론에 들어갔다.

“어머나, 그랬군요. 그나저나 요새는 저도 진 대협이나 령 아우를 통 보지 못하겠네요. 진 대협은 무얼 하고 지내시나요?”

“진 아우 말입니까? 뭐, 하는 짓이야 매일 똑같지요. 등봉 분타에 가서 발 일을 하거나..... 아, 맞다. 등봉 세가의 가주가 다시 상전을 맡기로 했답니다. 원래는 무릎이라고 꿇고서 싹싹 빌었어야 했는데, 마음 좋은 진 아우는 그냥 별 말 않고 상전을 넘겨주었답니다. 원, 그렇게 물러서야 어디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지..... 찻찻.”

문주희의 눈이 반짝 빛났다.

“낙양성 지부장이라고요? 언제 얘기가 그렇게 되었죠?”

武極 - Story Book

임완춘이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아니, 문 소저께서 그 일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림과 아미에서 차기 낙양성 지부장으로 진 아우를 추대하기로 했답니다. 진 아우 역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청성에서도 진 아우를 지지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문주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었다.

“그야 당연한 일이죠. 청성에서는 그 이전부터 늘 진 대협을 믿고 지지하는 쪽이었지요. 그 사실은 임 대협께서도 잘 아시지 않나요? 호호호.”

그러나 속에서는 불꽃이 일렁이는 중이었다.

‘소림은 둘째치고, 아미에서도? 하, 어이가 없군. 그러면서 그 애길 하는데 청성을 쏙 빼놨단 말이야? 대체 무슨 공공이들인 거지?’

임완춘의 이야기가 귓가로 계속 흘러 들어왔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낙양에 진 아우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화산은 그게 못미더워서..... 나 참, 그러고 보니 제가 왜 이 꼴이 되었는지도 모르시지요?”

“예? 아, 그렇지요. 호호.”

임완춘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날쌔게 입을 움직였다.

그는 화산의 화순 진인이 자신을 어떻게 비열하고도 치졸한 수로 꼬드겼으며, 적전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그 엄청난 유혹을 자신이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단박에 거절했는지를 장황하게 풀어놓았다.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그런 더러운 말을 지껄이는 화순 진인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도저히 그런 개수작을, 아 죄송합니다. 이거 문 소저 앞에서 제가 너무 험한 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나, 무슨 그런 말씀을. 그 정도야 소녀도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계속 말씀 하세요.”

그러나 마치 꿀처럼 달달한 말투와 그녀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그래서, 대체 이 지루한 얘기가 언제 끝나냐고. 이 멍청한 작자야. 내가 그런 개소리나 주워들으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임완춘은 신이 나서 들뜬 목소리로 계속 지껄여댔다.

“..... 해서, 제가 이런 꼴이 됐습죠. 그러나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단근절맥의 참화를 겪고 파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그런 게 바로 진정한 대협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화산에서는 그토록 반발이 심한가요?”

임완춘이 핵핵 고개를 내저었다.

“물론입니다. 아, 제 꼴을 보십시오. 대체 평일지 따위가 어찌 우리 진 아우와 비교가 된다고 그러는지, 원 참. 화산은 다들 눈이 먼 모양입니다.”

문주희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받았다.

“하지만 평일지가 만만찮은 고수라는 점은 사실이지요. 물론 인성 면에서는 진 대협과 비교도 되지 않지만 말이에요.”

“흥! 평일지가 진 아우보다 무공이 앞서는 것은 순전히 내공 탓 아닙니까. 진 아우가 소림의 내공 심법을 익힐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혈무련의 서문강보다 더욱 뛰어난 고수가 될 것인데!”

임완춘은 엇그제 일령이 했던 말을 제 말인 양 입에 담았다.

“네에. 그건 물론 옳아요. 하지만 바로 그 내공 심법이 문제지요. 범여 대사께서는 진 대협에게 내공 심법을 전수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어이쿠, 그게 아닙니다. 소림에서는 본산을 마교에게 빼앗길 때 내공 심법이 담긴 비급들도 모조리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범여 대사께서도 그것 때문에 애타고 계실 겁니다.”

“어머, 그래요? 진 대협께서는 내공 심법을 익히고 싶어하긴 하시던가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야 당연한 말이지요! 저도 내공 심법을 익힐 수만 있었다면 이 꼴로 여기 누워있진 않을 겁니다.”

임완춘이 제법 비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제 땀에는 진명이 가끔 멋있어 보일 때를 흉내 내 본 것이지만 문주희는 다른 생각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보지 못했다.

‘내공 심법이라?’

武極 - Story Book

별안간 문주희가 생긋 웃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른 것이 틀림없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그럼 몸조리 잘 하시지요.”

느닷없는 작별 인사에 임완춘이 허둥대며 문주희를 바라보았다.

“예? 아, 아니 벌써 가시게요? 더 할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요. 그럼 이만.”

문주희는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는 산뜻한 걸음으로 임완춘을 떠났다.

“흐읍!”

임완춘은 아쉬운 표정으로 문주희가 앉았던 자리에서 한껏 코를 넓혀 그녀가 남기고 간 내음을 맡았다.

“아아..... 이것이 바로 청성의 붉은 향기! 이 임완춘에게도 드디어 절세미인이 다가오는 것인가!”

대답처럼 당청의 혼잣말이 다가왔다.

“쫓쫓쫓. 저 놈이 드디어 실성한 게로구만. 쫓쫓.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누.”

武極 - Story Book

2.1.7. 제 79 화 [유혹]

십대 문파의 요즘 사정이야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청성만이 남달랐다. 청성은 장로들과 일대제자를 모두 잃은 대신 문파의 본산을 지켰고, 그리하여 무공 비급도 어느 정도는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었다. 본산은 지켰으되 남은 것은 잿더미였다.

더구나 몇 남지도 않은 인원으로 본산을 지킬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청성 역시 눈물을 머금고 단심맹에 합류하게 되었다.

어쨌거나 비급은 건졌으나 그 무공을 이어서 배울 자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지금 청성의 최대 문제였다.

만일 진명이 간절히 내공을 익히길 원한다면, 그것을 미끼로 그를 유혹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했다.

“공을 좀 들인 보람이 있었군.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문주희의 머릿속이 착착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이제 문주희는 복잡한 생각 따위는 집어치우기로 마음 먹었다.

애초에 십대 문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던가. 그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굳이 마교의 침공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금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했다. 강호에서 무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생존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신진 고수를 처음부터 키워낼 여유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것은 단지 평화롭던 때의 화려한 추억이었을 뿐이다.

지금 청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말 할 것 없이 진명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다.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존재를 두 눈 뜨고 놓치는 일은 없어야 했다.

사실 그간 그녀가 해왔던 갈등과 번민은 죄다 쓸데 없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진명만 잡을 수 있다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문주희는 의방을 나온 그 길로 청풍을 찾아갔다. 청풍은 늘 그렇듯 여양 분타에 있었다.

“대라신공이 필요해요.”

문주희가 다짜고짜 말을 꺼내자 청풍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급이 필요하다고요. 어디 있죠? 본산에 있나요?”

“장문께서 따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본산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아버지께 달라고 해야 하나? 아버지는 지금 장안성에 계신가요?”

청풍이 문주희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비급이 왜 필요한지부터 여쭙 봐야 순서일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이번에는.....”

문주희가 피식 웃었다.

“이번에는 무슨 짓을 저지를 작정이냐고요? 그렇게 말하시니 제가 꼭 사고나 치고 다니는 말썽쟁이가 된 것 같네요?”

청풍이 얼굴을 굳히며 답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걸 알고 계시잖습니까. 대라신공의 비급은 본파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자 보물입니다.”

“네네, 나도 알아요. 안다구요. 그게 본 파에 남은 유일한 살림밀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밀천을 팔아 살림 좀 꾸려 나가자고요.”

“아가씨, 이 일은 아무래도 장문께서 직접.....”

탕!

문주희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늘 그랬다. 청풍은 늘 이따위로 어정쩡하다.

청성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늘 이것저것 재는 것이

武極 - Story Book

많았다. 이걸 이래서 안되고 저걸 저래서 안 된다고 했다. 그를 보면 왜 십대 문파가 오늘 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를 알 것도 같다.

그래서 문주희는 청풍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경멸스러웠다.

“직접 뭘요? 아버지는 단심맹에서 다른 문파들을 견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신 양반이예요. 화산은 늘 호시탐탐 본산을 노리고 있고, 아미는 이 참에 구대 문파를 만들려고 들죠. 소림은 어떨죠? 청성이 어찌되든 관심이나 있나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여기, 이 낙양 땅에서!”

한껏 소리를 내지른 문주희는 곧 표정을 바꿔 청풍을 바라보았다. 마음 속 깊은 곳을 속속들이 살피고 있다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눈빛이다.

“비급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청풍 대협. 아버지는 분명 마지막 남은 일대제자인 대협에게 비급을 건네시며 대성을 이룰 것을 당부하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 그건..... 그것을 어떻게.....”

속내를 들킨 청풍이 말 끝을 흐렸다. 문주희는 그 꼴이 한심해 견딜 수가 없었다.

“됐으니까 날 위로하려 들지 말아요. 아버지께서 계집인 나보다 둔재인 당신이 더 빨리 대라신공을 대성할거라고 판단하신 것은, 청풍 대협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비급이예요. 난 그것을 미끼로 진 소협을 낚을 참이니까, 혹시 내가 그것을 어딘가 팔아먹을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래서 타 문파의 사람에게 본 문에 남은 마지막 재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진 소협을 낚을 수만 있다면 이자까지 두둑이 버는 셈이 되겠죠.”

“그는 소림의 제자입니다. 물론 그가 본 문의 제자가 되겠다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소림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고려를.....”

“그만!”

이제 지긋지긋하다. 문주희가 그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담아 낸 얼굴로 청풍에게 최후통첩을 건넸다.

“그 따위 구질구질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비급이나 내놓으세요. 제 입에서 얼마나 잔인한 말이 나와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

문주희와 청풍이 말 없는 눈빛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닌 눈빛이었다.

“사고,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일령은 낙양성 지부를 방문했다. 그녀의 사고인 아미파의 정화사태가 전령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맹진 분타에서 낙양성까지는 가깝다고도, 그렇다고 아주 멀다고는 할 수 없는 거리였지만 일령은 군말 없이 사고의 명령을 따랐다.

왜냐, 진명이 낙양성 지부장이 되는 데 정화사태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진명에게 감투 욕심이 없듯, 일령도 사실 그런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녀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진명이 어디에서건 제 몫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평일지가 진명을 없애기 위해 그토록 집요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일령이 받은 충격은 생각 이상이었다.

적은 꼭 마교나 혈무련뿐이 아니었다. 진명은 바로 이 낙양성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다.

그렇기에 진명이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계속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 나가고, 그를 따르고 아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직접적으로 그의 수하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진명은 단심맹의 주요인사가 되었다. 그의 적은 어디에나 있었고, 그것은 단심맹 내부나 낙양성 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일령은 진명이 낙양성 지부장이 되는 데 있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그를 도울 작정이었다.

“너와 긴히 할 얘기가 있어 불렀다. 이리 앉거라.”

“네, 사고.”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암전히 정화 사태 앞에 앉았다. 이어지는 정화 사태의 얘기는, 일령이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한 것이어서 일령을 몹시 당황케 했다.

“네 앞에서 말을 돌려 할 필요가 없으니 솔직히 물으마. 그는 너를 정인으로 생각하느냐?”

“예? 그게 무슨.....”

잠시 당황하던 일령은 곧 손을 내저었다.

“아니, 사고! 그건 또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가 잘 아시잖아요?”

“내 눈에는 그리 보이니 묻는 것이다. 정말 그와는 아무 사이가 아니더냐?”

“그, 그게.....”

일령이 몹시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아니면 어때요. 상황이 이런데 저한테 무슨 정인이 있다고 해도 시집을 가버릴 것도 아니고요. 차암, 사고는 대체 왜 이러신대요?”

“상황이 이러니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정화 사태가 뜻밖에도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다시피, 십대 문파는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 모두 헐벗고 굶주리는 처지가 되었지. 그러니 서로 알량한 밥그릇들을 가지고 악다구니를 써대는 상황이 되었구나. 문 밖에 적이 있든 없든 말이다.”

“사고.....”

“아직 어린 너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다만, 아미라고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더냐. 내 볼 때 화산과 소림은 이미 타협할 곳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둘 중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십대 문파가 올라탄 단심맹이라는 배는 아직까진 산으로 가고 있진 않았지만, 조만간 그리 될지도 몰랐다. 배에 오르기 전에도 서로를 경계하던 사공들이 배에 탄 지금은 아예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미는 화산보다는 소림이 믿을 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허나 믿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아미는 그 대가를 확인하고 싶구나.”

일령이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사고, 그 말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들을만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소림에 아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말이다. 그 자가 너의 정인이라면 한 번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예에?”

일령이 눈을 크게 떴다.

이제서야 정화 사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확연히 알 수 있던 탓이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사실 정화 사태는 파배기를 빚어 일령에게 던진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는 내가.....”

“선부른 오해는 말거라. 그를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그와 돈독한 사이가 될수록, 아미와 소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일령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진 형하고 내가 뭘 어떻게.....”

정화 사태가 일령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놓았다.

“령아. 너는 네 사부의 마지막 제자였다. 그만큼 네 사부가 네가 들인 공이 적지 않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하나뿐인 여식이라는 이유로 네 부친이 정식입적을 반대했기에 네가 속가로 남았지만, 아미에서는 너를 정식 제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너도 잘 알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사실이였다. 일령은 속가제자였지만 정식 제자 못지 않게 많은 가르침과 관심을 받았다. 아미파의 금정 신니가 그녀를 직접 제자로 삼았고, 그래서 일령은 유례없이 높은 배분을 이어받았다.

그것은 모두 아미가 그만큼 일령을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아미의 상황이 이러지만 않았다면, 너는 그저 어여쁜 제자로 남았을 것이다.

武極 - Story Book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너도 알지 않느냐. 너는 이미 아미의 미래가 되었다. 네 어깨가 무겁다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라.”

일령이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사고.”

“그러니 다시 한 번 말하마. 너는 그와의 관계를 결코 허투루 여겨선 안 된다. 네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네 마음은 이미 그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감히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 스스로 진명을 위해 아미의 도움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명과 일령이 관계가 돈독할 수록, 아미와 소림 쌍방이 이익을 얻어갈 것이라는 정화 사태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사고.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래. 너를 위하는 일이 아미를 위하는 길이다. 그 점만 명심하면 되느니라.”
툑툑.

정화사태의 손이 한층 더 다정하게 일령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자가 낙양성 지부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네가 맹진에 계속 있어서는 안될 것 같구나. 너도 지부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이다. 맹진 분타주는 네 사매인 연주 사태에게 말기도록 하자꾸나.”

이 때까지만 해도 정화사태의 생각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귀여운 막내 제자의 연심도 돕고, 겸사겸사 혼사가 될지도 모르고, 아미도 함께 자구책을 도모하고.....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명확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쪽이 아미파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 대협! 저 왔어요.”

마치 정인처럼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이 여인은 물론 문주희였다.

이제는 상전에 나가 일할 필요가 없어진 진명은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늘 연무장에 붙어 있었다.

지금도 그를 멋대로 사부라고 부르는 등봉 세가의 아이들에게 나한권을 지도해주는 중이었다.

“문 소저! 어쩐 일이십니까?”

진명이 깜짝 놀라는 얼굴로, 그러나 반갑게 문주희를 맞았다.

진작에 인사를 했어야 하는 문주희였다. 그와 일령이 서문강을 상대하는 동안, 문주희는 낙양성안에서 평일지의 음모를 밝혀내느라 분주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진명이 겪었어야 할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고 커졌을 것이다.

“어쩐 일이라니요? 당연히 진 대협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 찾아왔지요. 그간 소녀에게 너무 무심하셨던 것 아닌가요?”

문주희가 가볍게 투정을 섞어 말하자 진명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뒤통수를 벅벅 긁어댔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에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경황이 없어 뵈서.....”

그 사이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문주희의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느닷없이 등장한 묘령의 여인에게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보였다.

“우와, 예쁘다.”

“사부님 애인이예요?”

“에이, 사부님한테 애인이 어디 있어. 애인 아니죠? 그렇지?”

문주희는 아이들의 관심 어린 시선에 수줍게, 혹은 수줍은 척 미소를 지었다.

“호호, 글썸다.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도 소림의 속가제자니?”

“네! 그래서 진 사부한테 나한권을 배우고 있어요.”

“범여 대사님 말씀이, 나한권은 소림에서 진 사부가 제일 잘한댔어요!”

“빨리 나한권을 배워서 다음에는 검술도.....”

아이들과 문주희의 대화가 길어지자 진명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등봉 세가의 아이들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무공을 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서 수련을 마저 끝내라. 이렇게 게으름 부리다간 저녁밥도 거르고

武極 - Story Book

해야 될 걸?”

“에이, 사부님 이러기예요? 애인이 왔다고 농땡이치는 건 사부님인데?”

“그래, 맞아. 사부님은 놀면서 우리만 수련하는 게 어딴..... 아야!”

딱! 딱딱!

“이 녀석들! 사부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느냐? 한 대씩 더 맞기 전에
어서 가지 못해?”

진명의 주먹이 불을 뿜었다.

"히잉, 사부님이 제자를 때린다!"

"적나한과 혈무련을 박살낸 살인주먹으로 우릴 때리시다니!"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녀석들."

진명의 입가에도, 문주희의 입가에도 웃음이 어렸다.

武極 - Story Book

2.1.8. 제 80 화 [질투]

아이들은 입을 비죽 내민 채 진명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시 나한권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진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씩스럽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정신 없으셨죠? 저 녀석들이 원체 제 말을 안 들어서.....”

“아니에요. 보기 좋아요. 임 대협께 듣기로는 등봉 분타의 상전은 다시 등봉 세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인 모양이군요.”

“예. 다시 이전처럼 소작농에게 상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야 농사에는 원체 일자무식이었으니, 다행한 일이지요. 이제는 낙양이 예전처럼 다시 종원에서 제일 가는 비단 생산지가 될 겁니다.”

“무너졌던 낙양의 양잠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진 대협이 되겠군요. 등봉 가주는 진 대협에게 큰 빛을 졌네요.”

진명이 손을 내저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발을 망치거나 않았으면 다행이지요.”

문주희가 그런 진명을 보며 고혹적인 눈웃음을 흘렸다.

“지나친 겸양은 미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점이 진 대협의 매력 중 하나긴 하지만요.”

“예? 아,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점도 매력적이고요. 호호.”

진명의 얼굴이 귀밑까지 벌겋게 변했다. 가끔 문주희와 있을 때면 진명은 불편함을 느꼈는데, 지금이 그렇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었다.

진명은 곤혹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청풍 대협은 강녕하신지요? 그 뒤로는 통 뵈 째미 없었네요.”

“물론 잘 계시지요. 청풍 대협이야 언제나 청풍 대협다우니까요. 그나저나 제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아, 물론 궁금하지요. 하지만 방금 전에는 인사 때문이라고.....”

문주희가 돌연 까르륵, 하는 웃음을 터트렸다.

“네네, 그랬지요. 하지만 고작 인사만 여쭙려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진 대협을 찾아와서 안녕하셨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돌아가면 진 대협은 당혹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아, 물론 그럴겠지만..... 그게 사실은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게 참.....”

진명은 계속 찔찔 매는 자신이 어딘가에 말려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럴 땐 차라리 솔직해 지는 것이 나았다.

이윽고 진명은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럼 묻지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어마, 그새 사람이 달라지네요. 딴 사람 같아요.”

“아뇨, 저는 정말로 묻는 겁니다. 제게 볼 일이 있으십니까?”

진명이 더는 자신의 뜻대로 휘둘리지 않을 것을 판단한 문주희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진 대협이 그렇게 나오시니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볼 일이 있어 왔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문주희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그러나 결코 수줍은 기색 따윈 없이 진명을 바라보았다.

“대협을 뵈고 싶어서요. 제가 찾아오기 전에는, 진 대협이 먼저 저를 찾아주시지는 않으니까요.”

“그..... 그런.....”

그래서 진명은 또 다시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다. 문주희는 그 틈을 놓치지

武極 - Story Book

않았다.

“설마하니 아직도 제 마음을 모르시진 않으시겠지요? 네, 소녀는 진 대협이 뵈고 싶었습니다.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라 어제, 그제도..... 늘 항상 진 대협이 소녀의 마음 속을 떠나지 않으셔요. 항상 곁에 있고 싶고, 곁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고..... 자꾸만 자꾸만 그런 마음이 일어 소녀는 요새 몹시 괴롭습니다.”

어느덧 문주희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이 글썽이고 있었다.

이 눈물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사내는 이 순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문주희에게 그런 마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문 소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진명 또한 문주희가 지금 하는 고백이 거짓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너무 당혹스럽고 놀란 나머지 문주희의 어깨를 덩석 붙들었다.

“우, 울지 마십시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때문이라면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저께서.....”

문주희가 젖은 눈을 깜박거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다.

“지금 하신 말이 정말인가요? 소녀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주실 건가요?”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진명이 허둥대며 말을 잊지 못하자 문주희는 더 이상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라면..... 더는 말씀하지 마세요. 소녀는 그런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아니 그게 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은 도무지 해보질 않아서.....”

진명이 뒤통수를 벽벽 긁어댔다.

“그게..... 저는 지금 제 일만 해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껏 해 오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마교를 중원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듯 합니다. 그것은 청성도 마찬가지로 일거란 생각입니다. 문 소저께서도 매우 바쁘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게.....”

문주희가 젖은 눈으로 생긋 웃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 대협은 마교를 몰아내기 전까진 이 일을 서로의 가슴에 덮어두자는 것이로군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지요.”

문주희가 눈을 내리깔며 살며시 진명의 손을 잡았다.

“네. 소녀는 그 말을 약조로 삼겠습니다. 대협께서 정말로..... 제게 큰 힘을 주셨어요. 소녀는 오늘 해주신 약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 문 소저. 그게 아니.....”

그 때였다.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야무진 소리가 들려온 것은.

“약조? 무슨 약조? 그거 참 궁금한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 샌가 일령이 팔짱을 끼고 서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앙? 그 약조라는 게 대체 뭐야, 진 형? 나한테도 말해 줄 거지?”

입가는 웃는데 눈은 살기를 머금었다.

그녀의 시선은 절대 문주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물론 문주희도 마찬가지로였다.

두 사람은 지금 서로에게만 들리는 말을 눈으로 주고 받는 중이었다.

‘이 년이. 또 무슨 수작질인 건데? 너 허튼 짓 하면 내 손에 죽어.’

‘저리 꺼져. 너하고는 볼 일 없으니까. 너야말로 방해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이 년아.’

이미 진명은 문주희에 관한 오해 덕분에 일령에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다.

자라보고 놀란 다음에는 솔뚜껑만 봐도 겁을 먹는다고, 진명은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벌써부터 안색이 노랗게 뜰 지경이었다.

武極 - Story Book

“아, 아우! 그러니까 그게!”

“응? 그것 참 궁금해지네. 뭐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게’ 대체 뭔데?”
여전히 입은 생긋하고 웃는데 눈빛은 섬뜩하다.

“그러니까 아우가 생각하는 그런.....!”

문주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 그래요. 괜한 오해는 말아요, 령 아우. 나는 그저 인사차 들른 거니까.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아우도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문주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했다.

여기서 일령이 꼬치꼬치 따지고 든다면 진명이 그런 게 아니라 어쩌구 저쩌구 변명을 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주희는 일령과 진명이 서로를 바닥까지 파헤쳐서, 마치 첫 눈처럼 새하얗게 아무런 의심도 없는 사이가 되길 원치 않았다.

대신 문주희는 진명에게 ‘우리가 한 약조는 우리 둘만 알고 있기로 해요’라는 식의, 일령도 뻔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달콤한 눈짓을 보냈다.

“할 말? 무슨 말? 이제는 제발 진 형을 데리고 나 몰래 수작질 걸지 말라는 말?”

일령이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문주희는 들리지 않게 이를 갈았다.

“이 년이 이제는 제대로 한 판 붙자고 나서네. 내가 질 것 같아?”

“으흠, 무슨 그런 말을.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 마음에 안 내켰는데..... 왜, 내가 그 때 아우와 진 대협을 위해 화산의 압력을 무릅쓰고 평일지의 비리를 밝혀내지 않았어요? 공치사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진심이 오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이에요.”

이번에는 일령이 한껏 코웃음을 쳤다.

“공치사라는걸 알기는 아네. 그런데 어쩌다가 진 형이 진 대협이 되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 소협 아니었나? 진 형이 그새 나이를 먹었나 보지?”

그러자 문주희가 진명을 바라보며 웃었다.

“어마, 그러게요. 제가 계속 대협, 대협 이렇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소원해 보이겠죠?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건 어떨까요?”

나일로 따진다면야 문주희가 진명보다 한두 살 더 많았다. 물론 문주희가 나서서 제 나이를 밝히지 않는 한, 진명이 이를 알 리가 없지만 말이다.

“뭐? 오라버니? 진 형이 오빠이긴 한 거야?”

“어마, 물론이죠. 설마하니 제 나이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죠?”

“당연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생긴 게 그러니까.”

문주희가 피식 웃었다.

“생긴 걸로만 따지자면 령 아우가 더 문제죠. 이제 갓 사춘기를 벗어난 나이처럼 보이니까. 물론 하는 짓도 그렇고요.”

일령이 무시무시한 눈초리로 문주희를 노려보았다.

“할망구!”

“발육부진.”

“쓸데없이 진 형한테 들러붙을 시간에 주름 관리나 좀 하던가.”

“아우는 좀 더 잘 먹도록 해요. 그래야 가슴도 좀 여자다워지고 그러죠.”

“뭐야? 내 가슴이 어떡.....!”

문주희가 재빨리 일령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일령과 다투는 것도 꽤나 재미있었지만, 날카로운 신경을 드러낼수록 진명에게서 점수가 깎일게 뻔했다.

“그리고 누가 쓸데없이 들러붙는다고 그래요? 나는 진 오라버니께 할 말이 있어 온 거예요.”

호칭이 또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일령이 진명에게 오라버니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또 한 번 열이 받는 순간이었다.

문주희는 품 안에서 색이 고운 비단으로 정성껏 감싼 무엇을 꺼내들 었다. 그녀의 표정이 무척 진지하게 변해 있었다.

“이것은 청성의 대라신공이 담긴 내공서입니다.”

진명이 깜짝 놀라 입을 벌렸다.

“예? 아니, 그런 것을 왜 가져 오셨.....”

武極 - Story Book

“오라버니께서 해주신 약조의 증표로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부디 받아주세요.”

“예에? 이런 것을 제가 감히.....! 그보다 저는 받을 이유가 없는..... 문 소저께서도 아다시피 저는 소림의 제자입니다. 타 문파의 무공은 배워서도 안되고, 배울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공심법을 어찌.....”

문주희가 표정을 흐렸다.

“그러지 마세요. 오라버니는 누구보다도 더 대라신공을 익힐 자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성은 비급이 남아있다고 한들, 그것을 익힐만한 제자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로 실전이 되느니, 누구라도 익혀준다면 그게 더 낫겠지요. 허나 문파의 비급을 아무에게나 내줄 수는 없는 법! 그러니 진 오라버니께 부탁 드리는 것입니다.”

“새 제자를 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말고도 청성의 대라신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자들은 많을 줄 압니다.”

“그런 자들 모두를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청성의 무공만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고 어찌 믿겠습니까? 지금 소녀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진 오라버니 한 분뿐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문주희의 표정이 너무도 간절해 보여서 하마터면 일령도 어서 받으라고 말할 뻔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한 문 파의 절기가 고스란히 담긴 비급을 어찌 마음대로 다른 자에게 그냥 줄 수 있단 말인가! 문주희의 행동에는 뭔가 다른 속셈이 숨어있을 게 뻔했다.

일령은 고개를 마구 흔들었다.

“속지 마, 진 형. 분명 뭔가 더러운 공공이가 있을 게 뻔하다구.”

그러나 진명은 뜻 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일령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문 소저.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마음만은 고맙게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부디 거두십시오.”

“오라버니는 이미 저를 가지셨으니, 청성의 모든 것도 가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비급은 그저 그 증표일 뿐입니다.”

일령의 눈에 쌍심지가 켜졌다.

‘저 여우가 대체 뭐라는 거야! 누가 뭘 가져?’

그 전에 진명이 힘차게 도리질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청성에는 청풍 대협도 계시고 한데 어째서 그런.....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문 소저. 그건 도리가 아닐 줄 압니다. 저를 도리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라버니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외람되지만 제 친부가 청성의 장문이십니다. 그런 제가 문파 간의 도리를 모를 리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주희는 누가 봐도 애처로울 정도로 안타까운 어조로 계속 말을 이었다.

“한 때 청성에서는 오라버니께서 소림을 떠나길 원했던 적도 있지요. 네, 그런 것이 오라버니의 말씀처럼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겠지요. 이제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오라버니께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좀 더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문 소저.....”

“나한권을 익힌 소림의 제자는 대라 신공을 익히면 안 된답니까? 이미 십대 문파는 각 파의 내공서를 모아 하나의 내공심법을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라버니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청성에서 그러길 원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하나라도 더 많은 고수가 필요한 때 아니겠어요? 하지만 소림에서는 오라버니께 내공심법을 가르칠 수 없지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 도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림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

진명이 입을 다물었다.

문주희의 말은 도무지 거짓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자꾸만 욕심이 생겨났다.

武極 - Story Book

‘내공 심법..... 소림에서는 이제 배울 수 없는 그것. 정말로 익힐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일령이 했던 말이 귓가를 기웃거렸다.

-내공만 있었어 봐! 진 형은 서문강 못지 않은 고수가 되었을 거야!

범여 대사의 말도 있었다.

-외공만으로는 결코 내공을 넘어서 수 없다. 하지만.....

진명의 마음에 번뇌가 들어섰다.

'내가 강해져야 마교와 싸우고 소림을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진명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문주희를 바라 보았다.

武極 - Story Book

2.1.9. 제 81 화 [심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문주희의 말처럼 그리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다. 대라 신공을 익히게 된다면 진명은 더욱 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했다. 더군다나 그는 저 비급 하나로 청성에 결코 갇힐 수 없는 빛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뻘한 사정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공을 익히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만 속에서 충돌을 일으켰다.

그런 진명을 보며 문주희는 속으로 어림 계산을 마쳤다.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하는군. 좋아. 그게 시작인 게지.’

문주희는 한사코 굳어있는 진명의 손에 비단보로 싼 비급을 기어코 쥐어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청성의 무공은 익힐 수 없다 여기서만 그저 갖고만 계셔도 되고, 나중에라도 소녀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오라버니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문주희는 얼떨결에 비급을 전 진명의 손을 힘있게 잡았다 놓았다.

“소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문주희는 행여나 진명의 갈등이 끝날까 봐, 행여나 진명을 대신해 일령이 거절할까 봐 서둘러 자리를 떴다.

“.....”

문주희가 떠나고 난 뒤 한 동안 말이 없던 일령이 불쑥 입을 열었다.

“나도 가야겠다. 나중에 봐, 진 형.”

그렇게 떠나려는 일령을 진명이 황급히 붙들었다.

“잠깐 기다려 봐, 아우.”

“왜?”

일령이 새초롬한 표정으로 진명을 쳐다보며 대꾸했다. 진명은 일령이 화가

났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했다.

“왜 말리지 않았어?”

“뭘 말이야?”

“이것. 내가 이 비급을 받는 것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어?”

일령이 어이없다는 듯, 진명의 어깨를 툭 쳤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우가 말렸으면 이걸 받지 않았을 거야. 대체 왜 말리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일령이 갑자기 소리를 왈칵 질렀다.

“진 형이 원했잖아! 그러니까 진 형이 거절하질 못했던 거잖아! 그걸 왜 나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건데?”

“.....”

진명이 입을 닫았다. 일령의 말이 옳았다. 자신이 비겁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일령에게 대신해 달라고 하다니, 이전의 진명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만큼 강해지고 싶다는, 서문강을 뛰어넘을 만큼 강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진명의 내부를 갉아먹고 있다는 소리였다.

“그러니까 진 형이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 말을 끝으로 일령을 핵 몸을 돌려 뛰어갔다.

다시 진명이 혼자가 되자, 멀리서 그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등봉 세가의 아이들이 참았던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우리 사부님..... 결국 다 채었나봐.”

“그러게 양다리는 하는 게 아니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니까?

武極 - Story Book

장주님이 생전에 늘 말씀하셨잖아.”

“그러게.”

“그렇지만 사부님, 능력 있었구나. 저렇게 예쁜 여자들이 돌씩이나 있었다니.”
아이들이 수근거렸다.

"아, 난 돌 중에 누가 더 예뻐?"

"나? 난 길쭉길쭉한 여자가 좋더라."

"난 귀여운 여자가 더 좋은데."

"난 돌 다."

"이 바보들."

등올여가 팔짱을 끼고 잘난 척 말했다.

“그럼 뭐 하나구. 결국 이렇게 채였는데! 에이, 바보 같이. 들키거나 하고
말이야. 기왕 양다리를 할 거였으면 머리를 썼어야지.”

“그건 그래.”

진명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일령의 속내도 그리 편한 것은
아니었다.

양 볼을 통통 불린 채 일령이 찾아간 곳은, 결국은 가장 확실한 그녀의 편인
정화 사태였다.

“사고, 어디 돈으로 살 수 있는 내공 심법 같은 거 없어요?”

“뭐라?”

정화 사태는 이 뜬금없는 이야기에 실소를 했다.

“그 무슨 실 없는 소리를 하는 게냐. 세상에 돈으로 사는 내공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묻는 거잖아요. 어디 가난한 무공광이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제자를
못 받는 그런 문파 없을까요?”

“허..... 네 아무래도 수련은 게을리 하고 무협지를 많이 본 모양이로구나.
그런 쓸데 없는 얘거나 하려거든 연무장이나 한 번 더 가봄이 어떻느냐?”

연무장이라는 얘기에 일령이 푸우, 숨소리를 뿔어냈다.

“그렇잖아도 방금 거기서 오는 길이에요, 사고.”

“그래?”

하지만 일령은 수련을 하다 온 사람처럼은 보이지 않았다. 옷 매무새도
말끔했거니와 땀 한 방울 흘리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네 쌍검을 챙겨 다시 가보는 것이 좋겠구나. 연무장은 산책을 하는
곳이 아니니 말이다.”

“아이 참. 누가 산책하다 왔대요? 사고는 청성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꿈에도 모르실 거예요.”

“청성에서?”

말이 나온 김에 일령은 문주희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꼬치꼬치
일러버렸다. 중간 중간 욕설과 비방이 섞이긴 했지만, 정화 사태는 노련한
불제자답게 그 부분을 알아서 흘려 넘겼다.

“.....응응. 그래서 말이죠, 그 여우 같은 게 대라 신공을 통째로 넘겨
주더라니까요? 내가 진짜, 발육부진이 어찌고 할 때도 참았.....”

“무에야?”

정화 사태가 일령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는 벌떡 일어섰다.

“뭘 넘겨줘? 그 말이 사실이더냐?”

“그랬는데요? 그런데 왜 사고.....”

“이런 께썤한 것! 아미와 청성이 번연히 한 하늘 아래 등을 맞대고 있는데
감히 제가 이런 짓을 벌여?”

정화 사태는 쿵쿵 발소리를 울리며 방 안을 서성였다.

아미와 청성은 같은 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두 문파인만큼, 서로 간의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감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대립적인
각을 세우고 있던 터다.

정화 사태는 지금 청성이 어떤 위기에 직면해 왔는가도 잘 알고 있고, 이웃
사촌으로서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는 한 편 이웃한 문파로서 이번 일을 내심
기획라 여기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다.

武極 - Story Book

그런데 청성은 비급을 미끼로 진명을 낚으려 하고 있었다. 아미에서 진명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이미 그를 낙양성 지부장으로 천거함으로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서!

“가만 두면 안되겠구나. 령아, 앞장 서거라!”

“.....예? 어, 어딜요?”

“어디긴! 그 여우 같은 년이 있는 곳이지.”

승려답지 않게 험악한 말투가 튀어나왔다. 벌써 눈이 뒤집힌 모양이었다.

일령은 말리지도 않았다.

정화 사태는 한 번 눈이 뒤집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내 여기 할 말이 있어 왔네!”

노기등등하게 등장한 정화 사태를 보며 문주희는 가능한 순진한 표정을 지어내려 애썼다.

그녀의 경험상 화가 난 자들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법이었고, 화가 난 비구니야 두 말 할 것도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능숙하게 도망치거나 거짓말 얼버무리는 편이 나았다.

문주희는 머리를 매만지는 척 하며 일단 심호흡을 하고는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오랜 만에 뵙습니다, 사태. 청성과 아미는 대대로 오랜 이웃이었지만, 요새는 상황이 어수선하다 보니 인사치레도 하기 어렵게 되었군요. 부디 무례를 용서하시지요.”

정화사태에게는 매끄럽게 술술 흘러나오는 문주희의 인사말에 휘둘릴 이유가 없었다.

“그깟 인사치레는 접어두시게, 시주. 인사 따위로 해결될 일이 아닐세.”

정화 사태의 등 뒤에서는 일령이 매우 복잡다단한 표정으로 엉뚱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문주희와의 갈등에 자파의 어른을 끼워 넣은 꼴이

된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듯 했다.

그러나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뻔했다.

그래서 일령은 일부러 문주희의 시선을 회피하는 중이었다.

‘야비한 년. 내가 대라신공을 넘긴 것을 그새 꼬르르 가서 일러바쳤다 이거지.’

문주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정화 사태가 단 걸음에 달려온 것은, 당장 원하는 결론을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에두르는 것 없이 즉각적인 맞대응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대개 강직하고 직선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문주희는 그런 사람들이 싫었다. 진명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시지요. 어떤 일로 이러시는 건지요?”

“간단히 말하지. 소림과 아미의 돈독한 우호관계를 해치지 마시게.”

“어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청성에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와 말싸움을 할 참인가? 소림의 제자에게서 손을 떼게.”

문주희의 표정에 살짝 금이 갔다.

설마하니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뭐라고요?”

“청성의 사정이 딱한 것이야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자구책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법. 어찌 타 문파 간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자파의 살 길만을 도모한단 말인가. 청성의 문 여협은 상식에 밝고 이재에 능한 사람이라 들었으니, 이만하면 빈니의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네.”

“하!”

문주희는 저도 모르게 한껏 뒤틀린 한숨을 토해냈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소림의 제자에게 먼저 관심을 보인 쪽은 청성이라는 점을 모르십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찌 선후가 우선 되겠는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도리와 정리일세. 애초에 마음이 없는 자를, 문파의 자존심과 다를 게 없는 비급으로 묶어두려 하다니. 그것이 어찌 명문정파라는 곳에서 할 짓이란

武極 - Story Book

말인가!”

문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지금 청성을 명문정파가 아니라 하신 겁니까?”

“그러기 전에 도의를 찾으라는 말일세.”

“도이라니요!”

문주희도 정말 열이 받았다.

듣자들자 하니 이 대머리 땡종이 못 하는 말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도의를 따진단 말인가.

청성이 일찌감치 진명을 발견해 공들이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뒤늦게 나타나 손 대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도의를 따지랴.

“남의 것을 가로채면서 근엄한 척 가르치려 드는 게 도의입니까? 아미야 말로 체통을 지키시지요?”

“남의 것이라니! 청성에서 그리 말할 근거가 어디 있다고!”

“어마? 그렇다면 소림의 진 소협이 아미와는 대체 무슨 관계라는 거지요? 설마하니 저기 계신 아미의 여제자에게 그가 무슨 언질이라도 줬단 말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 않은가? 오로지 청성의 문 여협만이 아니라고 하는 게지.”

“호호. 알려지긴요. 이제껏 두 사람은 그저 호형호제 하던 걸요. 그런 것을 관계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진 소협과 관계가 있다 보아야지 않겠습니까? 설마하니 아미파의 고매하신 사태께서 남녀간의 애정문제를 입에 담지는 않으셨을 테구요.”

정화 사태가 입꼬리를 비틀어 모욕적인 비웃음을 자아냈다.

말씨름을 하고 있자니 새삼 건방진 계집이라는 생각이 물씬 들던 중이었다. 제 아비를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다더니 소문이 하나 틀린 데 없었다. 정화 사태가 머리를 깎았을 때 문주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 마디 지지 않고 따박따박 대든다.

“문 여협이 오밤중에 그의 침소에 숨어들었던 일 말씀인가? 그러니 내가

도의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지. 대체 그런 행실로 어찌 뻔뻔히 고개를 들고 다닐.....”

이쯤 되니 문주희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억지를! 그만 나가시지요! 더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이만 나가라? 하, 건방이 하늘을 찌르겠구나. 내가 나갈 수 없다면 어쩌겠느냐?”

사태가 생각보다 험악해지자 일령도 불안해졌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커졌는걸. 이젠 슬슬 말려야 될 텐데..... 그냥 화끈하게 붙여버려?’

일령이 정화 사태의 소맷자락을 붙들었다. 그리고는 최대한 처량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거렸다.

“사고. 그만 하세요. 이 일은 모두 제가 불민한 탓이에요.”

가뜩이나 화가 나 있던 정화 사태는 일령의 눈물을 보고 연민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초인적인 인내로 겨우 참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 동시였다.

챙!

문주희의 손에서 반짝 하는 칼 날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가시지요. 아니면 손을 쓰겠습니다.”

문주희의 행동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던 정화 사태의 심기를 완전히 뒤틀어 놓았다.

“하! 이런 건방진..... 좋다! 강호에서 함부로 검을 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선배로써 오늘 똑똑히 알려주도록 하마.”

일령은 쾌재를 불렀다.

‘여우같은 년. 어디 한 번 죽어봐라. 네가 발버둥쳐봐야 사고의 발끝이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사고는 아미파에서도 끝내주는 고수라고. 사고한테 죽이 되도록 맞아서 그 잘난 얼굴에 피멍이라도 들어야 정신을 차리지.’

武極 - Story Book

일령은 입을 가리고 키득거리며 웃었다.

등을 돌리고 있던 정화 사태는 일령의 표정을 볼 수 없었으나, 문주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저 년이?'

문주희의 눈에도 불뚱이 튀었다.

'망할 년. 제 사고를 믿고 실실 쪼갬다 이거지. 어디 두고보자!'

으득.

문주희는 이를 갈았다.

예쁜 아미가 찡그려지고 눈빛이 표독하게 빛났다.

그 사이 정화 사태도 검을 뽑았다.

"어디 입 만큼이나 실력도 좋은지 보자꾸나!"

"호호! 자신이 없으면 검도 뽑지 않았지요."

문주희의 입에서 독기 어린 웃음이 흘러나오며 방안에 검광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채챙!

武極 - Story Book

2.1.10. 제 82 화 [검의 이유]

정화 사태의 검공(劍攻)은 아미파의 정수를 담았다.

일령도 익힌 아미파의 난피풍검법(亂披風劍法).

빠른 몸놀림과 그에 어우러지는 칼놀림이 바람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미파는 여승들만으로 시작되었던 문파. 당연히 여자들에게 맞는 검법이 생겨났다. 대부분 힘과 절도를 중시하는 남자들의 검과 달리 난피풍검법은 변화무쌍하며 쾌속한 검법이다.

파팻!

정화 사태는 순식간에 십 수번의 검을 뿌려냈다.

“크!”

문주희도 정화 사태의 쾌검(快劍)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람이 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처럼 검이 날아들었다.

그러나 문주희 역시 청성파 장문인의 외동딸로 어렸을 때부터 직접 부친의 검을 사사했다.

청성파의 청운적하검법(靑隕的燬劍)은 공수가 조화되어 유연하고 명쾌한 동작이 일품이다.

한가지 무공에 매진하면 그의 성품도 무공을 닮아가듯 무진호 문중양은 청운적하검법의 유연함을 닮았다.

하나 청운적하검법은 수세와 공세의 느낌이 다르다. 상대를 몰아칠 때에는 거침없고 파괴적인 공력을 극대로 뿜어낸다. 그래서 상대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하여 적하(的燬)라는 명칭이 붙었다.

문주희는 오히려 공세에서의 적하 같은 성격을 가졌다.

때문에 정화 사태의 선공에 문주희는 잠시 밀리는 양상이 되었다. 수세보다 공세로 전환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에 문주희는 금세 손발이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위낙에 빠른 공세가 이어지다 보니 문주희는 겨우 정화 사태의 검을 비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팍!

방안에 있던 집기들이 문주희가 흘린 정화 사태의 검경(劍勁)에 동강이 났다. 탁자가 반 토막이 나고 의자가 장작개비처럼 연달아 썰려 나갔다.

일령은 걸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얼굴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잘한다! 우리 사고!’ 하며 열심히 정화 사태를 응원했다.

계속해서 밀리던 문주희가 어느덧 창가까지 다다랐다.

좌착!

창틀에 매단 휘장이 날카롭게 베어지고 문주희의 머리를 켜 옥비녀의 끝이 떨어져 나갔다.

정화 사태가 잠시 검을 멈추고 코웃음을 쳤다.

“흥. 청성파에서는 피하는 법만 배웠더냐?”

문주희가 풀어진 머리를 흔들어 뒤로 넘기며 소리쳤다.

“선배가 후배에게 삼초도 양보하지 못하니, 강호의 도의는 다 어딜 간 것이죠!”

“뭐라고?”

정화 사태가 눈을 찡그렸다.

“강호의 도의를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

그 사이 문주희는 한 모금의 진기를 머금을 잠시의 시간을 벌었다.

정화 사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주희가 검을 앞으로 길게 뻗었다.

“타हत!”

일령이 깜짝 놀라 외쳤다.

“이런 비겁한 년!”

정화 사태는 소리를 지를 여유가 없었다. 문주희의 검이 위낙 날카로운 기세를

武極 - Story Book

머금어서 등골이 서늘했다.

‘숨겨둔 한 수가 대단하구나!’

정화 사태는 한 발을 물러서며 문주희의 검을 흘려냈다.

씩.

예리한 검이 정화 사태의 소맷단을 훑고 지나갔다.

조금만 실수했어도 손목이 달아날 뻔 했다. 정화 사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안 것!”

그러나 문주희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정화 사태가 반격을 할 만한 틈도 없었다. 한 번 몰아칠 때 광풍과도 같은 청운적하검법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채챙. 채챙!

문주희의 청운적하검이 연신 정화 사태의 검망(劍網)을 비집고 들어온다. 수세에 몰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연속으로 공세를 이을 수 있는 बे기보다 빈틈이 큰 찌르기를 주로 구사하고 있음에도 문주희의 거친 공격에 정화 사태도 선불리 반격에 나설 수가 없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둘은 다시 십여 합을 주고 받았다.

일령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말도 안돼. 문주희 저것이 정화 사고와 맞먹을 실력이었다는 거야?’

정화 사태의 실력은 아미파 내에서도 손꼽힌다. 일령이 예전에 정화 사태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대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 사태를 몰아붙이고 있으니 일령이 놀랄 만도 하다.

‘괜히 적향이 아니었잖아. 왜 사람들이 문주희에게 함부로 굴지 못하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캉 카캉.

정화 사태는 문주희의 거센 공격을 몇 차례나 피하고 막아냈다.

그 와중에 옷 여기저기가 베어져 나가 얼핏 정화 사태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정화 사태의 눈빛은 훨씬 더 생생해져 있었다.

‘과연 명불허전. 콧대가 오만할 만도 하군.’

정화 사태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워낙 공격이 좋으니 함부로 반격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초식이 눈에 익는 순간 빈틈을 찾아 역습에 나설 생각이다.

문주희는 이미 초식을 극성까지 이룬 상태다. 쉽사리 틈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난피풍검법은 빠른 검만큼이나 절묘한 신법을 함께 구사하는 무공.

연이어 초식을 구사한 문주희가 끊어진 진기를 다시 이으려 숨을 들이쉬는 차에 정화 사태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그야말로 눈깜짝할 사이.

바늘이 겨우 하나 들어갈 틈을 비집고 들어선 것이다.

“아!”

정화 사태가 몇 번이나 몸을 회전시키며 문주희의 몸을 베어갔다.

계속해서 공세로 나섰던 문주희는 미처 수비로 돌아설 틈이 없었다.

사샷.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며 문주희의 옷 여기저기가 크게 베어졌다. 손톱 하나 차이로 직접적인 검상은 면했지만 뒤이은 정화 사태의 난피풍검이 문주희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이나 잘라냈다.

씩.

머리카락이 잘리는 서늘한 느낌에 문주희의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흑단처럼 윤기있고 찰랑거리는 긴 머리카락은 문주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자 자존심은 물론이고 자신의 목이 베인 것처럼 울화가 치밀었다.

“정말 너무 하시는군요!”

문주희가 소리를 쳤다.

이번만큼은 진심이었다 해도 정화 사태는 두 번이나 속을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더욱이 공세에서의 문주희는 정화 사태로서도 쉽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武極 - Story Book

“시끄럽다! 검을 두고 말로 간사한 짓을 하려 하다니!”

문주희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정화 사태의 공격을 받고 말았다.

퍽!

정화 사태의 발길질이 백옥처럼 뽀얗고 매끄러운 문주희의 뺨을 강타했다.

문주희의 얼굴이 돌아가며 머리카락이 부챗살처럼 퍼져서 흩날렸다.

가슴을 जो이던 일령이 환호를 질렀다.

“꿀 좋다!”

정화 사태도 그제야 검을 멈추었다.

“이제 승복할 마음이 생기느냐?”

문주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진다.

똑.

똑.

문주희의 뺨은 푸르스름하게 물들었고 코에서는 코피가 흘렀다. 코피를 닦던 문주희의 눈이 독기를 품었다.

“이..... 이!”

문주희가 아랫입술을 깨물며 정화 사태를 노려 보았다.

“같은 여자로서 얼굴을 공격하는 것은 심한 처사가 아닌가요!”

“네가 반반한 얼굴을 믿고 날뛰니 내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느냐.”

“아하,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냄새 나는 발로 내 얼굴을 치셨다?”

정화 사태의 눈썹이 꿈틀댔다.

“냄새가 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남자 손목 한 번 못 잡아 본 비구니와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어쩐지 재수가 없더라니.”

“말이 심하구나!”

승려가 색(色)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으니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누가 먼저 시작한 거죠? 그건 그쪽이 아니었나?”

정화 사태의 눈이 돌아갔다.

일령이 외쳤다.

“사고! 저 여우 같은 년의 격장지계에 홀리면 안돼요!”

하지만 정화 사태의 눈은 되돌아 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사갈 같은 것!”

정화 사태가 앞뒤 재지 않고 문주희를 향해 달려 들었다.

문주희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단순하긴.”

마교의 침입을 받아 그간 숯한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속세를 잘 모르는 승려다. 그에 비해 문주희는 무진호 문중양의 대신 청성과 장문대리를 맡았을 정도로 갖은 술수에 능하다.

이미 정화 사태를 도발할 때부터 공력을 한껏 끌어올리며 비장의 한 수를 준비하던 그녀였다.

부욱!

문주희의 의복이 한껏 부풀었다. 여기저기 베이고 잘려나가 희여멀건한 속살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 저!”

일령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다.

“사고!”

정화 사태는 급히 공력을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났다가는 오히려 문주희의 일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터.

정화 사태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걸음을 멈추었다가 다시 쏜살같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둘이 일으킨 공력으로 방 안에 있던 자잘한 물건들이 부르르 진동했다.

둘 다 최고의 절기를 선보일 셈인 것이다.

정화 사태의 검이 한 순간 사라진다고 싶더니 허공에 수많은 검흔이 생겨났다.

武極 - Story Book

앞으로 도약하듯 달려가며 수십, 수백 번 검을 베는 난피풍검법의 비전 절초.

질풍회류검(疾風回流劍)!

마치 정화 사태의 전면에 무수히 많은 칼이 돌아난 듯 했다.

문주희도 이에 맞서 청운적하검법의 절초를 시전했다.

머리 위로 곧추 세운 검 끝이 파르르 떨렸다.

문주희가 반원을 그리며 그대로 검을 그어 내렸다. 동작은 가볍고 산뜻하기까지 했으나 그 안에 담긴 위력은 결코 적지 않았다.

허상처럼 생겨난 반원형의 검기가 몇 개나 생겨나더니 달려오는 정화 사태를 마주했다.

천산월아참(天山月牙斬)!

일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 양!

화산이 폭발한 듯 폭음이 울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렸다.

와장창!

그리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던 창틀이 구겨져 밖으로 날아가고, 온갖 잡다한 집기들이 모조리 창 밖으로 쏠려 나갔다.

흙먼지가 인 것도 아닌데 방 안에는 자욱한 안개 같은 것이 피어 올랐다.

뿌연 시야 속에서 쿨럭대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일령은 눈을 크게 뜨고 정화 사태와 문주희를 찾았다.

“.....사고?”

정화 사태의 인영이 흐릿하게 드러났다.

“쿨럭쿨럭. 난 괜찮다.”

연기가 가라앉으면서 한쪽 벽에 처박혀 있는 문주희의 모습도 보였다. 문주희는 머리칼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옷이 다 걸레처럼 찢겨나가 낭패한 몰골이었다. 입가에서는 가는 핏물이 흘러내린다.

정화 사태가 문주희를 제압한 것이다. 초식이야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고는 하나 내공에서 나이가 두어 배는 더 많은 연장자 정화 사태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정화 사태도 적잖은 내상을 입었는지 얼굴이 파리했다. 그녀가 검을 집어 넣으며 문주희를 보았다.

“나무아미타불. 젊은 것이 실력이 대단하구나. 청성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어.”

문주희는 거의 동공이 풀린 채로 이를 갈았다.

“청성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개소리 하지마!”

청성의 미래가 왜 어두운데. 왜 자신이 자존심까지 다 구겨가며 진명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어.”

그 말을 끝으로 문주희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문주희가 당하긴 했으나 일령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문주희의 실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화 사태는 가만히 일령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자꾸나.”

일령은 차마 말을 하지도 못하고 고개만 고덕였다.

아미의 정화 사태와 청성의 문주희가 모종의 이유로 한 바탕 격한 비무를 치렀다는 사실은, 누구의 입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빠른 속도로 낙양성에 번졌다.

물론 소문은 아미파와 청성파의 노력으로 ‘문주희의 실력 향상을 위해 아미파의 정화 사태가 가르침을 주었으며, 그녀는 문주희의 숨은 실력에 크게 감탄했다’로 변질되어 갔다.

하지만 낙양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나 어느 한 세력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정화 사태와 문주희가 다틈던 이유를 알아챘다.

“하! 그런 사정이 있었어? 왜 그 점을 몰랐던 것이지?”

얼굴 위를 덮은 먼사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북풍표국의 총관 도상운은, 벽소군이 크게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화 사태가 문주희가 비무를 한 때문은 아니었다.

그 원인에 흥분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진명을 낚을만한 확실한 미끼를 찾아낸 셈이었다.

“너무도 간단한 사실이라 미처 생각 해 볼 여지를 두지 않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이지요.”

“뭐, 괜찮아. 어쨌거나 알아냈으니까. 그럴만한 미끼는 마련되어 있나?”

도상운이 여유롭게 한 쪽 어깨를 치켜세웠다.

“며칠간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 사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좋아.”

벽소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더군다나 진명에게 있어서는.

武極 - Story Book

2.1.11. 제 83 화 [미끼]

“후우, 정신 없구나. 대체 들여다 봐야 할 게 왜 이리 많지?”

진명은 진땀을 흘리며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을 뒤적이는 중이었다.

사실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것 투성이였다. 그가 모르는 글자로 쓰여진 것도 아니었는데도 진명은 마치 자신이 까막눈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누구라도 좀 불러와야겠는데.....”

진명은 손으로 이마에 고인 땀을 닦았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일지가 쓰던 낙양성 지부장의 집무실.

시원하게 뿜린 창과 그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와 허용심을 골고루 만족시키는 값비싼 집기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데 없는 훌륭한 집무실이었지만 진명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령 아우에게 와 달라고 하면 곤란해 할까? 요새는 맹진 분타에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평소대로 소박한 무복을 입고 있는 진명은 아무래도 평일지의 집무실과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그가 이 자리에 능숙히 어울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터였다.

“할 수 없지. 령 아우에게 다녀와야겠다. 일을 잠시 미룬다고 큰 일이 나거나 하지는 않겠지.”

진명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막 자리에서 일어서는 중이었다.

“진 형! 혼자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핀잔 같은 인사말을 건넸다. 그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진명은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령 아우!”

“이히히. 내가 반갑지? 내 그럴잖아도 진 형이 혼자서 찢찢매고 있을 까봐 왔다구. 아니아니, 지부장님.”

이틀 전의 일이었다.

“명아.”

진명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시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연무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진명은 온 몸이 땀투성이였다.

상의를 벗어 던진 터라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상체의 근육이 여실히 드러났다.

군데군데 새로 생긴 상처들이, 제법 그를 관록 있는 무인처럼 보이게 했다.

“아, 범여 대사님.”

진명은 바닥에 떨어진 상의를 주워 입었다. 어떤 일인지 범여가 혼자가 아닌 탓이었다.

범여의 뒤에는 잘 재단된 무복을 갖춰 입은 자들이 동행하고 있었다. 단심맹의 정식 무복이었다.

“함께 오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진명은 대충 옷을 껴어 입고는 물었다. 범여는 엄숙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장안성 단심맹 본관에서 오신 분들이다. 옷을 다 입었으면 어서 예의를 갖추거라.”

“예.”

진명은 얼떨떨해 하며

범여가 어쩐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단심맹 본관에서 온 무인이 한 걸음을 앞으로 나섰다.

“소림의 진명은 예를 갖춰 맹주의 명을 받으시게.”

맹주의 명!

武極 - Story Book

“그대를 낙양성 지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맹주의 임명장일세.”

“아!”

진명이 짧은 감탄사를 토해냈다.

평일지가 전체 회의를 통해 지부장이 되는 순간과는 또 달랐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심맹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 결과 이런 식의 장치가 마련된 듯 했다.

진명을 낙양성 지부장으로 임명하는 단심맹주가 화산파의 장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일에는 특히 의의가 있었다.

소림과 ami, 그리고 수량 진인이 여러모로 힘을 쓴 결과 단심맹 내의 평일지 지지 세력을 저지하고, 그 사실에 단심맹주가 승복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간 화산파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던 단심맹이 어느 정도 균형감을 회복했다는 말과도 같았다.

진명이 낙양성의 지부장이 된 것은 그렇게 여러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다.

“소림의 제자 진명이 맹주의 뜻을 받습니다.”

진명은 엄숙한 얼굴로 본관의 무인이 내민 임명장을 받아 들었다.

“이로서 소림의 진명은 단심맹 낙양성 지부의 지부장이 되었소. 그대는 맹주의 뜻에 따라 낙양성을 마교와 사파의 무리로부터 수호해야 하며, 그를 행함에 있어서 단심맹의 창맹의지를 따라 정도와 의리, 그리고 협을 지켜야 하오. 이점 맹세하시겠소?”

“맹세하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지라 간소한 절차를 밟게 되었으나, 이번 인사에 중차대한 무게가 얹혀 있음을 잊지 마시오. 축하하오.”

“감사합니다.”

그저 단심맹주를 대신해서 몇 사람이 달랑 임명장을 건넸을 뿐이었지만, 어쩐지 감회가 남달랐다.

특히나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자가 범여라는 점에서 더욱 더 그러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꼬..... 그러나 이것도 잠시, 이 녀석은 더욱 더 클 것이다.

그래서 더욱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임명장을 건네 받은 진명이 떨리는 눈으로 범여에게 고개를 돌렸다.

“범여 대사님!”

“그래.”

범여는 두 손을 합장하듯 모으며 진명의 시선을 받았다. 늘 엄숙하게 굳어있던 범여의 얼굴에 오늘따라 낮선 기운이 서성였다.

그것은 진명이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환한 미소였다.

“아미타불.....”

범여는 마치 진명을 축복하듯 나직한 불호를 읊어주었다.

그게 이틀 전의 일이었다.

다시 말해 진명이 낙양성의 새 지부장으로서 집무실에 붙들린지 이틀이나 지났다는 소리다.

진명은 반가움이 넘쳐 흐르는 얼굴로 일령에게 엄살을 부렸다.

“아우, 마침 잘 왔어. 나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줄 일이 뭔데? 지부장 일이 그렇게나 힘들어?”

“내가 오늘 중으로 봐야 할 거라는데, 많은 건 둘째치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정말 멍청한가 봐.”

일령이 킁킁대고 웃었다.

“진 형이 영리하진 않지. 어디 그 뿐인가? 눈치도 없고, 사람 마음도 모르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에휴,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일령의 말에 진명이 쑥스럽게 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평일지 그 자가 나보다 훨씬 똑똑했나 봐. 그가 지부장이었을 땐 이렇게 바쁘고 힘든 일인 줄 몰랐는데 말이야.”

“그건 평일지가 부지런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잡무는 다 이원조인지 뭔지 하는 부관한테 맡겼기 때문이잖아. 아, 진 형도 이 참에 부관을 들이지 그래?”

武極 - Story Book

“아?”

진명이 제 손으로 이마를 탁 쳤다.

“그럼 되겠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어.”

“뭐야. 그럼 이제껏 그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말이야?”

“내가 어디 이런 자리를 맡아봤어야지. 그런데 부관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하는 거지?”

“그야 뭐 단심맹 소속이면서.....아.”

일령의 머리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

“마침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천거해 줄까?”

“아우가 괜찮다고 하면야 믿어야지. 어떤 사람인데?”

“있어. 똑똑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무공 실력도 진 형 보다 낫지. 게다가 무엇보다 그 사람은 진 형을 잘 알아. 그래서 진 형에게 부족한 점을 알아서 잘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거야.”

진명이 환하게 웃었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굉장한 걸. 그런데 그만한 자가 내 부관을 하려고 들까?”

“음..... 아마도 그럴걸?”

“아우가 물어봐 주겠어?”

“그러지 뭐.”

일령은 갑자기 냉큼 등을 돌렸다.

“아아. 일령아, 일령아. 낙양성 지부장인 진명이가 너한테 제발 부관을 맡아주십사 하는데 일령이 네 생각은 어때?”

그리고는 다시 뒤돌아 서서 진명을 바라보았다. 생글대는 얼굴이 너무도 사랑스러운 일령이었다.

“좋다는데, 지부장님?”

진명은 그만 소리 내어 웃고 말았다.

“하하. 아우한테는 정말 못 당해.”

“그럼 진 형도 좋은 거지?”

물론이었다.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걸까? 더군다나 아우는 맹진 분타주잖아. 잘은 모르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도 그 말 하려고 했어. 나 잘렸어.”

일령이 배시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사고가 나더러 분타주 노릇은 그만두래.”

진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저런. 왜? 아우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런 일이라면 내가 가서 말씀 드릴까?”

정화 사태가 일령에게 맹진 분타주를 그만 두라고 한 이유는, 좀 더 낙양성에, 정확히 말해 진명의 곁에 잘 붙어 있으라는 것이었다.

일령은 속으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이유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냐 아냐. 나도 좋다고 했어. 사실 그런 건 나한테도 잘 안 맞았고. 게다가 진 형의 부관 노릇을 하는 게 내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 진 형은 칠칠 맞잖아. 그러니 야무진 내가 챙겨줘야지.”

“정말 괜찮겠어? 괜히 나 때문이라면.....”

물론 진명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 할 수 없는 일령은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 둔거라니까! 그리고 진 형은 내가 부관이 되는 게 싫어? 그런 거야, 양?”

방금까지 애교를 부리던 얼굴이 갑자기 험상궂게 변했다.

“그럴 리가 있나! 나야 걱정이 되니까.....”

“에이, 잘 할 거라니까! 나 당장 일 시작한다. 부관의 책상은 어디지? 아, 저기 문 밖. 좋아 좋아, 좋다구. 나 저기 가서 앉는다? 이젠 내가 진 형의 하루 일과부터 저녁 밥상까지 다 챙길 거야. 그리고 또 뭐냐, 사람들이 진 형을

武極 - Story Book

보려면 나한테 허락부터 받아야 한다구.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낙양성 지부장을.....”

문득 일령의 말이 멈췄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딱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낙양성 지부장을 방문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렇군요. 그럼 낙양성 지부장님을 뵙기 위한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기 계신 아리따운 부관께 받으면 되는 겁니까?”

“.....!”

진명과 일령이 동시에 놀란 얼굴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진명이 낙양성 지부장이 된 지 이틀 뒤에 찾아온 방문객. 그는 다름 아닌 북풍표국의 총관 도상운이었던 것이다.

“설마 또 같은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겁니까?”

도상운과 진명이 자리를 잡았다. 일령은 장담했던 대로 아무진 일처리를 선보였다. 먼저 진명에게 객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객을 집무실 내부로 안내한 다음 시비를 시켜 차와 다식을 내오게끔 했다.

이 정도면 나쁜 편은 아니었다. 한 가지 너무 야무져서 탈인 점을 꼽자면, 위에 언급한 일이 다 끝났음에도 일령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진명의 곁을 지켰다는 것이다.

두 눈에 잔뜩 힘을 준 채 ‘당신, 헛수작 부리지 마’라는 경고를 온 몸으로 표현하면서 말이다.

도상운은 티끌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로, 일령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일령이 뭘 어쩌든 별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저희 장주님께서 지부장님을 뵙기를 청하십니다.”

“무슨 일로 말입니까? 그 때 하셨던 얘기라면 벌써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일입니다.”

도상운은 천천히, 그러나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소맷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화려한 문양의 비단 천으로 감싸진 것이었다.

“보시지요.”

도상운은 그것을 진명의 앞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나 진명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뻥히 자신만 바라보고 있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비단보를 풀었다.

“저희 북풍표국에서 우연한 기회로 이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저희 장주님께서서는 소림의 물건이니 마땅히 주인께 돌려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림의 물건이라고요?”

도상운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북풍표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범여 대사께 확인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진명은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낡고, 금방이라도 바스러져 버릴 것처럼 너덜대는 반 권의 책자.

도상운이 가져온 것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하릴없이 보이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도상운은 자신만만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북풍표국을 방문해 주십시오. 장주님께서 기꺼이 그분이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일령이 불쑥 나섰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기꺼이’ 알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 일을 번거롭게 하시죠?”

“저희 장주님의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지부장님과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자기가 오던.....”

“아우!”

진명이 이어지던 일령의 입을 막았다.

소림의 물건. 그렇다면 그것은 지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소림의 제자 진명으로서 해결을 봐야 하는 일이었다.

북풍표국을 완벽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명조차 그들의 의도가

武極 - Story Book

무엇인지 의심스러워 하고 있었다.

“제가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알고 싶어 하실 물건입니다. 지부장께서 간절히 바라 마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이지요.”

도상운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북풍표국에서 뵙지요.”

그는 진명이 북풍표국을 방문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옳았다.

武極 - Story Book

2.1.12. 제 84 화 [나한기공]

“이, 이것을.....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진명이 반 쪽짜리 책 한 권을 건네자 범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애석하게도 반으로 뜯겨 잘려 있긴 했지만, 맨 위에 있는 글자 그물 나(羅) 자가 뚜렷이 보이는 책이었다.

“북풍표국의 총관이 제게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북풍표국의 장주가 본시 소림의 물건이니 돌려주라고 했다는군요. 대사님께서도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다마다..... 어찌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느냐.”

범여가 잠시 숙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본 연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이것은 소림의 나한기공이다.”

“나한기공이라면..... 설마?”

“그래. 대대로 소림의 나한승들이 익혀온 내공 심법이니라.”

“.....”

진명 역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늘이 마치 기적처럼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듯 했다.

“그렇다면 제자도 내공 심법을 익힐 수 있는 것입니까?”

소림의 내공서가 있다면 굳이 청성의 내공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하늘이 열어주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뿐이지, 결코 행운을 마치 돌맹이처럼 툭 던져주는 법이 없었다.

범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구나. 이것은 나한기공이 확실하나 애석하게도 반 권뿐이다. 나머지 반 권이 있어야 해.”

“그렇다면..... 그렇다면 북풍표국의 장주가 나머지 반 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겠구나. 그 자가 다른 말을 하지는 않더냐? 이것이 왜 반

쪽이 되었는지를 알아야겠구나.”

“북풍표국의 장주가 따로이 저를 보길 원한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만나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쪽에서 너에게 따로 원하는 바가 있다는 소리로구나. 반 권의 나한기공을 대가로 말이다.”

범여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북풍표국. 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진명은 참으로 선한 아이였다. 심성이 반듯하고 고우며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강직하고 정직했다. 그리고 남을 의심할 줄 몰랐다.

나쁜 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소리였다. 그럼 점이 각원을 많이 닳았기에 범여는 한층 더 마음이 애잔했다.

‘각원이는 늘 소림에만 있었기에 세상에 닳고 쓸릴 일이 별로 없었다지만, 이 아이는 그렇지 못하겠구나. 이를 어쩔꼬.....’

갑자기 진명에게 접근해 오는 정체 모를 집단인 북풍표국에 대해 범여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 진명은 새로운 사실에 가슴이 설레고 있었다.

‘나머지 반 권을 꼭 찾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기공을 익힐 것이다.’

진명은 북풍표국에서 자신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리라고 어렵듯이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 대가로 나한기공의 나머지 반 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해낼 작정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제자가 북풍표국으로 가야겠군요. 가서 이 나한기공의 출처와 나머지 반 권의 행방도 알아보겠습니다.”

범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들을 쉬이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武極 - Story Book

없구나. 부탁한다.”

“예, 대사님. 제자에게 맡겨주십시오.”

기대에 부푼 진명의 얼굴을 보면서, 범여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다.

“조심 하여야 한다. 결코 경계를 늦추지 말거라.”

등봉 분타 서남쪽으로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었다.

진명이 등봉의 상전을 일굴 때, 가끔 너무 덥거나 답답해지면 가서 목욕을 핑계로 헤엄을 치거나 하던 곳이었다.

이른 새벽녘에 찾아가면 호수 위로 자욱하게 드리워진 안개가 신비스러운 장관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오늘 진명은 이 호숫가에서 북풍표국의 장주와 만나기로 하였다.

“오늘은 편월(片月)이 떴구나.”

검고 투명한 호수를 거울 삼아 저 혼자 오롯이 떠 있는 초승달을 바라보며 진명이 작게 감탄을 토해냈다.

“그간 이곳을 수 차례 지나면서도 편월이 호수에 걸린 광경이 이리도 아름다운 줄을 몰랐었구나.”

“그 시절에는 아름다움을 감상할만한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고들 하잖습니까, 진 지부장님.”

진명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꾸에 깜짝 놀라 뒤를 바라보았다.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도상운과 벽소군이 와 있었다. 벽소군은 늘 그렇듯 면사로 얼굴을 가린 채였고, 도상운은 존재감이 뚜렷한 그림자처럼 벽소군의 곁을 장식하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진명은 마치 유명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는 벽소군의 행차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은 포권으로 인사를 건넸다.

본래 진명은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반감을 갖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벽소군이나 도상운을 대할 때면 저도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곤

했다.

“네. 혼자 오기로 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진명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저들은 내가 정말로 혼자 온 것인지 확인하느라 늦게 나타난 것이로구나. 범여 대사님의 말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자들이다.’

진명은 자신도 모르게 전신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벽소군을 향해 말했다.

“길게 끌지 않고 본심을 꺼냈으면 합니다. 저는 나한기공의 나머지 반 권을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벽소군이 면사 너머로 빙긋 웃었다.

“진 지부장께서는 몹시 성질이 급하신 모양입니다. 허나 좋습니다. 저 역시 느리고 게으른 자들은 질색하는 성미이니까요. 반 쪽의 나한기공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다면 마땅히 함께 드렸겠지요.”

진명의 얼굴에 급격히 실망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왜 보자 하셨습니까? 그 반 권을 대가로 제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까?”

그 말에 벽소군이 크게 웃었다.

“진 지부장은 속내를 감추는 자들보다 외려 상대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본심을 얘기하자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벽소군은 면사 너머로 도상운에게 작은 눈짓을 보냈다. 진명이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의외의 인물이었다는 그런 뜻이었다.

“북풍표국에서는 이번 혈무련의 낙양 침공으로 인해 단심맹과의 관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북풍표국이 중립적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고는 하나 한 집에 있는 자들끼리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렇기에 진 지부장께 내어드린 나한기공은 그저 지난 과오를 덮어달라는 작은 성의표시일 뿐입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武極 - Story Book

“.....”

혼란스러워진 진명이 잠시 입을 닫았다. 벽소군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거리낌없이 말을 이었다.

“그런 뜻에서 나머지 반 권의 행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진 지부장을 따로 뵙자고 한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나한기공의 행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그것이 왜 반 권이 되었나 의심스러워 북풍표국의 정보망을 동원해 이리저리 알아보았답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반 권의 행방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딴지! 소림의 나한기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벽소군이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소림사 장경각.”

“.....에에? 그곳은.....”

“네, 그렇습니다. 원래 나한기공이 있던 곳이지요. 마교가 그곳을 장악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드린 반 쪽의 나한기공이 그곳에서 흘러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실혼인들 중에 실혼인이 아닌 자가 섞여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 그런!”

그렇다면 그 자는 소림의 범우 대사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 거의 확실했다. 마교의 무공에 대해 더 조사해 보겠다면서 자취를 감춘 범우였으니 소림의 장경각에 숨어들만한 이유 또한 충분했다.

낙양성 지부장이 되면 범우의 행방을 알아봐 달라던 범여의 간곡한 눈빛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한기공은 정말로 하늘이 열어주는 길일지도 몰랐다.

범우의 행방도 알아볼 수 있고, 내공 심법도 함께 찾을 수 있는 길이었으니.

진명이 주먹을 꼭 움켜쥐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소림의 장경각은 위험천만한 험지일 것입니다. 북풍표국에서 나한기공의

행방을 알았다고는 하나,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은 온전히 진 지부장의 몫일 줄 압니다.”

“물론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북풍표국에게 갚지 못할 큰 신세를 진 셈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명은 자기도 모르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해댔다.

그것을 본 벽소군과 도상운이 서로 찡막한 눈짓을 주고받았다.

‘걸려든 것일 테지?’

‘물론입니다. 의심을 모르는 성정이지요.’

‘그래.’

벽소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야합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했다.

“진 지부장께 천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저희 북풍표국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주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북풍표국에서 낙양성 지부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힘이 닿는 한 돕겠습니다.”

“진 지부장의 넘치는 호의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벽소군과 도상운은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자취를 감췄다.

진명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또렷하게 떠 있는 편월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간다! 장경각으로!’

“뭐야? 안돼!”

일령은 진명이 장경각으로 간다는 말에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도 잊고 벌떡 일어섰다.

정화 사태와 범여 대사, 그 밖에 낙양성 지부에 기거하고 있는 단심맹의 주요 인사들이 한꺼번에 일령을 바라보았다.

“령아, 앉거라.”

정화 사태가 일령을 핵 잡아끌어 앉혔다. 그래도 일령의 두 눈은 결사적인 반대를 표하고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부관으로서 절대 반대야! 거기가 어떻게 된 줄 알고나 가겠다는 거야? 게다가 진 형이 지부장이 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낙양성 지부장의 집무실에는 지부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진명이 지부장으로서 긴히 상의할 일을 지니고 왔기 때문이다. 화산파의 수량 진인이 진중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이유로, 이 몸도 반대일세. 그것은 낙양 지부의 일이라기 보다는, 지나치게 소림 내부의 일인 듯 하군.”

아무리 편을 들어줬다고는 하나 수량 진인은 타 문파의 사람이었다. 그는 진명을 잠시 이용한 것이지 진명을 아끼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범여가 나설 차례였다.

“소림의 제자와 소림의 비급이 관련되어 있으니 소림의 일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오. 허나 깊게 생각해 본다면 마교에 대적할 수 있는 의외의 길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를 일ियो.”

“소림의 장경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이나 하시었소? 낙양성은 갓 새 지부장을 맞이했소. 혹여 그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또 어떤 혼란이 있을지 생각이나 해 보신 게요?”

“애초에 단심맹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창맹의지를 돌아봄이 어떻소? 우리는 낙양성에 살림을 꾸리려 온 것이 아니라 마교를 대적하기 위해 모인 것이오.”

“마교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것은 순전히 천운에 의지해야 되는 일 아니오! 실혼인들이 얼마나 있을 지도 모르거니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도군을 차출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잖소! 또한 낙양이 수비병력이 줄었다는 것을 알고 혈무련에서 또 다시 쳐들어오면, 그땐 어쩔 것이오!”

“본 맹에서 온 정보에 따르면 혈무련은 지금 펄라성을 공격한 마교의 무리를 몰아내는 것만으로도 급급하다 하더이다. 당분간은 낙양에서 혈무련을 볼 일이 없을 것이오.”

양 쪽의 의견이 한 치의 틈도 없이 팽팽했다. 장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진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수량 진인을 비롯한, 이번 장경각 행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 부족한 몸으로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그것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목숨으로 그 소임을 이룰 것입니다.”

나직하지만 힘 있게 울리는 진명의 음성에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다. 한 치의 거짓도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말이니 그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허나 제가 단심맹의 낙양성 지부장이 된 것은, 제가 그 전에 소림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지니게 된 것은 소림이 제게 가르쳐 준 한 초식의 무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소림의 제자로서 할 일 또한 낙양성 지부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장경각에는 백도군을 대동하지 않고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 그런.....!”

혼자 가겠다는 말에 다들 놀랐다.

그만큼 진명의 의지가 강하다는 말이었기에, 이번에는 누구도 선불리 반대를 내뱉지 못했다.

범여 대사가 조용히 일어서서 진명의 뒤에 섰다.

“다들 소림의 일이라 하시니 그럼 소림에서 해결하겠소. 나도 같이 가자꾸나.”

“안됩니다.”

이번만큼은 진명도 완고했다.

그러나 범여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너 혼자 호랑이 굴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래도 안됩니다.”

武極 - Story Book

“이 녀석이! 그간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이제는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예. 이번만큼은 대사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저기요..... 대사님?”

사람들의 눈이 목소리가 들려온 쪽, 일령을 향했다.

“혼자 보내기 힘드시면 제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럼 대사님도 조금이지만 마음이 놓이시지 않겠어요?”

정화 사태가 일령을 말리려 하던 찰나.

“그럼 나도 가야겠어요.”

아직 얼굴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아 베일을 쓰고 있던 문주희가 회의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청성파의 장문 대리. 절 막을 분은 없겠죠?”

정화 사태는 일령을 말릴 수 없었다. 문주희가 따라가는 데 일령을 보내지 않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 말이다.

분위기가 사뭇 달아오르고 있는데 누군가 지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임완춘이 차 주전자와 찻잔을 쟁반에 들고 나타난 것이다.

“말씀하신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은 안하고 자신을 뵈히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것도 특히나 일령이.

“왜, 왜들 그러세요?”

일령이 활발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 형도 오랜만에 불공 좀 드려야지?”

“엥? 웬 불공?”

임완춘은 순간 불안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되는 데 까지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 차라리 화산파에 잘 빌붙어 있을걸, 하고 몇 번이나 후회를 해야만 했다.

어쩌면 진명과 어울린 것이 그의 생애 최대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도 몰랐다.

武極 - Story Book

2.2. 제 8 장

2.2.1. 제 85 화 [개방과 무당]

“간다며?”

“네?”

진명이 고개를 들자 눈 앞에 당청의 꼬장꼬장한 얼굴이 보였다.

당가 의방 외의 곳에서 그의 얼굴을 보기란 처음 있는 일인 듯 했다. 진명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아, 말 했잖아. 너 장경각에 간다며?”

“예? 벌써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까?”

당청이 혀를 끌끌 찼다.

“에이, 미련한 녀석. 내가 의방만 하고 있더냐? 아, 처음 만났을 때 잊었어?”

진명은 곧 당청이 단심맹의 일원이기도 했다는 걸 기억해냈다.

“하하.”

“실없이 웃긴, 쫓. 나도 간다고. 그 말 하러 왔다.”

“예에?”

진명이 놀란 나머지 눈을 크게 떴다. 그러자 당청은 기분이 상한 듯 입술을 실룩거렸다.

“아, 뭘 그리 놀래? 네 놈 눈에는 내가 그리 늙어 보냐? 내가 맨날 의방에서 부러진 팔다리나 주물럭대니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아 내가 이래봐도 당 씨 사내야. 사람 죽이는 일에는 어릴 때부터 이력이 붙었다고.”

“당 의원님은 의방 밖으로 걸음도 잘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장경각에 가신다니..... 안됩니다. 혹시 저 때문에 같이 가겠다고 하시는 거라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당 의원님께 그런 신세를 지고 싶진 않습니다.”

“아, 괜찮대두! 아직 송산 짬은 거뜰히 넘어다닐 수 있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강호에서 잔뼈가 굵어온 무인이라 할지라도, 당청 정도로 나이가 든 노인네가 종원 오대산 중에서도 산세가 험준하기로 이름 높은 송산을 소풍 가듯 드나들 수는 없었다.

게다가 단지 송산만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실혼인들을 맞상대하면서 장경각에 침투, 나한 기공까지 무사히 찾아서 돌아오는 일이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는 진명도 알고 있었다.

목숨을 내거는 정도로는 안 될지도 몰랐다.

“당 의원님. 제발 그런 말씀은 거두십시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 놈이? 누가 너 때문에 간다고 했느냐?”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 그게..... 고응.”

당청은 묘한 한숨 소리를 흘렸다. 당청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한 진명이 이렇게 말했다.

“혹시 소림의 장경각에 볼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당청이 눈을 가늘게 뜨고 진명을 바라보았다.

“그럼 대신 해줄 테냐?”

“물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드려야지요.”

武極 - Story Book

“크음. 그게.....”

당청은 잠시 땀을 흘리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다.

“우리 집안에 예전에 단연코 독보적인 양반이 계셨어. 뭐, 그 분 이름까지는 알 것 없고, 그분이 말년에 독술과 의술을 집대성해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게 우리 당가에는 아주 귀한 물건이거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당가타(唐家舵)도 마교 놈들의 손에 넘어갔었다는 거 아니냐.”

진명이 말했다.

“설사 사본이 장경각에 있다고 해도 그것은 소림의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건네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문의 어르신께 상의를.....”

“아, 넌 내가 아무렴 소림의 물건을 내놓으라 하겠냐? 그게 아니라 마교 놈들이 장경각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면서 자기네들이 약탈한 문파의 비급들을 가져다 놓았다 해서 말하는 거다.”

“음. 그렇군요.”

“단순한 문제가 아냐. 이건 내 추측이긴 하지만.....어쩌면 실혼인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입니까?”

“뭐, 지금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 완전한 실혼인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니. 어쨌거나 확실한 얘기는 그 책을 찾아야 할 수 있다는 게지.”

“그렇다면 제가 그 책을 찾아 당 의원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실혼인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니, 그런 중요한 것이라면 마땅히 저도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당청은 어딘지 모르게 미안한 얼굴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아, 그런데..... 실은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예? 그게 뭐니까?”

“그게..... 그 책이 그 넓은 장경각의 서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내가 후딱 찾던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노릇인데.”

장경각의 그 많은 책들을 확인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하나 그토록 중요한 문제라면 꼭 찾아봐야 하겠지요. 다른 일도 아니고 실혼인들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 자칫하면 헛고생을 할 수도 있는 게야. 내 그래서 범여 대사께는 말도 못하고 네게만 말하는 거다.”

“설령 확실치 않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노력해 보아야지요. 제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아, 그래? 정말 그럴 거야?”

“예, 물론입니다.”

“흐음. 확실히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부담만 되겠지. 그렇다면.....”

당청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떠나기 전에 한 번 들르거라. 내 네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준비해 놓으마.”

“뭘 말씀이신지요?”

“아, 그냥 들러. 당장은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 며칠 내로 열심히 만들 테니까.”

“예?”

“됐으니 가 봐. 꼭 들리는 것 잊지 말고.”

“알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래그래. 바쁠 테니 어여 가.”

“그럼.”

진명이 포권을 하고는 돌아갔다.

떠나가는 진명의 뒷모습을 보며 당청이 ‘으랏차!’ 하고 기합소리를 냈다.

“그럼 나도 준비해 볼까? 이 당청의 40년 연구의 정수를 모조리 쏟아내려면 며칠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할 테니.”

낙양의 새 지부장이 소림의 장경각으로 간다는 소식은 빠르게 단심맹으로 전달되었다. 아무래도 진명 혼자서 단독 결정할 수 있을만한 가벼운 일이 아닌 탓이었다.

武極 - Story Book

재미있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각 문 파의 반응이었다. 특히나 가장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쪽은 개방과 무당이었다.

장안성 단심맹 수뇌부 거쳐.

소림사의 승려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갑작스레 개방의 인물이 방문했다.

“나도, 나도 가겠소이다!”

“.....?”

현존하는 소림의 최고 배분이자 최대 고수인 혜각은 의아한 얼굴로 눈앞의 거지를 바라보았다. 아니, 사실 그는 거지라고는 할 수 없었다.

곱게 차려 입은 화려한 비단 옷과 두툼한 쌍 가락지를 보면 누구도 그를 거지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다.

그래도 그는 거지가 맞았다.

단심맹의 십대문과 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 개방의 소방주, 후개(後丐)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하나 거지답지 않은 행동과 차림 때문에 그는 백결공자(白潔公子)라는 별호로 불리고 있었다.

“아미타불, 개방의 후개께서는 개봉에 계신 줄 알았소만.”

“갑자기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 이 몸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봉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왔소이다.”

소림의 최고 배분인 혜각을 대하는 말투 치고는 너무 무례하다. 그러나 혜각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혜각에게서는 언제나 잔물결 같은 고요함이 흘렀다. 사람에 따라 그것을 세월이라고 하는 이도, 혹은 연륜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었으나 소림의 제자들은 그것을 평상심이라고 생각했다.

이 늦은 시각, 그것도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림의 최고승을 무턱대고 방까지 찾아오는 사람을 대하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것은 확실히 평상심이라고 불릴 만 했다.

“허어. 그래. 무슨 재미난 일이길래 개봉의 일도 마다하고 온 것이오?”

개방은 개봉성에 본타를 두었다. 마교의 손에 개봉을 빼앗기고 본타가

수몰되는 수치를 겪었으나 개방의 항전은 끈질겼다.

바로 지금 혜각의 앞에 돌연 나타난 백결공자 한태방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소소한 저항전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장안성으로 온 것이다.

“나도 가리다! 제발 좀 보내 주시오!”

혜각에 비하면 백결공자 한태방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개방의 후기지수이며 동시에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인 행동이 많은 이들의 빈축을 샀다.

그래도 한태방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강호의 모든 사람들을 개방의 문하로 들이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다니는 자였다.

‘세상 삶들이 다 거지가 되면 어디 가서 비력질을 해!’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죄다 한태방에게 목사발이 난 후로 그런 얘기는 썩 들어갔다.

성격은 몰라도 실력 하나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 그가 바로 한태방이었다.

혜각이 그런 한태방을 보며 물었다.

“허허..... 어딜 가는데 이 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요?”

한태방이 눈을 둥글게 떴다.

“응? 그야 당연히 장경각이지. 선사께서는 아니 가시오?”

혜각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이 노구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한태방이 연신 턱을 갸웃거렸다.

“응? 왜 안 가시지? 이 좋은 기회를?”

“허허..... 좋은 기회라?”

“그렇지 않겠소이까? 지금이 아니라면 또 언제 소림의 장경각을 구경하겠소? 맨날 꿈꿨던 걸어 잠그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입도 뻥긋 안 해주는 곳을.”

“구경이라? 허.....”

혜각은 계속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개방의 소방주 한태방이 보기보다 범상한 인물은 아니라고 익히 들어왔으나

武極 - Story Book

직접 대면해 보니 당황스럽다.

“장경각에 대한 방침은 본문의 오래된 규율이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구려. 개방의 뜻도 후개의 뜻과 함께하는 게요?”

한태방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원, 늙은이들이 어찌나 잔소리가 심한지. 그래도 나 한태방은 기왕 거지로 태어난 인생, 내 발 가고픈 곳은 언제든 가겠다는 신조로 살아왔소이다. 장로들이 뭐라 건 나는 가겠소! 그러니 저.....”

한태방이 마치 사탕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 같은 표정으로 혜각을 바라보았다.

“나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게, 장로들이 정 가려면 선사의 허락이라도 구하라고 해서.....”

혜각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심맹의 분열이 안타깝기만한 사람이었다. 십대문파가 마교라는 전대미문의 환란 앞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제 욕심에 치여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싫었다.

“후개께서 가주신다면야 이 몸이 감사를 드려야지.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길 빌겠소.”

한태방이 활짝 웃었다.

“정말 고맙소!”

“개방에서 나섰다고?”

백결공자 한태방이 혜각을 찾아가 담판을 지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단심맹 안을 파고들었다. 더군다나 그는 그날 새벽으로 짐을 싸서 낙양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게다가 백결공자라..... 개방에서 무슨 의도인가?”

무당의 대장로 능운 진인은 회색 눈썹을 까닥이며 생각을 다듬으려 했다.

“개방에서는 소림의 장경각에 아무런 볼 일이 없을 터인데.”

능운진인의 옆에서 그의 수제자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어쩌면 소림에 적은 힘을 보태고 나중에 개봉성을 수복할 때 도움을 받으려는 지도 모릅니다.”

“개방의 본타가 수몰(水沒)되었는데 개봉성을 수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개방의 본타가 있던 곳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느닷없이 소림의 행보에 뛰어들다니. 남들이 보면 장경각의 비급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백결공자 한태방은 생각보다 말이,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심계가 깊고 영악하다 합니다. 그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번 소림의 행보에 참가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

무당에서 이렇게 어림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장안성에 머물러 있는 십대문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산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특히나 무당은 그 입지 상 경계를 게을리 할 수가 없었다.

화산파에서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후기지수 평일지가 낙양성 지부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기 시작한 무당이었다. 무당에 평일지만한 고수가 없는 것도 아니요, 무당이라는 이름이 화산에 밀릴 까닭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화산은 언제나 무당보다 한 발을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평일지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야 한숨 돌리겠거니 했더니, 낙양성 지부를 쫓아 찬 것은 엉뚱하게도 소림이었다.

무당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무당만 뒤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낙양은 소림이 물러난 뒤로 계속해서 마교의 수중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단심맹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된 곳이다. 그런 지역을 다시 소림의 인물이 가로챘다는 것에는 꽤 많은 의미가 들어있었다.

武極 - Story Book

더군다나 새로이 낙양성 지부장이 된 소림의 제자는 평일지가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자였다.

후기지수 중 제일이라는 평일지가 그토록 경계했던 자이니, 분명 보통 인물은 아닐 터였다. 그러니 개방의 소방주가 끼어든 것이리라.

개방의 영역인 개봉성은 낙양성과 그리 멀지 않았다. 혹시라도 낙양성 지부장에게 개방이 그 어떤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히 개방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능운 진인이 던진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벌써 여러 걸음이 뒤쳐진 무당에서도 뭔가를 해야 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단형이를 보내야겠다. 이 참에 소문이 자자한 소림의 제자와 개방의 후기지수를 견식해 보는 것도 나쁠 것 없지.”

단형은 무당 내에서 손꼽히는 후기지수로 이미 마교에 의해 함락된 무당의 본산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항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능운 진인은 백결공자 한태방을 견제하기 위한 수로 단형을 꺼내든 것이다.

“이제 단형이도 양지로 나올 때가 되었지.”

“그럼 단형이에게 이곳으로 와 혜각선사를 만나라 이를까요?”

“그럴 필요 없다. 혜각은 내가 만날 터이니 단형이는 곧장 낙양으로 보내거라. 그 편이 더 빠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武極 - Story Book

2.2.2. 제 86 화 [부관]

“명아.”

상쾌한 새벽공기를 뚫고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범여의 다정한 음성이다.

진명은 이른 새벽부터 수련을 하다가 땀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범여 대사님.”

“많이 좋아졌구나. 이젠 더 이상 내게 배울 것도 없겠다.”

“하하. 아직 모자란 실력이라 내세우기 부끄럽습니다.”

“너는 내 제자나 다름없는데 뭐가 부끄럽단 말이나.”

부드러운 음성.

진명은 많이 달라진 범여의 모습에 새삼 사제의 정을 느꼈다.

가슴이 뭉클하다.

“대사님.....”

“내 비록 너와 정식으로 사제지간의 연은 맺지 아니하였으나 난 너를 조금도 남이라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 남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다.”

진명은 조금씩 젖어드는 눈시울을 들키지 않으려고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이런 새벽부터 무슨 일이신지요.”

“아, 네게 볼 일이 있어 왔다.”

진명이 낙양성 지부장의 역할을 맡은 뒤로, 그의 수련 시간은 이른 새벽으로 정해졌다. 그 외에는 딱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래저래 범여와는 연무장에서 마주칠 시간이 잘 맞지 않게 되었던 참이다.

부러 시간을 내어 진명을 보러 온 범여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혜각 사숙께서 전서를 보내셨다. 개방에서 이번 장경각 행에 조력한다는구나. 오늘쯤이면 개방의 사람이 도착할 터이니, 네가 마중을 나가거라.”

진명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저 저 혼자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의외로 일이 커지는군요. 다들 도와주신다 하니 제자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돕는다 하니 어찌겠느냐. 그러겠다 해야지. 어쨌거나 혜각 사숙께서 보내신 손님이니 네가 직접 맞이하는 게 도리인 듯 하다.”

“예, 알겠습니다. 개방에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개방의 후계자다. 별호는 백결공자라 하고 이름은 한태방이라 한다. 그의 명호를 들어본 적 있느냐?”

진명이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오.”

단심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혜각이나 범여의 이름도 몰랐던 진명이다. 어쩌면 강호의 인사(人事)에는 일자무식인 진명에게 손님맞이란 의외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랐다.

범여가 난처한 듯 미소지었다.

“내 당연한 걸 물었구나. 나 역시 그의 얼굴을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는 소방주라는 직책과 이름 석자뿐이다.”

“제가 알아보지 못하면 어찌지요?”

“그렇기야 하겠느냐. 그만한 인물이 알아보기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개방의 사람이니 겉으로 보아도 확연히 구분이 갈 것이다.”

개방은 거지들의 문파다.

진명이 손으로 철썩 이마를 때렸다.

“아, 그럴것군요! 개방의 사람이니 당연한 것일요. 제자가 아둔하여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여가 진명의 어깨를 툭툭 두들겼다.

武極 - Story Book

“괜찮다.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니. 그럼 손님맞이는 네게 맡기마.”

“예, 대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만 해도 진명은 개방의 소방주를 맞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어이쿠, 이거 오늘도 탁자가 죄 반질반질 하구만. 역시 탁자는 운남산 파마자 기름을 먹여서 마른 걸레로 싹싹 문질러 줘야 한다니까. 어어어어.....? 어이, 여기서 방금 파리 한 마리가 미끄러졌네 그러? 아우님은 보셨는가?”

일령은 이른 아침부터 그녀보다 먼저 출근해 시비가 미리 닦아놓은 탁자를 광내느라 새삼 분주한 임완춘을 보며 괴상하게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임 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시비가 벌써 다 닦았잖아요. 나 참, 사람 불편하게 왜 이러신대요?”

“아우님이 그리 말하면 쓰나. 그럼 내가 얼마나 서운한데. 그러지 말고 뭐 더 시키실 일이 없을까나?”

“임 형!”

일령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였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죠? 진 형의 부관은 나 하나로 족하다구요. 세상에 부관을 둘씩이나 부리는 지부장이 어디 있다가구요? 그런 짓을 했다간 당장 화산파에서 뭐라 뭐라 꼬투리를 잡으려 들게 뻔한데.”

“아우님, 우리 사이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고요. 아, 내가 일전에 장안성에서 아우님 목숨을 구해준 적도 있지 않은가? 내 그 일로 새삼 빗 청산입네 뭐네 치사하게 굴려는 게 아니라.....”

“어휴, 그 얘긴 꺼내지도 마세요. 좋아요. 나도 안다구요. 야차부대와 싸울 때 임 형이 절 도와준 걸요. 그치만 그걸로 임 형은 남들이 백 년 동안 낼 생색을 벌써 다 냈잖아요? 그리고 임 형이 진 형의 부관이 되는 건, 물론 제 2의 부관이지만, 어쨌거나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어쨌서 그러는가! 아우님은 맹진 분타주였는데도 부관이 되었는데!”

“에휴. 그거야.....!”

잠깐 일령의 말문이 멈춘 틈을 타서 임완춘이 잔뜩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떼쓰는 데 한계가 보인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정론 같은 것이다.

이제서야 하는 말이지만 임완춘은 효과적으로 일령의 동정을 사기 위해, 그리고 그녀와의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서 일 소저라는 호칭을 아우님으로 바꾸었다.

사실 이 방법은 진명에게는 꽤 잘 통했었다고 임완춘은 믿고 있었다.

“아우님, 정말 그러지 마시게. 아우님은 맹진 분타주를 계속해도 되잖은가? 그런데 나를 보시게. 나는 이제 화산파 속가제자라는, 그나마 비밀 언덕도 사라졌고 말일세. 까놓고 말해 나처럼 연줄 없고 실력 없는 자가 이젠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단 말인가? 그저 말단 칼받이나 되어 그 어느 전투에서 시체가 되어 둥구는 것밖에 뭘 하느냐 말이지.”

“임 형, 그건.....”

“그래서 나도 살아 남으려고 애 좀 써보겠다는 걸세, 아우님. 의제가 낙양성 지부장이 된 지금이 내게는 그나마 다가온 절호의 기회란 얘기지. 아니, 막말로 이날 이때껏 성심껏 돌본 동생 놈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래 잘못인가?”

임완춘은 눈물을 글썽대기까지 했다. 어지간하면 일령도 그 말을 믿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반대로 입술에 침이나 좀 발랐으면 싶기도 했다.

“임 형. 누가 누굴 돌봤다 그래요? 내가 아니었으면 다들 그런 줄 알겠네. 속 시원히 말해서 임 형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진 형을 팔아 출세한 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아우님은 무슨 말을 그리 섬뜩하게 하나. 내가 무슨.....”

“진 형이 임 형에게 자리를 안 줬어요? 지부소속 화산파 무인으로 수성 경비대에 넣어줬잖아요. 그건 왜 마다하고 여기 와서 이래요?”

“그, 그건 말이지.....”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손을 들어 임 형의 다음 말을 막았다.

“됐어요. 이유는 나도 아니까. 수성 경비대 보다야 지부장 부관 쪽이 남들 보기에 더 그럴 싸하니 그럴테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남들 보기 그럴 싸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는 지부 자금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내 장담하는데, 임 형에게 그런 큰 돈을 쥐어주었다간.....”

“아니, 뭐. 그래서 내가 횡령이라도 할 거란 말이야?”

속내를 간파 당한 임완춘이 도리어 왈각 음성을 높였다.

“아우님 그러는 게 아니지! 왜 증거도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모는데! 이제껏 아우님과 내가 함께 동고동락한 것은 죄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인가? 아우님도 저 화산파 놈들과 똑같이 뱃속이 시커먼 족속인줄 내 미처 몰랐단 말이야?”

“아우, 진짜. 왜 여기서 화산파가 나와요. 그러지 말고 그냥 화순 진인에게 사과하지 그래요? 명색이 도산데, 그리 개 패듯 두들겨 뺐으면 미안해서라도 다시 받아주겠지요.”

“아우님! 사과는 무슨!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건 다 우리 진 아우를 보살피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진 아우도 그래. 내가 그리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거늘 이제와 이 형을 이리 박대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임완춘은 정말로 설움이 북받치는지 걸레를 팽개치고는 양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잠시 후 꺼이꺼이 소리마져 들려오자 일령도 미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임 형, 울지 마세요. 정 수성 경비대가 싫으시면 제가 다른 자리를 손 써 볼게요.”

“흑..... 필요 없어! 사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우님들이 날 그리 홀대하는데 나라고 평생 아우님들 뒤치다꺼리나 할 뜻싶은가? 나도 이젠 떠날 때가 된 듯하이! 흑, 흐.....”

그때였다.

집무실의 문이 열리며 진명이 들어섰다. 그는 임완춘이 떠난다는 말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아니, 임 형!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떠나신다니요! 어디로요?”

임완춘이 고개를 들고는 눈물 어린 눈으로 진명을 바라보았다.

“진 아우..... 글썽 여기 있는 일 소저가 내게 떠나라지 뭐냐. 내가 아우님을 팔아 단심맹에서 출세하려 한다는군. 이 임완춘이 서른 인생을 헛 살았어.....”

일령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부릅떴다.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언제!”

“후우..... 가라시니 가야지. 그런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나.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사문도 없으니 하늘 아래를 떠돌다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지.....”

진명이 안타까운 얼굴로 임완춘의 어깨를 꼭 붙들었다.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에게 왜 가족이 없습니까? 의형제는 형제가 아니랍니까? 제가 형님의 가족입니다.”

임완춘이 힐금 진명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정말? 그 말 진심인가?”

“물론입니다! 그러니 떠난다는 말씀은 마십시오.”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게. 그래도 되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요.”

“암, 그래야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형제지간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 하는 말인데, 이제부터 내가 아우님 부관을 하려는데 괜찮겠나?”

“.....예?”

진명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척 봐도 난감해하는 얼굴이다. 일령 같았으면 당장에 그게 무슨 수작질이나며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진명이 어디 그럴 수 있겠는가.

그의 얼굴에 떠오른 이도 저도 못하는 곤혹스러움을 본 임완춘이 황급히 말을 바꿨다.

“내 일 소저의 자리를 빼앗겠다는 게 아니라..... 부관의 부관도 좋다는 게야. 그러니까 아우님의 부관은 일 소저고, 일 소저의 부관이 바로 나인 게지. 그것도

武極 - Story Book

안되겠는가?”

“그런 정도라면야 괜찮.....”

진명이 흔쾌히 그러고마 고개를 끄덕이려 하자, 일령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안돼욧! 진 형, 안돼! 아무리 자금 운영권이 전적으로 지부장에게 있다지만 이건 완전 인력 낭비에 돈 낭비라고. 대체 부관의 부관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자리가 왜 필요한데?”

“아우님! 정말로 그 정도를 못해주겠는가? 이 우제가 지봉 하나 없이 떠돌다 죽게 생겼는데?”

“죽긴 누가 죽어요? 그리고 그거 공갈협박 아냐?”

“협박이라니? 일 소저는 나를 도둑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이젠 협잡꾼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생명의 은인에게 어찌.....”

“임 형, 진짜! 말 좀 그만 꼬아요! 진 형이 진짜인 줄 알겠어요!”

“꼬다니? 누가? 방금 일 소저가 그러지 않았소!”

“너무하긴 누가 너무한 건지 모르겠네, 진짜. 그렇게 안 된다는데 계속 생떼를 쓰는 게 누구예요, 대체?”

“생떼라니! 아니, 형이 아우를 돌보겠다는데 그것도 생떼요?”

“부관의 부관이라면서요. 그럼 진 형이 아니라 나를 돌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은 물론 안 된다고.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거, 끝까지 사람 치사하게! 일 소저가 이런 사람인줄 미처 몰랐네!”

“치사한 줄 알면 그만 포기하시지요?”

“일 소저,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그렇게 너무 야박하게 굴면 시집가서도 소박맞을 게 뻔하지라. 아무리 진 아우가 너그럽다고 해도 말이.....”

“임 형!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계속 그렇게 나오면 나도.....”

두 사람이 점차 진심으로 싸우기 시작하자 진명이 외쳤다.

“둘 다 그만!”

두 사람이 순간 입을 닫았다. 기회를 틈타 진명이 빠르게 말을 이었다.

“형님, 그만 하십시오. 아우도 그만 해. 다신 안 볼 사이도 아니면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이.”

일령의 표정이 굳었다.

“함께 일하다니. 설마 진 형 지금.....”

진명이 좀 전에 임완춘에게 했던 것처럼 일령의 어깨를 꼬옥 붙들고는 그녀의 눈을 뵈히 들여다 보았다.

“정말로 안되겠어, 아우? 지금 지부의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물론 아끼자는 건 좋아.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임 형이잖아. 아우가 정 힘들겠다면 내가 받는 녹봉을 임 형과 나눠도 되니까. 그래도 안되겠어? 응?”

진명이 너무 진지하게 부탁했던 탓일까. 아니면 그저 입김이 닿을 정도로 진명이 너무 가까이에 있었던 탓일까.

일령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고는 진명을 핵 떠밀었다.

“모.....몰라! 진 형이 알아서 해! 화산파에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난 몰라!”

일령이 새침하게 등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가버리고 난 후 임완춘이 진명의 어깨를 쓱쓱 어루만졌다.

“아우님, 고마우이. 이제 보니 일 소저가 아우님에게 꼭 잡혀 사는 모양이네?”

진명이 멧쩍게 웃었다.

“잡혀살긴요. 그런 말을 아우가 들으면 화낼 겁니다.”

“아, 척 보니 그런데 뭐. 역시 아우님은 사내 중의 사내야. 암, 이런 게 진짜 사내지. 새삼 아우님의 의형이라는 사실이 뿌듯하구만.”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 저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일령의 날카로운 음성이 끼어들었다.

“거기 두 사람! 일 안 할 거예요? 지부장이 어디 놓고 먹는 건가?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하겠어요?”

“아, 맞다.”

자리에 앉기 전에 진명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

“아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오늘 오는 손님을 맞으러 가야 해. 일단 소요루에서 뵈기로 했어. 아우가 같이 가줘.”

武極 - Story Book

지부장의 부관으로서 일령은 공식적인 자리에 진명과 함께 걸음 해야 했다.

임완춘은 기를 쓰고 진명과 일령을 따라 나섰다.

부관의 부관은 일례가 없던 직책이라 딱히 행동강령이 주어지진 않았으나,

武極 - Story Book

2.2.3. 제 87 화 [백결공자]

“아하, 드디어 낙양성이구만.”

빈틈없이 머리카락을 모아 뒤로 묶어내고 이마에는 하얀 건까지 두른 청년이 낙양성의 성문 앞에 서 있었다.

깔끔한 백의(白衣)를 입어 다른 이들이 보면 영락없는 서생차림인데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형형하다.

“자아, 그럼 그 소문난 진명이란 녀석을 한 번 볼까?”

꼬르륵.

“아, 쉬지 않고 달려왔더니 배가 좀 고프군.”

장안성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온 그였다.

백의 서생은 ‘음’ 하고 잠시 고민하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활달한 표정을 지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그럼 어디 좋은 데라도 가서 구걸을 해 볼까?”

옷차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투를 내뱉은 백의 서생은 곧 휘적휘적 낙양성의 정문을 향했다.

“개방의 사람이라고? 찾기는 쉽겠다, 그럼.”

“그러게. 그렇지만 얼굴을 전혀 모르니 불안하기도 해. 아우는 그에 대해 아는 바 없어?”

일령이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런 데에는 어두워서. 임 형이야말로 뭐 아는 거 없어요?”

임완춘이 기다렸다는 듯, 얼씨구나 입을 열었다.

“아, 그야 물론 있지. 이 임 모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정보 수집 및 전달 능력이야 고수 급 아닌가? 개방이야 구파일방의 그 일방으로서, 천하를 자유롭게 떠도는 거지들의 집단이지. 나는 새를 속일 수는 있어도 개방을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개방의 정보력은 강호 제일이지. 게다가 부자가 망하는 법은 있어도 거지가 망하는 법은 없다는 옛말처럼 자금력 또한 대단하다 하네.”

일령이 얼굴을 조금 찡그렸다.

“부자야 가진 게 있으니 망할 것도 있는 거죠. 거지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건 아예 그조차도 없다는 뜻 아녜요?”

“어허. 아우님은 고작 사소한 옛말 하나로 시비를 걸 참인가?”

“아, 그런 뜻은 아녜요. 계속 하세요. 그래서 개방의 후개는 어떤 사람이죠?”

“후개는 말 그대로 천하 거지들의 왕초자리를 이어받을 후계자란 소리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강호에 나서기 전 방주로부터 타구봉법을 모두 전수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한 방주의 신물인 타구봉을.....”

“그건 나도 알아요. 그 후개인 백결공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래서 그 백결공자란 백 가지 결, 즉 백 가지 매듭을 맺다는 뜻으로 사실 사람이 매듭을 백 번이나 꼬고 다닐 리는 없으니까 이건 그냥 명호를 위한.....”

“백결(白潔)이면 깨끗하다는 뜻 아니고요?”

“아, 그런가?”

“임 형! 그래서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제서야 임완춘이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 나도 잘 몰라. 사실 내가 모르는 강호의 고수는 거의 없는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개방에 대한 것은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마도 개방이 마교의 침공 이후로 꼭꼭 숨어서 그런 듯 허이. 하긴, 거지들이 작정하고 숨으면 그걸 누가 찾아내겠나. 길가는 거지를 죄다 붙들어 둘 수도 없고 말이야.”

“하아, 내가 못 살아. 결국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잖아.”

일령이 입술을 살짝 내미는 동안, 진명은 소요루 입구에서 혹시 그들의 손님일지도 모르는 자를 발견했다.

武極 - Story Book

화려한 객잔 입구 옆, 그늘진 어두운 곳에서 덜썩 자리잡고 앉아 다 찌그러진 밥그릇 하나를 다리 사이에 끼고 있는 거지 하나를.

“저 사람일까?”

영락없는 거지였다.

때가 꼬질꼬질한 누더기에, 닳고 닳아 금방이라도 구멍이 뚫릴 듯한 밥그릇에 벼룩이 툭툭 튀는 봉두난발까지.

얼굴은 어찌나 더러운지 그가 청년인지 노인인지도 쉬이 알 수가 없었다.

그 거지는 정말로 불쌍한 자세로 공손하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마치 제 집 안방인양 편하게 구걸행위를 하고 있었다.

“한 푼 줍쇼.”

목소리 마저 불쌍한 진짜 거지다.

진명이 확신을 갖고 말했다.

“거지 중의 거지란 저런 거지를 두고 말하는 걸 거야. 과연 개방의 후개는 다르구나.”

그러나 일령은 반대였다.

“진 형, 확실히 하자고. 소요루 안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니면 소요루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야 나는 당연히 객잔 안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저렇게 진짜 거지다운 모습이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해.”

“그런가? 하지만 개방의 후개잖아. 저 거지에게서는 기도 같은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아우님, 개방이 괜히 개방이겠소? 거지가 나 고수입네, 이리 힘주고 다니면 누가 동양을 해주겠소?”

“하지만 후개라잖아요. 후개도 구걸을 해요?”

“아, 후개니 더 잘해야지. 거지 중의 거지이자, 천하 거지들의 둘째 왕초인데.”

“.....그런가?”

진명과 임완춘이 확신하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반신반의하던 일령도 이제는 수긍하는 눈치였다. 일령이 아무리 기지와 재기가 넘친다 하더라도, 그녀 역시 갓 강호에 뛰어든 초출이었다. 더군다나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란 터라 누가 어찌고 어쩔다더라 하는 식의 뒷소문에는 하등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얼굴만 척 보고도 그가 개방의 후개인지, 아니면 그냥 거지인지 하는 것은 그녀의 기지로도 확인 불가능했다.

“범여 대사님께서 그를 알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하셨어. 분명 저분일 거야.”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진명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는 곧장 거지에게 다가가 정중히 포권으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림의 진명입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거지가 눈을 깜빡였다.

“한 푼 줍쇼.”

“.....예? 혹시 돈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진 것이.....”

진명이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도 동전 몇 푼이 있었기에 진명은 그 돈을 몽땅 거지의 다리 사이에 놓인 주발에 넣어주었다.

“약소하지만 지금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

거지는 진명이 뭐 라건 말건, 주발 안에 담긴 잔돈을 냉큼 품 안으로 챙겨 넣었다. 그리고는 똑 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한 푼 줍쇼.”

이쯤 되자 진명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저..... 명호가 백결공자라 들었습니다. 맞으신지요.”

“한 푼 줍쇼.”

“이만 지부로 자리를 옮기심이 어떨지요. 당분간 출발 전까지 지내실 곳을

武極 - Story Book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 폰 줍쇼,”

“저기,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습니까?”

“한 폰 줍쇼. 안 줄 거면 저리 비키쇼.”

“.....?”

그때였다.

소요루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안에서 점소이가 급하게 뛰어나왔다.

진명이 낙양성에 온 뒤로 소요루에서 지낸 시간이 제법 되므로, 점소이는 진명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부장님! 지부장님!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웬 정신 나간 놈이 나타나서는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진명 일행이 서로 눈짓을 보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러지요.”

진명이 앞장섰고, 그 뒤를 일령과 임완춘이 따랐다.

“비키지 않는다니 할 수 없지.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말은 순간이었고, 동작은 그보다 더 짧았다.

광! 우지끈!

덩치 좋고 인상 험하기로 소문난 소요루의 문지기가 훌쩍 날아가 탁자 하나를 박살냈다.

“아니, 이 놈이?”

두 번째로 덩벼든 다른 문지기 역시 같은 꼴이 될 뿐이었다.

“무공을 익혔구나! 어쩐지 씨이.....”

세 번째 문지기는 차마 덩벼들 생각을 못하고 이를 갈았다.

문지기 두 명을 훌쩍 집어 던진 고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게 어차피 하게 될 거라지 않았나. 내 이제껏 내 앞에서 동전 한 폰 적선 않는 인간은 본 적이 없다니까. 아, 물론 우리 사부는 빼고. 그 인간은 내 입 속에 든 밥풀까지 뱉어다 먹는 인간이니까.”

진명 일행이 들어선 것은 마침 그 순간이었다.

“아이고, 지부장님!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습니다!”

진명의 얼굴을 본 소요루의 점장이 호들갑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안에는 물론, 혈무련으로부터 단신으로 낙양성을 구한 소림의 초고수님께서 이 불한당을 흠씬 두들겨 패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글쎄 이 놈이, 아, 글쎄 밥이랑 차랑 잔뜩 시켜서 먹고 나서는 글쎄 지는 거지니까 밥값을 좀 적선하라지 뭐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줍쇼! 아, 저 놈이 입고 있는 옷이랑 신발이랑 좀 보시라구요! 저게 어디 거지꼴인가!”

점장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쳐대지 않아도, 눈 앞의 고수가 거지라는 데에는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었다.

말끔히 차려 입은 때깎 고운 비단 옷은 물론이거니와,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가죽 신에 허리에 두른 옥대는 한 눈에 보기에도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비싼 것들이었다.

그가 이를 쑤시며 말했다.

“꺼억. 내 마음이 거지인데 번드르한 외모가 무슨 상관이야? 하긴, 내가 좀 잘나긴 했지.”

점소이가 소리쳤다.

“세상에 제 잘났다는 거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거지면 거지답게 굴던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거지의 삶이야. 그게 내 철학이고.”

점소이가 애처로운 눈길로 진명을 보았다.

진명은 굳은 얼굴로 정체불명의 고수에게 다가섰다.

“늑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곳 낙양성은 단심맹의 보호 아래 있는 곳입니다.

武極 - Story Book

이런 소란은 용납할 수 없으니 어서 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대답은 엉뚱했다.

“택이 낙양성 지부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돈을 내주시겠습니까?”

“잘됐군. 그럼 택이 내 밥값을 적선하슈.”

“.....예?”

진명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왜? 그렇겐 못하겠나? 흠음. 자고로 큰 자리에 있는 인물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 이렇게 적선이라는 미덕을 모른다면 곤란한데.”

진명이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적선을 해야 할 사람에게라면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지만 뭐? 내게는 못하겠다는 거요? 아니, 적선은 마땅히 나 같은 거지에게 해야지. 아니면 누구한테 하나?”

스스로 거지라고 주장하는 고수는 계속 느물대는 실웃음을 흘리며 진명의 신경을 거스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진명을 화나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당신이 거지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소.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면 힘을 쓸 것ियो.”

진명이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그가 무척 화가 났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고수는 오히려 반색을 했다.

“어이쿠? 정말? 그럼 나아 좋지.”

‘좋지’라는 마지막 말이 진명의 귀에 들리기도 전에 무언가가 공기를 갈랐다. 날카롭게 세운 조법이였다.

예사롭지 않은 기세에 진명이 깜짝 놀라 몸을 뒤로 젖혔다.

“에잉, 쫓. 그걸 피했어?”

앞에서 날아온다 싶었던 그의 손가락이 이번에는 진명의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기이한 각도로 팔꿈치를 꺾어 순식간에 공격 방향을 바꿔낸 것이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무공이었다.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움켜쥐고 쓰는 것을 보면 금나수나 조공 계열일텐데 저런 투로로 움직이는 무공은 처음이었다.

“저건 금나수가 아니라 단창이나 봉을 휘두르는 것 같잖.....아!”

느닷없이 시작된 진명의 싸움을 일령이 말리려 했다.

“진 형! 그만둬!”

그러나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부웅, 펑!

진명의 주먹에서 나한권의 연초가 터져 나왔다. 그의 손이 그려내던 날카롭던 투로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

정체불명의 고수는 연거푸 뒷걸음질을 치며 간신히 나한권의 공세에서 벗어났다.

놀랍게도 그의 입가에 뚜렷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이쿠, 소문이 과장된 건 아니구만. 맨 손으로는 상대가 안되겠어.”

휘릭!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손에 무언가가 쥐어졌다.

바닥을 굴러다니던 부러진 탁자의 다리였다.

일령은 확실히 깨달았다.

그의 금나수법은 사실 봉법이었던 것이다.

일령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진 형!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던 개방의 후개야!

진명이 놀라서 손을 멈추었다.

개방의 후개, 한테방이 실실거리며 탁자의 다리를 옆으로 던졌다.

“에잉, 한참 재미있던 차였는데.”

진명은 어이가 없는 얼굴로 그를 쳐다 보았다.

아무리 봐도 그는 개방의 방도, 거지로는 보이지 않았다.

武極 - Story Book

2.2.4. 제 88 화 [기인]

“이거? 적선 행위를 좀 더 원할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나만의 철학이랄까. 거지라고 더럽고 비루하기만 하면 쓰나. 가능한 잘 차려 입고, 말끔히 꾸며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 그래야 적선하는 자들도 기분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백결공자 한태방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일령은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독설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꾸욱 참고 말했다.

“그런데 보통 적선 행위라는 것은 측은지심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측은지심은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아, 그렇지. 누가 뭐라나?”

일령이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못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더 잘 차려 입은 거지에게 적선을 하지 않는다고요!”

한태방이 껄껄 웃었다.

“아, 그런 인간들도 종종 있지. 그런데 결국은 다들 적선을 하더라고.”

“어떻게요?”

“응? 방금 전에도 낙양성 지부장께서 내 밥값을 적선해주지 않았던가. 대개 그런 식이야.”

“.....”

일령이 한숨을 꿀꺽 삼켰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해서 돈을 안주는 사람에게는 힘을 써서 빼앗는다는 소리다. ‘그러면 강도와 다를 게 없잖아! 개방은 대체 왜 이런 인간을 후개로 뽑아놨대?’

한태방이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찍는 사람마다 돈 푼을 받아내는 적선 실력을 가진 자는 개방에서 세

명도 안되지. 그 중 첫째가 우리 사부님이고 둘째가 바로 나란 말씀이야. 사실 실력은 똑같은데, 우리 사부님은 내가 동냥질한 밥을 내게서 또 동냥해간다는 점에서 따를 자가 없는 게지. 껄껄.”

일령은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사부에 그 제자로군.’

자신의 얘기를 주르륵 풀어놓은 한태방은 몹시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그는 지부 안을 한 바퀴 주욱 훑어보더니 한층 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아이쿠, 이거 참 잘 꾸며놓으셨구만. 우리 개방은 마교놈들에게 개봉성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본타가 완전히 날아가서 마냥 노숙 신세인데 말이야.”

일령이 쏘아 붙였다.

“거지는 원래 노숙이 미덕이죠.”

한태방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

“이건 개방의 극비 비밀인데, 사실 노숙보다 구걸을 더 미덕으로 치지.”

‘그게 무슨 미덕이냐!’

임완춘은 그렇게 외치려다가 참았다. 구걸도 힘으로 하는 놈인데 아무렴 자신의 말을 꺾 등으로나 들을까 싶었다.

한태방이 히죽댔다.

“이거 참, 아무튼 간만에 적선 좀 두둑이 받아가야겠구먼.”

일령의 표정이 써졌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건데, 소요루에서 때려부순 집기는 모조리 낙양 지부에서 보상해주기로 한걸 기억하시죠? 그 돈이 얼마인지 지금 계산해 드릴까요?”

“으응? 아이쿠, 그럴 필요 없소이다. 내가 원체 돈 계산에 둔해서 말이지. 그런 건 백날 물어봐도 모른다니까. 나야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사 걱정이 없는

武極 - Story Book

사람이니까. 그런 일에 마음 쓰실 것 없소이다. 껄껄.”

일령이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건 내가 마음 쓸 게 아니라 당신이 마음 써야 되는 거야! 왜 그쪽이 때려부순 집기를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냐고!’

일령이 차마 말은 못하고, 얼굴색만 울그락 볼그락 해대는 것을 눈치챈 진명이 종재에 나섰다.

“어쨌거나 불미스러운 일 덕분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그만 쉬시지요. 여기 있는 령 아우……. 큼, 일 부관이 거처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아직은 부관이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은 진명이 깜박 실수를 했다.

그 말에 한태방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엥? 뭐? 아, 해가 이렇게 환한데 벌써 방 구석에 처박히라고? 그게 말이 되나. 이 한태방이 원래 발 가는 대로 살던 자라 중원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다지만, 낙양은 처음일세 그려.”

“아아, 그러셨군요. 그럼…….”

한태방이 진명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냉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니 어서 유람을 가야지. 지부장께서 안내하시려나?”

“예? 유람이라고요?”

일령이 벌떡 일어섰다. 이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안되겠다는 다부진 결심을 방금 마친 일령이었다.

“아니오! 낙양성 지부장께서는 현재 공사 업무로 매우 바쁘시니 정히 낙양 구경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태방이 반색을 하며 일령의 말을 끊었다.

“아이쿠, 그럼 여기 계신 고운 부관 소저께서 해주신다고? 그럼 나야 더 좋지.”

일령이 빙긋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갑기 그지 없었다. 옆에 앉은 진명이 한기를 느낄 정도였다.

“지부장이 공사다망하니 손님 접대는 마땅히 그 부관이 해야지요. 여기 계신

낙양성 지부장의 부관, 임완춘 부관께서 불편함 없이 돌봐드릴 겁니다.”

“엥?”

“응?”

일령의 말에 한태방과 임완춘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소태를 씹은 것마냥 아주 쓴 표정들이었다.

한태방의 눈빛이 돌변했다.

마치 토끼를 눈앞에 둔 맹수 같았다.

“카악! 튜.”

가래침을 뱉는 한태방의 모습에 임완춘은 움찔했다.

“앞장 서게.”

임완춘은 울상이 되었다.

“……그래서 저기가 등봉 분타로 가는 길이고, 등봉 분타 주변에는 훌륭한 상전이 드넓게…….”

“하암.”

임완춘이 기를 쓰고 해대는 설명에 한태방이 우렁찬 하품소리로 응대했다.

임완춘은 입술을 실룩이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누군 뭐 좋아서 하는 줄 아나…….”

고수는 이목도 밝았다. 임완춘의 혼잣말을 귀신 같이 알아챈 한태방이 뼈뚫하게 턱을 꼬았다.

“응? 아니, 지금 그걸 나한테 하는 소린가?”

임완춘이 통명하게 말을 받았다.

“혼잣말이오.”

“그렇게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도 혼잣말이게? 아니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죄다 혼잣말만 하고 사는 게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미친놈이게?”

보아하니 거지 주제에 기획만 달으면 남 신경을 긁는 게 취미인 모양이었다.

武極 - Story Book

“지금 나와 싸우자는 거요? 혼잣말이 어쩌다 들린 것을 가지고 뭘 그리 야단이지요?”

“아니, 임 부관이야말로 지금 내게 화 내는 것 아니오? 그럼 어디 한 바탕 싸워야겠네?”

한태방이 씨익 웃으며 손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 그리고는 예의 타구봉을 꺼내 들었다.

“그럼 시작해 볼까? 임 부관은 실력이 어떻게 되려나?”

그러자 임완춘은 다급한 마음에 버럭 화를 내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만두지 못하겠소?”

한태방의 표정이 돌변했다. 방금 전까지 유들유들하게 웃고 있던 그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입술을 쪽 내밀었다.

“.....엥? 나와 싸우는 게 싫은가? 왜 그러지? 나는 싸우고 싶은데?”

싸우는 것도 상대가 되어야 하지. 상대는 개방의 후기지수다. 평일지가 후기지수 중 최고로 손꼽히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드러난 활약에 의한 것이다.

개방의 백결 공자가 가진 본 실력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다.

“어때? 한 판 할까?”

‘나는 싫다고!’

임완춘이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보는 사람마다 싸우자고 덤비면, 누가 좋아하겠소? 이제껏 강호서 굴러먹은 양반이 그런 것도 몰랐소? 게다가 그 쪽은 개방의 후개 아니오!”

거지 주제에 아무나 패고 다니면 누가 적선을 하겠는가!

임완춘이 보기에 한태방은 확실히 덜 떨어진 거지였다. 그 무공 실력이 아니었다면 제 동냥 실력이 뛰어나다고 자랑질 하고 다닐 일은 일절 없었을 것이다.

“그럼 싸우면 안 되는가? 그런 게 어디 있나? 강호에서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 밥벌이 하는 방법은 싸움이 아닌가? 내 말이 틀렸나?”

“그, 그건 맞지만! 그래도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싸울 것 아니오!”

“이유와 명분? 아, 그야 당연히 있지. 내가 싸우고 싶으니까!”

“나는 싸우기 싫다잖소!”

“그러니까 왜 그러지? 나는 싸우고 싶다니까.”

애기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 이러다가는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싸울 수 밖에, 그래서 몇 대 얻어맞을 수 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임완춘이 재빨리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다.

“한 대협이 싸우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싸우기 싫을 때가 있는 것 아니겠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 합시다. 낙양 유람에 흥미가 없어지셨다면 지부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쩍.....”

한태방은 손에 든 타구봉이 영 아쉬운지 입맛을 다셨다. 그러나 그리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내 이 놈을 한 번 쥐었을 때 이리 맥 없이 도로 들여보낸 적은 없는데. 어디 다른 놈이 없겠는가?”

“으엑? 어떤 놈 말이오?”

“싸울만한 놈으로다가.”

임완춘은 등골이 뻘쭙 솟는 것을 느꼈다.

‘이 양반이 대체 낙양에 왜 온 거지? 개방의 후개는 맞나? 혹시 혈무런 놈이 작심하고 싸우러 들어온 거 아냐?’

그는 한태방을 달래려 애쓰며 말했다.

“이보시오, 한 대협. 낙양이 무슨 무법 천지도 아니고..... 억지로 시비를 걸지 않는 한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한태방이 반색을 한다.

“그럼 시비를 걸면 되는 건가?”

“아니, 아닛! 그게 아니라 말이오! 싸우기 위해 시비를 걸면 시비를 건 한 대협이 나쁜 사람..... 웃!”

武極 - Story Book

획!

갑자기 한태방이 타구봉을 휘두르는 바람에 임완춘은 다급히 말을 삼키며 허리를 납작 숙여야 했다.

임완춘도 발끈했다.

“이, 이거 왜 이러시오! 끝까지 나와 한 바탕 겨루겠다는 거요? 내가 그리 만만해 보여? 내가 이래봐도 낙양성 지부장이 내 아우다 이거야!”

그러나 한태방은 임완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타구봉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비를 걸 상대를 이미 고른 것이다.

한태방이 타구봉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켰다.

뽀얀 흙구름이 경쾌하게 일어나는 곳. 다시 말해 북풍표국이 표물을 싣고 이동하는 중이라는 소리였다.

“저것들은 뭐래?”

“저것은 북풍표국ियो. 중원 전역과 거래를 트고 있다 하던데, 개봉성에는 없나 보오?”

임완춘의 통명스러운 말에 한태방이 웃었다.

“저것들이 표국이라고? ㅋㅋ.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보고는 싶었다만.”

세상 천지에 거지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강호 정보를 모두 꿰뚫고 있는 개봉이다. 마교의 세가 심해 전보다야 못하다지만 그래도 개봉의 정보력은 일품이다.

이미 한태방은 북풍표국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한날 표국이나 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곳도.

“저런 수상한 표국도 있나?”

“시대가 하 수상한데 수상한 표국이 안 될 건 또 뭐요?”

“쫓쫓.”

한태방을 혀를 차더니, 갑자기 빠른 신법을 발휘해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다음에 임완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북풍표국의 표행을 턱 하니 가로막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어이, 형씨들. 애기 좀 하지.”

한태방이 기세등등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임완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저 양반이 진짜! 낙양에 평지풍파를 일으켜도 유분수지!”

북풍표국이 멈춰서자 그들이 일으키는 뽀얀 흙구름도 멎었다. 그러나 임완춘은 웬지 한바탕 몰아칠 폭풍우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

북풍표국의 표사는 마부석에 앉아 한태방을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굳게 다물렸던 그의 입이 열렸다.

“개방의 후개께서 본 표국에 무슨 볼 일이 있으시오?”

그러자 한태방이 킬킬 웃었다.

“이거 대단한데? 어지간해서는 날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는데, 한날 표국의 표사가 날 알아본다 이거지?”

“개방의 타구봉을 모르는 자도 있소이까?”

“아, 그런가?”

“용무가 없으시다면 이만.....”

“어어, 그렇게는 안 되지.”

한태방이 타구봉을 들어 마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표사의 눈빛이 변했다.

“무슨 용무인지 말씀하시오 아무리 개봉의 후개라 해도 본 표국의 표행을 막을 권리는 없소. 차후에 개봉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이요.”

“이거 왜 이러시나?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 텐데?”

마차를 호위하던 표사들이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서서히 앞으로 나왔다.

표사들의 손이 칼자루로 가는 순간.

한태방이 손을 내밀었다.

“한 푼만 적선해.”

“.....”

武極 - Story Book

이 어이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부석에 앉은 표사의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지금은 표행 중이니 나중에 표국으로 찾아오시오. 본 표국에서 홀대하지 않을 것이외다.”

“아냐. 지금 줘. 적선은 원래 내킬 때 해야 하는 법.”

“자꾸만 억지를 부리시면.....”

“나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적선을 받아내는지도 알고 있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한테방이 가장 앞선 표사를 향해 붕을 휘둘렀다. 번개처럼 기습적인 공격이어서 임완춘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 했다. 표사의 머리가 날아가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일 정도였다.

텅!

그러나 한테방의 붕은 표사의 검집에 가로막혔다. 그렇게나 강력한 붕을

막아냈음에도 표사의 몸은 미동도 없다.

한테방이 한쪽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이것 봐라? 정말 표사 맞아?”

임완춘은 기가 막혔다.

‘저 미친 새끼!’

적선을 받아내겠다는 이유는 있었으나 임완춘이 볼 때 이것은 그저 시비일 뿐이었다.

진명을 불러와 막지 않으면 아무래도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임완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임완춘은 쩌싸게 지부를 향해 뛰었다.

武極 - Story Book

2.2.5. 제 89 화 [의심]

한태방의 행동은 충분히 급작스럽고, 당혹스러우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이었다. 이쯤되면 그가 단순히 한 바탕 타구봉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계속 표행을 방해한다면 개방의 후계자라 해도 용납할 수 없소.”

딱딱하고 굳은 어조.

한태방은 질리도록 무표정한 북풍표국의 표사들을 보며 인상을 찡그렸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무력시위를 하겠다는 저들의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전부터 북풍표국에 대해 수상하다는 의심만 가지고 있었으나 막상 접하고 보니 그 의심은 더욱 증폭되어만 간다.

부웅!

한태방은 대놓고 봉을 휘두르며 표사를 위협했다.

“그러지 말고 적선 좀 하라니까?”

봉을 휘두르며 적선을 하라니!

그러나 여전히 표사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듯 출수할 기세다.

‘귀신 같은 놈들.’

한태방이 먼저 치고 나갔다.

“주지 않겠다면 이쪽이 받아 내주지!”

한태방은 어차피 돈을 준다 해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의 궁금증은 하나다. 일개 표국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강력한 무위를 가진 신비의 북풍표국, 그 실체를 알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 부딪쳐 보는 것이다.

사용하는 무공을 보면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터.

“차앗!”

한태방이 봉을 돌리며 공격을 시작했다. 다른 표사들은 가세하지 않고 물러서서 표물을 지키고 한 명만이 한태방을 상대했다.

한태방의 입술 끝이 비틀려 올라간다.

‘겨우 한 명으로 날 상대하겠다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오기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한다.

“나 한태방을 무시하는 것이냐!”

마교 천하가 된 개봉성에서 이제까지 저항군을 이끌고 싸워온 한태방이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마교에 붙잡히지 않은 것은 역시나 그의 출중한 무위 때문이다.

한태방은 공력을 잔뜩 끌어 올렸다.

타구봉을 탁탁 두드려 대다가 돌연 표사의 가슴을 찔러갔다.

표사는 우두커니 서 있는 듯 했으나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뒤로 한 걸음을 물러나며 검을 뽑아 봉을 막아냈다.

검면으로 봉을 눌러 빗겨내는 동작에 조금의 군더더기가 없다. 보통 무인이었다면 검을 놓칠 정도의 괴력이다.

그러나 상대는 개방의 후기지수인 한태방이다.

“제법!”

한태방이 봉을 돌려 반대쪽 끝으로 표사의 어깨를 쳤다. 표사가 몸을 뒤흔들며 봉을 피하자 한태방의 봉이 뱀처럼 미끄러지며 표사의 다리를 노린다.

한 번 공세를 잡으니 조금의 쉽도 없다.

타타탁.

한태방이 땅을 마구 두들겨 대고, 표사는 연신 물러나기만 했다. 보기에는 우스워도 조금이라도 피하는 게 늦으면 다리가 부러질 만한 위력이 있다.

武極 - Story Book

“하하! 이것이 천하의 어떤 똥개라도 때려잡는 개방의 타구봉이시다.”

한태방이 웃으며 소리를 쳤지만 표사의 표정은 냉막하기만 하다. 계속 밀리면서도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한태방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재미없네.”

표사가 사용하는 보법은 평범하다. 강호에서 흔히 쓰는 보법이라 그것만 보아서는 내력을 알아낼 수 없다.

“좀 더 다그쳐야겠는걸?”

한태방은 봉을 연신 휘두르며 더욱 공세를 높였다.

그때까지 사태를 관망하던 표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표행이 너무 지체되는군.”

그 순간.

표사가 움직였다.

탕!

공력이 실린 타구봉을 발바닥으로 차냈다. 어찌나 힘이 강한지 봉이 파라락 하고 떨어져 한태방은 봉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힘을 주어야 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표사가 길게 검을 뺀다. 한태방이 봉과 몸을 함께 돌리며 표사의 허벅지를 후려쳤다.

표사는 검을 거두지 않았다. 심장을 검에 관통 당하는 것과 다리가 부러지는 것, 둘 중에 누가 손해인지는 명확하다.

“빌어먹을, 이런 개똥 같은 일이 있나! 이게 무슨 목숨까지 걸 일이야?”

한태방은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척 했다. 그러다가 봉으로 땅을 찍어 지렛대처럼 몸을 튕기고는 앞으로 검을 찔러오던 표사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하앗!”

한태방이 공중에서 온 힘을 다해 봉을 내려쳤다.

표사는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낮추었다가 일으키면서 위로 검을 크게 베었다.

전력을 다한 검과 봉이 맞부딪쳤다.

광!

“으윽!”

“.....음!”

두 사람 모두 작은 신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 오래 겨룬 것도 아닌데 거의 일격필살에 가까운 수법을 쓴지라 여파가 만만치 않았다.

텅.

표사가 들고 있던 검의 중간이 부러져 튕겨 나갔다.

그에 비해 한태방의 봉은 개방의 신물인 타구봉이라 검을 마주했음에도 어디 하나 상한 곳 없어 멀쩡하다.

그러나 표사의 검이 어찌나 강맹했는지 슬쩍 내상을 입었다.

‘지독한 놈들.’

한태방은 질려 버렸다.

‘나 한태방이 고작 표사 하나를 상대로 이런 꼴이 되다니. 이거 영 웃기는 일이구만.’

싸움을 계속하기도, 중간에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비를 건 것은 물론 한태방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표사의 무위가 높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탓이다.

‘이걸 어쩐다?’

상대방을 쳐다보니 한층 더 답답해졌다. 여전히 인형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한 표사는 토막 난 검을 결코 놓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놈들 한 번 검을 뽑으면 끝을 본다는 건가?’

검이 부러져 나간 상황에서 이미 한태방은 자신의 무위가 조금 더 높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대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다. 최악의 경우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한태방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날릴 태세다.

이 정도면 자신의 무위가 약간 앞선다 해도 좋게 끝내기는 그른 것이다.

‘도대체 북풍표국 놈들, 어떻게 이런 표사를 구했지?’

보통의 표사는 계약에 의해 표국에 고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표국이

武極 - Story Book

대단한 무언가라도 되는냥 목숨을 걸고 있다.

일반적인 표국과 표사의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흠..... 이쯤에서 물러서는 게 좋긴 한데. 그냥 확 내뺄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매우 고맙게도 쌍방에서 동시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멈춰!”

“그만 두십시오!”

때를 맞춰 나타난 진명과 도상운이었다. 목소리는 동시에 들려왔지만, 도착은 도상운 쪽이 좀 더 빨랐다.

표사가 즉시 검을 거두었다.

한태방은 황당해졌다.

‘얼씨구?’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왔다 해도 싸움 도중에 상대에게서 검을 거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태방은 순간 완전히 등을 돌린 표사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첻.”

한태방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을 거두었다.

표사는 한태방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도상운을 향해 극도의 예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상운은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다. 싸늘한 눈길로 표사를 한 번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물러서라.”

“예.”

일언반구의 대꾸도 없이 표사가 물러났다. 그 철저한 명령체계에 한태방은 혀를 내둘렀다.

‘역시 보통 조직은 아니군.’

도상운이 진명에게 공손히 포권으로 인사를 건네었다.

“진 지부장님. 표국의 불찰로 이런 일이 생긴 듯 하군요. 친구분께도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마도 그건.....”

진명은 여기서 한태방을 슬쩍 바라보았다.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간 것 같았는데, 척 봐도 ‘저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라는 속내를 내비치는 행동이었다.

한태방이 눈썹을 치켜들었다.

“뭐 어찌라고?”

진명은 다시 도상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래도 그건 저희 측 불찰인 듯 하군요. 오히려 제가 사과 드려야겠습니다.”

“표형 도중에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표국의 책임인 법입니다. 차후에는 낙양 땅 내에서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도상운은 이미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는 진명이 황송해질 만큼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예. 저희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일은 이렇게 좋게 좋게 마무리 되는 듯 했다.

도상운은 표형 중이었던 마차와 표사를 추슬러 북풍표국으로 향했고, 진명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그것을 지켜보다가 한태방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람을 하신다더니.....”

차마 객에게 질책은 못하겠고,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곱씹는 진명의 얼굴은 꽤나 복잡해 보였다.

한태방이 너스레를 떨었다.

“아, 유람을 하고 싶었지. 그런데 저 임 부관이라는 작자가 자꾸만 재미 없는 곳으로만 사람을 빙빙 돌리지 뭐냐.”

옆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임완춘이 왈칵 성을 냈다.

“뭐가 어째요? 남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武極 - Story Book

“에잉, 자고로 유람이란 뱃놀이 정도는 해야 맞이지. 살결이 하얀 미녀들이 고운 소리로 시도 좀 읊어야 하고 붉은색 등도 좀 달고, 술은 또 독 째로 준비해야.....”

임완춘이 입을 찹 벌렸다.

“거지 주제에 꿈은 야무져서.....”

“뭐야? 거지가 꿈 좀 야무지면 어때? 댁이 뭐 보태준 거 있어?”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대로 가다간 싸움이 일어날 듯 한 분위기에 진명이 나섰다.

“유감스럽게도 낙양성 지부의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유람은 어렵습니다.”

“흥, 진짜?”

“예. 죄송합니다.”

지부에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진명이 그런 유람을 시켜줬을까는 사실 의문이었다. 돈이 없어 스스로 옷통을 벗어제치고 밭일을 했던 진명이니 말이다.

임완춘과 한태방은 비슷한 생각을 하며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흠. 그러면 지부의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은 술로 봐주지. 앞장서시게.”

“.....예?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약주를 들자는 말씀입니까?”

“에잉. 그런 것도 못해주나? 거, 술은 싼 거 먹음 되잖아.”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저도 할 일이.....”

진명의 거부 의사가 확고한 것을 안 한태방이 이번에는 왈각 화를 내었다.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나 따위와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따위는 암전히 알아서 사라지라고? 허, 낙양에서는 손님 접대를 이런 식으로 하나?”

일부러 거절 못하게끔 찢찢매는 꼴을 보려고 화를 낸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방법은 진명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진지하고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금 술을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거짓이나 협박으로는 진명을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한태방은 돌연 표정을 싹 바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다시 말하지. 나는 지금 진 지부장과 긴히 할 얘기가 있네. 물론 장경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거론할 걸세. 장경각 행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수는 없겠지?”

“.....”

이쯤 되자 진명도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한태방이 이 곳 낙양에서 장경각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주장하는 시가지 외곽의 자그마한 주점으로 그를 뒤따라 가야 했다.

주룩.

표사의 입에서 가느다란 핏줄이 흘러 내렸다.

도상운이 표사를 쳐다 보았다.

한태방과 맞섰던 표사다.

표사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해 있고 눈은 새빨강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태방과 싸우며 검이 부러진 후에도 멀쩡한 것으로 보였었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던 것이다.

“쫓쫓. 싸움도 봐 가면서 해야지. 개방의 백결공자에게 싸움을 걸어? 몇 년을 개봉성에서 질리게 버틴 놈이다.”

“그가..... 이 정도 일 줄은.....”

“차라리 저 주었다면 그가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을 테지.”

그 말을 들은 표사가 눈을 부릅떴다.

“그가..... 우리를 의심한다 해도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상운은 서늘하게 표사를 보았다.

“내가 네게 내린 명령은 결코 표행을 실패하지 말라는 것 뿐이었다. 너는 그

武極 - Story Book

이외의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백결공자를 상대로 한 네 행동은 타당한 것이다. 나머지는 나의 일이다.“

“초, 총.....”

그 순간 표사가 왈각 핏덩이를 토해냈다.

엄청난 내상의 증거.

도상운은 눈을 가늘게 뜨고 뇌까렸다.

“한테방..... 과연 개방의 후기지수라 할 만 하구나.”

武極 - Story Book

2.2.6. 제 90 화 [불화]

“카, 좋다. 그래, 이 맛이지. 공짜 술은 언제 마셔도 그 맛이 변함이 없으니 그것 참 세상사 이치란 오묘하기 그지 없도다.”

한태방은 자리에 앉자마자 점소이가 내온 술 한 병을 깔끔하게 비워냈다. 진명은 초조해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망설여지는 순간을 꼭 참아내며 그의 말을 재촉했다.

“한 소방주께서 장경각으로 가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응? 아, 좀 기다려. 술 좀 마시자고. 젊은 사람이 뭘 그리 보채나.”

한태방은 마치 자신이 엄청난 늙은이라도 된 것처럼 말을 했다. 사실 표정이나 태도나 남들보다 수십 년쯤 더 살아 이미 사람이 아닌 능구렁이가 된 자의 그것이라서 아주 어이가 없지는 않았다.

“저는 이곳에 술을 마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실 얘기가 그 뿐이라면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진명이 굳은 얼굴로 자리를 뜨려 하자 한태방이 손사레를 치며 진명을 붙들었다.

“거 참, 이런 방법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지. 좋아. 내 얘기하지.”

한태방의 눈빛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한 진명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태방은 갑자기 사람이 뒤바뀐 듯, 진중하고도 딱딱한 표정으로 진명을 응시했다.

“말하십시오.”

한태방이 입가를 훑치며 진명을 쳐다 보았다.

“지부장은 북풍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진명이 되물었다.

“북풍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니요?”

“까놓고 말해, 난 놈들이 단심맹의 땅에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네.”

신중한 어조로 입에 꾸역꾸역 안주를 집어넣는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한태방의 표정을 보아서는 장난을 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진심이라고 받아들이자니 이번에도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만큼 뜬금없고 생뚱 맞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라도 있습니까? 북풍표국은 그저 표국이 아닙니까.”

진명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한태방이 말을 툇 잘라먹었다.

“내 앞에서 북풍표국이 어찌고 늘어놓을 참이라면 관두게. 나도 알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볼 때 저들은 단순한 표국이 아니야. 봐서 알겠지만 저게 어디 일반 표국인가?”

“일반적인 표국이었다면 이런 난세에 표국을 운영하기는커녕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겠지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 아냐. 그럴만한 돈과 무력이 있는데 왜 표국을 해?”

“저들이 낙양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북풍표국 덕분에 낙양의 상거래가 원활히 유지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장 표국이 사라진다면 물자 수송과 운반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진명의 고지식함에 한태방은 혀를 내둘렀다.

“그래서 수상하다는 거 아니냐고! 마고 놈들이 태반을 먹어 치운 중원 땅을, 저들이 대체 뭐라고 마음대로 드나들어? 천하의 단심맹과 패도십강도 못하는 일을!”

진명은 아무렇지 않게 반문했다.

“실력이 뛰어난 표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뛰어나도 너무 뛰어나니까 문제지! 저만한 고수들이 우글우글 대는 표국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놈들이 왜 표사나 하고 앉았는데!”

武極 - Story Book

“그것은.....”

이쯤에서 진명도 할 말을 잃었다. 처음 북풍표국이 등장했을 때, 그 이색적인 존재에 놀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

북풍표국 내부에 뭔가 단순한 표국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에는 진명도 동감이었다. 하지만 한태방이 의심하는 대로 저들이 단심맹에 우호적이지 않다거나, 그들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진명이 말을 이었다.

“한 대협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모든 것을 다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새삼 저들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태방이 속이 터질 것 같아 제 무릎을 탁 쳤다.

“하! 이거 참. 듣도 보도 못했던 소림의 속가가 아미와 청성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낙양성 지부장에 올랐다고 하길래 어떤 인물인가 했더니, 이거야 그 두 문파가 노망이 났던 게로군. 지금처럼 살벌한 험지 속에 살면서, 뭐? 수상하면 어쩌냐고? 저 놈들이 사실 알고 보면 마교의 소속일지 혈무련 소속일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한태방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이미 마교의 영역이 되어버린 개봉에서 그는 소수정예로 이루어진 단출한 집단과 함께 짧은 시간 급습으로 타격을 입히는 유격전을 펼치며 마교에 대항했다. 비록 개봉에서 마교를 몰아낼 수는 없었으나, 마교의 수많은 고수들과 끝을 알 수 없는 실존인들을 상대로 이제까지 싸워왔다.

한태방은 단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위태위태한 험지에서 자신의 직감과 판단력만으로 이제껏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런 그의 직감이 이번에는 북풍표국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북풍표국을 직접 보기 전부터도 수상하다 여겼는데 직접 손을 맞댄 이후에는 의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한태방은 자신의 감을 믿었다.

북풍표국을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눈 앞에 있는 기 강호초출, 풋내기 지부장은 북풍표국이 좋은 집단이니 의심하지 말라 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을 못 믿겠다 이거지? 개봉성에서 여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나의 이 지고한 직감을?”

진명은 진명 나름대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

“그렇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북풍표국을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정 밝혀지지 않으면 일단 두들겨. 두들기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

진명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내저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제게 실전되었다고 믿었던 소림의 나한기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곳입니다. 저들이 마교나 혈무련이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진명의 이 말은 한태방을 한층 더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뭐라고? 장경각에 들어가는 게 북풍표국 때문이라고?”

한태방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씩씩 거친 숨을 내뿔었다.

“그렇다면 그 놈들이 장경각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냈단 말이야?”

한태방의 입장에서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왜냐, 지금의 마교의 토굴이 되어버린 소림 본산, 그 중에서도 장경각에 대한 정보는 개봉으로서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봉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손에 쥐고 있다는 북풍표국. 한태방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친..... 그럼 더 수상하잖아! 대체 북풍표국의 의도가 뭐야?’

한태방은 속으로 고심했다.

‘소림의 실전된 비급 정보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얻는 게 뭐지?’

그 의도만 밝힐 수 있다면 당연히 북풍표국의 실체도 밝힐 수 있을 터.

그러나 당장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아무 방비도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르는 이 진명이란 자다.

‘이런 애송이를 믿고 사지로 들어갈 수는 없다.’

武極 - Story Book

한태방이 굳이 소림의 일에 끼어든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속가 제자이면서 이제는 소림의 신성(新星)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진명과 인연을 만들기 위함이다.

개봉성과 지척인 낙양성은 앞으로 소림의 세력권이 될 공산이 크다. 미리 진명과 연을 쌓아두면 개봉성의 수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림의 신성이라는 게 이런 머저리일 줄은 몰랐지.’

아직 한태방은 진명에 대해 잘 모른다.

진명은 성정이 우직하고 곧아서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이를 결코 의심하거나 이유 없이 배척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진명의 장점이다.

의심 없이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에 이익을 따지지 않으며, 자신이 한 번 믿은 이를 위해서는 목숨도 거리낌 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 칼날 위를 걷듯이 살아온 한태방에게 그런 것은 사치였다. 어쩌면 그에게는 평일지 같은 계산 빠른 이가 더 어울리기에 적합한지도 몰랐다.

결국 한태방은 생각을 정리하고는 말했다.

“좋아. 멋대로들 하라고. 대신 나는 빠지겠어.”

진명의 표정이 변했다.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꿇구멍이 막혔나. 나는 장경각에 가지 않겠다고. 아니지, 장경각에는 갈 수도 있지. 그런데 진 지부장하고는 못 가겠네.”

진명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태방은 개봉의 주요 인사였고, 그 말은 개봉에서 소림에게 조력을 제공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진명이야 그런 일에는 까막눈이나 다름 없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다면 혜각 대사나 범여 대사가 곤란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북풍표국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한태방은 날카로운 눈으로 진명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 쪽 때문이지. 자네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겠어.”

진명도 약간은 화가 났다.

“저는 낙양성 지부장입니다. 비록 한참 모자라기는 하나, 낙양을 지금처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제 임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 북풍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양에서 배척하는 것은, 낙양을 지키는 일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야 그 쪽 생각이고. 놈들이 정말로 마교나 혈무련이라면, 지금 당장이야 제 본색을 숨기고 있다니 괜찮겠지만 언제고 숨겨진 발톱을 들이댄다면 어쩔건데? 그 때도 낙양을 지킨다느니 어쩌느니 그런 소릴 써부릴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한태방은 몸을 일으켰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그때에나 다시 만나자고.”

그 말을 끝으로 한태방은 몸을 돌려 가버렸다.

진명은 이 예상 밖의 전개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좋을지 몰라 주먹만 꺾 움켜쥐고 있었다.

둘이 이야기 하는 동안 조금 떨어져 있던 임완춘이 진명에게 다가왔다.

“저, 말이야. 혹시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그냥 저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내버려둘 걸 그랬지?”

“아닙니다, 형님. 어찌되었건 제가 알았어야 될 일이지요.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거..... 범여 대사님께서 잘 대접하라 이르신 손님 아닌가. 행여라도 저 인간이 범여 대사님께 가서 고자질이라도 하면 어쩌지?”

진명도 그 점이 걸렸다.

“저도 사실 범여 대사님께서 혹시라도 입장이 난처해지실까 그게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젠 어쩔 수 없지요. 제 입장에서는 한 대협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었으니까요.”

“아, 그건 나도 그래. 북풍표국에서 낙양에 쏟아 부운 돈이 얼마데. 그걸 내쫓으려고 하면 말이나 되겠어? 그리고 지 말로, 다들 엄청난 고수라면서. 그럼

武極 - Story Book

우린 또 얼마나 싸워야 되느냐 말이지. 쫓, 그 인간도 말이야 개방의 후계씨이나 되어서 생각하는 거 하곤.....”

진명이 쓰게 웃었다.

“개방의 후계자로서 생각해야 되는 게 따로 있으니 그럴겠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임완춘이 의아한 얼굴로 진명에게 물었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 그렇다면 아우님도 북풍표국에 의심을 품고 있다는 말인가?”

진명의 표정이 굳었다.

“북풍표국의 장주는 아직 제게 어떻게 해서 반 권의 나한기공을 얻었는지, 나머지 다른 반 권이 장경각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허.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저 한 뭉치기가 말한 대로 수상쩍기 그지 없는 노릇 아닌가! 아니, 아우님은 그래도 장경각으로 가겠다고?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저에게는 달리 여지가 없습니다, 형님. 저는 반드시 가서 나머지 반 권의 나한기공을 찾아와야 합니다. 저는 소림의 제자이고, 소림을 위해 그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명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임완춘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소림의 제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무인으로서 지금 제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 다른 어떤 함정이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가야합니다.”

임완춘으로는 그런 진명을 말릴 수 없었다.

‘개방의 거지새끼는 진 아우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런 게 아니었군. 진 아우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소림을 위해 갈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 말을 개방의 거지새끼에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 뿐이지.’

임완춘은 새삼 진명을 다시 보게 되었다.

대신 그는 진명을 말려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애길 범여 대사께서도 해야겠다. 아니지, 그 양반은 소림 출신이니 아우님과 생각이 똑같을지도 몰라. 그럼 누구한테 한다?’

임완춘이 생각하는 그럴만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아무래도 이번 소림행은 너무 위험해. 진 아우를 말려야 돼. 그 분이려면 아우님을 말릴 수 있을 거야.’

임완춘은 조용히 주루를 빠져 나왔다.

“바쁘신 분에게 공연히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임완춘이 근엄한 척 목소리를 깔았다. 사실 그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탈이었지만, 임완춘은 최대한 옷 매무새와 머리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왔다. 속으로 나는 왜 미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던가 한탄하는 임완춘이었지만, 사실 그가 눈에 번쩍 뜨이는 미남이라고 하더라도 문주희는 그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이다.

“가능하면 얘기를 짧게 끝내고 싶군요. 무슨 일이신지요?”

문주희는 차 한 잔 대접하겠다는 성의도 없이 임완춘을 맞았다.

임완춘은 바보처럼 너무 긴장을 하고 있던 터라 문주희가 자라탕을 들고 온 그때와는 달리 무척 쌀쌀맞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문 소저께서 아셔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게 뭡까요?”

임완춘은 답지 않게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제가 부족한 몸으로 진 아우의 부관의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가 낙양에서 가장 위중하고 핵심적인 기밀사항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임완춘이 이렇게 과장되게 자신을 포장한 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문주희에게 잘 보이려는 이유 하나였다.

그러나 이 말에서 문주희는 새삼 임완춘의 이용가치를 발견했다. 이것이

武極 - Story Book

임완춘에게 다행인지 유감인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말이다.

“어머나. 그 말은 임 대협께서 지금 제게 건네주실 위중하고도 핵심적인 기밀 사항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주희의 눈웃음이 다시금 달콤해졌다. 임완춘은 입이 헤벌쭉 벌어지는 참을 수 없었다.

“무, 물론입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어떤 사항인지 몹시 궁금해지는군요. 게다가 낙양에서 가장 위중하고 핵심적인 기밀 사항들을 두 번째로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점에서도요. 자, 어서 말씀해 주श्य요. 대체 어떤 일일까요?”

임완춘은 크게 헛기침을 한 다음 입을 열었다.

문주희가 달콤하게 웃을 수록, 임완춘의 긴장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긴장감이 그를 억누를수록 임완춘의 입 놀림은 홍수마냥 빨라졌다.

“커엄, 컴! 케헴! 다름이 아니라 이번 장경각 행 말입니다. 문 소저께서는 진 아우가 반 권의 나한기공을 찾아 장경각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이지요. 저 역시 미력하나마 진 대협의 염원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함께 간다고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진 아우에게 나한기공에 대한 정보를 건네준 것이 바로.....”

임완춘은 잠시 땀을 들였다가 말했다.

“북풍표국이었습니다.”

문주희가 뚱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에, 에에?”

武極 - Story Book

2.2.7. 제 91 화 [단형도장]

예상치 못한 문주희의 반응에 임완춘이 허둥대며 말했다.

“아, 예 물론..... 그 북풍표국이라는 집단이 결코 신뢰하지 못할 곳이라는 점에서 그렇지요.”

“어마?”

문주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북풍표국의 존재가 이례적인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 아니던가요? 왜 새삼 그들의 신뢰성이 기밀사항이 되었을까요?”

문주희가 반문을 제기하자 임완춘은 당황한 얼굴로 이마의 땀을 쓸었다. 사실 말해놓고 보니 별 대단한 얘기도 아닌 것처럼 들려와서 본인도 의아해하던 참이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표국인데 일개 표사들의 무공이 너무 고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존재가 이례적이라고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북풍표국을 이용하는 비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더군요. 중원이 험준해질수록 저들의 몸값은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일시에 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표사들은 고용할 수 있겠다 싶던데요?”

임완춘이 다시 땀을 쓸었다.

“아, 하하..... 뭐, 저도 문 소저의 고견에 백배 공감합니다만..... 아, 개방의 후개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개라고요? 백결공자 말입니까?”

문주희의 눈에 반짝, 이체가 스쳐갔다.

‘개방에서 장경각에 볼 일이 있다는 건가? 잠깐, 그렇다면 다른 문파도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임완춘은 문주희가 관심을 갖자 서둘러 말했다.

“아, 예. 어제 낙양 땅에 도착했습니다. 원 참, 그야말로 오만방자, 방약무인한 인간이지 뭐니까. 원체 제가 남 뒷말은 안 하는 성격이긴 합니다만 도무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태방에 대한 뒷말이 끝도 없이 장황하게 이어지려 하는 찰나에 문주희가 임완춘의 말을 끊었다.

“그가 북풍표국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예? 아, 그렇잖아도 그 일로 진 아우와 한 바탕 말씨름을 하더니 자신은 빠지겠다고 훌쩍 나가버리지 뭐니까! 진 아우가 사람이 좋아 그냥 넘어갔지, 이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까! 아니, 그렇게 나오면 소림의 입장은 대체.....”

“백결공자가 북풍표국에서 전해준 정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경각 행을 거부했다고요?”

문주희는 냉정하게 말을 잘라버려야 임완춘과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빠르게 간파했다. 또 다시 산으로 흘러가려던 얘기가 제 자리로 돌아왔다.

“뭐, 결론은 그렇다는 얘긴데 내놓고 진 아우에게 자신은 진 아우를 도무지 못 믿겠다고 하더라니까요. 허 참. 내가 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 세상에 진 아우만큼 진실되고 신의를 아는 사내가 또 어디 있다고!”

임완춘의 말에서 문주희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

‘후개가 직접 낙양으로 온 것은 장경각 행에 동참하면서 진 대협이 어떤 인물인가 저울질해보겠다는 의도였을 거야. 그런데 나한기공에 대한 정보가 북풍표국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안 순간 그 의도는 소용없게 되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개방에서 진 대협이 별 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소리지. 뒤집어 말하면 개방에서 조차 북풍표국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되는군. 자기들이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믿네 못 믿네 이런

武極 - Story Book

애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 천하의 개방에서도 어떤 집단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청성 역시 그들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로군.’

문주희는 새삼 이번 장경각 행에 생각지 않았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문주희가 생긋 웃었다.

‘호호.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 오겠는걸? 이 일은 아미파의 그 계집은 모를 테니까.’

임완춘은 문주희의 웃음을 잘못 파악했다.

“역시 문 소저께서도 그리 생각하시는 거지요? 우리 진 아우가.....”

문주희가 생각에서 빠져나와 매끄러운 동작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말 감사드려요, 임 대협.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느라 몸소 이곳까지 들려주시다니. 소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지요? 소녀가 지금 할 일이 있어 배웅은 못 해드리겠네요. 살피 가세요.”

이 빠르고도 예의 없으며 날렵한 축객령에 임완춘이 화급히 양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수상한 정보에 의거한 장경각 행을 부디 문 소저께서 말려 주십사 하고.....”

“그건 어디까지나 진 대협께서 결정하시겠지요. 소녀가 말린다 한들 그 대쪽 같은 성격에 한 번 굳힌 결심을 바꿀 리도 없고요. 그것이 진 대협의 장점이라면 장점 아니겠는지요.”

“아, 아니. 그건 참 그렇지만.....”

“그럼 소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살피 가세요.”

문주희는 객실에 임완춘을 남겨놓은 채 훌쩍 자리를 떴다. 총총대며 사라지는 그녀의 자태를 바라보며 임완춘은 한숨을 흘렸다.

“임완춘아, 임완춘아..... 어째서 더 말을 하지 못한 게냐. 그래야 그녀가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을 수 있잖느냐.”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문주희의 관심을 좀 더 확실히 살 수 있을만한 기밀을

들고 와야겠다고 다짐하는 임완춘이었다.

진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주점을 빠져나온 백결공자 한태방은 말처럼 곧장 낙양을 떠나진 않았다.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이 참에 북풍표국이라는 놈들이 대체 무슨 짓거리를 벌이고 다니는지 캐볼 수 있을 지도.’

개방에서 북풍표국에 대한 정보를 거의 입수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행보가 그만큼 비밀에 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자, 어디부터 캐 본다?’

한태방은 머릿속이 이렇듯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걸으로는 태연자약하고 느긋한 걸음으로 낙양 시가지를 거닐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소요루 객잔 앞이었다. 좀 전에 화를 내며 나오느라 간에 기별도 안 갔을 술을 마저 마시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심산이었다.

“한 폰 줍쇼.”

소요루의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께죄죄한 거지 하나가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한태방은 자신은 거지가 아닌 양 거만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반 폰은 어떨가?”

거지가 힐긋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러나 그 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는 똑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한 폰 줍쇼.”

“쫓쫓..... 그게 다 욕심이지. 한 사람에게서 한 폰을 받으나, 지금 반 폰을 미리 받고 그 다음 사람에게서 또 반 폰을 받으나 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한 폰 줍쇼.”

“쫓쫓..... 어쩔 수 없지. 그렇다면 두 폰은 어떨가? 대신 한 폰은 다시 내게 돌려주어야 하네.”

조금 이상한 계산법 같았지만, 어쨌거나 한 폰이 생기게 된 거지는 흔쾌히

武極 - Story Book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한태방은 품 안에 손을 넣어 뒤적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내 지금 동전이 없으니 지전(紙錢)으로 줘세.”

“그것도 좋지요.”

들을수록 어딘가 이상했다. 두 푼짜리 지전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한태방은 태연히 지전 한 장을 꺼내 거지의 주발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럼 수고하시게.”

그리고 나서 한태방은 소요루 안으로 들어섰다.

한태방의 모습이 소요루 안으로 사라짐과 동시에, 늘 가진 자들이 드나드는 황금 영업 장소에서 늘 한결 같은 태도로 구걸을 하던 거지 또한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너무 조용하고 빠른 동작이었던 탓에 아무도 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조심조심 걸어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뒷골목 안으로 들어선 거지는 주발에 담긴 두 푼짜리 지전을 꺼내어 펼쳐 보았다.

지전 위에 대충 갈겨쓴 글씨가 눈에 띄었다.

-북풍표국.

짧은 말이었지만 거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모양인지 살짝 고개를 끄덕거렸다.

“헉.....! 저거저거 또 왔어!”

한태방이 객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지기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두려움, 경계, 그것을 없애줄 자에 대한 갈망..... 한태방이 적선을 구할 때마다 늘 보던 광경들이다.

한태방이 빙글빙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어, 그 때 적선해준 밥이 너무 맛있었더래서 내 이렇게 또 왔지. 자리

있는가?”

문지기들과 점소이들이 서로 눈치만 보았다. 선불리 자리를 안내하자니, 분명 돈 한 푼 안낼 속셈일게 뻔 했고 그렇다고 쫓아내자니 신나게 쥐어터질게 두려웠다.

“어어어.....어쩌죠?”

점소이 하나가 작게 물었다. 댜에는 점장에게 작게 속삭이는 말이었지만 한태방은 알뜰게도 귀신처럼 그 말을 알아들었다.

“허허..... 어쩌긴 뭘 어째?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아무 자리에나 앉아도 상관 없으니 적당히 빈 자리만 내어주게. 웬지, 저기 자리 하나가 비었군.”

한태방은 당당히 문지기들 틈을 비집고 걸어가 빈 자리에 앉았다.

그를 말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서 있는 소요루 객잔의 점장 이하 일동을 바라보며 한태방이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다.

“거, 너무 그러지들 말라고. 계산은 낙양성 지부장 앞으로 달아놓으면 될 거 아냐.”

그러자 점장이 매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타협안에 대해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잠시 후 한태방은 여유롭게, 그리고 호화롭게 원하던 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친 한태방은 좀더 몽기적거리며 시간을 때울 궁리를 하고 있었다.

좀 전에 개방의 정보꾼에게 지시했던 작업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물론 그의 능력을 보건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상대가 북풍표국이다 보니 운신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때까지 낙양 안에 있어야 된다는 소린데..... 흠, 뭐 하면서 지내지?”

하늘에 맹세코, 한태방은 게으름이라곤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매 순간 충실히 즐기며 살아왔다. 허투루 흘러 보낸 시간은 단 일각도 없었다. 그 점은 한태방의 인생에서 누구에게라도 자랑할 수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게다가 하늘도 이런 그의 성정을 알았는지 매 순간 적절한 기회를 내려주곤 했다.

바로 지금처럼.

끼익, 텅.

작게 문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섰다.

유연하면서도 강맹한 기도가 한 순간에 느껴지는 절도 있는 걸음새였다.

‘호오.....?’

한태방은 순식간에 그가 겨뤄 볼 만한 인물임을 간파했다.

‘이건 또 웬 떡이나. 마침 배도 불렀겠다 소화가 필요한 판국에.’

그가 점소이를 불렀다.

“여기 자리 하나 주시오.”

“어이쿠,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어서 오십쇼! 한 분이십니까?”

점소이는 어떻게 그토록 유능한 자신이 무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싹싹하게 자리를 안내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않은데..... 거참, 손님께서 걸음이 참 조용하신 모양입니다. 그럼 먼저 앉으시고, 아, 우롱차 먼저 대령할까요? 식사는 주문하시면 신속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꾸했다.

“소면과 만두 하나. 혹시 육류를 사용해 면을 말았다면 만두만 가져다 주시오.”

“어이쿠, 이거 스님은 아니시니 그럼 도사님이신가 보죠? 예예, 알겠습니다. 비린 놈은 한 개도 넣지 말라고 주방장님께 단단히 이르게됩니다.”

점소이가 후다닥 주방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유심히 듣던 한태방은 대충 그 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어디 보자..... 요새 저렇게 엄격히 육식을 금하는 도문은 무당밖에 없지. 나이가 아직 젊은 것으로 보니 단 자 향렬이겠고, 그런데 저만한 기도라. 이걸 필히 그 놈의 단형 도장이겠는데?’

한태방의 추측은 옳았다.

방금 낙양 땅을 밟은 미지의 도사는 바로 무당파에서 급파한 단형이었다.

마른 듯 강단 있는 단단한 체구와 맑고 형형한 눈빛이 그가 매우 엄격히 자신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무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퍼질러 자는 터라 벌써부터 듬직한 뱃살을 지니고 다니는 한태방과는 여러모로 다른 자였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그래. 저 치가 낙양으로 왔다는 것은 분명 장경각 행에 동참하겠다는 건데 말이야. 이거 제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겠구먼.’

빠르게 생각을 정리한 한태방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일단 배를 좀 밀어 넣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은 다음 단형의 앞으로 걸어갔다.

“무당에서 오신 단형 도장 되시오? 반갑소이다.”

그는 정중한 포권으로 인사를 건넸다.

단형이 힐끗 고개를 돌렸다.

“누구십니까?”

“도장을 마중나온 낙양성 지부장, 소림의 진명이외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낙양성 지부장?”

단형이 새삼 한태방을 찌르르 훑어보았다. 듣기로는 낙양성 지부장이 된 소림의 진명이라는 자는 나한권의 고수라던데, 눈 앞의 이자는 전혀 나한권을 쓰는 무인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권을 쓰려면 몸이 빠르고 주먹은 묵직해야 했다. 한태방은 몸이 묵직하고 주먹은 굳은살이 안 보이는 쪽이었다.

그래도 본인 입으로 낙양성 지부장이라는데 굳이 시비를 걸 것까진 없었다.

“소림이 그토록 정보에 밝은지는 미처 몰랐군. 나조차도 내가 낙양성에 도착하는 시각은 방금 알았소만.”

단형의 무뚝뚝한 대꾸에 한태방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놈이 웃는 낮에 침을 뱉네. 성격하고는.’

武極 - Story Book

어쨌거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이쯤되면 오실 듯 하여 미리 나와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이러지 말고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소?”

“식사를 마친 다음 내가 지부로 찾아가겠소.”

“먼 길을 오신 객이니 대접은 지부에서 해야 옳지 않겠소이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한태방은 억지로 단형을 잡아끌었다. 단형은 자신을 붙들려는 한태방의 손을 피하며 말했다.

“이미 시킨 음식은 어찌라는 것이오?”

이쯤 되자 단형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이 되었다. 계율이란 계율은 칼 같이 따라야 하고 상식이란 상식은 모조리 지켜야 되는 사람.

간단히 말해 한태방과는 정 반대의 사람인 셈이었다.

‘아니, 이 놈이?’

한태방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도장께서 시킨 식대는 지부에서 지불토록 해드리지. 그럼 되잖겠소?”

한태방은 일전에 진명을 잠깐 상대하며 썼던 기묘한 조공을 발휘해 기어이 단형의 팔을 뺏아챘다.

“자, 어서 지부로 가십시오.”

한태방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던 단형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일어서야 했다.

어쨌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武極 - Story Book

2.2.8. 제 92 화 [삼파전]

“어디가 좋을까나.....”

지부로 가자던 한태방은 엉뚱하게도 이런 소릴 중얼거렸다.

그 작은 중얼거림을 놓칠 단형이 아니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긴. 그냥 혼잣말이외다.”

“아니, 그렇지 않아.”

단형이 우뚝 멈춰섰다. 이번에는 한태방도 그를 힘으로 끌고 갈 수가 없었다.

“너는 누구지? 진짜 낙양성 지부장이 맞는가?”

“허허.....”

한태방이 일단 웃음으로 때우려 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

휘릭!

잠깐 사이에 날이 무딘 목검 하나가 한태방의 턱 아래에 와 닿았다.

무당의 송문검(松紋劍)이다.

날을 세우지 않은 투박한 검으로 무당의 제자라면 누구나 첫 입문시에 받게 되는 수련용 검이다. 무당의 후기지수인 단형이 쓸만한 검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태방은 송문검을 보자 그가 단형이 맞다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무당의 단형 도장은 평소 수련생들이나 쓰는 송문검을 들고 다닌다 하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구려.”

턱이 서늘하다. 투박한 송문검이 단형의 손에 쥐어지자 어느 보검 못지 않게 날카로운 기세를 발하고 있었다.

단형이 나지막이 외쳤다.

“거짓말은 듣지 않는다.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한태방은 진짜로 꺾꺾대며 웃어버렸다.

“옳거니! 그래야지! 이거 신나겠는데?”

“뭣?”

그 순간 송문검의 검면을 밀며 한태방이 몸을 틀었다. 번개처럼 손에서 녹빛이 일직선으로 뿜어 나왔다.

미리 대비를 하고 있던 차라 단형은 당황해 하지 않았다.

날아드는 녹빛을 송문검으로 부드럽게 받아냈다. 자그마한 원을 몇 번이나 그리며 녹빛이 달아다니 못하도록 가두었다.

“호오! 제법이시오!”

한태방이 단형의 검에 억지로 대항하지 않고 함께 마주 원을 그렸다. 녹빛이 뱀처럼 휘영청 송문검에 감겨 든다.

좌라라락.

두 사람이 그리는 원이 함께 돌다가 얹힌 버드나무 가지가 풀리듯 한번에 풀려났다. 한태방은 짐짓 미소를 지으며 감탄했다.

“역시 무당의 태극혜검(太極慧劍)! 직접 견식해 보니 허언이 아니라는 걸 알겠소.”

“그러는 너는...!”

단형은 그제야 녹빛의 정체를 알아챘다.

한태방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대나무로 만들어진 봉이었다.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강호인이라 할 수도 없다.

“누군가 했더니 개방의 후개셨군.”

“하하! 그럴소이다. 이왕이면 백결공자라 불러주시오. 웬지 그 별호가 끌리거든.”

단형은 조금도 웃지 않고 물었다.

武極 - Story Book

“개방의 후개께서 내게는 무슨 볼일이시오? 그것도 낙양성 지부장까지 사칭하면서.”

“사람 딱딱하긴..... 소문난 무인이 소문난 무인을 만났는데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소. 겨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빈도는 후개를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소이다.”

“이런..... 누구와 똑 같은 소리를 하시는 구만. 두 번 말하면 입 아프니 그냥 한 번 겨뤄 봅시다!”

한태방이 다시 타구봉을 날렸다.

한태방의 봉술 성취는 결코 낮지 않다. 단형은 더 이상 말을 해 빈틈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것이 개봉성의 개새끼들은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지린다는 그 타구봉이외다! 어디 무당의 도사들은 어떤지 봅시다! 하하!”

한태방은 고고해 보이는 단형의 기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자존심까지 긁어댔다.

다른 것도 아니고 타구봉이다. 개와 거지는 원래 상극. 그래서 개를 때려잡는다는 뜻으로 이름붙인 타구봉이다. 타구봉에 얻어 맞는다는 건 단형은 물론이고 무당의 자존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팡! 파팡!

채찍처럼 휘어지며 날아오는 타구봉의 궤적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무당 검공의 진수라 일컬어지는 태극혜검을 모두 익힌 단형 역시 만만치는 않았다.

부드럽게 휘어지며 그려내는 원이 타구봉의 신랄한 궤적을 품에 안으며 흩어내 버린다. 그리고는 빈틈이 드러난 한태방의 요혈을 눈깜짝할 사이에 치고 들어온다.

“하하! 이제야 사람하고 겨루는 것 같네.”

북풍표국의 표사와 겨룰 때에는 진절머리가 났지 신이 나지는 않았다. 한태방은 보법을 밟아 단형의 검을 피하며 쉬지 않고 봉을 날려댔다.

타타탕.

단형은 갈 지(之)자를 그리며 다리를 치고 들어오는 타구봉을 검으로 걷어내며 한태방의 손목을 치고, 한태방은 몸을 틀며 단형의 머리를 내려쳤다.

타구봉이 수갈래로 갈라지며 단형의 머리로 쏟아졌다.

규화타구(叫化打拘)!

현란한 봉놀림에 단형은 질끈 이를 깨물었다. 막으려 해도 봉의 궤적이 워낙 불규칙해 막을 수가 없다.

“하하! 돼먹지 않은 개는 이렇게 때려서 가르치라 방주께서 가르쳐 주셨다오!”

단형은 대답없이 검을 거두었다가 번개처럼 검을 뽑았다. 마치 찍어 누르듯 비어있는 한태방의 가슴으로 송문검이 쇠도했다.

한태방의 눈썹이 일그러졌다.

“이런! 태극혜검의 절초인 태산압정(泰山壓頂)이로군!”

무당의 검은 강호에 익히 알려져 있다. 태극혜검의 절초인 태산압정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얼핏 변초도 없이 단순한 내려치기처럼 보이는 이 태산압정의 초식은 워낙 간단히 보여 오죽하면 강호에서는 삼류무사라도 태산압정을 할 줄 안다 할 지경이다.

그러나 무당의 검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수백, 수 천 년을 쌓아온 무당의 검공은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단형이 태산압정을 펼치는 순간 폭발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와 타구봉의 기세를 억눌렀다. 단형의 머리위로 떨어지던 타구봉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더니 형체가 서서히 희미해져 간다.

‘엄청난 기세!’

그러나 기세 싸움에서 밀릴 수는 없는 노릇. 한태방은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며 한층 더 공력을 끌어 올렸다.

퍼퍽!

마지막 순간에 몸을 비틀어 피한 단형은 어깨를 얻어 맞았고 한태방은 갈비뼈

武極 - Story Book

부근을 그대로 격타 당했다.

단형과 한태방은 서로 두 걸음씩을 물러났다.

“크..... 샌님처럼 보이더니, 검은 그렇지 않구랴.”

그나마 송문검이 날이 없으니 망정이지 날이 있었다면 한태방은 반토막이 났을 터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한태방의 계산에 들어 있었다.

그렇다 해도 태산압정의 위력은 가히 무시무시할 지경이었다.

‘갈비뼈가 나갔나?’

한태방은 숨을 쉬기가 쉽지 않자, 쿨럭대다가 돌연 내공을 일순간에 끌어 올렸다. 장포가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우둑, 두두둑.

부러지고 어긋난 뼈가 깔끄러운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되찾아 갔다.

한태방이 숨기고 있는 비전의 기공술이다. 내공을 이용해 스스로 몸을 치료하는 수법이다.

“으음.”

한태방이 피할 거라 생각했던 단형은 우직한 한태방의 공격에 내심 감탄했다.

‘나의 무기가 날이 없는 송문검이라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다니, 역시 개방의 후개답다.’

그러나 날이 없는 것은 타구봉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단형 역시 어깨 뼈에 금이 가고 약간의 내상을 입었다.

타탁.

단형도 이내 내공을 끌어 올리며 자신의 왼 어깨 부근 혈도를 짚었다.

탁! 탁!

타구봉의 규화타구에 얻어맞아 부어 올랐던 어깨가 가라앉고 들끓던 기혈이 서서히 가라 앉았다.

한태방이 히죽 웃었다.

“형씨도 기공술을 익히고 있었구려.”

단형은 이번에도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태방이 다시 봉을 곧추 세우며 앞으로 내밀었다.

“그럼 우린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으니 제대로 한 번 싸워 봅시다.”

쥔그리고 있던 단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다.

“그릅시다.”

당청은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쫓쫓..... 아, 저것들 저러다 일 내겠구먼. 대체 왜 대로 한복판에서 드잡이질인 게야? 에잉, 쫓쫓.”

문 밖이 시끄러워 도저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다. 당청은 귀찮은 엉덩이를 애써 일으키며 의방을 나왔다.

하필이면 당가의방이 자리잡은 대로 변에서 웬 미친놈들이 박 터지게 싸우고들 있었던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행여라도 눈 먼 칼이 자신을 칠까 두려워 슬금슬금 길을 돌아가고 있었다.

“아, 저것들이! 남의 장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그나마도 없는 손님 다 떨어져나가겠네!”

당청이 왈칵 성질을 냈다. 그러나 그 역시 서슬 퍼런 저들의 싸움에 끼어들 자신은 없었다.

더구나 싸움은 아까부터 한참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얼추 보아하니 당분간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십 년만 젊었어도 저런 것들은 그냥 확 똥통에 처박아 버리는 건데.”

변명을 좀 하자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체력이 딸릴까 봐서다.

“에잉, 쫓쫓..... 이거 나라도 가서 알려줘야겠네. 이런 미친놈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이 몰려드는 장안성에서도 저런 짓거릴 해대는 놈들은 없었구만.....쫓쫓. 개방은 그렇다치고 무당은 또 왜 저러는 거야?”

연신 혀를 차대던 당청은 허리를 툭툭 치며 낙양성 지부로 향했다.

사실 그는 뭔가를 준비하느라 몹시 바쁜 와중이었다.

그래서 진명이나 임완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수고를 하는 대신, 지부의

武極 - Story Book

경비 무사에게 간략히 말을 전했다.

“웬 미친 놈들이 요 앞에서 내 장사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처리해!”

경비 무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당청을 바라보았다.

“당가 의방이야 워낙 장사가 안 되는 곳 아닙니까. 맨날 바가지나 씌우는데 누가 간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되니까?”

“아, 이 놈이! 생긴 것은 멀쩡해서 말 하는 투가 어찌 임 가 놈하고 그리 똑같은 게야! 당장 가보지 못해?”

“의원님 개인 일까지 경비 무사가 봐드려야 합니까? 그런 일은 그냥 혼자서 처리 하시는 게.....”

“웬야!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지껄이는 게야! 이 씨.....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구먼! 당장 진명이 놈 불러!”

“지부장님을요? 고자질이라도 하시렵니까?”

“아, 닥치고 불러! 아니면 내가 직접 들어갈 테니! 아, 내가 들어가면 네 놈 모가지가 온전할 줄 알아? 냉큼 불러오지 못해!”

“이거 참..... 영감님 성질은 젊은이보다 더 하시다니까.”

“냉큼 움직여, 이 놈아!”

경비무사는 오늘 제대로 똥 밟았다는 표정으로 투덜거리며 지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중간에 그는 현명하게도 당청이 그를 호출했다는 사실을 다른 무사에게 전해달라고 이른 다음 교대를 핑계로 사라졌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당의원님?”

진명은 당청이 그를 부른다는 말에 별 군 말 없이 정문으로 나왔다.

방금 전까지 무례하게 굴던 경비 무사 덕분에 후끈 열이 받았던 당청은 진명의 얼굴을 보자 화가 풀려버렸다.

“아, 굳이 네 녀석이 올 게 아니었는데..... 에이, 뭐, 어쨌든 고작 경비 무사 정도로 해결이 안 돼 보일 일이긴 했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청이 그냥 피식 웃어버렸다.

“아, 웬 미친놈들이 대로변에서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 경비 무사한테 알렸더니 제 일이 아니랍시고 발 빼더라고. 그래서 내 화딱지가 나서 네 녀석을 부른 게야. 내 용건은 끝났으니 알아서 처리 해.”

“저런. 거기가 어딥니까?”

“그게 하필이면 당가의방 앞이지 뭐누.”

“저런. 그래서 당의원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로군요. 제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똑 떨어지는 진명의 대답에 당청은 속으로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원. 이러니 네 녀석에게 자꾸 정이 가지..... 헐, 그래. 앞장 서라.”

그러나 진명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휴우. 오늘따라 왜이리 싸움이 많지?’

진명은 그것이 또 한태방일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진명은 또 다시 한태방과 얹히게 되었다.

당가의방 앞으로 온 진명은 기가 막혔다.

“이런.....”

또 한태방이었다.

이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무인과 비무를 하고 있었는데 진명이 보기에다 범상치 않은 실력을 지닌 이다.

낙양성을 책임지는 지부장이 아니었다면 좀 더 구경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그러나 진명은 거리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만들 두시오!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잖소!”

한태방과 단형은 들리지도 않는지 서로 목검과 봉을 미친 듯 휘두르고 있었다.

둘 다 제대로 된 상대를 만난 터라 한창 흥이 돋은 차였다.

진명이 힘차게 진각을 밟았다.

武極 - Story Book

쿠-웅!

“그만두시오!”

그만두라는 외침보다 묵직한 진각이 한태방과 단형을 물러서게 만들었다.

단형은 의외라는 눈빛으로, 한태방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진명을 보았다.

그만큼 진명의 진각은 무거웠다.

한태방은 진명의 진각에 소름이 다 돋았다.

‘머저리로만 알았는데 무공은 진짜구만!’

한태방의 눈빛이 반짝였다.

武極 - Story Book

2.2.9. 제 93 화 [또 다른 삼파전]

“어이쿠, 이거 진짜가 등장하셨네. 그간 잘 지내셨소, 진 지부장?”

“진 지부장? 그렇다면 저 친구가 진명?”

단형은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한태방과 진명을 번갈아 보았다.

진명이 인상을 찡그렸다.

“돌아가신다 하더니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그만두고 낙양성을 떠나시오!”

한태방은 히히 웃었다.

“한창 흥이 올랐는데 그만 둘 수 있나.”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다면 내가 그만두게 만들.....”

진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태방이 다짜고짜 진명에게 타구봉을 날렸다.

“그거 좋지! 지부장도 끼시오!”

아차 하는 순간에 한태방에게 말려든 진명이었다.

그러나 순순히 맞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기에는 한태방이란 작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합!”

섬전처럼 날아오는 타구봉에 맞서 진명이 택한 것은 나한권이였다. 아니, 어차피 진명에게는 나한권 뿐이다.

쿵!

진각을 밟으며 뛰어들며 한태방의 안면에 주먹을 뺐었다.

진명의 나한권 중 가장 빠른 선인공수!

분명 뺏기는 타구봉이 먼저였는데 진명의 주먹은 어느새 한태방의 안면에 닿아 있었다.

“으랏차!”

한태방은 뒤로 훌쩍 재주넘기 하듯 몸을 튕기며 겨우 진명의 주먹을 피해냈다. 그러면서 단형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단형이 급히 송문검을 휘둘렀다.

핑!

한태방의 손에서 뺏은 기운이 송문검과 마주치며 폭발했다. 허공을 격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상승의 기공술이다.

“도장은 왜 구경만 하고 계시오!”

한태방은 등 뒤에서 쫓아오는 진명을 마다한 채 단형에게 달려 들었다. 단형이 반격을 하자 슬쩍 몸을 피해 진명과 단형이 마주치게 만들었다.

텅!

소스라치게 놀란 단형이 송문검으로 진명의 주먹을 막아냈다.

‘무겁다!’

단형은 진명의 권에 담긴 위력 때문에 손이 저릿했다.

‘이것이 과연 나한권이 맞단 말인가?’

적나한을 때려잡고 혈무련의 십대신위를 물리쳤다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미처 주먹을 회수하지 못한 진명이 단형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려는 것이 아니었.....”

“사과는 나중에!”

한태방이 봉을 뒤로 한 채 연신 손바닥을 뺐었다.

“아!”

단형은 송문검을 휘둘러 한태방의 격공장(擊空掌)을 막아냈으나 진명은 양 팔로 막을 수 밖에 없었다.

핑!

단형이 멀쩡하게 서 있는데 비해 진명은 몇 걸음이나 휘청거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격공장은 진명의 나한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武極 - Story Book

못했다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 밖에 없었다.

단형은 미심쩍은 눈으로 진명을 보았다.

‘격공장을 막아내지 못하다니..... 설마 내공이 부족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적나한을 쓰러뜨릴 정도의 권경을 가진 사내가 내공이 부실하다니.

단형은 갑자기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마교와 혈무련의 고수들을 상대로 싸워 살아났는지.

“빈도는 무당의 단형이오. 때는 좋지 않으나 이 때가 아니면 진명 지부장의 위명을 몸소 체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소.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좋은 때와 나쁜 때가 따로 있나? 칼밥을 먹는 강호인이라면 언제 어느 때든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결국 한태방의 공세에 단형이 가세했다.

그리고 한 대 얻어맞은 진명도 슬슬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나 한 번 발을 디딘 이상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한때 소림과 함께 정종무림의 또 다른 태산북두로 까지 불리던 무당의 후기지수, 그리고 개방의 후기지수, 소림의 신성이 함께 만난 자리인 것이다.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문파간의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였다.

“타-앗!”

쿵!

진명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 모습을 본 당청은 입맛을 썩 다셨다.

“말리라고 데려왔더니, 쫓쫓. 젊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때 단형의 횡소천군 초식에 진명이 물러난 순간 공중에서 한태방이 황구복천의 초식으로 진명의 무릎을 쳐 갔다.

당청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비겁한 놈들아! 진 지부장! 다리! 다리!”

그러나 결국 얹히고 설키면서 한태방과 단형 역시 서로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진명이 단형을 공격하면 단형이 진명의 공격을 막으면서 한태방을 공격했고, 한태방은 단형의 공격을 피하면서 진명을 공격했다.

보는 사람조차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삼파전이었다.

하나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만큼 세 사람의 무위는 누가 우세하다거나 할 것 없이 뛰어났던 것이다.

“어이쿠야! 하마터면 저 무딘 날에 코를 베일 뻔 했네. 원, 도사가 되어가지고 그리 손속이 독하면 어찌오?”

“코를 벤다고 죽지는 않소. 하앗!”

“좌우삼화!”

난리가 났다.

“아, 다 됐다.”

여양 세가의 진소라는 큰 칠주야를 꼬박 매달렸던 일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쉬지 않고 바느질을 하느라 발강게 멍울이 진 손 끝이 그녀의 수고를 대신 전해주는 듯 했다.

“후우. 그간 일거리가 없다고 놀았더니 그새 손 끝이 무뎌졌네. 그래도 어쩔거나 완성했다.”

진소라가 손에 들고 있던 옷감을 넓게 펼쳐들었다.

은은한 목빛이 감도는 성인 남자의 회색 무복이었다. 여타 비단 옷과는 달리 광택이 없어 일견 소박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숨죽인 고급스러움이 물씬 묻어나는 옷이었다.

여양 세가 안에서도 가장 솜씨가 좋기로 이름 난 진소라가 온갖 정성을 들여 완성해 낸 무복은 외양의 세련됨뿐 아니라 다른 옷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질기고 튼튼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었다.

“앙. 색이 너무 수수한 것 같아 탈이지만..... 그래도 다른 화려한 색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았던 말이지. 에이, 어차피 이젠 내 손을 떠나는 거니까 그만

武極 - Story Book

미련 접자.”

귀엽게 혼잣말을 종알댄 진소라는 막 완성된 옷을 곱게 개켜 보자기로 썼다.

이 무복은 진명을 위해 만든 것이었다. 상전을 완성해 그녀가 계속해서 옷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니, 진소라도 옷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한 무복을 지으면서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소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아, 이제 가져다 줘야지.”

듣기로는 낙양성 지부장이 어디론가 간다고 해서 지부 안에 잠시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출발이 언제인지 몰랐기에 진소라는 그간 초조해하며 더 부지런히 바느질하는 손을 놀려야 했다.

진소라는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들고 일어섰다.

낙양성 지부까지 걸어가다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소라는 시녀를 불러 마차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아가씨, 여기서부터는 내려서 걸어 가야겠는디유. 저 앞에서부터 뭘 일인지 사람들이 꼭 막구 서 있네유.”

여양세가의 마부가 마차를 멈춰세우고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응? 더는 못 가?”

“글케 생겼시유. 그리구 어차피 여 앞에서부터는 마차를 못 끌게 되어 있네유. 지부 안으로는 마차가 못 들어가유.”

“으응,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서 기다릴테야?”

“글썸유. 자리가 있나 보겠슈.”

“알았어. 나는 볼 일 보고 금방 올게.”

“예. 조심히 다녀오셔유.”

진소라는 마부의 도움을 받아 조심조심 마차에서 내려섰다.

낙양성 안에서도 넘어지는 꼴을 보이기 싫었던 진소라는 발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조심조심 걸어야지. 여기서까지 반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

낙양성 지부까지 곧장 이어진 대로는 오늘따라 사람이 많았다. 무슨 일인지 우글우글 몰려든 사람들은 뭔가를 구경하는 듯 했다.

“저기요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어마, 앗!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으앗! 엄마야!”

진소라는 남의 발을 밟으며, 혹은 자신이 밟히기도 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옷 보따리는 품에 꼭 안은 채였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짐에 신경 쓰다 보니 자꾸만 걸음이 힘들어졌다. 그래도 열심히 걸어가자 뻘뻘했던 사람들 틈새를 어느 정도 벗어난 듯 싶었다.

“하아.....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없..... 엄마야앗!”

턱, 쿵!

아니나 다를까. 진소라는 더 이상 자신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없자 보기 좋게 과당 엎어지고 말았다.

“욱..... 이걸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차마 발뚱 일어설 수가 없었던 진소라는 어떻게 할까 망설이며 잠시 그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넘어지느라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코 앞에서 살벌하고도 험악한 비무가 벌어지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무당과 개방의 후기지수라는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다. 평일지가 그러하듯 이들은 자파의 최고 절기를 이어받은 무재였다.

‘낭패다.’

진명은 이를 악물었다.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는 있었지만 제아무리 진명이라 해도 체력이 슬슬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더구나 한 명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武極 - Story Book

상대하다 보니 몇 군데 얻어 맞아 내상이 점점 심해졌다.

그에 비해 단형과 한태방은 아직 생생했다. 틈이 날 때마다 내공을 끌어 올려 기공술로 회복을 하는 것이다. 타박상과 내상이 늘어가는 진명에 비해 그 둘은 처음과 다름없이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차츰 진명이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공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한이 될 줄이야.’

자신이 무너지면 소림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진명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단형이 쇄도하며 직도황룡의 초식으로 진명을 쪼개버릴 듯 검을 내려치고 있었다.

“타-앗!”

진명은 남아 있는 모든 힘을 끌어 올렸다.

패왕거정!

진명은 송문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쳤다. 단형은 진명이 내공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공이 실린 송문검과 맨주먹으로 상대하는 진명이 무모하다 여겼다.

‘상대가 누구라도 있는 힘껏 상대하는 것이 무인된 도리!’

고지식한 단형은 기세를 줄이지 않았다.

과-앙.

권과 검이 마주쳤는데 벼락이라도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단형의 송문검이 찢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그럼에도 진명의 권은 기세가 줄지 않았다. 아니, 처음의 기세는 한풀 꺾였는데 그 뒤에 또 다른 힘이 남아 있어 단형을 덮쳤다.

“크!”

단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이 적나한을 쓰러뜨린 패왕거정인가!’

조금도 상대를 우습게 보지 않았는데 오히려 쓰러지게 된 단형이다. 단형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때 한태방이 둘의 사이에 끼어 들었다.

“타- 앓!”

타구봉법의 절초 사족양천(四足仰天)!

유연함과 쾌속함을 주 무기로 하는 타구봉법에서 유독 강맹한 위력을 지닌 초식이다. 한태방은 그것이 아니라면 진명의 패왕거정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판단했다.

퍼평!

한태방의 어깨가 뒤로 쪽 밀렸다. 타구봉이 튕겨나가는 것은 겨우 붙들었으나 패왕거정의 여파에 어깨가 완전히 젖혀진 것이다.

그럼에도 한태방은 몸을 몇 번이나 옆으로 회전시켜 겨우 진명의 권경을 흘려낼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든 것이 개방의 보물 타구봉이 아니었다면 단형의 송문검처럼 쪼개져 버렸을지도 몰랐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미친..... 내공도 없고 체력도 바닥난 주제에..... 이게 인간이야?’

겨우 진명의 일 초식 권을 막기 위해 무당과 개방의 절초가 모두 사용된 것이다.

단형도 짧게 진명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진짜배기로군.’

내공없는 초식으로 이 정도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상상도 가지 않았다. 끊임없고 부단한 외공수련만이 초식의 극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단형과 한태방은 말없이 진명을 바라 보았다.

진명은 멀쩡할 수 없었다.

단형과 한태방의 초식을 튕겨내긴 했으나 고스란히 두 문파 절초의 충격을 몸으로 받아낸 탓이다.

武極 - Story Book

털썩

진명이 무릎을 꿇었다. 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운이 없어 버틸 수가 없었다.

엎어져 있던 진소라가 번쩍 일어나 진명을 향해 달려갔다.

“등봉 분..... 아니, 지부장님!”

武極 - Story Book

2.2.10. 제 94 화 [신타래]

진소라가 진명에게 달려가보니 그는 입가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누가 봐도 심한 내상을 입은 것이 눈에 보였다.

“진..... 소저?”

“네. 저 진소라예요. 괜찮아요?”

진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결국 자신은 쓰러졌고 무당과 개방의 후기지수는 멀쩡히 서 있다.

진명은 자신이 졌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다.

‘내공..... 내게도 내공이 있었다면.....’

진소라가 뾰족한 소리로 단형과 한태방을 보며 소리쳤다.

“비겁해요! 한 사람을 상대로 둘이 동시에 싸우는 게 어디있어요?”

한태방은 어깨를 으쓱하며 단형에게 책임을 떠넘겼는데 단형은 자신의 검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명의 권에 부러져 쓸모가 없게 된 송문검이다.

“다시 만들어야겠군.”

그 담담한 말투에 진소라가 왈칵 화를 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깟 나무막대기가 중요해요?”

단형이 딱딱한 눈빛으로 진소라를 바라보았다.

“싸우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면 다행인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번에는 한태방이 끼어들었다.

“그야 당연한 말이지. 게다가 이 정도에 내상을 입었다면 그건 저 치 탓이야.

제 실력도 모르고 덤벼든 거니까.”

한태방은 진명을 억지로 싸움에 끌어들인 게 자신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무시하고 있었다.

“클클. 이거 진짜 웃긴 노릇이로군. 듣기로는 그간 때려잡은 인물들이 꽤나 화려하던데 정작 본인은 내공도 없는 초짜라고? 소림이 그간 세간에 허풍을 치고 다녔다는 건가?”

진명이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 말을 받았다.

“그 말은..... 취소하시오. 내 실력이 모자란 것은 소림의 탓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요.”

“흥. 웃기고 있네. 이런 놈을 믿고 그런 험지로 기어들어갈 생각을 했다니..... 이거 소름이 짝 돋는구먼.”

진명의 권이 대단하다는 것은 한태방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껏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았다고 봐야 했다.

잠시만 방심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지에서 몇 년을 버텨온 한태방이다. 한 번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을 싸우고, 또 쉴새 없이 반나절을 또 싸운 적도 있었다.

내공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약점이다. 단판 결투라면 모를까, 진명은 그런 곳에서는 결코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단형 역시 한태방과 같은 생각을 했다.

단형도 한태방과 똑같은 처지에서 살아왔다. 감정적으로라면 진명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성적으로는 목숨을 건 전장에서 등을 맡기기 어렵다.

그래서 단형은 한태방의 다소 심한 말투를 제지하지 않았다. 한태방은 정확히 진명을 판단한 것이었으니까.

한태방은 진명의 가슴팍을 타구봉으로 쿡쿡 찔렀다.

武極 - Story Book

“옥!”

그 바람에 진명은 가슴의 울혈을 한 번 더 토해내야 했다.

진소라가 놀라 소리쳤다.

“뭐 하는 짓이에요!”

한태방은 그 모습을 한심하게 지켜보더니 단형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어이, 무당 형씨. 그 쪽도 생각 다시 하는 게 좋을 거야. 분명히 이번 일에 동참하려고 왔을테지? 그 대가로 소림에 빛을 달아줄 속셈이었을테고 말이야. 꿈 깨서. 이 인간은 그 빛을 갚을 능력이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까. 아니, 눈곱만큼은 있는지도 모르지. 어쨌거나 이번 일은 소림에서 여기저기에 손 벌리는 꼴이라니까.”

한태방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떠나버렸다. 단형은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주저앉은 진명에게 포권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진명은 그들의 등을 보며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내장에서 목을 타고 치민 피가 찢긴 입술의 피와 섞여 흘러 내린다.

‘내 실력이 부족하면 소림이 수모를 당한다. 반드시..... 내공을 익히고 말 테다.’

진명이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걸 보고 진소라는 기겁을 했다.

“괜찮으세요? 어쩌면 좋아! 이대로 죽으시면 안돼요!”

진소라가 진명의 옷자락을 붙들고 흐느끼면서 외쳤다. 사정을 모르는 자가 옆에서 본다면 웬 여자가 죽은 시체의 역살을 붙들고 격렬하게 분풀이를 하는 듯 보일지도 모른다.

허겁지겁 다가온 당청이 진소라를 핵 밀쳐내며 말했다.

“아, 어디서 청승이야! 이리 내 봐! 상태 좀 보게!”

진명이 파리해진 입술을 열어 말을 이었다.

“다, 당 의원..... 님. 괜찮.....”

“아, 입다물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끝은 그래가지고..... 언능 의방으로 들어가자!”

당청은 급한 마음에 진명을 들쳐 메고 일어서려 했다. 진소라가 킁킁대며 당청을 거들고 나섰다.

결국은 주변에 몰려들어 싸움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나서서 진명을 의방 안으로 옮겨 주었다.

“또 당의원님 신세를 지게 되는군요.”

진명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하자 당청은 되려 버럭 소리를 높였다.

“시끄럽다, 이 놈아! 하루가 멀다하고 내 의방을 드나드는 놈은 내 여적 너밖에 못 봤다. 너보다 더 한 고수들도 싸울 때는 제 몸을 사리는 법이야. 그게 고수가 되는 길이니라. 그런데 네 놈은.....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진소라가 당청의 잔소리를 가로막았다.

“그래서요, 의원님? 진 대협은 상태는 어떤 건가요? 괜찮으신 거겠죠?”

“응.....?”

당청이 새삼스럽다는 눈초리로 진소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니 못 보던 처자일세. 이 놈아, 그 새 여자를 갈아치웠냐?”

진명은 얼굴에서 사악 찡기가 가셨다.

“당 의원님. 그런 말씀은 좀.....! 괜한 소리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라, 이 놈아. 내가 놀래서 하는 소리야. 맨날 붙어 다니는 그 처자는 지금 뭘..... 아냐, 됐다. 됐어. 뭐 네 녀석이 알아서 하겠지.”

당청이 일령의 얘기를 꺼내자 진명은 공연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후우..... 령 아우가 걱정하겠지.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당청이 힐끗 눈치를 살피다 말했다.

“일단 지부에 기별부터 넣어야겠지? 완춘이 놈이나 부르면 되냐?”

“저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저 혼자 있다 가면 안되겠습니까?”

“뭘야? 하이고..... 이 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만. 그만한 내상을 입고 뭘 어쩐다고? 이 놈아, 당분간 꼼짝도 않고 여기 누워서 정양해야 될 게다. 이 놈이 하루 이틀 다쳐보나. 어이가 없네, 그려.”

武極 - Story Book

그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 간에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있던 진소라가 끼어들었다.

“저어, 그럼 지부에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음?”

“진 대협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다는 것도 알았고, 제가 더 있어봤자 할 일도 없어 보이니까요. 어차피 사람을 부르실 거라면 제가 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는 건데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럼 그래 주시겠습니까? 지부에 가서 일 부관이나 임 부관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당 의원님께서 잘 돌봐주고 계시니 너무 여의치 말라고도 전해주십시오.”

“예, 그렇게요.”

“모처럼 오셨는데 번거롭게 심부름을 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부장님께 신세를 진 게 얼마데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진소라는 최소한 아픈 사람 앞에서는 넘어지지 말자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조심스러운 걸음걸이로 당가의방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걷는 데 주의하느라 정작 본인이 왜 낙양성으로 왔는지는 까먹어 버린 진소라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진명에게 주려던 옷 보따리가 곱게 들려있었던 것이다.

진명 역시 경황이 없는 와중에 그녀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진명이 모르는 곳에서 엉뚱하게 발생하고 말았다.

“그런데 누구시라고요?”

진소라는 약간 입을 벌렸다. 깜짝 놀랐다는 그녀 식의 표현이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기에 딱 좋은 표정이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 참 한심하구나, 라는 말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 탓이다.

짐작한 대로 일령은 진소라의 표정에서 엉뚱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뭐야, 이 년은. 지가 뭔데 나타나서 진 형이 지 때문에 다쳤다는 소리를 하는 거지? 게다가 방금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등봉 분타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대체 나 몰래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혼란스럽다가, 다쳤다는 얘기에 잠깐 걱정이 되다가 이내 화가 났다.

반면에 진소라는 진명이 다쳤다는데도 걱정은커녕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진명의 부관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제가 누구인 게 중요한가요? 진 대협의 상세가 어떤지는 묻지도 않으시고.....”

일령이 단호하게 맞섰다.

“당연히 중요해요. 당신이 누군지에 따라서 당신이 가져온 정보의 중요성도 달라질 테니까. 대체 당신이 누군데 낙양성 지부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는 거죠? 단심맹 소속인가요? 아니, 척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게다가 부관인 내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다면 당신이 가져온 정보 역시 내가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당신이 누구며, 낙양성에는 무슨 일로 왔으며, 대체 낙양성 지부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했다는 그 이유는 뭐죠?”

진소라는 잠시 혀를 깨물고 화를 참다가,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양 세가의 진소라예요. 아까 말했듯이 진 대협이 등봉 분타에 계실 때부터 알았고, 그때 옷을 지어드리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뭐라고요? 옷을 만들어 줘? 왜요?”

“그건 어디까지나 진 대협과 나 사이의 일이에요. 이봐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차! 그러고 보니 나도 모르게 옷을 여기까지 들고 왔네. 여기, 이게 내가 만든 옷이에요. 경황이 없어서 드리는 것을 깜박 했지만.....”

진소라는 말을 이으면서 보자기를 풀어 안에 든 옷을 꺼내 보였다.

한 눈에도 무척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보였다. 무척 솜씨 좋은 사람이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 옷이었다.

武極 - Story Book

일령은 뻣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흥! 그 바보 자식! 다치든 말든 알게 뭐야!”

“예에? 뭐라고요?”

진소라가 이번에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입을 딱 벌렸다. 부관이라는 젊은 여자가 자신을 홀대하는 것은 괜찮았다. 그런데 그 상관인 진명에게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릴..... 부관이라는 사람마저 이런데 진 대협은 어쩔.....”

진소라의 머리 속에 혼자서 땀투성이가 되어 뒤통수 아래 상전을 가꾸던 진명의 모습이 떠올랐다. 날마다 혹독한 육체 노동과 더불어 그보다 더 괴로운 고독과 맞서 싸우던 그의 외로움이 새삼 가슴을 아프게 했다.

툭.

진소라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굴렀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혼자 그런.....”

얼핏 들은 바로는 단심맹 내에서 젊은 등봉 분타주에 대한 견제가 있어 그가 아주 고달픈 처지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위치가 지부장으로 변했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보였다.

그는 정말로 고독하고, 불행하고 가엾은 사람이었다.

‘나라도 진 대협 편에 서 드려야 해. 이젠 내가 그 분을 지켜 줄 거야.’

진소라가 속으로 그런 아무진 결심을 하는 동안 일령은 눈물까지 흘리는 진소라를 보며 속으로 어떤 적절한 틈에 그녀를 쫓아낼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얼씨구. 가지가지 한다. 대체 진명 이 자식은 뭐가 잘났다고 여자가 매일 꼬이는 거야? 아우, 짜증나!’

똑똑.

그럴 무렵 마치 때를 맞춘 것처럼 임완춘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아우님. 누가 오셨는데?”

“누가요?”

임완춘이 답지 않게 얼굴을 발갱게 달구며 말했다.

“청성파의 문 소저께서 오셨어. 아우님께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문주희가?”

일령의 눈썹이 바싹 치켜 올려졌다. 오늘은 다들 그녀의 화를 북돋으려 작심들을 한 모양이다.

‘나만 이런 꼴을 당할 수는 없지. 좋아, 같이 해보자고. 어디까지 가나.’

일령이 씨익 웃으며 대꾸했다. 진명이 불과 어제 목격했던 예의 그 차가운 웃음이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마침 여양 세가에서 손님도 와 계시니 잘 됐네요.”

“누구라고요?”

진소라를 처음 대하는 문주희의 반응은 일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장경각으로 가기 전 일령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일령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그녀를 상대해야 할지 생각을 짜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환장할 만한 다른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다.

‘저 계집 하나만으로도 신경 거슬려 죽겠는데 또 있단 말이야?’

진소라는 진소라대로 왈칵 성질이 났다.

‘이 여자도 똑같잖아! 다들 진 대협에게 관심이 있거나 한 거야? 왜 다들 사람이 다쳤다는데 내가 누군지부터 묻고 있어?’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진명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란 걸 진소라는 눈치채지 못했다.

진명의 집무실 안은 보이지 않는 살기로 팽팽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누군가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도 금방 폭발할 듯한 긴장감이었다.

“여튼, 여기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으니 그만 가보죠. 아무도 진 대협의 상세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니 간병 또한 제가 해야 될 것 같군요. 그럼 이만.”

진소라가 핵 몸을 돌려 나서려는 찰나, 문주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武極 - Story Book

진소라는 문주희의 무공이 보통이 아님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진소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주희가 원래 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고개를 돌린 순간 앞에 나타난 것이다.

“호호, 이대로 가시게요? 그건 안 되죠.”

진소라가 새초롬한 눈초리로 문주희를 노려보았다.

“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 쪽은 궁금한 거 없나요, 령 아우?”

일령이 또 한 번,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소를 흘렸다.

“어마. 궁금한 게 왜 없겠어요.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손님이 왔는데

차도 한 잔 대접하지 않았군요. 임 부관! 문 밖에서 얼쩡대고 있는 거 다 아니까 여기 차 좀 가져다 줘요.”

빠걱, 광!

동시에 일령은 의자 하나를 난폭하게 잡아 빼서 진소라 앞에 밀어놓았다.

“일단 여기 앉아요. 짧은 얘기는 아닐 것 같으니까.”

문주희가 진소라 앞으로 은근슬쩍 발을 밀어넣으며 진소라를 의자 쪽으로 향하게 유도했다.

“앉아요.”

입가는 웃고 있지만 싸늘한 살기가 점점이 배어든 목소리였다.

武極 - Story Book

2.2.11. 제 95 화 [결정]

“이게 무슨..... 엄마, 앗!”

진소라는 문주희의 기세에 놀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다가 파당 넘어지고야 말았다.

진소라는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고는 벌떡 일어나서 일령이 권한 의자에 앉았다. 애써 방금 전 일을 잊으려고 하는 진소라의 표정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일령과 문주희는 그 모습에 더욱 더 열이 받았다.

‘어쭈? 젊고 귀엽고 예쁘기까지 한데다 이제는 어리버리까지 하시겠다? 혼자서 다 해먹겠다는 소리네.’

‘저건 완전 그대로 잡아먹어 달라는 소리잖아. 요새는 어린 게 더 무섭다더니.....’

진소라도 지지 않고 자신을 집어삼킬 듯 노려보는 두 여자에 맞섰다.

‘앞으로 진 대협은 내가 지켜 줄 거야. 단심맹의 이 여자들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사랑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서 출발한다.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의지와 함께.

자신들의 과잉반응이 진소라에게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령과 문주희였다.

그 때 임완춘이 뜨거운 물과 다기를 들고 들어섰다.

“아우님, 차 가지고 왔어.”

“그래요? 그럼 저기 아무데나 두고 가서 일 보세요.”

“.....응? 안 마실 거야?”

“마실 사람 없을 거예요.”

임완춘이 코 끝을 찡그렸다.

‘뭐야. 마시지도 않을 차를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아우님은 내가 그렇게

싫은가?’

문주희의 방문으로 인해 내내 기분이 들떠 있던 임완춘 역시 마음이 확 상해버렸다.

확실히 부관의 부관이라는 그의 위치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존심 정도는 숙소에 놔두고 와야 하는 식의.

“거, 듣자 하니 진 아우가 심히 다쳤다면? 그런데 다들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어서 가봐야 하지 않아?”

진소라가 냉큼 대꾸했다.

“제가 가볼 테니 걱정 마세요.”

문주희가 그 말을 똑 끊었다.

“어마, 누구 마음대로? 아가씨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이런 일에는 순서가 있답니다. 진 오라버니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먼저 가야죠.”

일령도 한 마디 덧붙였다.

“부관이 가기 전까진 아무도 못 가죠. 그건 상식 아닌가요? 문병객이 와도 될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야 하니까.”

진소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그 말을 받았다.

“그럼 왜 안가고 있는 거죠?”

이유야 뻔했다. 진소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네가 먼저 집에 가야 나도 가볼 거 아냐! 이게 진짜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네?’

그러나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일령에게는 낙양성 지부장의 부관이기에 지켜야 할 공정성과 품위가 있었으므로.

“손님을 먼저 배웅해 드리고 가야죠. 공사는 구별해야 하니까요.”

武極 - Story Book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간다고 했을 때.....”

문주희가 방긋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손님이 갈 때가 안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말귀 참 못 알아듣네. 보기 보다 머리가 나쁘신가 봐요? 호호호.”

“그러게 말이에요. 으흐흐흐응.”

뭔지 모를 살벌함이 말 속에 가시처럼 살아있었다. 본의 아니게 이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던 임완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뭐야, 무서워! 진 아우에게는 나 혼자 가야겠다. 어쩐지 이 상황이 꽤 오래 갈 것 같네.’

임완춘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 나와 당가의방으로 향했다.

“어? 형님이 오셨군요. 령 아우는 바쁘세요?”

진명은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도 반갑게 임완춘을 맞았다.

“아우, 몸은 괜찮은가? 아우가 보낸 그 소저는 상태가 어떻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안 해주길래 이리 직접 왔네.”

“저런, 진 소저도 경황이 없던 터라 그랬나 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당 의원님이야 당분간 꼼짝도 말고 있어야 한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거동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지부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임완춘이 순간 표정을 굳히며 도리질을 해댔다.

“아니야, 아우님. 당분간 여기 계시게. 지부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아우님을 위하는 길일 걸세.”

“.....예? 지부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방금 전 지부에서 있었던 광경을 떠올리며 임완춘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

“내 말을 믿게나, 아우님. 지금 가면 내상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닐 거야.”

“네?”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왠지 모르게 화가 난 임완춘이었다.

“흐음. 또 다른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속력이 단단해서 쉽사리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보시는 편이.....”

“그렇다고 우리가 외부 정보를 완벽히 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체 뭐 하는 놈들이길래 고작 표국 주제에 그리 비밀이 많아?”

한태방은 비밀리에 개방의 정보원과 접선하고 있었다.

낙양성 지부장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난 뒤로는 낙양 내에서의 행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역시 단심맹 소속이었기 때문에 낙양에서 돌아다니는 것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부장과 관계를 고려한다면 가급적 눈에 띄이지 않는 편이 나았다.

한태방이 인상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그 놈들, 마교 하고 연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마교 소굴 안의 정보를 그렇게 쉽게 얻지. 놈들과 마교를 연결하는 정보는 없나?”

“직접적인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마교와 연관이 있다면 꼬리를 엄청 잘 감추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랄. 단심맹만 털어도 마교와 관련 있는 문서들이 한 다발은 튀어 나올 텐데 아무 것도 없다니..... 그게 더 수상쩍어.”

“털 수만 있다면 좋았게요.”

개방의 정보원이 울상을 지었다.

북풍표국 내부의 정보를 캐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보통의 표국이라면 은전 몇 푼에 창고 자물쇠까지 건넬 쟁자수가 한 둘씩이라도 있을 텐데 북풍표국은 그런 게 일절 없다고 봐야 했다.

그나마 북풍표국과 거래를 하는 낙양의 상인들을 통해서 거래 방식이나 보수 등을 알아낸 게 전부였다.

북풍표국의 표행은 기이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런 여건이 있으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섭도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외려 그렇기에 더더욱

武極 - Story Book

수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 저들이 누구이길래, 저 수많은 고수를 거느리고 표국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수상한 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뭐가 수상한 것인지 조차 파악할 수 없으니 답답함을 해소할 길이 없었다.

한태방은 손가락 끝으로 머리를 뱅뱅 긁어댔다.

“살다 살다 이런 놈들은 진짜 처음 보는 구만. 결국 뭐라도 잡아 뜯으려면 그 놈의 장경각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정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놈들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낙양성 지부장 진명을 장경각으로 보내는 거라면, 장경각에 해답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해답을 알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거야 두 말 하면 잔소리겠고. 그 놈의 단형 도장은 좀 어때?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하지?”

직접 손을 마주쳐 보았으나 생사를 건 싸움은 아니었다. 그가 모든 실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듯 단형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대외적인 실력의 평가가 필요했다.

“무당에서 공을 들여 키운 수재라니 실력이야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화산의 그 놈과 비교하자면 어떨고? 누구였지? 평일지라고 했나?”

“객관적으로 비교할 만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단형 도장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무당에서 평일지의 실력을 가늠해본 뒤 내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흠. 틀린 말은 아니군. 그렇다면 화산의 평일지 보다 최소한 반수에서 한수는 위라는 소리. 그만하면 도움이 되겠구만.”

“그렇겠지요.”

잠시 머리를 굴리던 한태방은 무당의 단형과 손을 잡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 놈이 어디로 갔더라?”

단형은 소요루에서 머물고 있었다.

상황이 애매하게 흘러가서 낙양 땅을 밟자마자 낙양성 지부장과 손을 섞게 되었다. 게다가 본의 아니게 그에게 내상까지 입힌 상태다.

단형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굴러가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다.

무당 파에서는 단형을 일컫는 말이 하나 있었다. 누구에게라도 혹시 ‘귀 파의 후기지사인 단형 도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결 같이 ‘무공은 잘 배웠지요.’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적어도 한 가지는 잘 한다는 소리였고, 바꿔 말하면 다른 일에는 영 어눌하다는 뜻이었다.

“능운 진인께서 소림에게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인연을 만들어 놓으라 하셨는데.....”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자기도 모르게 한태방에게 휘말리고 말았다.

싸우고 난 후에도 그렇게 떠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진명을 따라 소림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오히려 한태방이라면 모를까.

“으음. 정말 큰일이로구나.”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경각 행에 동참하는 것이었지만 지부장이 내상을 입은 지금으로서는 그마저도 불투명했다.

단형은 꽤나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잔소리 하기 좋아하고 꼬장꼬장한 성격의 능운 진인이 그래서 좋았다.

세세한 지시 사항을 일러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어렵지 않고 어떤 것도 곤란하지 않았다.

낙양성에 떨어진 지금, 스스로 앞으로의 행동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단형은 혼란 그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후우..... 역시나 낙양성 지부장을 다시 만나봐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과연 나를 만나줄지.....”

단형이 가장 사랑하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송문검을 휘두르는 것이었다.

휘두르고 휘둘러 자신이 휘두르는 것이 검인지도 잊고, 검을 휘두르는 자신이 검인지 사람인지도 잊을 수 있는 그때.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그렇게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 단형은 이런 생각들을 할수록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유일하게 피로감이 없을 때는 검을 휘두를 때였다.

“어렵구나.”

검 생각을 하니 송문검이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형은 등 뒤에 매고 있던 형검뭉치를 끌러 탁자 위에 놓았다. 형검을 풀자 고색창연한 보검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검을 쓸 수 밖에 없는 건가.”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단형 정도의 이목을 가진 고수라면 문을 두드리기 위해 손을 들어올리기도 전에 이미 문 밖에 누가 와 있음을 알아채야 정상이다.

“누구시오?”

단형은 상대의 걸음소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절제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신중을 기하며 물었다.

고수의 발걸음이다. 어쩌면 낙양성 지부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른다. 단형은 어렵던 일이 쉽게 풀릴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되었다.

문 밖에서 대답 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누구?”

“나라니까.”

단형이 벌떡 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문 앞에는 한태방이 녀석 좋은

웃음을 얼굴 가득 짓고 있었다.

단형은 잠시 한태방을 노려보다가 차갑게 등을 돌렸다.

황!

그리고 야멸차게 문이 닫혔다.

“어어, 이봐! 이보라고! 단형 도장! 당신 이리 야박한 사람이었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단형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한태방이었으니까. 그가 낙양성 지부장이라고 사기만 치지 않았으면 단형은 지금쯤 무사히 지부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봐! 그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니까. 응?”

단형은 평소의 무뚝뚝함에 싸늘함을 더해 말했다.

“가지 않으면 베겠다.”

“응? 목검으로 날 베겠다고? 에이, 그건 너무 심하지. 게다가 자네 검은 땡경 반 토막이 나지 않았겠나?”

순간 단형은 살기를 일으켰다.

철컹.

탁자 위에 놓인 검을 들었다.

한태방이 ‘응?’ 하고 눈을 크게 떴다.

“검이 또 있었군. 내 예상이 맞다면 그것은.....”

“무량진천검(無量震天劍).”

“오호라. 그것이 무당이 자랑하는 보검종의 보검 무량진천검이로군. 그게 자네 손에 있었나?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에 내놓았어야지.”

“그 동안은 내놓을 필요가 없었지.”

송문검만으로도 마교의 졸개들과 혈무련을 상대해 왔다. 그런데 그의 손에 무당의 절세기보인 무량진천검이 들리면 어찌될 것인가.

“흐음.”

한태방은 턱을 굽적거렸다.

武極 - Story Book

“그렇다 이거지?”

그 송문검이 진명의 손에 파괴되었으니 이는 결코 단형에게는 작은 일이 아니었다.

“뭐, 진명이란 놈이 아주 쓸모 없는 놈이라고는 할 수 없긴 하지.”

한태방은 능청맞게도 침상 위에 걸터앉아 자신의 옆자리를 톡톡 손으로 두들겼다.

“자, 어서 와서 앉아.”

단형은 공격 자세를 풀지 않은 채 말했다.

“무슨 수작이지?”

“나 참. 얘기 좀 하자니까. 수작은 무슨.”

“낙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내게 시비를 걸었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겠어? 그냥 한 판 붙어보자는 거지.”

“조금 더 명확한 이유가 듣고 싶군. 개방이 본문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이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면.”

“뭐야? 그럼 내가 마교의 수발이라도 들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한태방의 표정이 변했다. 싸늘하고, 조용하게.

“내 다른 말은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그 말은 못 들어주겠군.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해봐라. 무당이건 뭐건 간에 당장 혀를 뽑아줄테니까. 내 손으로 개봉 땅에 세운 비석이 수백 개야. 네 눈에는 내가 장사나 하려고 그 비석을 세운 걸로 봐냐?”

武極 - Story Book

2.2.12. 제 96 화 [소림으로]

한태방이 한숨을 털 듯 짜증을 한 번 툭 털어버리고 나서 말을 이었다.

“나 이것 참, 낙양까지 온 김에 좀 놀아보려고 했더니 다들 협조를 안 하는군. 뭐, 됐어. 내 팔자가 그런 모양이지.”

“얘기나 해라.”

“아, 한다니까 그래. 까놓고 묻자. 무당에서 장경각에 간다는 건 화산이 아니라 소림을 택했다는 뜻이지? 화산보다는 소림이 건질 게 많다는 뜻이겠고. 그건 개방도 그렇다. 그런데 말이지, 난 소림을 택한 것이지 낙양성 지부장을 택한 건 아니거든. 난 그런 초짜에게 빌붙어 봤자 소림과 돈독한 연줄을 쌓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왜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놈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라고. 곧 죽을 놈한테 공을 들어 봤자지. 그건 무당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

“.....”

단형은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 장경각 같은 사지를, 그것도 뭐가 있을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을 그런 놈하고 함께 들어가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노릇이지. 하지만 소림은 장경각 안에 볼 일이 있다. 그래서 든 생각인데, 차라리 실력이 확실한 우리 둘이 가는 게 어떨까? 우리가 성공한다면 소림은 무당과 개방에 꽤나 거한 빛을 지게 되는 셈이다.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애송이와 공을 나누는 것보다야 백배는 더 매력 있는 장사지. 어때?”

“.....”

단형의 심각한 눈빛에서 한태방은 자신의 성공을 예견했다.

‘역시. 앞 뒤 꼭 막힌 놈 하나 구워삶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젠 이놈과 무당을 내세워 장경각 행에 동참할 다른 문파를.....’

그러는 동안 단형이 결론을 내렸다.

“나는 낙양성 지부장과 같이 가겠다.”

“.....뭐? 내 얘기를 들은 거야, 만 거야?”

한태방이 얼굴을 확 구겼다.

“아니, 내가 이제껏 한 말은 컷등으로 쳐드셨나. 이거 왜 이래?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단형이 한결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능운 진인께서는 소림의 낙양성 지부장을 도와 함께 장경각에 다녀오라 하셨다. 나는 그 분의 뜻에 따른다.”

“아이고, 그런 말이야 우리 사부도 했다! 그건 그 늙은이들이 낙양성 지부장이라는 새파란 애송이를 제대로 몰라서 한 소리잖아! 자네도 직접 봤으니 이제 알 거 아냐.”

“그건 상관없다. 원래 그랬어야 했어. 할 말이 그뿐이라면 관두지.”

“이익!”

한태방이 벌떡 일어섰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애송이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줘 봤자 돌아오는 건 멀건 국물뿐일 거야. 살코기라도 좀 붙어있는 뼈다귀는 몽땅 그 놈이 가져갈 텐데? 그래도 좋나?”

단형이 조금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진인께서 시키신 일은 소림을 도우라는 거였지 뼈다귀를 얻어오라는 게 아니었다.”

“아악!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농도 안 통하고 사기도 안 되더니 이제는 비유도 안 된다고? 잘 생각해! 내공도 없는 그런 애송이를 믿고 목숨을 내맡길 작정이냐고!”

단형이 무량진천검을 쥐어 들었다.

武極 - Story Book

“송문검이 부러졌을 때 난 나도 모르게 졌다고 생각했다. 시종일관 내가 앞서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그 순간만큼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량진천검을 꺼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녀.”

“진 지부장은 맨손이었다.”

한태방이 어이 없어 하다가 갑자기 가래침을 뱉었다.

“카악~ 텃! 젠장맛을. 그럼 내 실력은 이 망할 개 때려잡는 몽둥이 때문이란 거야?”

단형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꾸욱.

무량진천검의 검집이 살포시 떨어졌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 졌다는 생각을 만들 게 한 이다. 등뒤를 맡길 수는 없으나 믿어볼 가치는 있겠지.”

“그게 결론이냐?”

단형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태방이 할 말을 잃었다.

단형은 한태방이 어찌건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낙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태방이 불안간 빙긋 웃으며 말했다.

“좋아. 나도 같이 가지. 소림의 안목을 한 번 믿어보지. 그리고 무당의 안목인 자네도. 사실 난 진 지부장보다 자네를 더 믿고 가는 셈이니까.”

여전히 단형은 별 반응이 없었다. 한태방이 빠친 아이처럼 입술 끝을 실룩였다.

“엥? 뭐야? 이 내가 같이 간다잖아.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당연하지! 그 애 송이한테도 가서 말하고! 그래야 준비를 하고 일정이 잡힐 것 아닌가.”

단형이 순간 조금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더러 가라고?”

“왜?”

“그렇게 자리를 떠나 버렸으니.....”

단형이 차마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그러자 한태방이 껄껄대고 웃었다.

“허! 비무에서 부상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서 사과할 것도 없다더니?”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만 낙양성 지부장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기에.....”

이번에도 단형은 말 끝을 맺는 대신 눈썹 사이를 일그러뜨렸다. 한태방은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껄껄대고 웃으며 단형의 등을 두들겼다.

“좋아좋아, 이 소심한 양반 같으니. 지부에는 내가 같이 가주겠네. 그러고 보니 여기 이려고 있던 것도 지부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랬구먼?”

단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한태방은 확신했다.

‘무당의 후기지수라는 것도 그렇고 소림의 후기지수라는 것도 그렇고..... 다들 웃기는 놈들이구만. 이거 의외로 재미 있겠어!’

잠시 후, 단형과 한태방은 낙양성 지부의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진명이 퇴원하는 날이 되었다.

내상은 완치되었지만 그만큼 상한 기는 아직 보충이 덜 된 상태였다. 좀 더 정양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진명은 한사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장경각으로 가는 날이 하루씩 늦춰질 때 마다 조바심에 안달이 나고 있었다.

“또 신세를 졌습니다, 당의원님. 제 목숨 줄을 쥐고 계신 건 염라대왕이 아니라 당의원님이실 겁니다.”

진명이 그답지 않게 너스레를 떨며 당청에게 감사를 표했다.

진명이 다칠 때마다 그를 치료하는 당청의 손길은 점점 더 정성스러워져 간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던 탓이다.

당청은 짐짓 점잔을 부리듯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아, 그게 의원이 할 일이지. 염라가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아마 의원일 게다. 그건 그렇고, 네 놈 몸은 네 놈이 잘 알지? 나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다 나은 게

武極 - Story Book

아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느니라.”

진명이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압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이 놈이, 웃기는? 내 모를 줄 알아? 내 앞에서만 예예, 거리고 돌아서면 싹 잊어버릴 거라는 걸! 내 그래서 준비했다. 옛다, 이거 받아라!”

당청은 품 안에서 화선지로 쓴 덩어리를 꺼냈다. 하얀 화선지를 펼치자 단약들이 보인다.

“도움이 될 게다. 넣어둬.”

진명이 의아한 얼굴로 당청을 바라보았다.

이제 약으로 할 일은 다 끝났으며 자리 털고 일어나라는 말을 당청이 던진 것이 방금 전이었다. 그런데 또 약을 건네는 것은 좀 이상했던 것이다.

“이게 뭔지요?”

“아 지난 번에 말했잖아. 도움이 될 거라고. 이게 생긴 건 좀 그래 보여도 내가 의원 인생 사십 년을 걸고 완성해 낸 비장의 약이지. 소림사의 대환단까지는 못 되도 소환단 정도는 될 게야. 암, 그렇지.”

당청은 일부러 장난처럼 대환단이니 소환단이니 들먹였지만, 그의 의술 실력 정수가 담긴 약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진명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당 의원님! 부디 거두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이런 귀한 것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귀한 줄은 아는구나? 그럼 잔말 말고 넣어 둬.”

“그만큼 귀한 거라면 돈이.....”

“이놈아! 내가 이런 것까지 바가지를 씌울 것 같아? 대신에 네 놈이 해주기로 한 게 있잖아.”

“음.”

“지난번에 무당의 검과 개방의 봉을 상대하는 걸 보니 아직도 모자라더만. 이 약, 효과가 천년만년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소림사에 다녀올 때까지는 충분할

게다.”

“하지만.....”

“받으려면 받을 것이지 웬 잔말이 많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거나 하나? 그리고, 네 눈에는 내가 공으로 젊은 놈을 부려먹으려 드는 노랭이로 보이냐? 아, 네 놈이 나한테 받아가는 게 있어야 나도 당당하게 일을 시킬 게 아냐! 내가 이 나이에 맘 편히 죽지도 못하고 눈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글썄 네 놈이 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못 찾았네요, 이러면 어쩔건데! 이렇게 맥여 놓은 게 있어야 네 놈이 그딴 소릴 할 생각은 꿈에서도 못 하지!”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당청은 정신이 나갈 정도로 바빴다. 밤낮으로 진명을 돌보는 와중에, 째짤히 아파서 오는 환자들도 봐야했고 그런 틈을 쪼개고 또 쪼개어 약을 완성해낸 것이다.

그것이 어찌 그저 심부름 시키는 값이라고 할 것인가.

“얼렁 삼켜. 꿀떡이라 생각하고.”

진명은 당청의 미소를 통해 자신을 아끼고 걱정하는 그의 마음을 보았다. 진명이 환단을 삼켰다.

당청이 만든 환약의 약효는 대단했다.

“이, 이게.....”

사지에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았다.

싸악.

진명의 눈에서 안광이 형형하게 빛났다.

진명은 자신의 주먹을 꼭 쥐어 보았다. 바위라도 때려 부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

“매일 의방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더니 약발이 생각보다 잘 듣는구나.”

환단은 이미 뱃속으로 녹아 들어갔지만, 진명은 공연히 목이 메이는 기분이 들었다.

武極 - Story Book

“꼭..... 살아서 돌아와라, 이 놈아. 내 책도 찾아서 들고 말이지.”

“예, 당 의원님.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작은 것이었지만 진명이 장경각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갖춰지고 있었다.

“령 아우, 나 왔어.”

진명이 지부장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 일령의 모습을 한 시도 잊지 않았다.

“왔어?”

그러나 상황은 의외였다.

당가 의방에 있을 동안 일령은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고, 임완춘만 시시때때로 볼 수 있었다. 임완춘은 오히려 몸이 나올 동안은 일령을 대하지 않는 게 나올 거라며 한사코 진명을 당가 의방에 눌러앉게 만들었다.

“어, 그런데.....”

일령의 얼굴이 싸늘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다.

“저기, 무슨 일이라도.....”

“몸은 괜찮지?”

“음? 아, 그야 괜찮으니 왔지. 당의원님이 무척 귀한 단약을 주셨는데 그게.....”

“그럼 출발해야지.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진 형은 몸만 가면 돼. 사람들을 더는 기다리게 할 수가 없더라고. 같이 갈 사람들에게도 기별 넣을게. 금방 모일 거야.”

일령은 계속 쌀쌀맞게 진명의 말을 잘라내며 제 할 말만 딱딱 해댔다.

“령 아우, 화 났어?”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서둘러. 정문으로 가야 해.”

“아우!”

저 먼저 등을 돌려 나서려는 일령의 어깨를, 진명이 붙들었다.

“.....저기, 아우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난 의방에 있을 동안 내내.....”

“내내 뭐?”

“그게..... 아우가 한 번도 와, 와보질 않아서 나는 서운.....했어.”

보지 않아서 서운했다. 다시 말하면 보고 싶었다는 뜻이다.

“응? 그랬어?”

갑자기 일령이 활짝 웃으며 돌아서서 진명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사람이 바뀐 듯 했다.

진명은 어려운 말을 꺼내느라 붉게 변한 얼굴로 일령을 마주했다.

“아이, 몰랐잖아. 그럼 진작 임 형에게라도 귀뜸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몰래라도 갔을 텐데.”

“응? 몰래? 왜 아우가 나를 보러 오는데 몰래 와야 해?”

일령이 배시시 웃음으로 설명을 얼버무렸다.

“응, 그게 있지..... 에헤헤, 그럴 사정이 좀 있었어. 여튼 나 화 다 풀렸어. 이제 어서 나가자. 출발해야지.”

“음. 그래.”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일령의 말에 진명도 걸음을 재촉했다. 그 사람들이란 임완춘과 문주희, 그리고 범여일 것이다.

지부의 정문.

“아.....”

진명은 순간 입을 벌렸다.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몸은 괜찮으냐?”

“당 의원께 기별을 들었네. 이젠 많이 나았다고.”

武極 - Story Book

범여와 청풍이 반갑게 진명을 맞았다. 진명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걱정해주신 덕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청풍 대협도 가시는군요. 저는 분타의 일로 바쁘실 줄로만 알고.....”

“분타의 일과 자네를 돕는 일은 별개일세. 그런 말을 하면 서운해 할 걸세.”

“감사합니다.”

진명의 옆으로 한태방이 다가왔다. 그는 매서운 표정으로 신랄한 말을 던졌던 그때와는 달리 배실배실 웃는 얼굴이었다.

“여어, 다 나왔나? 이건 뭐, 금강불괴가 따로 없네 그려. 소림에서 괴물을 하나 키워낸 게 아닌가 몰라? 역시 천년 소림이구만. 꺾꺾.”

진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한태방을 응시했다.

“분명 장경각에는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

“으하하!”

퍽!

한태방이 능청스럽게 진명의 등짝을 쳤다.

“아이구, 술을 안 사준다 하니 내 더 할 말이 뭐 있어야지. 그저 농이었으니 잊게나. 으하하, 아니 내가 뭇 하러 단신맹에서 예까지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고작 술 자리 하나 때문에 안 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으하하. 안 그런가, 단형 도장?”

단형이 별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태방이 하는 대로 은근슬쩍 문어가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단형과 한태방이 눈길을 마주쳤다.

‘진 지부장의 눈빛이 더 깊어졌군.’

‘이거, 진짜 괴물일세.’

아닌 게 아니라 진명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폭발적인 기운을 내재한 상태였다.

“이리 건강히 완쾌하셔서 정말 기뻐요, 오라버니.”

이번에는 문주희가 인사를 건넸다. 평소였다면 병문안을 왔을 법도 했을 그녀가 이번에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진명도 알고 있었다. 다들 바빴나 보다고 생각하기로 마음 먹은 진명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문 소저께서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마, 호호호호. 진 오라버니께서 가시는 길에 당연히 소녀도 함께 해야지요.”

그러자 문주희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진소라도 끼어들었다.

“다 나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 대협.”

진명이 깜짝 놀랐다.

“아니, 진 소저께서는 어떤 일이십니까? 설마 장경각까지 함께 가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진 대협을 뵈려면 오늘밖에 기회가 없었어요. 이게 다..... 악!”

“어머, 호호호. 그런 말을 하려고 이제까지 기다린 게 아니면서. 호호호호.”

문주희가 은근슬쩍 진소라의 발등을 밟으며 그녀의 입을 막았다. 진소라는 눈물을 꼭 삼키며 말을 마쳐야 했다.

“.....어쨌거나 이거, 받으세요. 전에 약조했던 진 대협의 옷이에요. 진 대협께서 제게 계속 옷을 짓게 해주신 다음부터 쉴 틈 없이 정성껏 만든 옷이랍니다.”

진명이 황송한 몸짓으로 진소라가 건네는 옷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진 대협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걸요. 옷이라면 언제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 부디 입어주..... 악!”

“호호호호. 진 아가씨는 마음도 참 곱지. 안 그래, 령 아우?”

“그, 그렇네요. 호호, 그나저나 배웅을 못 해드려 어찌죠? 지금 중요한 사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터라..... 호호호.”

계속되는 세 여인의 살벌한 긴장감에 질려버린 임완춘이 왈칵 소리를 질렀다.

“에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참인가! 아우님! 어서 출발하자고! 장경각이 아우님을 부르고 있잖은가!”

武極 - Story Book

그랬다. 그들에게는 할 일이 있었다.

진명이 새삼 결의를 다지며 저 멀리 있을 송산을 바라보았다.

“예! 어서 가야지요! 출발합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무엇이 있을지, 과연 어떤 곳일지, 도착한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과 의문 투성이의 출발이었고 그만큼 굳은 각오가 필요했지만 진명의 입가에는 뚜렷한 미소가 그려지고

있었다.

‘가는 거다! 소림으로!’

진명의 뒤로 단심맹의 군웅이 뒤따랐다.

마교의 고수들과 피에 굶주린 수많은 실혼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소림을 향하여.....

2.3. 제 9 장

2.3.1. 제 97 화 [일주문]

“여기가..... 소림이구나.”

일령이 고개를 들어 눈앞으로 펼쳐진 광경을 보며 말했다.

송산에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기이한 고요뿐이었다. 워낙 험준한 산세라 사람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송산을 감싼 침묵은 확실히 기묘하고 괴이쩍었다.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정적과 맞서 싸우며 산을 오른 지 한나절. 마침내 소림의 대문이라 할 수 있는 일주문이 보였다.

일주문 너머로는 까마득한 계단이 보였다. 그것을 모두 올라야만 소림 본산에 정식으로 발을 딛는 것이다.

“아미타불. 정확히 말해 이곳은 소림으로 가는 길목이지. 아직 소림은 아니라고.”

범여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미타불.....’

이곳에서 죽음을 등에 지고 탈출하던 기억이 아직도 가시마냥 박혀있는 범여와 진명이었다.

범여는 자신의 제자 각원이 실혼인이 되던 그날을 아직 잊지 못했다. 직접 제자의 목숨을 거두어야 했던.....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 울부짖을 만큼 가슴 아팠던 그날의 일들.....

진명 역시 범문의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남았다. 안면이 있는 자들이 괴물이 되어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던 일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온 몸에 피칠을 하고 달아나던 것이 바로 어제 같기만 하다.

그날, 부서지고 불타오르는 소림의 전각들 사이로 핏빛 눈동자를 희번뜩이며

마교는 그렇게 소림을 유린했다.

소림의 제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두 사람은 일주문을 앞에 두고도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진명의 등을 한태방이 철썩 내리쳤다.

“어이, 뭘 그리 어물쩍대고 있나. 이제 와서 새삼 겁을 먹은 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잠시 생각이 좀 나서요.”

“생각? 아이고, 팔자 좋구만. 우리가 무슨 유람 나왔는가? 생각에 젖어 발걸음을 멈추게?”

한태방이 진명에게 타박을 주자 일령이 냉큼 눈을 흘겼다.

“너무 시비조 아닌가요? 지금 진 형이 어떤 심정일지 모르지 않으실 분이.....”

한태방이 흥, 콧방귀를 끼었다.

“아, 누구는 멀쩡한 산문을 고스란히 이고 있다던가? 내 손에 죽어 나자빠지는 제자들 목숨이 몇 갠지 일일이 세기도 귀찮아진지 오래구만.”

한태방의 말에는 ‘그래도 너희들은 소림으로 돌아오기라도 했지’ 라는 질시도 약간 섞여 있었다. 개방의 본산은 완전히 수몰되어 도저히 복구할 수도 없을 지경이 되었다. 게다가 개봉성에서 유격전을 펼치는 동안 그는 실혼인이 된 자파의 제자들과도 싸워야 했다. 수없이 목숨을 취했다는 한태방의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괜한 감상에 빠져있는 진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껏 진명에게 별 시덥잖은 이유로 시비를 걸어오던 한태방의 모습이 질게 남아있는 일령으로서는 소림에까지 와서도 이러는 그가 이해되지 않았다.

武極 - Story Book

“누가 더 불쌍한가 내기라도 하자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힘들지 않은 문파가 어디 있으며 팔자 좋은 문파가 어디 남아 있겠냐구요. 자꾸 그렇게 남속 뒤집는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한태방이 실눈을 뜨고 일령을 노려보았다.

“아니, 지금 아쉬운 게 누군데 그런 소릴.....”

“지금 아쉽다고 절이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사랑에 빠진 여자는 무섭다. 한태방은 뭔가 어긋났음을 알았지만 그 역시 싸움이라면 일부러 거는 성격인 바, 걸어온 싸움은 단연코 마다하지 않았다.

“허! 이 한태방이 나이 사십에 이런 대접은 처음일세 그려.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마른 꼬맹이가 훈계를 하려고 드네. 이보오, 부관 소저. 누구를 보필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처지부터 살필 줄 알아야지. 이런 게 진짜 훈계라오.”

부관이면 부관이지, 부관 소저라 부른 것은 분명한 비아냥이었다.

일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꼬맹이? 댁하고 내가 얼마나 나이 차이가 난다고 꼬맹이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언제 나이가 사십이 되었다는 거고?”

“허. 그거야 소저가 알 바가 아니지. 내가 사십이라면 사십인 거고 팔십이라면 팔십인 게지. 암, 내 나이 가지고 왜 소저가 시비인 게요? 혹 내가 그리 나이 먹지 않았다면 훈담이라도 넣어볼 작정인가? 예끼, 꿈도 야무지שר라. 내 비록 어린 여자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댁 같은 꼬맹이는 여자라고 볼 수 없지. 안 그런가, 단형 도장?”

일령에 비해 한태방의 말씀씨가 몇 수는 위였다. 자신의 나이가 사십이라고 말도 안 되는 미끼를 던져놓고서는 일령이 미끼를 물자 그대로 반격한 것이다.

챙!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일령이 그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그 입 다물어요. 아니면 내가 다물게 해줄 테니까.”

한태방이 꺾꺾 웃었다.

“호, 기세가 좋군. 소림에 들어가기 전 가볍게 몸을 푸는 것도 나쁘지 않지.

고만고만한 개새끼인줄 알았던 놈이 의외로 덜 자란 범 새끼일 경우도 있으니까.” 진명이 나섰다.

“령 아우, 그러지 마. 한 소방주께서도 이러지 마시고.....”

진명이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태방의 말이 이어졌다.

“그럼 그렇지. 부관이 저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상관이 입 단속을 못 하니 별 수 있겠는가. 대체 무슨 연유로 여자 치마 폭에 그리 폭 쌓여있는 게지? 누가 들으면 그걸.....”

한태방의 입담은 슬슬 위험 수위에 도달해 가고 있었다.

사실 한태방은 간을 보던 중이었다. 소림에서 이번 소림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가로 개방을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 욕심도 없는 저 낙양성 지부장을 닦달해 봐야 별 소용이 없었다.

진짜 소림의 반응이 궁금하다면 범여를 자극해야 한다. 범여가 그를 얼마나 허용해주는지를 재 봐야 했다.

한태방이 의도했던 대로 범여가 반응을 보였다.

“가만!”

범여의 외침에 한태방은 일부러 잔뜩 표정을 꼬아서 그를 돌아보았다.

‘자, 이제 어쩔 테냐. 설마하니 주책 맞게 제자나 감싸고 돌 건 아니겠지.’

범여는 진명을 감싸고 돌지도, 그렇다고 한태방에게 한 번 봐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다.

쿵!

다짜고짜 진각을 밟더니 공력을 끌어 올렸다.

“응?”

설마 말도 없이 주먹으로? 라고 한태방이 생각하자마자 범여가 내공이 실린 일장을 뺏어냈다.

반야신장(般若神掌)!

武極 - Story Book

“으헉! 이 양반이 미.....!”

한태방은 ‘미쳤나!’ 라는 뒷말을 간신히 삼키며 범여의 장을 피했다. 일행 모두가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애초에 범여의 쌍장은 한태방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평!

한태방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장력이 뒤쪽의 무언가를 직격했다.

“엇! 저기!”

가장 선두에 있던 청풍이 한태방의 등 뒤를 가리켰다.

기척도 없이 일주문을 향해 달려오던 실혼인들이 반야금강장을 맞고 주춤거리고 있었다.

한태방은 뚱 씬 표정을 지었다.

‘이 노인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아슬아슬하게 자신을 비켜가도록 반야신장을 썼다는 것은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태방이 뭐라고 따지기도 전에 범여가 다시 한번 반야신장을 뽑아냈다.

“아미타불!”

반야신장의 거센 장력이 몇 장이나 떨어진 거리의 실혼인들을 날려버렸다.

“으케엑!”

“쿠흑!”

“크어어어.....”

몰려든 실혼인들의 대열에 순식간에 뺨 뚫린 것처럼 구멍이 났다.

그러나 실혼인의 숫자는 기가 질릴 정도로 엄청났다. 반야신장을 맞고 쓰러지는 무리는 그대로 짓밟혔고 실혼인들은 계속해서 몰려 들었다.

“저 놈들! 대체 왜 기척을 읽지 못한 거지? 어느 새 여기까지 내려 온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연달아 쌍장을 뿌려낸 범여가 이를 악물었다. 갑자기 이만한 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을 터.

‘설마..... 계속 소림의 산문에 머물면서 침입자를 경계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부에 첩자가?’

실혼인이 무서운 것은, 이지를 상실해도 이전에 지녔던 무공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수일수록 더욱 상대하기 어려운 실혼인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실혼인이 되었으니 지극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초식을 구사하는 것은 어렵다. 상대에 맞춰 반응하거나, 초식을 응용해 변초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본능에 의한 움직임일 뿐이었다. 이지를 상실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나 실혼인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무공을 사용하지 못한다고는 해도 고통도 모르고 명령에만 움직이는 자들이었다. 팔다리가 떨어져나가도 계속해서 달려드는데다 수까지 적지 않으니 방심할 수 없었다.

‘아미타불..... 득보다는 실이, 선보다는 마가 더 많겠구나!’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시작이었다.

“타앗, 합!”

한태방의 타구봉은 사정 없이 이곳 저곳을 두들기고 부수었다. 정파의 인물을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 손속에 여유를 두어야 했던 제약에서 벗어난 그는 물을 만난 잉어처럼 보일 정도였다.

타구봉이 피 묻은 소림의 가사를 걸치고 있는 한 실혼인의 옆통수를 향해 비스듬히 날아갔다. 그러자 실혼인은 의외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이며 허리를 숙여 타구봉을 피했다. 동시에 좌권을 휘둘렀다.

“제법 생전에는 한가락 하던 놈이로구나!”

한태방이 신난 듯 외치며 기가 막힌 각도로 팔을 돌려 실혼인의 좌권을 타구봉으로 받아 쳤다. 타구봉법의 절초가 연이어 펼쳐졌다.

우직!

“크엑.....!”

팔이 부러진 실혼인이 비명을 토하며 몸을 굽혔다.

武極 - Story Book

“아앗!”

한태봉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혼인의 등짝을 마음껏 내갈겼다.

퍼억!

무언가가 제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한태방은 씨익 웃으며 전투능력을 상실한 실혼인을 뺨 걷어차 실혼인 무리들 사이로 던져버렸다.

“받아라, 이 놈들아!”

그런 한태방의 모습이 진명이나 범여에게 고깝게 보일리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투중에 그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뻑!

진명의 일권에 실혼인 하나가 비틀린 돌개바람처럼 튕겨져 날아갔다.

진명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새로 얻은 투권을 만지작거렸다.

이번 소림행을 위해 제갈철방에 범여가 직접 부탁해 만든 투권이다. 공방(工房)의 명가(名家) 제갈세가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했다. 어딘가 투박해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손에 꼭 맞으면서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가히 대단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주먹을 쥐었다 펴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맨손일 때보다 주먹을 쥐면 강하게 힘이 들어가도록 제작되어 있었다.

지난번 일주엽이 급히 준 낭아무투보다도 더 쓸모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철혈무투…….’

그러나 진명은 이 철혈무투의 위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다. 평소보다 적은 힘을 주었는데도 뱅뱅 나가떨어지는 실혼인들, 그 중 대부분이 소림의 가사를 입은 승려인 탓이다.

‘소림의 제자가 소림을 향해 권을 뺏어야 하다니.’

가슴 한편에 가시뭉치가 박혀있는 듯, 철혈무투를 휘두를 때마다 쿡쿡

쑤셔왔다.

마교에 대한 분노심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특히나 중원 모든 무공의 원류가 바로 마교였다는 적나한의 말이 기억날 때마다 진명은 분노로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얼마나 싸웠는지 시간을 알 수 없었다.

계단 앞 작은 공터에서 싸우던 이들은 어느새 산문으로 오르는 계단에 있었다.

싸우다보니 절로 그렇게 되어 있었을 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소림의 산문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은 좁다고도, 넓다고도 할 수 없는 폭이었다. 그 길이만큼은 그 어떤 계단보다 길다고 자부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결코 대규모의 인원이 무공을 쓰며 다тол만한 곳은 아니었다.

퍼억!

한태방이 집어던진 실혼인 하나가 저들 머리 위로 떨어지자 실혼인들은 일순간 혼란된 움직임을 보였다.

“옳거니!”

기회를 잡았다 싶은 한태방이 날렵한 신법을 발휘해 그 사이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타구봉이 흔들렸다.

“하앗!”

타악!

마음 놓고 휘두른 타구봉은 기세 좋게 다른 실혼인의 머리통을 가격했다.

턱!

“……으잉?”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태방과 같은 기회를 노리고 같은 생각을 한 채 달려든 자의 검이 먼저였다.

퍼억!

실혼인의 머리 위에 검이 놓이고, 그 위에 한태방의 타구봉이 놓인 꼴이었다. 실혼인의 머리는 보기 좋게 박살이 났지만 이미 누구의 공이라고 할 수 없는

武極 - Story Book

상황이 되었다.

“뭐예요?”

하마터면 검이 부러질 뻔 했던 일령이 어처구니 없는 눈으로 한태방을 노려보았다.

“누가 할 소릴! 부관 소저는 눈이 옆통수에 달렸소? 어째 그 눈으로 내가 달려오는걸 보지 못했다는 말이야.”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그 쪽 발이 느린 거겠조. 다음부터 좀 빨리 움직이시겠어요?”

“허. 남의 떡을 빼앗아 놓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다니..... 뻑, 아직 젊은 시주가 심보가 그리 고약해서야 쓰나.”

“이 전장에서 떡을 찾다니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제 한 목숨 돌보기에도 벅차서요. 그럼.”

일령이 찬 바람을 일으키며 몸을 돌렸다.

“으앗!”

그러나 몸을 돌리자마자 코 앞으로 날아온 실혼인의 권이 일령의 머리를 날려버릴 뻔했다. 일령은 다급히 허리를 뒤로 제쳐 쌍검을 가슴 앞으로 세웠다. 그리고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 몸을 통겼다.

사악!

다음 순간 실혼인의 가슴팍이 찢악 갈라지며 하늘 위로 붉은 선혈을 뿌려냈다.

武極 - Story Book

2.3.2. 제 98 화 [협력]

“휴우.....”

가까스로 실혼인의 공격을 받아낸 일령이 한숨을 토해냈다.

일령의 뒤에서 한태방이 이죽거렸다.

“흥. 나라면 바로 뒤에서 다가오는 실혼인 하나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진 않구만. 부관 소저의 검은 화려하나 검무에나 어울릴 것 같으이.”

일령이 저릿한 허리를 추스르며 눈썹을 치켜떴다.

“지금 아미의 검이 검무라고 우습게 보는 건가요?”

“아미의 검이 그렇다 했나? 부관 소저의 검이 그렇다 했지.”

일령이 빠득 이를 갈았다.

“내 사부님 앞에서도 어디 그런 말을 해보시지?”

“금정신니?”

한태방의 대답에 일령은 잠깐 멈춰섰다.

“그걸 어떻게?”

“뭐 달리 개방인가? 그 정도야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사부와 제자의 검이 꼭 똑 같으란 법도 없지.”

“흥!”

일령이 속으로 으드드득 이를 갈았다.

‘어우, 재수없어. 대체 개방은 왜 저런 작자를 후개랍시고..... 진형을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 이제는 사부님까지 모욕했겠다. 결코 가만 놔두지 않겠어!’

그를 말로써 상대할수록 더욱 화만 쌓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일령은 깨끗하게 등을 돌렸다. 이제는 저 이죽대는 얼굴만 보아도 언더리가 날 지경이었다.

‘정파라고 다 반듯하고 훌륭한 인물만 있는 건 아냐. 평일지 그 놈부터도 그랬지. 그에 반해 진 형은.....’

새삼 진명에 대한 연정이 짜르르 일령의 뱃속을 훑고 지나갔다. 진명처럼 순수하고 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그럼에도 그는 그 누구보다 곧고 반듯하며 성실하고 순수하다.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

“아우! 한 눈 팔지 맛!”

일령이 잠깐 진명의 생각을 할 동안 그것을 마치 귀신처럼 주워들기라도 한 것처럼 문주희의 음성이 날아들었다.

“앗!”

실혼인 하나가 입을 찹 벌린 채 일령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다급해진 일령은 피할 새도 없이 그 실혼인의 목구멍에 그대로 칼을 꽂아 넣었다.

“크웨엑! 우엑!”

고막을 찢어대는 끔찍한 비명을 흘리며 실혼인이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아악! 내 칼!”

일령이 진저리를 치며 억지로 손을 뺀어 그 입에서 칼을 도로 빼냈다.

좌악!

핏물이 사방으로 번졌다. 근처에 있던 문주희는 엉겁결에 등 뒤를 피로 물들이게 되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따지고들 여력은 문주희에게도 없었다. 꾸역꾸역 밀려드는 실혼인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던 탓이다.

“대체 청풍 대협은 어딜 간 거야?”

문주희는 참 다 못해 신경질을 버럭 내었다.

청풍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주희의 등을 지키고 서서 그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숨 쉴 틈 없는 공세에 그녀와 많이

武極 - Story Book

떨어진 상태였다.

“후우.....”

문주희가 거친 숨을 토해냈다.

애초에 이런 끝도 없는 체력소모전은 그녀와 맞지 않았다. 빠른 신법과 비도술을 이용한 암습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다수를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것은 그녀를 너무 빨리 지치게 했다.

문주희가 중얼거렸다.

“이대론..... 안되겠어. 무슨 수를 써야 해.”

야무진 기합소리를 토해내며 남은 힘을 끌어올린 문주희가 한 실혼인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주변을 훑어보았다.

“하.....”

순간 괜히 봤다 싶을 정도로 갑갑한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

범여는 소림의 제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감안해서인지 가장 열성적으로 실혼인들을 처리하며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 뒤를 진명과 단형이 뒤따르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한태방과 일령, 그리고 문주희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계단 위로 밀려나는 듯 보였다.

청풍과 임완춘은 아직 계단도 밟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임완춘은 죽지 않고 피하다니기도 버거웠고, 청풍은 어찌 된 상황인지 그런 임완춘을 챙기는 역할을 하는 중이었다.

자연히 진도가 느릴 수 밖에 없었다.

쌍검을 험란하게 휘두르는 일령은 동작 자체는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처치한 실혼인들의 숫자로 보자면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불문에 속하는 아미의 검에는 맺고 끊는 맛이 없었다. 초식은 화려하고 섬세했지만 팔다리를 베어도 멀쩡히 움직이는 실혼인들을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일행이 저마다 싸우는 방식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는 속도에 차이가 났다. 문제는 이 속도의 틈을 실혼인들이 숫자로 곧장 채워 넣는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진명 일행은 거대한 실혼인 사이에 갇혀 중구난방으로 드잡이질을 하는 꼴이었다.

범여가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하나, 그가 뚫은 길이 곧장 가로막히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일행은 계속 소득 없는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틀렸어. 이러다가는 여기서 지쳐 죽고 말걸.’

문주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을 일행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뭔가 방법이 나올지도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냐고! 다들 이렇게 제각각 흩어져 있는데!’

“쿠어억!”

문주희는 자신의 발 밑에 밟힌 실혼인이 꿈틀대며 그녀를 떨어트리려 하자 공중에서 반 바퀴 몸을 굴려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발이 닿기가 무섭게 실혼인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건 진짜 멍청한 짓이야!”

하지만 바로 눈 앞에서 공격이 이어지는데 두 눈 가만히 뜨고 당할 수가 없었다. 문주희는 입술을 꼭 깨물며 쌍장을 내미는 실혼인의 손바닥에 비수를 쿡 박아넣었다.

“끄으..... 크윽.”

실혼인이 손바닥에서 비수를 뽑아내어 그것을 다시 문주희에게 던졌다.

탁, 타닥!

문주희는 적이 던져주는 비수를 다시 움켜잡으며 괴로운 한숨을 토해냈다.

“대체 언제 끝날 거냐고!”

“허억, 헉.....”

“하아.....”

“아미.....타불.....”

끝이 있긴 했다.

마지막 남은 실혼인 하나까지 때려눕히는 순간이 정말로 찾아왔다.

武極 - Story Book

그러나 시간은 이미 한참 흘러가 있었고, 일행은 간신히 숨을 쉴 정도의 체력만을 남기고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행은 실혼인들의 시신을 등 뒤에 남긴 채 털썩 주저앉았다. 물론 진명은 단순한 휴식이었으나 다른 일행들은 운기조식을 하며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저 쉬는 것만으로 체력을 회복하는 진명에게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청이 준 약 덕분인지 평소보다 진명은 회복이 빨랐다.

‘정말 대단한 효과구나.’

문주희는 팔뚝에 자상을 입었는데 점혈을 해 지혈을 하고 소매를 찢어 동여매는 것으로 가벼운 치료를 마무리 지었다.

그런 후 진명에게 다가갔다.

“오라버니?”

“아, 예. 문 소저. 부상은 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가벼운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렇지 장담 못하겠어요. 고작 입구에 저리도 많은 실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내는 어떨지 상상도 하기 싫군요.”

진명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 말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정찰이라도 하고 오는 게 어떨까 합니까만.....”

문주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돼요. 좀 전에도 실혼인들이 기척도 없이 나타났잖아요? 고작 입구부터 이렇진데 안은 또 어떻겠어요?”

그때 옆에서 가만히 합장을 하고 있던 범여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나도 반대다. 네게 괄목할만한 무공의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어딘지도 모를 곳을 자유자재로 누빌 수는 없는 노릇. 그러니 차라리 정찰에는 내가 낫겠구나. 나는 이곳의 지리를 눈 감고도 훤히 그릴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것에도 또 문제가 있었다.

“그건 나름대로 곤란하오. 이 사람들 중에서 소림의 지리를 알고 있는 자는 범여 대사밖에 없지 않소? 만일 정찰에 나선 대사와 혹시라도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곳에서의 안전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소이다.”

한태방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단형도 그것에 동의하는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주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찰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라면 미리 알았더라도 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기습에 당한 게 아니라 숫자에 밀린 거잖아요. 지금 일수록 신중히, 긴밀하게 협조해야 해요. 인원을 나누는 일에는 반대입니다.”

“청성의 지모라더니 옳은 소리 하시는군. 나는 그 말에 찬성이요.”

한태방은 다른 의견은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냉큼 문주희의 편을 들었다.

일령은 얄미운 사람들끼리 죽이 맞아 쿵딱거리니 공연히 심통이 나서 하마터면 저는 반대예요 어쩌구 해버릴 뻔 했다.

이번에는 임완춘이 입을 열었다.

“그래, 그래. 문 소저의 말이 무조건 옳다고. 가뜰이나 쪽수가 딸리는.....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숫자가 밀리는 상황에서 일행이 흩어지기라도 한다면 어쩌려고? 그냥 이대로 움직이는 게 나아.”

그는 좀 전의 격투에서 청풍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황천길에 올랐을 목숨이었다.

‘내가 왜 대체 여길 따라온 거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삼류 무인일 뿐이라고!’

임완춘은 방금과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이 중에 한 명의 전력이라도 사라진 상황에서 적과 맞닥뜨리고 싶은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다.

진명이 진중한 표정으로 그 말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험지로 들어가는 것 또한 선부른 일 아닌지요. 저 역시 지금 소림이 어떤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실혼인들은

武極 - Story Book

일주문 근처에만 몰려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고서야 숙단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명아.”

범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소림의 제자들이 산문을 떠난 후로 우리가 짐작도 못할 일이 벌어진 모양인 것 같다. 방금 전 실혼인들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아 움직인 것이 틀림 없다.”

“예예? 그럼 마교의 인물이 지금 소림 안에 있다는 소림니까?”

“그럴 것이다. 일주문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임완춘은 대놓고 ‘망했다!’는 말을 이마에 써 붙였고, 나머지 인원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왕 시작된 길을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진명을 포함한다면 단형, 한태방, 문주희까지 각 문파에서 내로라하는 후기지수만 네 명이다.

일령이나 청풍은 후기지수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실력은 그에 못지 않다. 시작하자마자 무섭다고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범여 대사님?”

“그 질문에 답할 자는 나보다는 문 시주와 일 시주가 되어야 할 듯 하구나.”

범여는 시선을 문주희와 일령에게 두었다.

청성의 지모라 소문이 자자한 문주희는 말할 것도 없었고, 일령 또한 단심맹에 나타난 이후로 진명과 함께 다니며 재기 넘치는 지략을 보여주곤 했다. 머리를 쓰는 일이라면 범여 자신 보아야 둘이 낫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확신에 가까웠다.

“과찬이십니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대사님.”

문주희는 살짝 웃음을 띄우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그냥 겸연쩍어하고만 있던 일령에 비한다면야 두 발자국 정도는 재빠른 행동이라 할 수 있었다.

‘저 여우!’

‘이 참에 범여 대사께 잘 보여줘야겠어. 저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니까 말이야. 역시 난 똑똑하단 말이야? 호호’

일령이 덜떠름한 표정으로 문주희에게 선수를 양보했다.

“문 소저께서 먼저 말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침 문주희는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로 집중되는 이목을 즐기면서 차분히 입을 열었다.

“방금 전 실혼인들과의 격전이 한창일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혼인들에게 그토록 고전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이지요.”

“그게 뭐요?”

“우리가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 말에 다들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만한 고수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뭉치기란 쉽지 않은 노릇. 더군다나 그들은 문파 역시 제각각이다. 그런데도 소림을 위해 싸워주고 있다.

이런 것을 협력이 아니면 뭐라고 할 것인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 전의 상황으로 설명해 볼게요. 맨 처음 범여 대사께서 앞장을 서서지 않으셨습니까? 진 대협은 그 뒤에, 단형 도장은 이 쪽으로.....”

문주희는 땅 바닥에 손가락으로 위치를 그려가며 말을 이었다.

각자의 위치를 짚어내 그것들을 선으로 잇자 찌그러진 팔괘 모양새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자 팔방의 하나씩을 맡아 싸우는 형국이 되었지요. 만약 이것이 평지였고, 우리의 목적이 실혼인을 모조리 처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 나쁘지 않은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실혼인을 모두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실혼인과 싸우기 위해 소림으로 오신 겁니까?”

문주희의 마지막 말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저로 말씀 드리자면, 청성은 진 오라버니를 도와 소림사의 장경각에 침투, 반권의 나한기공을 찾아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혼인들과 싸우는 것은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일 뿐이었지요.”

“.....”

武極 - Story Book

다들 잠자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문주희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한 번 쓸어 찌그러진 팔괘 모양을 지운 다음,
다시 그림을 그렸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지요. 만일 범여 대사께서 앞장 서신 그 때, 이런 식대로
진 오라버니가 이 곳을 맡고 단형 도장께서 이 뒤를 맡은 다음, 한 소방주님과
령 아우가 옆을 보좌하고 저와 청풍 대협이 후방을 도맡아 일직선으로 길을

뚫었다면 어땠을까요?”

“.....아!”

진명의 얼굴에 경탄의 빛이 흘러갔다. 그 모습을 본 일령이 저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내밀었다.

‘뭐야, 그런 거. 나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건데.....’

武極 - Story Book

2.3.3. 제 99 화 [지객당]

알고 있다. 진명이 괜찮은 남자라는 사실을. 문주희가 저렇게 진명의 곁에서 얼쩡대는 이유도 그래서다.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나기도 했다.

혹시라도 그가 문주희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 몸에 한기가 들었다. 일령의 표정이 격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본 문주희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슬슬 이 내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군. 그럼 그렇지. 청성의 지모란 소리는 괜히 듣는게 아니라고.’

어쨌거나 문주희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다.

“실혼인들이 계단 위에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범여 대사께서 일직선으로 길을 뚫었다면 반드시 틈이 생겼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 틈을 철저히 지켜내며 싸웠다면 소림 산문으로 가는 길은 훨씬 더 빨라졌겠지요.”

“그게..... 물론 그랬을 테지만, 좀 전에는 기습 공격을 받은 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지 않나? 언제 너는 여기, 나는 여기 위치를 정하고 방향을 정한단 말인가?”

한태방이라면 괜히 한 번쯤 반대하고 나설만 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문주희는 생긋 웃으며 답변을 풀어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자는 소리지요.”

“아, 마교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럼 어떤 놈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알고 미리 진을 짜자는 거야?”

문주희의 대꾸는 명쾌했다.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상 조직적인 진을 짚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전히 반짝대는 그녀의 눈은 다른 수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저는 역할을 분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역할?”

“네.”

문주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각자 무공의 성격이 다르고 무공의 종류도 다양하니, 다수의 적을 맞아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미리 역할을 짜놓자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저절로 효율을 극대화한 진형이 갖춰질 테니까요.”

“흐음.....”

“음.”

다들 그녀의 말에 공감하는 눈치였다.

특히나 묵묵히 자신의 검을 닦고 있던 단형이 ‘종군.’ 하고 한마디를 내뱉음으로써 문주희의 발언은 큰 힘을 얻었다.

사실 단형이나 한태방은 몇 년이나 유격전을 펼치며 싸워온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무인들은 관의 병사들과 달라 조직적으로 싸우는 법에 익숙치 않았다. 소수일 때는 무인들의 파괴력이 더 강하나 다수가 되면 일반 병사들에게 이길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거짓이 아니다.

그 둘도 사실 실혼인들과 중구난방 식으로 제각각 싸울 때 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오랜 세월 함께 싸워온 동료가 아니었기에 믿고 등을 맡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싸움이 더 힘겨웠다.

그 점을 문주희는 정확히 짚어냈다. 더구나 방금의 싸움에서 누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어야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두기까지 했다.

문주희는 문제 제기만 하고 해답은 내놓지 않는 그런 바보가 아니었다.

“진 오라버니는 권을 쓰시니 선두에 서 주셔야 겠어요. 상대의 공격을 받고 흘리는 신법에 능숙하시니.....”

武極 - Story Book

한태방이 끼어들었다.

“신법이라면 내가 더 낫지 않아?”

한태방이 갑자기 발을 놀리며 현란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게 바로 개방의 취팔선보(醉八仙步)다 이말이지.”

한태방의 보법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 했지만 문주희는 가볍게 한태방을 무시했다.

“그 뛰어난 취팔선보를 쓰시면 한 소방주께서는 적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실 수 있겠지만, 그 뒤의 사람들이 죽어나겠죠. 하지만 진 오라버니께서 선두를 맡는다면 적어도 뒷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진형은 얼마나 적을 빠르고 강력하게 제압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고 힘을 덜 들이면서 나아가는 진형이니깐요.”

문주희의 가벼운 웃음에 한태방은 뚝은 얼굴을 했고 다른 일행들은 감탄했다.

문주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진명에게 등뒤를 맡기기에는 어려우나 선두에 선다면 결코 뒷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을 터였다. 설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자리를 지킬 것이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진명의 굳은 성정, 그것이 이제껏 진명이 걸어온 길임을 감안할 때 문주희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다.

‘흥! 영악한 년.’

말은 맞지만 일령은 여전히 고깝기 그지 없었다.

문주희의 말이 계속 되었다.

“대신 진 오라버니가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동안 부족해지는 무력을 옆에서 보조해주실 분이 필요해요. 한 소방주와 단형 도장께서는 스스로의 몸을 충분히 보호하실 수 있으면서 강한 무력을 가지고 계시니 두 분께서 날개 역할에 적임이실 거예요.”

한태방은 선두에서 마구 실혼인들을 때려잡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는지 못내 투덜거렸다.

“이거 천하의 한태방이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신세가 되었구만?”

“그렇지 않아요. 두 분이 적시에 보좌해주지 못하면 선두는 그대로 무너지게 되죠. 진 오라버니라고 해서 마냥 적의 공세를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깐요. 그런 의미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두 분의 판단력이 이 진형의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단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다음으로 령 아우와 저는 측면을 담당하면서 다른 분들을 엄호해 드리면 좋을 거야. 령 아우와 나의 무공은 실혼인들을 쓰러뜨리기 적합치않지만 충분히 물려낼 수는 있으니깐. 일령 아우도 괜찮지?”

일령은 욱하고 화가 치밀었다.

‘이년이 꼬박꼬박 진 형에게는 오라버니라 하고 내게는 아우라 하네?’

일령이 따질 것을 예측한 문주희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청풍 대협께서는 활을 다룰 줄 아시니 후미에서 장거리 공격을 하면 될 듯 하고요. 범여 대사께서는 기공을 비롯한 모든 무공에 능하시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면 다수를 상대함에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문주희의 경쾌한 설명은 모두의 공감을 샀다.

딱 한 사람, 임완춘을 빼고.

임완춘은 눈치를 살피다가 손을 들었다.

“저기요?”

“예. 말씀하세요.”

“문 소저, 저는 무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어째..... 제 역할은 쏙 빠졌군요.”

문주희가 하마터면 속내를 들킬 뻔 했다. ‘너 따위는 필요 없잖아!’ 라는.

“어, 어마? 제가 그랬던 가요? 죄송해요. 정신이 없는 터라 깜박 잊은 모양입니다. 임 대협은..... 그러니까 저어.....”

“저는 매화검을 쓰니 진 아우와 함께 선두를 맡으면 되겠군요.”

문주희가 아미에 곱게 주름을 접어 넣었다.

武極 - Story Book

“아니오. 그렇게 된다면 선두에 너무 인원이 물리게 되니까요. 청풍 대협과 함께 후미를 맡아주심이 어떨는지요? 청풍 대협이 활을 쏘 때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선두에 인원이 물리는 게 아니라 진명을 방해하다가 일을 그르칠까봐, 라는 말이 목까지 치민 문주희였다. 진명의 성격상 임완춘이 위험하게 되면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되려 진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사실 일행 중에 그걸 모르는 이는 진명뿐이었다. 임완춘조차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미에서 청풍을 보조하는 것이 차라리 그에게는 훨씬 나은 일이었다.

“아, 물론이지요. 그것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암, 그렇지요. 자고로 궁수에게는 방패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아암. 정말로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이 말에 좀 전까지 임완춘을 살리느라 문주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빴던 청풍이 거북한 헛기침을 했다.

“흠!”

임완춘이 ‘나 살려!’ 하고 정황도 보지 않고 몸을 피하는 바람에 청풍은 속된 말로 똥줄이 빠지게 임완춘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문주희의 설명은 일단락되었다.

일행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리를 추슬러 소림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을 밟았다.

일주문.

네 개의 다리를 사방으로 놓고 지붕을 엮은 보통의 대문과 달리 일직선으로 다리를 배열한 불가 특유의 문이다.

속계와 진계를 나누는 문이며 동시에 일심(一心)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림이 무림 문파이며 사찰로서의 근본을 잃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그러한 일주문을 바라보는 범여의 마음은 이루 말할 데 없이 착잡하다. 소림의

상징과도 같은 일주문의 안쪽에는 승려가 아닌 마교가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이 앞은 지객당이다.”

범여는 애써 착잡함을 감추며 말했다.

소림의 일주문을 지나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은 지객당이었다.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역할을 하던 곳으로 이전에는 소림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었다.

“음?”

그러나 그 지객당의 모습이 범여가 알던 지객당과는 달랐다. 일주문의 안쪽으로 좌우에 자리하고 있던 지객당이 길의 전면에 떡하니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본래의 소박하고 검소했던 지객당의 전각이 아니라 마치 요새의 관문처럼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허어!”

마교는 소림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얼굴을 세운 것이다.

“이놈들.....”

범여는 노기를 띤 얼굴로 중얼거렸다.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진명이 말했다.

“제자가 문을 열겠습니다. 대사님은 잠시.....”

“아니다. 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여는 게 낫겠구나.”

고개를 저은 범여는 하체를 단단히 하고 쌍장을 앞으로 내밀었다. 범여는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술 작정이었다.

“반야신장!”

허공을 격하고 범여의 장력이 지객당의 문을 부수었다.

과광!

지객당의 두터운 판자문이 사방으로 부서져 날아갔다.

일행은 제각기 공력을 끌어올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깅, 끼익.....

武極 - Story Book

부서진 문이 장력의 여파에 흔들거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정문이 부서진 지객당의 안쪽에 두 눈을 부릅뜬 지엄한 네 동상의 모습이 보여왔다.

어느 절을 가도 입구가 되는 천왕문에는 사대천왕의 모습이 담겨 있다. 벽화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웅장한 크기의 목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소림사의 지객당에도 불제자를 위협하는 각종 마(魔)를 물리기치 위한 사대천왕의 동상이 있었다.

지객당은 바뀌었으나 그 안의 동상들은 그대로 남겨둔 모양이었다.

끼, 끼익.....

텅 빈 지객당, 기이한 고요.

그리고 그 고요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저음의 목소리.

“오랜만에 손님이 왔군.”

동시에 바늘 끝 같은 살기가 피부를 찢어왔다.

‘엄청난 살기!’

보통의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일행은 직감할 수 있었다.

한태방이 대뜸 소리쳤다.

“취새끼처럼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놈이 누구냐!”

이런 살기를 감지하면서도 태연하게 입을 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확실히 비범한 인물이었다. 일반 무인들이었다면 오금이 저려 다리를 와들와들 떨고 있을 터였다. 임완춘이 지금 그러한 모습이었.

“클클. 남의 집이라니? 이곳은 소림의 지객당이고 이 몸이 바로 지객당주인데?”

“뭐?”

범여가 노기를 가득 담아 외쳤다.

“헛소리! 어찌 마교의 잔당 따위가 지객당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가!”

“클. 내가 보기엔 네 놈들이 마교의 잔당인 듯 하구나. 감히 소림에 와서 본 당주를 협박하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범여와 자칭 지객당주의 대화를 들으며 진명 일행은 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음성이 속이 빈 동상에 부딪혀 징징 울리는 터라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어려웠지만, 계속 말이 이어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이다.

“클클. 어쨌거나 손님이 왔으니 대접을 하는 게 도리겠지. 어디,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이런 말 하기는 뭣하지만 손님 접대는 나 대신 사대금강이 할 게다.”

“뭣?”

범여가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사대금강!

십팔나한과 팔대호법을 모두 거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칭호. 다시 말해 소림에서 가장 지고한 무승들을 일컫는 말이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해도 사대금강의 칭호를 받으려면 이십 년 이상 각고의 수련을 쌓아야 했다.

하나 소림의 사대금강은 지난 번 마교의 침공 때 목숨을 잃었다.

‘설마..... 사대금강이 실혼인이 되어 마교의 주구로 남았는가!’

지객당주가 손을 들었다.

“소림을 침입한 무모한 자들아! 너희에게 무간지옥을 보여주마. 가거라!”

끼이이익.....쿵!

지객당주의 말을 신호로 갑자기 동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쿵, 쿵쿵!

“뭘, 뭣?”

일행은 대경실색했다.

사대천왕인 줄 알았던 동상들이 살아 움직이며 일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빠르다!”

더 볼 것도 없이 한태방이 권경을 날렸다. 동상들의 모습이 결코 우호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말이다.

武極 - Story Book

텅!

사대천왕 중 하나인 지국천왕 형태를 가진 동상의 가슴에 한태방의 권경이 정확히 명중했다.

지국천왕의 동상이 멈칫하며 한걸음을 물러났다가 다시 돌진해왔다.

“얼씨구?”

한태방은 거의 충격을 받지 않은 듯한 동상을 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동상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 증장천왕의 동상을

향해 장을 뺐었다.

터텅!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상은 거의 충격을 받지 않은 듯 보였다. 잠시 밀려났다가 다시 앞으로 다가올 뿐이다.

단형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지, 이건?”

武極 - Story Book

2.3.4. 제 100 화 [사대금강]

일령이 범여에게 물었다.

“대사님! 저게 사대금강인가요?”

“아니오. 저런 것들이 어찌 본문의 사대금강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이오!”

범여는 더욱 노기를 띠었다.

“함부로 소림의 사대금강을 사칭하다니! 네 이놈들!”

자칭 지객당주라는 마교의 무인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소했다.

“소림의 사대금강도 별 것 아니던데? 허명만 자자하던 사대금강이 발밑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벌벌 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군. 그 정도면 오히려 나의 사대천왕이 더 사대금강에 어울리지 않겠는가! 하하하!”

“이노움!”

범여의 승복이 팽팽히 부풀었다. 한껏 공력을 끌어올린 범여가 온 힘을 다해 장력을 쏘아냈다.

퍼평!

광목천왕의 동상이 휘청거리며 몇 걸음 정도를 밀려났다. 범여는 계속해서 장을 뺐었다.

퍼평 퍼퍼평!

광목천왕 동상의 가슴에서 연신 폭발음이 울렸다. 이번만큼은 동상도 타격을 받았는지 동작이 굼뻤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쪽 무릎이 땅에 닿을 정도까지 밀린 광목천왕의 동상은 놀랍게도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는 전진을 계속했다.

“이놈들!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범여는 급격한 내공의 소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퍼평!

기공법을 쓸 줄 아는 한태방과 단형이 가세했다.

과광!

폭음과 함께 흙먼지가 질게 피어 올랐다. 그러나 그 가공할 공격 속에서도 사대천왕은 두발로 멀쩡히 선 채 여전히 건재했다.

“용서하지 않겠다!”

범여가 다시 한 번 공격을 준비하는 찰나, 문주희가 말했다.

“잠시 뒤로 물러서죠. 저것들의 정체를 알 때까지는 함부로 힘을 소진해서는 안됩니다.”

“으음.”

범여는 격앙된 감정을 쉽게 추스르지 못했으나 곧 문주희의 말을 따라 물러났다.

일행들이 지객당의 문밖까지 물러서자 동상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흙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사대천왕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음?”

범여가 낮은 탄식을 내뿜었다.

“어찌 이럴 수가!”

사대천왕의 옷이 잔뜩 찢어지고 피부에서는 피가 흘렀다.

단형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대천왕을 훑어 보며 말했다.

“동상이 아니고 사람이었나?”

사대천왕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것은 분명 동상이 아닌 사람이었다. 동상의 옷이 찢기고 피가 흐를 리는 없지 않은가.

“ㅋㅋㅋ.”

천천히,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지객당안에서 거대한 덩치를 가진 승려 한 명이 걸어 나왔다.

武極 - Story Book

평퍼짐한 승복을 입었음에도 금세라도 승복이 터질 것처럼 우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다.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두어 개는 더 큰 듯 했다.

그가 지객당 밖으로 나오자 지객당의 문이 쿵 하고 굳건히 닫혔다.

“어떤가? 나의 사대금강이. 별 것도 아닌 것들을 상대하기에는 과한가?”

“이놈이!”

범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소림의 자랑인 사대금강을 옥보인 것도 모자라서 지객당주를 사칭하며 조롱하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런 범여도 이번만큼은 선볼리 나서지 못했다.

수하인 사대천왕도 이렇듯 강력한데 저 지객당주라는 자는 또 얼마나 강할 것인가.

단형이 중얼거렸다.

“이것이 마교의 힘.....”

한태방도 가래침을 뱉으며 말했다.

“단심맹이 낙양을 차지했음에도 쉽게 소림을 수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만. 저 근육덩어리 좀 봐라. 엄청나잖아.”

지객당주의 비대하기까지 한 근육은 아마도 극한의 외공을 익힌 흔적이라.

일행들의 눈가에 안타까움과 절망이 묻어났다.

그래도 한 문파의 후기지수이며 나름대로 실력 좀 있다 자부하던 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겨우 소림의 첫 관문조차 돌파할 수가 없다. 당장에 눈 앞에 있는 사대천왕을 물리치는 것도 힘들 겠지만, 그 뒤의 지객당주를 상대할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는 것이다.

“크크크. 생쥐 같은 놈들. 떠벌거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완전히 풀이 죽었구나. 크하하!”

지객당주의 조소에도 일행은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객당주가 손을 들어 명령을 내렸다.

“사대금강의 한끼 식사거리도 안 되는 놈들을 상대하기에는 이 몸의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축객령을 내리노라!”

그와 동시에 죽은 듯 움직이지 않던 사대천왕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행은 바짝 긴장했다.

“이거 달아나야 하나?”

한태방의 말에 진명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림의 제자는 이런 모욕을 받고 물러날 수 업소! 어찌 자파를 모욕하는 무뢰배를 눈앞에 두고 달아날 수 있단 말이오!”

“뭐? 그럼 나는 거지새끼라 달아난다는 거냐? 누가 목숨이 아까워서 달아난대?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진명은 대꾸하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갔다. 가장 선두에서 달려오던 지국천왕과 진명이 맞부딪쳤다.

진명은 가장 빠른 선인공수의 일권으로 지국천왕의 안면을 직격했다. 그러나 지국천왕은 이제처럼 몸으로 진명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상의 반응을 보였다.

스스,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짧고 매끄러운 동작으로 지국천왕이 진명의 나한권을 피해냈다.

그 사이 또다른 천왕이 진명의 측면을 공격했다. 푸른 하늘에 내던진 작은 공마냥 매끄러운 호선을 그으며 창 끝이 다가왔다. 언뜻 느려 보이는 창은 진명의 공격 범위, 즉 권격 안에 들어오는 순간 견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크윽!”

진명은 옆구리를 파고드는 창을 느끼며 주먹을 돌려 창대를 막아냈다. 어쩌나 창이 빨랐는지 손등을 훑고 지나갔다. 손등의 살갓이 하얗게 갈라졌다. 이윽고 하얀 선은 피가 되었다.

‘위험하다!’

진명은 본능적으로 등 뒤에서 닥쳐오는 위협을 느끼고 숨 쉴 틈도 없이 한 발을 축으로 몸을 반 바퀴 돌려 주먹을 휘둘렀다.

사대천왕은 소림의 무공에 능숙했다. 적나한이 그러했듯, 이들 역시 소림의 무공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나한권의 투로야 뻗한

武極 - Story Book

것이었다. 다문천왕은 가볍게 몸을 젖히는 것만으로 진명의 주먹을 모두 피해냈다.

‘역시..... 내공도 없는 나로서는 이것이 한계인가.’

진명이 입술을 꼭 깨물었다.

범어나 한태방, 단형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하지만 각원도 그랬고 범여도 그랬다.

나한권만큼은 그가 최고라고. 그는 그 둘만큼이나 자신의 주먹을 믿었다. 그 어떤 창칼 아래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켜준 두 주먹을.

“간닷!”

진명은 두 사대천왕을 상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선전하며 싸웠다.

한태방이 혀를 찼다.

“저 바보 지부장은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거야?”

단형은 침묵하고 있다가 서서히 무량진천검을 꺼내 들었다.

새하얀 검신이 햇빛을 받아 더욱 새하얗게 빛났다.

단형은 곧 호흡을 가다듬는가 싶더니 진명을 돕기 위해 뛰쳐나갔다.

한태방은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몽땅..... 이러면 개방의 체면이 안 서잖아.”

한태방이 멀리에 있는 지객당주를 노려보며 타구봉의 끝을 향했다.

“어이, 좀 내려오는 게 어떨까? 그래야 내가 댁을 죽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왕이면 개방이 대장노릇을 하는 게 낫겠지.”

“클클. 나를 죽이겠다고? 그 전에 할 일이 있을 텐데?”

광!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광목천왕이 한태방의 등짝을 후려쳤다.

개방의 취팔선보!

한태방이 흐느적거리는 듯한 움직임으로 광목천왕의 공격을 피해냈다. 간발의

차이로 피해내자 목표를 잃은 수도는 지객당주가 올라탄 다문천왕의 다리부분을 가격했다.

어쩔 수 없이 한태방도 싸움에 가세하게 되었다.

무량진천검의 하얀빛이 다문천왕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갔다. 다문천왕은 선불리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며 손을 내밀었다. 목덜미로 날아들던 검면을 수도로 때려 튕겨낸 것은 순식간이었다.

“소림의 응조수!”

눈 깜짝할 순간에 검을 회수한 단형이 비스듬히 다문천왕의 목을 향해 베어냈다. 다문천왕의 응조수가 펼쳐지며 손이 수개로 갈라졌다.

수도만으로 보검을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문천왕은 표정하나 변한 것이 없었다. 다문천왕의 응조수와 얽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험란하게 움직이는 검은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길게 이어진 잔상만을 남길 뿐이었다.

자그마한 폭풍 같은 공세가 한 차례 주변을 휩쓸면서 단형은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음.....”

단형은 입가에서 가느다른 피를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다.

‘강하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결코 약한 이들이 아니었다. 일대일로 상대해도, 아니 몇이 상대해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상당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어 어지간한 공격으로는 타격도 입힐 수 없지 않은가.

곧 범여와 일령, 문주희와 청풍도 싸움에 가세했다.

“좋군. 이제야 볼 맛이 나겠어! 크하하하!”

지객당주는 큰 소리로 웃었다.

지객당주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머금으며 일행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武極 - Story Book

가장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는 임완춘을 발견하고는 크게 웃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힘을 합해 사대천왕과 싸우고 있는데 혼자서만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뇨? 저 쥐새끼는?”

묘한 어투였다.

그리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귀를 쫓긋 세우고 있던 임완춘은 똑똑히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가장 무위가 떨어지는 탓에 변변한 공격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있었던 임완춘이 분통을 터뜨렸다.

“아이, 씨발놈아! 지는 부하들 뒤에 숨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주제에 어따 대고 쥐새끼 운운이야!”

화가 났지만 딱히 화를 풀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단형이나 한태방도 어찌지 못하는 사대천왕을 상대로 자신이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에이익!”

임완춘은 핫김에 바닥에 굴러다니던 돌맹이를 하나 집어서 있는 힘껏 지객당주를 향해 집어 던졌다. 그게 맞을 것이라 기대한 것도 아니요, 사대금강을 부리는 지객당주가 고작 돌팔매질 따위에 당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다.

딱!

“엥? 맞았네?”

그런 돌 하나쯤 맞아주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지객당주의 이마에 임완춘이 던진 돌맹이가 정확히 꽂혔다.

지객당주가 살기등등하게 이를 갈았다.

“저, 저놈이...!”

임완춘은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찼었다.

“사, 살려!”

그런데 그 지극히 사소한 일이 전체적인 전투의 양상을 한 순간에 바꿔버렸다.

평! 쿵!

칠대사로도 밀리지 않고있던 사대천왕이 동시에 나가떨어진 것이다.

“얼레?”

타구봉으로 광목천왕을 날려버린 한태방도 반야신장으로 다문천왕을 구르게 만든 범여도, 그리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어안이 벙벙했다.

“뭐지?”

한 순간이었지만 사대천왕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었던 것이다. 그것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사대천왕 전부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중에서 싸움에 가세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임완춘 뿐이었다. 일행이 임완춘을 돌아 보았다.

임완춘은 주저앉은 채로 어깨를 으쓱했다.

“난 그냥..... 돌을 던졌을 뿐인데?”

일행들이 지객당주를 쳐다 보았다.

지객당주가 눈에 띄게 당황하며 소리쳤다.

“뭇들 하느나! 저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적잖게 당황스러운 말투, 그리고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밀려났던 사대천왕이 다시 움직이는 광경을 보자 일행은 눈치를 챘다.

“그랬구나! 저 자가 사대천왕을 조종하고 있는 거였어! 사대천왕은 실혼인이야!”

지객당주의 얼굴이 핏색해졌다. 그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뻔히 약점을 들킨 얼굴이었다.

청풍이 말했다.

“저 자를 잡으면 된다는 건가?”

하지만 사대천왕이 가로막고 있으니 쉽지 않은 일이다.

진명이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내가 맡겠소.”

일행이 놀란 눈으로 진명을 보았다.

武極 - Story Book

“진 형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발이 빠르지도 않고 내공도 없으니 차라리 저들의 발을 묶는 게 나아.”

“하지만.....”

너무 위험이 크다고 말하려는데 날카로운 파공성이 울렸다.

“으헉!”

지객당주가 화급히 바닥으로 몸을 굽히고 그 위로 예리한 화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당연히 사대천왕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청풍이 활의 시위를 먹이며 일령에게 말했다.

“내가 있으니 걱정말게.”

일령은 다시 한 번 진명을 보았다가 청풍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려요, 청풍 대협.”

더 이상의 말이 필요치 않았다.

武極 - Story Book

2.3.5. 제 101 화 [소림연환권]

진명이 앞으로 뛰쳐나가며 사대천왕을 상대하는 순간, 청풍과 임완춘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도 지객당주를 향해 뛰었다.

“막아라! 막아!”

지객당주의 발악 같은 외침에 사대천왕이 일행의 앞을 막아 섰다.

“어딜!”

피잉.

청풍의 활이 지객당주를 가만두지 않았다. 빛살처럼 쏘아진 화살에 지객당주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엎드렸다.

진명이 사대천왕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선인공수! 철우경지! 패왕거정!

최근 범여의 가르침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된 연계 3초식이 마음껏 펼쳐졌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대천왕을 날려버리는 것은 진명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과앙!

사대천왕 중 세 천왕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갔다. 지객당주가 정신을 차리고 남은 다문천왕을 조종하여 진명의 등을 노렸다.

다시금 청풍이 활을 쏘았고, 진명은 양 손을 뺀 채 멈춰있는 다문천왕의 가슴에 그대로 주먹을 꽂아넣었다.

광!

다문천왕은 거의 대여섯걸음이나 멀리 나가 떨어졌다.

한태방이나 단형의 공격에도 그만한 위력은 없었다. 한태방은 입맛을 ‘쩍’ 다셨다.

“대체 내공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파괴력이 나오는 거지?”

혼잣말을 끝내는 순간, 이미 일행은 지객당주를 포위하고 있었다. 지객당주가 몸을 일으키며 크게 노호성을 질렀다.

“이놈들! 아무렴 내가 사대천왕보다 못할 것 같으냐! 나를 너무 우습게 보았..... 보았.....!”

범여의 나한권 선인공수!

지객당주의 눈에 범여의 주먹이 커다랗게 확대되어 들어오고, 이어 사방에서 느껴지는 무지막지한 기운들!

타구봉법의 절초 황구복천!

그리고 뒤이어 쏟아지는 아미의 난피풍검법과 청성의 청운적하검.

마지막으로 찬란한 빛의 검신이 뿌리는 무당의 태극해검이 지객당주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으, 으아아아악!”

지객당주의 외마디 비명이 울려 퍼졌다.

툑툑.

걸레처럼 너덜거리며 쓰러진 지객당주의 시체를 한태방이 발로 차며 말했다.

“뭐 덩치만 곰 같았지, 별 것도 없는 녀석이었잖아?”

시신에 대한 모독이랄까, 본래는 말렸어야 할 범여마저도 한태방의 행동을 묵인했다. 그만큼 마교에 대한 뿌리깊은 적개심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주희가 말했다.

“마교에 상상도 못할 기괴한 술수가 많다더니, 역시 그러하군요.”

무조건 힘으로만 해결하려 했다면 지객당을 넘기도 힘들었을 터였다.

범여가 침언했다.

“게다가, 소림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앞으로 장경각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네.”

“그렇군요.”

武極 - Story Book

지객당은 정말로 관문처럼 길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곳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단형이 지객당의 안쪽을 가리켰다.

“아무래도 다음 길은 저쪽인 듯 하군요.”

그 사이 임완춘은 지객당주의 품을 뒤져 열쇠를 찾아냈다.

“이거야 뭐 보물찾기도 아니고.....”

임완춘은 다른 일행들이 싸우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일부러 열쇠를 짤랑거리며 달혀있는 지객당의 문으로 걸어갔다.

“에헴!”

쩍쩍.

문이 열렸다.

임완춘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일행을 보았다.

“자, 가시죠.”

한태방이 ‘벼룩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하고 중얼거렸다.

임완춘은 귀를 쫑긋하더니 돌아보며 소리쳤다.

“어허! 왜 이러셔? 내가 아니었으면 지객당주도 못 해치웠을걸?”

“알았으니 앞장이나 서슈.”

“엇헴! 문은 내가 열었으니 다른 사람이.....”

일행은 지객당의 열린 문을 쳐다 보았다. 임완춘이 먼저 들어가길 꺼려하는 것도 당연하다. 어두컴컴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지객당의 정문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인 것만 같았다.

“저기요!”

일령이 일행들을 불러 세웠다.

일령은 가만히 서 있는 사대천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건 어찌죠?”

한태방이 어깨를 으쓱했다.

“강 뒤. 다시 움직일 것 같지도 않은데. 내버려두면 알아서 썩겠지.”

사대천왕은 그렇게 버려졌다.

챙챙!

“크아악!”

“타앗!”

“꺼억!”

병장기와 비명, 그리고 기합소리가 함께 울린다.

“제길!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한태방이 연신 욕을 퍼부어댔다.

아니나 다를까, 지객당을 나서니 다시 위쪽으로 향하는 산길이 있었고, 산길을 오르다가 모퉁이를 돌아마자 한 때의 실혼인들이 튀어나온 것이다.

문주희가 소리쳤다.

“대열을 이탈하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튀어나가려던 한태방이 침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지객당에 오르기 전 문주희가 말한 대로 다수를 상대할 때는 진형을 짜기로 했던 것이다.

“크!”

잠깐 한태방이 대열을 이탈한 사이 아무래도 다수를 상대한 경험이 적은 진명이 실혼인들에 의해 고립되었다.

등을 보인 진명의 뒤통수로 실혼인의 녹슨 칼이 떨어졌다.

“위험해!”

그 순간 실혼인의 머리가 퍽 하고 옆으로 날아갔다.

청풍의 화살이 꽃힌 것이다. 진명은 감사할 틈도 없이 다른 실혼인들을 마주했다.

쿵!

진각을 밝은 진명이 실혼인들의 주먹과 날카로운 병기 사이로 물 흐르듯 파고 들었다.

광광!

武極 - Story Book

엄청난 타격음과 함께 진명을 둘러싼 실혼인들이 날려졌다. 이윽고 빈틈을 메우며 들어온 실혼인들에게 얻어맞기는 했지만.

한태방은 입을 짹 벌렸다.

“허, 허허! 저게 어디 사람을 때리는 소리야?”

내공이 없어 딱히 다수를 상대할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명의 권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물론 당가 비전의 약과 제갈세가의 철혈무투가 한몫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약과 장비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진명은 충분히 강했다.

일령이 쌍검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농땡이 피우지 말고 빨리 움직여요!”

“알았소, 알았다니까? 거 채근하긴. 저래서 누가 데려가겠어. 쫓.”

“뭐예요?”

진형의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진명이 실혼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버티는 사이 한태방과 단형이 맹공을 퍼부었다. 내공을 이용한 탄기의 수법에 실혼인들 서넛, 혹은 대여섯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졌다.

공력을 모으는 시간을 진명이 벌어주니 충분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범여도 시간을 벌며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순식간에 실혼인들의 태반이 조각조각나 사라져갔다.

일령과 문주희는 일대 일에 능한 무공을 지니고 있어서 그동안 나머지 실혼인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실혼인들은 아까와 같은 수준이었으나 확실히 일행은 힘이 덜 든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특히나 뭉쳐있는 진형이기에 훨씬 더 안전했다. 드넓은 곳이라면 모를까 좁은 곳에서는 지금의 진형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진명이었다.

아무리 진형의 효율이 좋아도 진명은 대열의 선두에서 실혼인들의 공격을 홀로 다 받아내는 역할이었다. 진명이 제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었다.

하다못해 제대로 된 보법을 배운 적도 없어 본능적으로 피하고 싸울 뿐이다.

“아!”

진명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크윽!”

억지로 일으킨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피로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진 형! 정신 차렸어?”

고개를 들자 일령이 바로 곁에서 걱정하는 얼굴로 보고 있었다.

“아, 미안. 내가 잠깐 졸았나봐.”

진명은 전투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잠이 들었다. 다른 이들이 운기조식을 하는 동안 진명이 체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것 뿐이었다.

한태방이 이죽댔다.

“그대로 쓰러져서 두 시진을 넘게 잤다구. 벌써 해가 중천에 걸렸어. 참나, 적진에서 잠이 들다니. 어떻게 보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구만?”

“그게 정말입니까?”

일령이 한태방을 찌려보고는 말했다.

“안 그랬어. 정말 잠깐 잠든 것 뿐야.”

“다행이네.”

진명은 빠른 어깨를 돌리며 관절을 풀었다..

“다들 어떻게..... 다친 사람은 없고?”

“괜찮아. 많이 다친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많이 다쳤지.”

“뭐?”

일령이 상처 입은 어깨를 슬쩍 앞으로 내밀어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륙이 상한 것뿐으로, 쓰러기야 하겠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아아, 저런. 아프겠다. 그리고 미안해. 이렇게 다치게 해서.”

앞에서 완전히 막지 못한 것이 미안한 모양이었다.

武極 - Story Book

요새 진명은 제법 일령이 듣고 싶어 할 법한 달달한 말을 곧잘 하곤 했다. 일령이 행복한 얼굴로 배시시 웃었다.

“나중에 진 형이 잘 듣는 약이나 구해서 발라줘.”

“그래, 꼭 그렇게 할게.”

물론 두 사람에게에는 방해꾼이 존재했다.

“진 오라버니, 괜찮으세요?”

걱정으로 얼굴을 말끔히 덮고 있는 문주희였다. 진명은 상반신을 완전히 일으켜 앉으며 대꾸했다.

“예. 저야 좀 지쳤던 것뿐입니다. 문 소저께서도 부상을 입으셨군요? 문 소저야 말로 어떠십니까?”

진명의 걱정엔 문주희는 저도 모르게 방긋 웃었다.

“이까짓 건 괜찮아요. 그나저나 그 많은 실혼인들을 상대로 혼자서 맞서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라버니의 무공은 그새 더욱 일취월장 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 중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는걸요. 그저 간신히 막아선 것이 전부입니다. 일취월장이라니요.”

그러면서 진명은 두리번 두리번 범여를 찾았다.

“범여 대사님은? 무사하십니까? 어디 계시는지요?”

순간 문주희와 일령의 얼굴엔 언짢은 기색이 스쳐갔다. 진명에게 있어서 그녀들은 범여과 비교하면 항상 뒷전인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흐음! 단형 도장이 부상을 입어서 지금 한 소방주와 함께 그를 치료하고 계셔.”

“단형 도장이 다쳤다고?”

“심한 건 아니고 너무 내공을 소진해서.”

“그렇군.”

“기공을 사용해 기력을 복돋워주는 거야. 기를 움직일 수 있으면 상처도 빨리 아물고 체력도 보강되니까.”

진명은 새삼 내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단형을 돕는 일을 마친 범여가 진명의 곁으로 다가왔다.

“괜찮으냐?”

진명은 벌떡 일어나 그를 맞았다.

“아, 예. 괜찮습니다. 대사님은 어디 다친 곳 없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힘을 좀 쓰긴 했으나 잠시 앉아 있는 동안 편해졌구나. 잠시 할 얘기가 있는데 괜찮겠느냐?”

범여의 말엔 문주희와 일령이 눈치껏 자리를 피해주었다.

진명은 범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며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말씀하십시오, 대사님.”

“그리 대단한 얘기는 아니란다. 그저 네 기분이 어떨지 걱정이 되어 그런 게다.”

범여의 얼굴엔 씁쓸함이 번져갔다.

“아아.....”

진명은 범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객당주와 싸울 때에도 범여는 노기를 제대로 억누르지 못했다.

소림의 제자가 소림의 제자들을 상대로 살계를 열어야 하는 그 마음을 진명이 어찌 모르겠는가. 속가 제자인 자신도 이렇게나 침울한데 말이다.

범여는 진명의 눈동자를 보고 진명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그저 늙은 마음이 잠시 약해졌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싶구나. 실혼인이 되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행여 내가 마음 쓰여 앞으로 네가 실혼인들을 상대할 때 망설임이 있을까 봐 말해두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대사님. 저 역시 소림의 산문에서 실혼인이 된 제자들을 대한다는 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후우..... 제가 어떻게 실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정작 제 자신이 아무 것도 알지 못해 일말의 도움도 되지 못하니 답답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武極 - Story Book

범여가 차분한 눈길로 진명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실혼 상태를 이겨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이지, 결코 자책할 것이 아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거라.”

“하지만 대사님.....”

진명이 무언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대꾸하려는 데 범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림이 마교의 침공을 받고 내 손으로 각원을 보내야 했을 때. 혜각 사숙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범여는 지그시 눈을 감고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본산의 건물이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소림은, 소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소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구요.....”

범여가 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그건 네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넌 자랑스러운 소림의 제자가 아니냐.”

“대사님.....”

범여의 어색하지만 부드러운 미소에, 진명은 눈물을 글썽였다.

가슴 깊이, 벅찬 감흥이 솟았다.

武極 - Story Book

2.3.6. 제 102 화 [공양간]

이 담담한 말은 진명에게 생각 이상의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진명은 자신의 존재가 정말로 소림에게 필요하고, 단심맹에 필요하고, 범여뿐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도 필요하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별걸 다 고마워하는구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을.”

범여에게는 그것 말고도 할 말이 있었다.

“참, 혹시 나한권 말고 다른 무공을 접한 일이 있었더냐?”

꽤나 뜬금없는 질문인지라 진명이 눈을 둥그렇게 떴다.

“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대사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좀 전에 보니 네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더구나.”

“아, 그것은.....”

진명은 당가 비전의 약 덕분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범여는 고개를 저었다.

“당가에 그런 비약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나, 그런 것만으로 무공의 성취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약으로 외적인 힘은 강해질 수 있으나 무공의 이해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 하면 알겠느냐?”

“제 무공 실력이 늘었던 말씀이십니까?”

“그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네 스스로 알 게다.”

범여는 흐뭇한 얼굴로 진명을 보았다.

진명의 나한권은 말 그대로 나한권의 정석다웠다.

주먹을 어떤 각도로, 어떤 자세로, 얼마만큼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뻗어야 하는지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게 보이는 게 진명의 나한권이었다. 나한권의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진명의 나한권은 경이롭다.

정석이라는 것이 너무 곧아서 고지식하다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만큼 나한권의 오의에 근접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같은 나한권이라도 진명이 사용하는 나한권의 파괴력과 속도가 더 우월한 것이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 제자를 둘 수 있는 스승은 그리 많지 않았다. 범여는 그것이 자신의 행운임을 잘 알고 있었다.

‘네 녀석이 계속 그리 착하고 때문지 않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네가 교만해질지 모르니 더 이상의 말은 아끼마. 하지만 너처럼 스스로 오의를 깨우쳐 초식의 구분을, 더 나아가 초식의 유무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을 천재라고 한단다. 너의 천재성은 그 우직한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니 더욱 더 대단하고 기특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네가 앞으로도 그 소중한 재능을 잃지 않기 바란다.’

범여의 속말은 하나도 듣지 못했지만, 진명의 마음은 뜻 밖에 알게 된 사실로 벅차 올랐다.

‘꼭 나머지 반 권의 나한기공을 찾겠다. 그래서 당당한 소림의 제자가 될 것이다.’

두 사제간의, 혹은 사손 간에 그렇게 생각은 달랐지만 둘은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었다.

문주희는 범여와 진명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작은 한숨을 내뿔었다.

청풍이 활줄을 점검하며 텅텅 당겨보면서 문주희의 곁에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주희는 청풍의 말에 픽 하고 웃음을 흘렸다. 청풍은 활줄 점검에 여념이 없는 태도였다. 문주희를 보고 있지도 않는데 문주희의 기분을 아는 것이다.

武極 - Story Book

“청풍 대협은 점쟁이가 더 어울리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을 다루고 있다 보면 정신을 집중해야 하고, 그러다보니 귀가 밝아져서 아가씨의 한숨소리를 들은 거지요.”

“나름대로 그것도 대단하군요.”

잠시 청풍을 돌아보았을 뿐, 문주희는 진명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청풍이 다시 물었다.

“진 지부장이 걱정되십니까?”

문주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선봉을 맡긴 판단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문주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문주희의 눈에 조금이라도 더 들기 위해서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부나방처럼 달려드는 이들에게, 문주희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내곤 했었다. 그래도 그들을 불쌍하다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물론 걱정한 적도 없었다.

청풍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확실히 진 지부장이 선봉을 맡기에는 부족하지요. 방금 같은 싸움이 두세 번 더 이어진다면 분명 가장 먼저 지쳐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문주희는 그런 청풍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답했다.

“아뇨. 전 그런 걱정을 한 게 아니에요.”

“예?”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난 그의 근성과 저력을 믿고 선봉을 맡긴 거예요.”

“그런 걱정이 아니라면.....”

문주희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내 걱정은 하나예요. 진 지부장의 책임감이 너무 강해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그의 자리를 지킬까봐요. 그럴 사람이 아니기에 선봉을 맡겼지만..... 그래서 더 걱정이 돼요. 뒷사람을 생각한답시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을 테니까요.”

“아가씨.....”

잠시 청풍을 보았던 문주희가 다시 진명을 쳐다 보았다. 청풍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리앉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웃는 듯 해도 늘 그 작은 머리 속에서는 복잡한 생각을 하며, 도도한 눈빛 속에 수심이 가득하던 문주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의 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내 마음이에요. 솔직한 내 마음.”

청풍은 입을 다물었다.

팅!

소중히 다루던 활줄이 끊어져 나갔지만 청풍의 눈은 활줄을 보고 있지 않았다.

단형의 회복을 기점으로 진명 일행은 잠시 멈췄던 걸음을 이었다.

산길을 오르니 또 다른 관문이 금세 눈앞에 들어왔다. 마치 요새 혹은 성벽처럼 자리하고 있는 굳건한 전각이었다.

“저긴 또 뭐지?”

한태방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나 이내 그의 혼잣말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쓴 웃음을 지었다.

마교에서 소림의 건물들을 모조리 개편하고 개조하였으니 그것은 마교인들만이 알 터였다. 어차피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일행들로서는 장경각이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이었다.

“엇흠!”

임완춘은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진명이 위험하다 임완춘을 말렸지만 임완춘은 보무도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말했다.

“내가 누구야? 그 무섭던 지객당주의 약점을 밝혀낸 사람이다 이거야. 이번에도 내가 앞장을 서지 않으면 누가 앞장을 서겠어?”

武極 - Story Book

일령이 임완춘을 외면하며 말했다.

“못말려. 대체 저 자부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람?”

사실 임완춘이 큰 역할을 해낸 것은 맞지만, 그 외의 전투에서는 그리 필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어쨌거나 임완춘도 그걸 알기에 뭐든 조금이라도 해보려 하는 터였다.

쿵쿵.

갑자기 임완춘이 코를 벌름거렸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화끈하게 앞장서던 좀 전의 모습과 달리 임완춘은 문을 열기를 망설였다.

“이거 밥 짓는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비린내 같은 것도 좀 나는.....”

한태방이 임완춘처럼 코를 벌름댔다.

“공양간인가? 마교 놈들 밥 짓는 곳?”

임완춘이 멈칫하며 뒤로 한걸음을 물러났다.

한태방이 재촉했다.

“어이! 문 안열고 뭐해?”

“설마 공양주라고 자칭하는 마교 놈이 버티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각오는 하고 따라왔지만, 이건 아무래도 너무하지 않느냐 말이다. 자칫하다간 눈 먼 실혼인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단 걱정이 며칠은 내보내지 못한 배설물처럼 아랫배에 묵직하게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한태방이 그를 놀리듯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입구부터 단단히 대비를 해놓은 놈들이 공양간이라고 비워뒀겠나?”

“제, 제길.”

“그래도 자네는 죽을 일이 없어 보이니 너무 앞서 걱정은 필요 없을 듯 한데?”

“음? 내 명줄 질기고 튼튼한 게 소방주 눈에도 보이시오?”

한태방이 쿵, 콧방귀를 쀈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그렇게만 처신한다면야 우리가 모두 죽을 때까지는 충분히 살아있겠지. 원 참, 정작 싸울 인간들은 아무 소리않고 있는데 왜 자기가 그런 걱정을 해?”

“아, 그럼 걱정이 안되오? 이번엔 또 어떤 놈들이 나올지 어찌 아오?”

둘이 티격 대며 말을 주고받는 사이 공양간 대문 앞에 도착한 진명 일행이었다.

진명이 굳게 닫힌 문에 손을 댔다.

“어떻게 할까요?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서웠다.

덜컹!

이번에는 안에서 대문이 열렸다.

“윗!”

일행들이 뒤로 물러섰다.

이윽고 그 문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찍, 찌직!

찍찍찍찍!

수백 마리나 될 듯한 쥐떼였다. 작은 개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진 쥐들은 커다랗고 순진해 보이는 눈망울을 뒤룩뒤룩 굴렸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무슨 일인가, 하고 보는 듯 했다.

그러나 한 두마리나 귀여워 보이지 그런 쥐들이 수백 마리나 있으니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다.

“으헉, 헉! 이게 뭐야!”

“꼬으..... 깉!”

일령이 먼저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일령의 입장에서는 쥐떼보다 차라리 실혼인을 상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쥐를 본 순간부터 일령은 연이은 비명을 지르며 두 주먹을 꼭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뿐이었다.

“아우, 누가 만화전장의 금지옥엽 외동따님이 아니랄까 봐!”

武極 - Story Book

문주희가 일령에게 따끔한 핀잔을 던졌다.

“눈 떠! 이까짓 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숫자만 많을 뿐 아무 짓도 하지 못할..... 으악!”

그러나 호기롭게 외치던 문주희도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쥐 하나가 펄쩍 뛰어올라 그녀의 허벅다리를 물었던 것이다.

찢끔, 하는 아픔과 함께 한 두 방울의 피가 옷자락 위로 스며 나왔다. 청풍이 대번에 그 쥐를 칼로 쳐냈다.

딱!

어른 주먹 두개 만한 크기의 쥐 목이 바닥을 굴렀다.

“쥐가 산 사람을 물기도 하나?”

물론 쥐는 사람을 물기도 한다. 저항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나 병자일 경우. 그러나 감히 간 크게 무림 고수를 공격할 쥐란 상식적으로 없다.

“이 녀석들은 그런 것 같은데!”

임완춘이 의외로 예리한 지적을 했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이지를 상실한 채 마교의 꼭두각시가 된 사람이 넘쳐나는 소림이었다. 오직 침입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자들만이 남아있는 소림이었다.

쥐들이라고 어찌 예외겠는가. 사람을 조종할 줄 안다면 쥐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봐야했다.

“으!”

“이 자식들이!”

피냄새를 맡은 쥐들이 킁킁대더니 돌연 공격적으로 돌변했다. 시뻘건 눈빛을 흘리며 일행들에게 달려들었다.

쥐는 어떤 의미에서 실혼인 보다 훨씬 더 곤란했다. 쥐들의 공격은 물어뜯는 것 하나로 매우 단순했지만, 수백 마리가 모인다면 투로와 공격 방향, 공격 시점 등은 수백, 수천 개가 되는 것이다.

닥치는 대로 덤비고 닥치는 대로 나가떨어지는 쥐들은 마치 살아있는

갑옷처럼 진명 일행을 뒤덮었다.

개 중 호신 강기를 익힌 범여와 한태방, 청풍 등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았으나 진명이나 임완춘은 꼼짝없이 쥐떼에 뒤덮일 수밖에 없었다.

“으아아아악! 간지러워! 으익! 따가워! 으아아아아악! 더러워! 더럽다구!”

일령이 정신 없이 비명과 불평을 섞어 토해냈다. 진명은 달려드는 쥐떼를 닥치는 대로 잡아떼며 일령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우!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나 두 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진명은 정신 없이 쥐떼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 획! 퍽, 획! 퍽, 짹!

진명의 주먹에 닿은 쥐는 어김없이 한 방에 터져나갔지만 다른 멀쩡한 쥐들이 금새 빈 공간을 채우려 달려들었다.

일령은 이제 눈물콧물을 바르며 울기 시작했다.

“으형..... 어영. 난 쥐가 싫어. 정말로 쥐가 싫다구. 이렇게 더럽고 징그럽고 소름 끼치는 건 세상에 또 없을 거야. 차라리 뱀이 낫겠다! 으허어어영.....”

진명도 애가 타기 시작했다.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진명은 더 빠르게, 더 부지런히 일령을 위해 주먹을 움직였다. 그러는 통에 진명은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쥐들은 아예 진명의 옷 자락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그의 맨 살을 물어뜯었다. 옷 곳곳이 안에서 스며나온 피로 젖어가기 시작했다.

“진짜 못 봐 주겠군.”

문주희가 나섰다. 그녀의 단도는 온통 쥐 털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도도하고 아리따운 청성의 붉은 향기 문주희가 쥐떼가 형클인 머리 따윈 다듬을 생각도 없이 진명 앞에 섰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일령에게 화가 나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진 오라버니! 저리 비키세요!”

“예? 어째서 그런.....”

“지금 오라버니가 하는 건 전혀 소용없는 짓이니까요!”

“예?”

문주희는 거친 손길로 진명의 옷자락을 헉 잡아당겼다. 상의가 벗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식간에 쥐들이 진명의 옷에 달려들어 그것을 갉아먹어 버렸다.

“아우! 눈을 똑똑히 뜨고 봐! 이게 아우가 한 짓이야!”

“악!”

진명의 상체는 크고 작은 상처들과, 그보다 더 많은 쥐들이 뺨뺨히 매달려 있었다. 문주희는 맨 손으로 그 쥐떼를 잡아떼며 일령에게 내던졌다.

일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하는 짓이야!”

武極 - Story Book

2.3.7. 제 103 화 [공양주]

문주희가 일령을 다그치며 말했다.

“이 쥐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우리의 적은 이 쥐들이라고! 그런데 아우는 대체 뭐야? 오들오들 떨면서 진 오라버니가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잖아! 아우는 그러고 싶어서 소림행에 동참했던 거야? 자기 한 몸 지킬 능력도, 자신도, 염치도 없다면 아우는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해! 이곳은 적진이야. 전쟁터라고! 아우가 자신의 목숨을 남에게 맡길 작정을 하면, 그는 아우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해! 아우는 아우 대신 진 오라버니를 희생시키고 싶어 이곳에 온 거냐고! 그럼 차라리 여기서 돌아가!”

여전히 무서워 떨고 있던 일령에게 문주희의 따끔한 일침은 꽤나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일령은 눈을 뜨고는 문주희를, 상처 입은 진명을, 그리고 문주희가 내던지는 쥐들을 바라보았다.

“나, 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령은 그렇게 생각했다.

쥐들을 다 던져낸 문주희는 마지막으로 손에 든 단도를 일령에게 겨냥했다.

“문 소저!”

진명이 허둥대며 외쳤지만 문주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누구도 오라버니를 다치게 하는 꼴은 못 봐. 아우가 그럴 참이라면, 내 손으로 아우를 죽여 없애겠어. 내가 못 할 것 같아?”

“이..... 이익!”

일령이 기합 소리인지, 비명 소리인지 모를 기묘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소리는 꽤나 야무졌다.

“알았어, 알았다구! 하면 될 거 아냐! 이 까짓 쥐! 나도 죽일 수 있어!”

일령은 눈물을 훔쳐내고는 쌍검을 현란하게 움직였다.

“이야아아!”

일령이 정신을 차리고 제 뒤통을 해내기 시작하자 진명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진명은 감탄 어린 눈길로 문주희에게 말했다.

“그게..... 고맙습니다, 문 소저. 령 아우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문주희가 알듯 말듯한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진 오라버니를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오라버니가 둔한 건 진작에 알았지만..... 대체 이게 다 뭐예요?”

문주희는 진명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쓸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진명은 마음 한 구석이 찡해움과 동시에, 이래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진명이 어설픈 동작으로 문주희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이, 이 정도야 뭐..... 꽤, 괜찮습니다. 문 소저야 말로 어디 상하신 덴 없으십니까?”

“제가 다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견뎌낼 수 있으면요. 하지만 오라버니가 다치시는 건 정말 못 보겠어요.”

“아니, 저어..... 그게 문 소저도 다치시는 일이 없어야..... 위험합니다!”

진명이 문주희의 어깨위로 올라선 두 마리의 쥐를 주먹으로 날려버렸다.

퍼퓍!

피떡이 되어 날아간 쥐들은 순식간에 다른 쥐의 먹이감이 되었다.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예. 고마워요.”

“아닙니다.

진명은 달려드는 쥐들을 다시 쳐냈다. 그러나 끝이 없어 보였다.

“문 소저의 진형을 이용한 방법도 쥐들에게는 소용이 없겠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武極 - Story Book

그 순간.

퍼-엉!

한 무더기의 혈편(血片)이 공중으로 치솟았다.

“반야신장!”

범여가 쥐떼를 날린 것이다. 쥐떼의 대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났다.

범여의 양 손이 연신 거센 장력을 토해냈다. 쥐들은 폴짝대며 날아올라 잘디잔 육편이 되어 흩어졌다.

찌직! 찌익찌익!

공양간 앞은 삽시간에 열린 자색 안개와 피비린내에 휩싸였다.

평, 퍼엉!

그러나 인간의 내공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법. 삼분지 일쯤 되는 쥐떼를 단신으로 처리한 범여는 갑자기 한 쪽 무릎을 휘청대며 양손을 내렸다.

“범여 대사님!”

범여는 자신이 멈추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경각까지 갈 길이 아직도 먼데 계속 공양간 앞에서 발이 묶여 있을 수 없었다. 쥐떼의 뒤에 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 해서 자신이 희생해 쥐떼를 처리하려 한 것이다.

하나 무리한 탓에 기가 제대로 돌지 않았다. 내공의 소모가 심한 반야신장을 연속으로 사용한 탓에 그의 내공은 순식간에 고갈되었다. 그만큼이나 쥐떼의 수가 많기도 했다.

쥐떼들은 놀라는 듯 했으나 달아나지는 않았다. 핏빛 웅덩이가 고인 자리를 몰려든 쥐떼들이 금세 구멍을 메웠다.

그때 단형과 한태방이 범여의 뒤로 섰다.

“대사님!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단형과 한태방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곧 양 손바닥을 범여의 등에 고정시켰다.

스스스스.

범여의 발 아래에서 소용돌이가 이는가 싶더니 이윽고 승복이 팽팽하게

부풀었다.

“오오오오!”

범여가 기합을 내지르며 공력을 끌어 올렸다.

그리고는 장을 뺐었다.

과아앙!

광광!

쥐떼의 무리들 중간에 계속해서 핏빛 구멍이 생겨났다. 범여는 쉽없이, 그리고 좀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장을 내뿜고 있었다.

“격체이기법!”

문주희가 소리쳤다.

격체이기란 자신의 내공을 다른 자에게 전해주는 방법이다. 내공이 고갈된 범여의 몸 안에 자신의 내공을 보내 공력을 보태는 것이다.

두사람 분의 내공을 더 얻게 된 범여는 반야신장을 쉬지 않고 뿜어냈다.

퍼병, 평!

몇 번의 장력을 더 쏘아내자 대다수의 쥐들이 시체가 되어 널브러졌다. 엄청난 양의 핏덩이와 살점들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남은 몇 마리의 쥐들이 끝까지 덤벼들었지만, 그 정도야 다른 일행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임완춘조차 쥐에게는 굴복하지 않았다. 임완춘은 마지막 남은 몇 마리의 쥐들을 반토막 내는 기염을 토했다.

“뿔뿔! 결국은 다 황천길로 갔구먼. 쫓쫓, 그렇게 덤비길 어딜 덤벼. 아무리 쥐새끼라지만 이렇게나 사람을 몰라보나 그래.”

임완춘이 계속 침을 튼뿔 뱉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들 가장 할 일이 없었던 임완춘이 과연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잠시 불쾌해하거나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많던 쥐떼들이 사라지자 짹짹거리던 소음도 사라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일령이 거친 호흡으로 몸에 붙은 쥐들의 육편과 피를 털어내며 물었다.

武極 - Story Book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하죠? 공양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잔뜩 몸을 사리며 묻는 것이, 혹시라도 쥐들이 공양간 안에 더 남아있을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진명의 호법 속에 운기를 마치고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한 범여가 말했다.

“갈 수 밖에 없지 않소이까.”

“그, 그런 그렇죠.”

일령이 울상을 지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맞네요.”

임완춘이 놀리듯 일령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우님은 아직도 쥐가 무서운 건가? 아우님이 죽인 쥐가 못 해도 기백은 될텐데?”

일령이 뻣 소리를 질렀다.

“누가요! 그냥 질려서 그렇죠, 흥! 아, 어서 들어가자구요! 뭐 하고 있어요?”

“옳지. 기세가 좋구만. 그럼 어디 들어가 보실까.”

임완춘은 반쯤 열린 공양간의 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다. 그는 공양간 안에 또 무언가가 숨어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범여나 문주희 등은 지객당의 사대금강을 움직이는 지객당주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쥐들을 조종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응? 조용하네?”

한쪽으로는 정갈하게 쌓여있는 그릇들과 크고 작은 솥들이 보였다. 그 반대쪽으로는 커다란 화덕이 말끔한 모양새로 있었다.

그리고 승려의 복장을 한 네 명의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이며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탁탁탁탁.

사각사각.

부글부글.

야채를 썰고 쌀을 씻고, 국을 끓인다. 아궁이에서는 밥짓는 연기까지 난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찰내의 공양간이나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방금 전 엄청난 숫자의 쥐떼가 우글우글 모여있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그런 부엌이었다.

심지어 맛있는 냄새까지 났다.

“뭐, 뭐지?”

그것은 정말로 일행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묘한 광경이었다.

지극히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극도의 위화감이 공양간 내를 감돌고 있었다.

임완춘이 진명을 보며 물었다.

“저, 진 아우님?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밥짓는 스님들일까?”

“글쎄요. 하지만 조금 전의 그 쥐떼들은.....”

진명도 뭐라 말하기 어려운 곤혹감을 느끼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하며 이질적인 광경에 일행은 선불리 다가서기도 어려웠다.

한태방은 코를 한껏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킁킁! 이상해. 뭘 만들기에 개고기 냄새 같은 게 나지? 아니, 좀 더 누린내가 나기도 하고?”

임완춘이 묻는다.

“혹시 아까 그 쥐들의 비린내가 아니오?”

한태방이 벌떡 화를 내려다가 참았다.

“지금 거지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 거지들은 잔칫집 대문간의 냄새만 맡아도 그게 무슨 음식들인지 알 수 있어!”

“아니 뭐, 딱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저게 정말 음식을 만드는 거란 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는 음식들 중에는 불에 구울 때 이런 냄새가 나는 게.....”

그 순간 한태방이 뭘 느꼈는지 갑자기 ‘우엑!’ 하고 헛구역질을 했다.

武極 - Story Book

“이런 쌍!”

그리고 그 외침과 동시에 공양간에서 음식을 만들던 승려들의 움직임이 딱 멈추었다.

스윽.

그들이 뒤를 돌아 보았다.

일행은 그대로 경직되었다.

그들은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네모난 식칼을, 그리고 다른 손에는 요리 재료를 들고 있었다.

무릎부터 절단된 다리.

치렁하게 늘어진 내장.

무엇보다도 불에 그을린 사람의 머리통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끔찍했다. 그것만 보아도 그들이 무엇을 요리하고 있었는지 대번에 알 수 있었으니 말이다.

“으어어어억!”

임완춘이 뒤늦은 비명을 질렀다.

일령과 문주희는 헛구역질을 했지만 눈은 똑바로 부릅뜨고 있었다. 단형과 청풍도 눈을 찡그릴 뿐, 그 이상의 감정은 내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아무리 피가 튀고 살점이 날아다니는 전투를 몇 번이나 경험했다지만, 지금 눈 앞에 보이는 것은 그 어떤 무인이라 하더라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금단의 구역이었다.

“우웻! 우에엑!”

임완춘은 마구 구토를 시작했다.

범여와 진명은 파리한 안색으로 전방을 주시했다.

피에 절은 도마와 천장에 매달린 생고기들. 그러나 고기들은 아무리 봐도 사람의 일부분이었다. 어떤 것은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경내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진명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다른 곳도 아닌, 소림의 공양간이었다. 그곳에서 마교는 태연히 인육을 먹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뜻이다.

광!

진명이 발을 굴렀다. 그리고 분노를 담아 소리쳤다.

“이런 흉악무도한 놈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냐!”

네 명의 승려들 중, 가장 키가 작고 옆으로는 펴퍼짐한 기묘한 모습의 승려가 나섰다. 어지간한 장정의 허벅다리만한 두터운 팔뚝과 딱 부러진 어깨, 바위도 박살낼 수 있을 법한 두툼한 이마를 지닌 승려였다.

그가 마주 소리쳤다.

“어디서 신성한 공양간에 더러운 발을 들이느냐! 공양 준비를 방해하지 말고 썩 꺼지거라!”

적반하장.

그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이들보다는 가장 사람다운 말투였다. 속이 메스꺼려 침을 줄줄 흘리던 임완춘이 땅딸막한 승려를 보고 물었다.

“설마..... 당신이 공양주?”

땅딸막한 승려가 피가 묻은 네모난 식칼을 옷에 스윽 문질러 닦으며 대답했다.

“그렇다. 이 몸이 소림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진 공양주시다.”

“우웻!”

임완춘이 참지 못하고 다시 토악질을 했다. 그 먹여 살린다는 말, 요리의 재료가 뭔지 다시 떠오른 탓이었다.

범여가 소리쳤다.

“언제부터 소림이 인육을 했더라 말이나!”

공양주는 범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식칼로 탁탁 손바닥을 쳤다.

“오호라. 소림을 사칭하는 것도 모자라 고기가 질기고 맛까지 없다는 가짜 중놈이로구나?”

“이, 이 천벌을 받을 놈!”

공양주는 범여를 신경 쓰지 않고 일행을 둘러 보았다. 단형을 보고는 이마를

武極 - Story Book

딱 찡그리더니 한태방을 보면서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에에이, 저 꼬질꼬질하고 질긴 고기들 좀 보라. 게다가 왜 더럽게 상한 고기까지 꺼 있구나.”

한태방이 울컥했다.

“저 망할 식인 돼지가!”

이윽고 공양주의 시선이 일령과 문주희에게 닿았다. 그리곤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결국 문주희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저게 괜찮겠다. 살이 야들야들하니 맛있게 생겼어. 가족도 벗길 필요 없이 훈제를 해서 뼈다귀를 잡고 뜯으면 되겠구나.”

문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감히...!”

공양주는 여전히 일행의 반응에 아랑곳 않고 퍼런 날이 번뜩이는 식칼을 들어 문주희를 가리켰다.

“얘들아. 오늘 저녁거리다. 잡아와.”

武極 - Story Book

2.3.8. 제 104 화 [활약]

공양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승려의 눈빛이 돌변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감돌며 지체 없이 뛰쳐나온다.
야채를 다듬는 채공승, 국을 끓이는 갱두승, 땀감을 마련하는 부목승이다.
겉으로 본다면 평범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인데 눈빛은 실존인의 그것이다.
“저것들도 조종당하고 있어!”
일령의 외마디 외침과 함께 일행의 지근 거리까지 세 공양승들이 도착했다.
문주희를 보호하기 위해 청풍이 활을 들었다.
퍽 퍽!
가장 앞서 있던 채공승의 가슴에 두발의 화살이 꽂혔다. 그러나 채공승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달려올 뿐이었다.
“이놈들!”
범여가 반야신장으로 채공승을 가격했다.
우직!
뼈가 부러지고 화살도 함께 부러져 나갔다. 대단한 위력이었다.
채공승이 뒤로 날아가며 바닥을 굴렀다.
그러자 채공승을 뛰어넘으며 갱두승과 부목승이 문주희를 향해 달렸다.
단형이 갱두승을 가로막았다.
“탓!”
무당의 절기 태극혜검이 무량진천검에 깃들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듯
하면서 치명적인 위력이 그 안에 숨어 있다.
갱두승이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놀랍게도 쇠국자로 무량진천검을 막아냈다.
하나 무량진천검은 무당의 보검이며 중원에서 손꼽는 명검!
칙 소리가 나며 갱두승의 쇠국자가 중간에서 잘려나가고, 태극혜검의 여력이
갱두승의 왼쪽 귀를 갈라냈다.

갱두승은 공중에서 몸을 팽그르르 돌리며 한번 더 도약했다. 단형이
수비자세로 돌아오는데, 이미 갱두승은 그를 지나친 후였다.
“뭘, 뭘?”
단형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부목승이 단형의 허리를 들이받았다.
퍽!
“크윽!”
단형이 신음을 흘리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뒤이어 후속 공격이라도 있었다면
단형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지도 몰랐다.
한데 부목승 역시 단형을 들이받은 채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게 아닌가!
단형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다.
“이 놈들은!”
단형이 소리를 질렀다.
“문 소저를 보호하시오! 이놈들은 문 소저만 노리는 것 같소!”
타구봉을 길게 늘어뜨린 한태방이 문주희의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흥, 그런 것쯤 모를까?”
질주하는 황소처럼 달려오는 갱두승을 향해 한태방이 타구봉을 내질렀다.
타구봉의 끝이 수십 개로 갈라지는 듯 하더니 갱두승의 전면을 뒤덮었다.
갱두승이 흠칫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그대로 한태방의 타구봉을
들이받았다.
“어림없다!”
타구봉법은 변초가 심하고 하늘거려 언뜻 위력이 약해 보인다. 그렇지만 이미
한태방과 손을 섞어본 단형과 진명은 타구봉법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한태방이 전력을 다하면 타구봉으로 바위도 부술 수 있다.
그런 타구봉이 갱두승을 무자비하게 후려했다.

武極 - Story Book

“네놈들도 지객당의 사대천왕처럼 멀쩡한가 보자!”

빠박!

타구봉을 막은 갱두승의 팔목이 부러졌다. 아마도 서너군데 이상은 팔목 뼈가 부러졌을 터. 갱두승이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다.

한태방은 본능적으로 무승을 향해 타구봉을 계속 휘두르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

“이거나 먹어랏!”

퍽!

한태방의 타구봉이 갱두승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다. 한태방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무승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머리가 즉석에서 깨지는 않았으나 이 정도 충격은 상당할 것이므로, 곧이어 바닥으로 쓰러지든지 아니면 피를 쏟으며 비틀대다가 쓰러지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휘릭 하더니 무언가 뱀 같은 것이 한태방의 얼굴로 쏘아졌다.

갱두승이 부러진 팔을 휘두른 것이다.

좌락!

부러진 팔이 타구봉을 감고 한태방의 얼굴을 후려친다. 한태방이 급히 몸을 뒤로 뺐다.

“이크!”

아차하는 사이 갱두승이 팔을 덜렁거리며 한태방을 벗어났다.

“이런 쟀장!”

한태방은 갱두승을 막지 못했다. 더불어 부목승까지도 놓쳐 버렸다. 뒤로 밀려났던 채공승이 다시 한태방을 공격해왔기 때문이었다.

문주희는 검을 붙들고 갱두승을 상대할 준비를 했다. 피가 나도록 질끈 이를 깨물었다. 죽으면 죽었지 온 몸이 벌거벗겨져 저들의 한끼 식사가 될 수는 없었다.

진명이 바람처럼 문주희와 갱두승의 중간으로 끼어들었다.

나한권 패왕거정!

묵직한 기세의 권이 갱두승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진명은 쉬지않고 두 번의 초식을 더 뿜어냈다. 갱두승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진명의 권이 갱두승의 머리와 어깨를 직격했다.

과광!

갱두승의 몸이 튕겨지며 날아갔다. 연이어 부목승의 곤을 피한 진명이 선인공수로 부목승의 머리를 가격했다.

와직!

머리가 구겨진 것처럼 옆으로 누웠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거기에서 끝났을 것을, 실존인이 된 부목승에게는 머리조차 무용지물인 모양이었다.

머리가 꺾인 채 부목승의 곤이 진명의 명치를 찔렀다.

컱!

진명의 얼굴에 고통이 드러났다. 부목승은 진명을 걷어차고 문주희에게 달려가려 했다.

빠억!

진명의 옆구리에 부목승의 발이 꽂혔다. 진명의 입에서 핏물이 터져 나왔다.

진명은 이를 악물고 부목승의 발을 잡았다.

“그냥은..... 못 지나 간다!”

발을 밀어 중심을 흠어내며 다시 나한권을 뺄으려는 찰나, 진명의 등허리에 우악스러운 채공승의 칼이 박혔다.

“크악!”

위험을 느끼고 몸을 틀긴 했지만 거의 두치 정도나 칼이 박혔다가 나왔다. 그래도 진명은 버텼다.

부목승이 진명이 뒤에서 꿈쩍못하게 붙들었다. 갱두승과 채공승이 진명을 지나쳤다. 진명이 이를 부서져라 깨물며 온 힘을 다해 부목승을 뿌리쳤다.

“으아아!”

부목승을 등의 탄력으로 튕겨내고 갱두승의 부러진 팔을 낚아챘다. 갱두승이

武極 - Story Book

잡힌 채 뛰어올라 진명의 턱을 걷어찼다.

진명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턱이 돌아갔지만 끝내 손을 놓지 않았다.

진명의 흐릿한 눈에 문주희의 모습이 보였다.

“말도 안돼!”

문주희가 외치고 있었다.

그녀의 비도가 채공승의 어깨죽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다른 일행들에게는 몸으로 공격을 받아내는 무식한 동작 일변도였던 채공승이다. 그런데 그 채공승이 문주희의 공격에는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주희는 기가 막혔다. 이만한 근거리에서 그녀의 비도를 저렇듯 원활히 피해낼 수 있는 자는 강호를 통틀어도 열 손가락 안에 꼽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었다. 한데 사람도 아닌 실혼인이 그녀의 비도를 피해냈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

문주희는 급히 검을 뽑았다.

청운적하검!

채공승의 팔을 날려버릴 듯한 날카로운 예기가 공간을 갈랐다.

사악.

하나 그것은 채공승의 옷을 슬쩍 스쳤을 뿐이었다. 채공승이 맨손으로 문주희의 검을 틀어 쥐었다.

주룩.

빨래를 쥐어짠 것처럼 채공승의 손바닥에서 검신을 타고 핏물이 줄줄 흘렀다.

“아!”

문주희가 몸을 피하려 했지만 검이 빠지지 않는다.

“안됐!”

일렁이 쌍검을 휘둘러 채공승의 등을 난자했다.

좌좌좌!

등뼈가 흰히 드러날 정도로 깊에 등이 베였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그래도 채공승은 멈추지 않는다.

채공승이 손을 치켜들었다. 금방이라도 문주희를 토막낼 듯 하다.

순간.

번개처럼 몸을 날린 청풍이 채공승의 머리를 연속으로 걷어찼다.

퍼퍽!

좌우로 두 번을 걷어차고 천근추의 힘을 더해 위에서 머리를 짓눌렀다.

우직!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주춤대며 채공승이 문주희에게서 떨어졌다. 채공승이 밀려나면서도 장을 뺐었다.

청풍은 문주희를 밀어내고 채공승의 일장을 양 팔뚝으로 받아냈다.

평!

청풍은 바닥에 길게 흔적을 남기며 밀려났다. 작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지만 입에서 울컥 피가 솟아 나왔다.

“청풍 대협!”

문주희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일렁은 틈을 놓치지 않고는 연신 채공승을 난자했다. 현란한 쌍검이 허공에 수십 개의 반월을 그렸다.

싸악!

마지막 반월에 채공승의 손목이 날아갔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샌가 갱두승과 부목승이 다시 문주희를 감싸고 공격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야압!”

무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문주희다. 절망을 느낄 지 언정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것은 그녀의 성정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천산월아.....!”

청운적하검법의 절기인 천산월아참을 사용하려는 도중, 부목승이 문주희의 등을 곤으로 내려쳤다.

“악!”

문주희는 등뼈가 부서지는 통증을 느끼며 앞으로 굴렀다. 그녀가 구른 자리로 갱두승의 손날이 폭폭 박혀 들고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급해진 청풍이 내상에도 불구하고 뛰어 들었다. 청풍의 등에서 길다란 도(刀)가 뽑혀 나왔다.

“아가씨에게서 떨어져라!”

그런다고 실혼인들이 떨어질 리 없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실혼인들은 일행의 공격을 무시한 채 문주희만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기가 힘들다.

어느새 문주희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가고 있었다.

일행은 다급해졌다. 단순히 살고 죽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막지 못하면 산채로 문주희가 잡아 먹히는 모습을 보게 될 터였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공양주의 눈가에 주름살이 생겼다.

“쫓. 저렇게 고기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배어서 맛이 없을 텐데. 고것 참 미꾸라지처럼 잘도 도망가는구나.”

문주희 혼자 힘으로 세 실혼인들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일행들이 자꾸만 끼어들기 때문이다.

“안되겠다. 고기가 좀 질기더라도 두들기면 연해지니까 다른 놈부터 하나씩 잡아내는 게 빠르겠구만.”

공양주의 식칼이 일행들을 쫓 가리키다가 딱 하고 멈추었다.

“그래 일단 저 놈.”

작은 말이었음에도 실혼인들은 대번에 그의 명령을 받들었다.

그들이 다음 목표로 삼은 것은 바로.....

임완춘이었다.

임완춘은 실혼인들이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자 기겁을 했다.

“왜 나야!”

임완춘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마구 달렸다. 젓 먹던 힘까지 짜내 경공법으로 도망을 쳤다. 물론 실혼인들의 생전 무공은 임완춘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하지만 일행들에게 이리저리 공격을 당한 터라 아무래도 움직임이 늦었다.

“으아아아아아!”

임완춘은 공양간을 뱅뱅 돌며 죽어라 뛰었다. 그 뒤를 실혼인들이 뒤쫓았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문주희는 잠시나마 실혼인들의 공격에서 벗어났다.

“나 좀 살려줘!”

임완춘이 죽기 살기로 뛰니 실혼인들도 쉽게는 임완춘을 잡지 못했다.

“으헉!”

임완춘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 싶은 순간 머리위로 식칼이 지나갔고, 바닥으로 몸을 굴리며 몸을 튕기듯 일어서자 바닥에 뼈만 남은 손이 박혔다.

“저 형씨는 지지리 운도 종단 말야. 이번만큼은 제대로 한 번 해주는 걸?”

한태방의 말이었다. 제대로 된 무인이라면 저렇듯 적 앞에서 달아나지 않아야 한다. 하나 임완춘이 그리 함으로써 어이없게도 문주희가 실혼인들의 공격에 당하고 있을 때보다 일행들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그 작은 기회를 놓칠 이들이 아니었다.

임완춘을 제외한 일행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공양주를 쳐다 보았다.

공양주가 ‘쫓’ 하고 혀를 찼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공양주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이미 실혼인들은 임완춘을 쫓느라 상당히 멀리까지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간다.”

단형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일행들은 공양주를 향해 몸을 날렸다.

武極 - Story Book

2.3.9. 제 105 화 [원류]

기대란, 늘 사람들의 바람을 왕왕 배반하는 못된 단어다.

지금 일행이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

“어차피 실혼인들을 조종하는 재주 빼고는 아무 것도 없는 놈이다! 그냥 단숨에 쳐죽여!”

한태방이 그렇게 힘차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도 일행 대부분은 그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객당주가 그랬던 것처럼 공양주 역시 비슷할 거라고 여겨졌다.

가장 몸놀림이 빠른 일령은 벌써 공양주의 앞에 다다라 있었다.

“임 형을 위해서라도 단번에 공양주를 제압해야 돼!”

지객당주는 변변찮은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일행이 제대로 된 무공을 다 펼치기도 전이었다. 거의 무적에 가까웠던 실혼인들을 제외하면 지객당주는 그저 평범한 일류, 혹은 이류 무인 정도였다.

일령은 공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렸다.

그녀의 일격을 작고 땅딸막한 공양주가 막아내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면서 현란하게 쌍검을 휘둘렀다.

아미파 난피풍검법의 절초, 질풍회류검(疾風回流劍)!

일령의 전면에 수많은 칼날들의 잔영(殘影)이 생겨났다. 단순한 허(虛)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칼날이 모두 실제 공력을 담고 있는 공격이다. 그래서 절초이고 또한 아미파의 비기(秘技)인 것이다.

질풍회류검이 지나간 일직선의 자리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너무 살상력이 강해 불가인 아미파에서는 한때 봉인되었던 초식이었다. 마교의 발호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무시무시한 살초다.

파파팟!

일령이 쇠도하고 있는 뒤로 무시무시한 흠바람이 된다. 가시처럼 돌아난

검영의 흔적이다. 정면에서 질풍회류검을 마주친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공포감이 들 터.

하지만 의외로 공양주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오히려 입가에는 희미하게 비웃음까지 걸려 있었다.

일령은 순간 불길함을 느꼈으나 그녀의 온 힘을 다한 초식이었다. 이미 거둘 수는 없었다.

그때 공양주가 뒤로 슬쩍 상체를 제끼더니 식칼을 위로 치켜들었다가 허리의 탄력을 이용해 앞으로 뺀다.

“엇!”

엄청난 살기와 함께 공양주에게서 폭발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진명은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위험해!”

공양주는 지객당주처럼 그대로 서서 당하지 않았다. 일령에 맞서 초식을 전개했다.

범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건!”

날렵한 쌍검이 아닌 각진 식칼이었지만, 공양주가 펼치는 그것은 분명 질풍회류검이었다.

과창창!

일령과 공양주의 질풍회류검이 서로 마주쳤다. 수많은 검의 잔영이 부딪치고 부러지고 깨져 허공에 흩어진다.

그리고 일령은 뒤로 튕겨져 나갔다. 달려가던 기세에도 불구하고 제 자리에 서 있던 공양주를 한 발짝도 뒤로 밀려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핏줄기가 반원을 그리며 일령이 날아가는 궤적을 따라 길게 이어졌다.

武極 - Story Book

“일령!”

진명이 떨어지는 받았다. 일령의 온 몸에 자잘한 검상이 생겨나 있었다. 순식간에 피가 배어 흘러나온다.

“쿨럭!”

일령이 기침을 하자 한 덩어리의 피가 튀어나와 진명의 앞섰을 적셨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는지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내 기절했다. 심한 내상을 입은 것 같았다.

“일령..... 죽은 건 아니지? 응?”

일령을 안은 진명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로서는 일령이 이만한 큰 부상을 입은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일령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잔기침을 하며 핏방울을 내뿜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다.

진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공양주는 킁킁대며 또 다른 일행을 상대하고 있었다. 단형이 무량진천검을 내지르며 무당의 검공을 펼친다.

태극해검의 오의(奧義)가 담긴 건곤태상무(乾坤太上霧).

작은 원을 그리듯, 단형의 검극(劍戟)이 회전했다. 잔잔한 호수에 무수한 동심원이 생긴 것처럼 무량진천검의 검격에 파문이 일었다.

무당파의 무공은 부드럽고 온유하다. 그 중에서도 태극공은 사랑발천근(四兩撥千斤)에 그 묘용을 둔다. 상대의 공격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힘으로 반격을 하는 수법이다. 타파의 이화접목(移花接)이나 건곤대나이(乾坤大挪移)라는 수법도 그와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건곤태상무는 사랑발천근의 묘를 극대로 살린 초식으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검격 안으로 상대를 끌어들여 단번에 쓰러뜨리는 필살의 기술이다.

“무량진천검. 무당의 보물로군?”

공양주가 히죽 웃으며 식칼을 내뻗는다. 무량진천검이라는 보검과 칼을 맞대면

위험하다는 정도는 그 역시 안다.

공양주의 식칼이 기묘한 각도로 뒤틀리더니 커다란 원을 그렸다. 단형의 눈썹이 크게 치떠졌다. 공양주가 이번에는 무당의 무공을 흉내내고 있질 않은가!

“건곤태상무!”

하지만 공양주의 그것은 무당의 건곤태상무보다 훨씬 거칠고 파괴적이다.

차랑, 차라랑!

단형의 무량진천검과 공양주의 식칼이 얹혔다. 마치 빨래를 쥐어 짜는 것처럼 이리저리 얹히기만 할 뿐 강하게 부딪치지는 않는다.

서로 같은 초식에 같은 검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쯤 되면 공양주가 어떤 방식의 싸움을 하는지 바보가 봐도 알 수 있다. 상대의 무공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크윽!”

단형이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밀린다.

무당의 제자도 아닌 마교도에게 무당의 무공으로 밀리고 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단형이 기를 쓰고 틈을 파고 들려 했다. 그러나 공양주의 실력이 조금 더 위였다. 단형이 무리한 사이 오히려 허를 찔렀다. 식칼이 살짝 비틀리다가 싶더니 단형의 가슴을 식칼이 빠르게 긁고 지나갔다.

싹.

“으윽!”

단형이 핏물이 배어 나오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춤거리자 그 틈에 공양주가 식칼로 단형의 머리를 쳐 내렸다.

“하하! 그런 허술한 가짜 무공으로 원류를 이길 수 있을 듯 싶으냐?”

도살장의 돼지처럼 목이 달아날 위기였다. 그때 한태방의 타구봉이 뱀처럼 휘어져서 공양주의 허리를 파고 들었다.

“네가 그렇게 따라 하는 게 자신 있다면 어디 개방의 무공도 해 봐라!”

武極 - Story Book

“흠.”

공양주는 단형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한태방의 공세를 막아야 했다.

하지만.....

“거지가 개 잡는 데나 쓰는 봉술 따위를 본교에서 취급할 것 같으냐?”

“뭐, 뭐?”

“건방진 놈. 거지 따위가 감히 본교를 모욕하다니.”

“누가 해야 할 말인데!”

한태방의 타구봉이 몇 차례나 공양주의 머리와 어깨를 내려쳤다. 공양주의 몸이 흐릿해지더니 보법을 밟으며 타구봉을 피해낸다.

워낙 현묘한 보법이라 한태방의 번개 같은 빠르기로도 공양주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빠다당!

식칼의 칼등으로 타구봉을 후려치고 그 기세로 연신 한태방을 몰아 붙였다.

“제, 제길. 이런 망할 자식에게 이 몸이.....”

한태방이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는 점점 밀려나기만 했다. 한태방은 단형이 자리를 피한 것을 확인하자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 혼자서 공양주를 상대하는 것은 어차피 무리였다.

상황을 눈치 챈 범여가 멀리서 장력을 쏘아 한태방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문주희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가 물러섰다. 당장에는 상대하기 꺾끄러우니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한태방이 피하고 나자 오히려 진명이 나섰다.

“이봐! 뭐 하는 거야!”

한태방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명은 대꾸도 않았다.

“오라버니!”

문주희의 부름에도 마찬가지였다.

진명은 공양주와 열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에 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공양주가 히죽대며 식칼로 임완춘을 가리켰다. 임완춘은 온 몸이 땀 범벅이 되어 아직까지도 실혼인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지금도 혈떡거리는 게 위험해 보이는데,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난다면 분명 잡히고 말 터였다.

“그렇게 노려보기만 해서는 저 놈을 구할 수 없을텐데?”

진명은 대답도 없이 나한권의 기수식을 취했다. 철혈무투의 표면이 광택을 내며 빛났다.

“나한권. 넌 소림의 놈이로군.”

공양주가 킬킬대며 식칼을 허리춤에 꽂았다. 이제까지 하던 대로 같은 무공으로 진명을 상대할 셈인 것이다.

가만히 공양주를 보고 있던 진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해 보라.”

“클클. 한끼 식사거리도 안되는 어쭙잖은 놈이 내게 도발을 하는구나.”

공양주의 조롱어린 말에도 진명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본래 소림과 마교의 무공이 한 몸이었다 했는가?”

“응?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공양주가 팔짱을 끼더니 오만한 태도로 말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소림뿐만이 아니지. 강호에 존재하는 모든 무공이 본교에 뿌리를 두고 있느니라. 그러니 네놈들은 평생이 가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지.”

“네가 아미파와 무당의 무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인가?”

“아미파와 무당? 클클, 어차피 그것들의 무공도 원류는 본교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진명이 철혈무투를 앞으로 내세웠다.

“그러니까 해 보란 말이다.”

공양주의 눈썹이 꿈틀댔다.

“아니, 보자보자 하니까 이놈이.....”

범여가 진명의 곁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武極 - Story Book

“명아, 네가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무당과 개방의 후기지수가 당했다. 아직 내공도 익히지 못한 진명이 그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진명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 권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무엇을 말이나.”

“소림의 권이 마교에 밀릴 수 없다는 걸. 마교 따위가 본문의 무공을 희롱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진명의 굳은 얼굴에 그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다. 단순히 일령의 부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걸, 범여는 깨달았다.

범여는 한 걸음을 물러났다. 진명에게 향한 믿음을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진명은 성큼 공양주에게로 다가섰다.

긴장한 기색은 역력하나 두려워하는 표정은 아니었다. 공양주는 그것이 더 불쾌했다. 그가 보기에 이 중에서 가장 무공이 떨어지는 이 중의 하나가 진명이었다.

진명이 말했다.

“적나한과 네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주마.”

공양주가 반응했다.

“오호라, 네가 그 적나한을 눕혔다는 진명이라는 애송이로구나. 찢찢.”

적나한을 아무런 내공도 없는 일개 속가제자가 쓰러뜨렸다는 것이 놀라웠으나 공양주는 내색하지 않았다.

“적어도 네가 자격이 있다 이건가 본데, 본교의 무공을 보고 놀라지나 말도록 해라. 적나한 정도와 본좌를 비교하면 큰 오산이란 말이다. 애송이.”

공양주도 나한권의 기수식을 취하며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순식간에 진명과 공양주는 두어 걸음 정도의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손을 힘껏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행들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죽으려고 환장했지. 주제도 모르고.’ 라며 한태방이 한 말이 전부였다.

문주희는 진명에게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 그러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

내공을 이용하지 못하는 진명의 나한권이 공양주의 나한권보다 빠를 리 없을 것이며, 더 강할 리도 없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지자면 보나마나 진명의 패배다.

하나 진명에게는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문주희는 그 무엇에 기대를 걸었다.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다 싶더니, 진명이 먼저 선공했다.

쿵!

거센 진각과 함께 공양주의 품으로 달려들어 주먹을 뺨었다.

나한권 1초식 선인공수!

소림의 속가 제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무인이라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식이다.

“아!”

일행의 중간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왜 하필이면 가장 기본적이며 흔한 선인공수인가. 적나한을 쓰러뜨렸던 패왕거정이나 그보다도 더 심오한 무리(武理)를 담은 나한권의 다른 초식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나 일행들은 사실 알고 있었다. 그 어떤 심오한 오의가 담긴 초식이라 하더라도 공양주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그럼에도 왜 진명이 선인공수를 택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진명에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가장 손에 익었으며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초식이 바로 선인공수였다.

武極 - Story Book

공양주는 코웃음을 쳤다. 선인공수의 투로라면 익히 알고 있다. 슬쩍 머리를 피해도 그만, 옆으로 한걸음을 비켜나도 그만이다.

하지만 공양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양주 역시 같은 선인공수로 진명을 상대했다.

“어딜 그 따위로 날.....”

다음 순간, 공양주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 이 놈?’

부-웅.

진명의 권이 공간을 가로지르며 날아온다.

뻘한 초식, 뻘한 투로.

“이, 이노오움!”

공양주는 크게 당황했다. 그 뻘한 선인공수를 상대하는 데 자신의 권은 반도 채 뻘어지지 못했다.

武極 - Story Book

2.3.10. 제 106 화 [선인공수]

공양주는 벼락 같은 노호성을 지르며 진명의 권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너, 너무 빠르잖아!’

공양주의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공양주의 주먹이 진명에게 채 닿기도 전에 이미 그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떠올랐다.

광!

공양주의 얼굴에서 뼈 무너지는 소리가 나며 와락 구겨졌다.

일행은 경악과 탄성이 어린 얼굴로 그 광경을 보았다.

공양주는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마교의 고수다. 그런 고수를 내공도 없는 진명이 일권으로 만신창이를 만들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공양주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는 고수다. 피할 수 없는 일권을 맞고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무방비로 계속 당할 생각은 없었다.

뒤로 밀려나면서 허리춤에서 식칼을 뽑아 그대로 크게 베었다. 엄청난 임기응변의 한 수였다. 진명이 뒤이어 공격을 하려 들어왔다면 그대로 허리가 반으로 잘렸을 터였다.

파-앙!

공양주의 식칼은 허공을 베고 만다.

“이놈이?”

공양주는 피로 잔뜩 얼룩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대충 훑으며 시야를 트웠다. 진명은 더 달려들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진명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원류의 권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양주는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치는 듯 했다. 무공 수위를 감지하면 진명은 그의 상대도 되지 않는 애송이다. 그런데 그 애송이가 이런 주먹을 쓸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공양주가 다시 달려들었다. 식칼을 마치 권을 사용하듯 후려쳤다.

진명은 합장하는 자세로 주먹을 모았다가 힘껏 뺐었다.

뼈억!

공양주의 머리가 땅으로 처박혔다.

쿵.

공양주는 개구리처럼 엎어진 자세로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고개를 들었다.

“서, 선인공수?”

어이가 없었다.

이번에도 같은 선인공수에 당한 것이다.

“말도 안돼!”

공양주가 벌떡 일어섰다.

한 번도 아니고 뻔한 투로에 두 번이나 자신이 당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선인공수 같은 초보의 초식을 내가 왜 못 막는 거냐! 왜!”

막는 건 고사하고 피할 수도 없었다.

공양주는 핏덩어리를 왈칵 뱉어냈다. 내상을 크게 입어 머리가 어질거렸다.

그의 비틀거리는 시야에 진명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이 소림의 권이다!”

진명이 기합과 함께 일기가성(一氣呵成)으로 힘껏 치고 들어갔다.

“이노오오옴!”

공양주는 선인공수의 투로를 미리 식칼로 내리쳤다. 진명이 선인공수를

武極 - Story Book

사용했다면 손목이 달아날 수 밖에 없는 절묘한 수법이었다.

하나 진명의 권은 그 궤도를 뚫고 들어왔다.

‘뭐 이, 이런!’

과창!

단형의 무량진천검과 한태방의 타구봉을 상대하면서도 이가 나가거나 부서지지 않았던 식칼이 유리처럼 깨져나갔다.

그럼에도 진명의 권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는 데 인지를 할 수가 없었다. 무수히 퍼져있는 공간의 흐름,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틈을 진명의 권이 파고들어 온다.

동작은 선인공수이나 그 안에는 권법의 극의가 담겨있다. 초식의 극의가 아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하나의 투로만을 파고 들어야 익힐 수 있는 권법, 그 자체의 극의다.

공양주가 비록 강호의 모든 무공을 할 수 있다 하나 칼을 쓰는 그는 권법의 극의를 익히지는 못했다. 아니, 한가지 무공의 극의에 도달했다는 이를 몇 본 적도 없었다. 그가 아는 한 이런 극의를 펼칠 수 있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지금 이순간 한 명을 더 추가해야 할 듯 했다.

와지끈!

아무런 군더더기도 없이 가장 최단거리를 뻗어오는 진명의 선인공수를 공양주는 다시 한 번 얼굴로 받아낼 수 밖에 없었다.

공양주의 몸이 허공으로 떠서 거의 삼장여를 날아갔다.

“크악!”

공양주는 죽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두려워졌다.

‘내공도 없는 자가 이런 위력이라면…….’

내공심법을 익혀 내공을 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단언하건대 교의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지도 몰랐다.

‘알려야 한다!’

공양주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입에 손가락을 넣고 휘파람을 불었다.

빠-…….

실혼인과 남은 쥐를 모두 불러 그 틈에 달아나려는 생각.

하지만 그의 휘파람은 미처 제대로 불어질 수 없었다.

퍽!

오른쪽 어깨에 불로 지진 듯 강렬한 통증이 왔다.

“으으으!”

화살이 박힌 것이다.

쿠당탕.

공양주가 몸을 뒤틀며 바닥을 굴렀다. 어깨에 꽂힌 화살을 미처 뽑기도 전에 눈부신 빛이 쏘아져 그의 시야를 가렸다.

번쩍.

태양빛이 반사된 검신이 눈이 시리도록 새하얗게 빛나며 떨어졌다.

단형의 무량진천검이었다. 경험상 단형은 마교도를 상대할 때 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어떤 기괴막측한 수를 내놓을지 모르니 그 전에 쓰러뜨리는 게 제일이다.

그래서 이번 단 한 수의 공격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끝장을 볼 셈이었다.

“하앗!”

좌악!

핏물이 허공을 붉게 물들었다.

공양주는 연신 피를 토하며 웃었다.

“크크크. 소림의 무공…… 그래. 이것이 소림의 무공이다 이거지.”

일행들은 이미 쓰러진 공양주를 둘러싸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쿨럭!”

공양주는 크게 피를 토하며 썩은 동태처럼 흐릿한 눈으로 진명을 보았다.

“재밌겠구나. 소림, 소림의 무공.”

범여가 물었다.

武極 - Story Book

“그게 무슨 말이나?”

“클클. 소림의 무공 따위가 뭐가 대단하냐며 본교에 귀의한 자도 있는데 말이지. 쿨럭.....”

“무엇이?”

범여와 진명의 눈이 크게 떠졌다. 혹시나 공양주가 거론한 이가 그들이 아는 이라면?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다. 너희들의 목적이 이곳 장경각이라면 곧..... 만나게 될 테니.”

공양주는 마지막까지 비릿한 조소를 남기며 숨을 거두었다. 그의 갈라진 미간에서 흥건하게 피가 흘러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붉은 피.....”

진명이 자신의 가슴을 매만졌다. 공양주의 공력이 깃든 식칼을 부수면서 파편 몇 개가 기피게 파고 들어와 뜨거운 피가 흐른다.

“마교도의 피도, 실혼인의 피도..... 모두 붉은데.....”

진명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문주희가 진명의 옷깃을 끌었다.

“오라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예요. 그보다..... 이리 잠깐 오세요. 상처를 봐야겠어요.”

“난 괜찮소.”

진명이 창백한 안색으로 앉아 있는 일령을 보았다.

“나보다 령 아우를 부탁하오.”

문주희는 싫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문주희와 일령의 사이를 모를 수가 없다. 그러나 진명은 모른다. 어니, 아주 무딘 사람은 아니니 조금쯤은 둘의 사이가 거북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지는 모른다.

그 증거로 진명은 최대한의 진심과 미안함이 담긴 눈길로 문주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술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없으니 달리 부탁할 사람도 없다는 걸,

문주희가 모르는 바 아니다.

“휴우. 알겠어요.”

문주희는 씩씩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일령에게로 갔다.

진명은 일령에게 가는 대신 범여의 곁으로 다가갔다. 심각한 얼굴의 범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뻔한 일이었다.

연락이 끊긴 범우. 그리고 자연스레 자신의 제자 각원이 떠올랐을 터였다.

진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범여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굳이 말이 필요치 않았다.

한참이나 후에 범여가 입을 열었다.

“마인(魔人)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으나, 장경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알겠구나.”

“제자의 생각 역시 그러합니다.”

잠시 말이 끊어졌다. 범여가 다시 먼저 말을 꺼냈다.

“소림의 제자가 마공(魔功)에 들었다는 말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범여가 희미하게 웃음지었다.

“그렇구나. 갈 수는 있겠느냐?”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지요.”

“그래.....”

범여는 조용히 반장을 하고 불호를 뇌까렸다.

“아미타불.....”

진명도 합장을 하며 범여를 따라 불호를 읽다.

일행의 상태는 가히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일령은 자잘한 외상보다 내상이 문제여서 운기조식을 하고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피로한 얼굴이었고, 달아나는데 급급하던 임완춘도 체력이 거의 소진되어 헉헉대고 있었다.

武極 - Story Book

진명의 가슴에 동여맨 봉대에도 쉴 새 없이 피가 점점이 배인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두에 서야 할 진명이 내공으로 회복도 하지 못하며 계속 상처가 누적되면 큰일이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겨우 그 정도의 상처로 공양주를 제압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이 진명의 저력이었고, 다른 일행들은 진명의 저력을 인정해 그를 계속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장경각이 곧 앞에 있다는 공양주의 마지막 말 때문에라도 돌아가기 힘들었다.

“제길, 꼬리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쯤에서는 좀 물러나 줘야 하는데 떡밥을 내던지고 유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갈 수가 없잖아.”

한태방이 투덜거렸다. 피해가 꽤 되니 이제 돌아가겠지, 하고 생각하던 임완춘은 울상을 짓고 말했다.

그 외에 다른 일행들 역시 물러설 수 없다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임완춘은 담담한 얼굴로 검을 손질하고 있는 단형의 곁으로 다가가 물었다.

“단형 도장께서는 자파의 일도 아닌데 끝까지 가실 생각이요? 이쯤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오?”

사악 사악.

단형은 눈도 돌리지 않은 채, 검을 들어 표면을 닦았다.

“무량수불. 난, 내 검을 믿을 뿐이오.”

임완춘이 인상을 쓰며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무당의 검도 조금 전 마교의.....”

임완춘이 아차 싶어 입을 막았다. 하지만 단형은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저 계속 검을 손질하고 닦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진 지부장처럼 확인하고 싶은 것이오. 진실한 무당의 검을.”

임완춘은 뺨을 씻은 얼굴로 한태방을 쳐다 보았다. 이미 임완춘과 단형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태방은 벌컥 화를 내며 소리를 쳤다.

“난 개방의 무공이 거지나 쓰는 거라고 무시하는 놈들에게 본때를 보이고 싶어서 그런다, 왜!”

거지의 무공따위는 마교에 없던 공양주의 말이 무인인 한태방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한 모양이었다.

임완춘도 마주 소리를 뱉 질렀다.

“아, 그럼 마교도들 붙잡아 놓고 개 때려잡는 법을 가르치시던가!”

“이 망할 작자가?”

한태방이 소매를 걷어 부치며 손바닥에 침을 튜 뱉었다.

“오냐. 오늘 내 개방의 개 때려 잡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개 한 마리 때려 잡아야겠다!”

임완춘이 꼬리를 말고 진명의 곁으로 달아났다.

이를 지켜보던 일행들이 ‘악’ 하고 웃었다.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었다.

길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걷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사이 사이마다 실혼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기에 결코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제는 제법 손발이 맞아 큰 무리없이 실혼인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된 일행들이다. 진명이 자꾸만 지쳐가는 것을 뻔다면 무리지어 물려다니는 실혼인들은 시간 늦추기 외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은 참회동이다.”

범여가 입을 열었다.

오는 동안의 길이 바뀌고 외양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이곳만큼은 바뀌지 않았다.

참회동이든 어디든 장경각이 아니라면 어차피 마교도들과 싸워야 하니 굳이 상관없는 것을, 범여는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했다.

어쨌든 그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나 진명이나 지금 비록 실혼인이

武極 - Story Book

되긴 했지만 한때는 소림의 제자였던 자들의 피를 뒤집어쓰고 있었으므로.

처음 지객당에서 참회동까지 오는 길, 그 길 내내 실혼인이 된 소림의 제자들은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대회합 때 처음 소림 산문을 밟아 본 뜨내기 속가제자도 있었지만, 함께 입문해 일대제자가 될 때까지 한술밥을 먹고 지내온 동기도 있었다.

범여는 그들에게 살수를 쓸 때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울화를 삼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슬픔을 짊어졌다. 그에게 진명이라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고 싶은 제자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범여는 소림에서의 오늘을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낼 수 있다고 해서 죄책감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었다. 범여는 참회진언(懺悔眞言)이라도 외우고픈 마음이었다.

武極 - Story Book

2.3.11. 제 107 화 [기문진식]

“이곳에서는 별 일 없다면 좋겠구나.”

진명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저 역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손으로 소림을 피로 더럽히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으며 또 누군들 그렇다 하겠느냐.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만을 바랄 도리밖에.”

“예, 대사님.”

참회동은 전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많은 동굴이 들어서 있는 가파른 협곡이었다.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는 듯, 혹은 인간의 죄악을 벌하려는 듯 뾰족하게 솟아 있는 절벽 곳곳에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동굴이 뿔려 있었다.

그 수많은 동굴들은 소림에서 죄를 지은 승려들이 참회하며 반성하는 공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한태방이 이죽거렸다.

“동굴이 많기도 하구나. 소림에 죄를 지은 승려가 그리도 많았는가? 이건 뭐 절이 아니라 범죄자를 몰아넣는 감옥일세.”

일행들이 한태방을 노려보자 한태방은 너스레를 떨었다.

“농담이야, 농담. 분위기가 워낙 살벌하니 좀 풀어보려고 한 거야. 내 말 못 믿어? 여기 소림의 제자뿐 아니라 사마외도의 악인들도 갇혀 있다는 걸 내가 모를 거 같아?”

한태방의 말대로였다.

본래 참회동은 많은 승려들과 악인들이 자숙하던 공간으로 엄숙하고 고결한 분위기가 풍기던 곳이었다. 죄를 지은 자가 아니더라도 이곳에 오면 누구나 숙연해질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하나 지금 일행들은 그런 숙연하고 고요한 분위기가 아니라 을씨년스럽고 사악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저 많은 동굴들 어딘가에 마교의 줄개들이 잠복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태방은 다시 중얼거렸다.

“흠. 과연 송산이로세. 산세가 높아지니 그새 날씨가 변하는군.”

일행들이 참회동의 입구 근처에 다다르니 날씨가 변했다. 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코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가 서리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 뭔가가 있을지 모르니 주의해야 해요.”

문주희의 신중한 말이었다.

청풍은 바로 곁에서 문주희의 목소리가 들려옴에도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에 놀랐다. 청풍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짝 경계심을 돋우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참회동이라는 공간의 성격 탓인지, 공연히 부끄러워지는 과거 탓인지 갈 길이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다.

바짝 경계하며 신경을 곤두세운 탓인지 걷기만 해도 피로감이 느껴졌다. 안개 속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경계심을 곤두세운 탓에 신경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다.

“이거야 원, 이 정도 걸었으면 벌써 참회동을 지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똥놈의 감옥이 이렇게 길어?”

임완춘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해 말을 내뱉었다.

일령이 인상을 쓰며 임완춘을 노려보았다.

“무슨 말이 그래요? 그것도 소림 땅에서. 감옥이 아니라 참회동이라구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우님. 이거 원, 끝이 보여야 말이지.”

“안개 때문에 기분 상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범여 대사님도 옆에 계신데 그런

武極 - Story Book

소릴 하다니..... 임 형은 다른 건 몰라도 처신술 하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예요.”

“으엥? 아, 아우님이야 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나! 이 임완춘이가 하나 가진 유일한 자부심이 언제 어느 때고 경우 바르고 개념 차 있다는 것 하난데!”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뭐? 아니, 그럼 내가 지금 경우 없게 굴고 있다는 소린가? 아니지. 지금 경우가 없는 건 바로 이 오지게 길어 처먹은 참회동인지 뭐시기라고! 이만큼 걸었으면 안개가 걷히든 참회동을 지나 다른 데가 나오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마도 평소대로라면 임완춘이 이렇게 일령의 말을 맞받아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말마따나 임완춘이 가장 잘하는 짓이라곤 이 눈치 저 눈치 확실하게 살피는 처세술이 전부였으니까.

참회동을 휘감고 있는 안개가 너무 묵직하고 괴이한 탓에 저도 모르게 신경들이 날카로워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했다.

“에잇!”

임완춘은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있는 돌맹이 하나를 핵 걷어찼다. 그저 아이 주먹만한, 길가에 흔히 굴러다닐만한 평범한 돌이었다.

퍽!

돌맹이 하나가 날아가 떨어지는 소리치고는, 그것도 이런 두터운 안개 속에서는 꽤나 크게 들린다고 느꼈을 무렵이었다.

“.....어.....라?”

안개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함께 하던 동행들도 사라졌다. 눈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두컴컴한 동굴 벽.

“뭐, 뭐야? 내가 언제 동굴로 들어왔어!”

손을 대면 바스라질 듯 다 삭은 가사를 입은 백구가 기우뚱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참회동에 널려있는 어느 동굴 안이 분명했다.

임완춘은 ‘쌍!’ 하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동굴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문득 그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눈동자들을 느낀 탓이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끔찍한 살기와 코가 썩을 것 같은 퀴퀴한 냄새가 임완춘을 기겁하게 만들었다.

진명은 당황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대사님! 령 아우! 문 소저! 제 말 들리십니까?”

대꾸가 없었다.

“청풍 대협! 한 소방주님! 단형 도장! 어디 계십니까?”

조용하다.

“임 형! 임 형! 혹시 제 말 들리십니까?”

심지어 그 말 많은 임완춘조차도 입을 딱 닫아버렸다.

“이게 대체 어찌된 노릇이지?”

진명은 서둘러 동료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걸음을 옮겼다. 이게 동굴이고 참회동이 맞다면 반드시 입구가 있을 것이다.

“좀 더 밝은 쪽이 출구겠지.”

진명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좀 더 밝은 쪽을 구별해 낼 수가 없었다.

“참회동이 이렇게 깊은 곳이었구나.”

잠시 고민하던 진명은 있던 자리를 표시해 놓고, 아무 곳으로나 움직여 보기로 마음 먹었다. 동굴 안이 딱히 미로처럼 길이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쪽으로 가볼까.”

저벅저벅.

조용한 동굴에 진명의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武極 - Story Book

저벅저벅, 탁. 저벅저벅.....탁. 저벅저.....

“음?”

어둠 속을 걷던 진명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늘어 발걸음을 멈췄다.

분명히 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발걸음 속에 섞여 묻혀진 뭔가의 소리를.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잘 못 들었을 거라며 고개를 가웃거리려 보아도, 불길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다.

‘뭔가..... 있다?’

진명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벅저벅..... 그리고!

휘잉!

진명은 머리 위로 날아오는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는 다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하체를 낮춘 상태에서 땅을 반 바퀴 쓸며 공격이 날아온 방향으로 권을 내질렀다.

퍼잉!

진명의 권에 무언가가 분명 맞은 느낌이 들었다.

진명이 급히 뒤로 물러났다.

잠시 후,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아니, 그것들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바스스 부딪히는 썩은 가사, 쾅한 눈구멍, 움직일 때 마다 탁탁 부딪히는 뼈마디.

진명을 쫓아왔던 것은 수십 구나 되는 시체들이었다.

진명이 이를 꽉 깨물었다.

“인륜을 더럽히고 천의를 거스르는 것들! 기어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명은 양 주먹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진.....인가?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진은 본 적이 없어. 물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이런 진식을 펼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생각한 문주희는 오르르 몸을 떨었다.

마교가 무서운 이유는 섭혼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적나한이니 뭐니 상대하기 어려운 고수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상대하면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나 역시 언제 의식을 빼앗겨 저들의 꼭두각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였다.

하지만 문주희는 그 생각이 너무 근시안적이었음을 깨달았다.

“대체 마교의 진짜 정체는 뭐지? 어떻게 이런 진법을.....”

어쩌면 그들을 상대하기 위한 단심맹의 모든 전략을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할지도 모른다. 문주희는 이번 소림행에서 얻어가는 것이 결코 적지 많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 경우에.

문주희는 검을 움켜쥐고 시체처럼 너덜거리며 다가오는 실혼인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 보았다.

“맙소사! 시체면 뭐든 된다는 건가? 뭐 이런 무식한 놈들이 다 있어?”

한태방은 벌컥 화를 냈다.

이런 대담무쌍한 섭혼술은 처음 본다.

섭혼술이 무어란 말이나. 말 그대로 혼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간과할 수 없는 전제가 달려있다. 남의 혼을 다스리려면, 남한테 혼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마교 놈들은 시체건 백골이건 쥐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닥치는 대로 이용한다.

저 시체들을 보건데 분명 못해도 오십 년은 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혼이 남아있어서 저렇게 저들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한태방을 타구봉을 움켜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빌어먹을 개새끼들! 내가 네놈들 하는 꼴이 더러워서라도 기필코 화장을 할 테다. 단심맹주에게 정식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무림지정공식 장례는 무조건

武極 - Story Book

화장으로 하라고 할거야. 내 말 알아듣겠냐?”

한태방이 타구봉을 횡으로 휘둘렀다.

스윽, 퍽퍽퍽!

시체들이 허물어지듯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팔다리가 날아가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움직이는 모습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호오. 그런 짓까지 한다 이거지. 좋아, 아예 가루로 만들어주마.”

한태방은 양 손으로 타구봉을 움켜쥐고는 힘껏 뛰어올랐다. 그의 신형이 아래로 떨어지며 놀라운 속도로 타구봉이 연타를 개시했다.

퍽퍽, 퍽퍽퍽!

썩어서 문드러진 시체들의 팔다리가 어지러이 날리며 동굴 벽에 부딪쳐대며 일정한 음율로 소리를 냈다.

일령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뭐야? 아무 것도 못하는 뼈다귀들이잖아?”

쥐떼에 비하면 백배는 더 괜찮은 상대다. 게다가 말 그대로 뼈다귀가 전부인 백골들이다. 장법이니 뭐니 하는 기공 위주의 난위도 높은 공격 따위 제대로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냥 두드려 부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젠장, 이런 것들이 공양간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일령의 쌍검이 사정없이 시체들을 두들겨 부수기 시작했다. 온 몸이 단단하던 실혼인들과 달리 시체들은 이미 썩어서 스치기만 해도 팔다리를 날릴 수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체다.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일령은 마음껏 쌍검을 휘둘렀다.

서걱, 썩!

예리한 절삭음이 동굴안을 메아리처럼 울려댔다.

“아미타불.....”

참회동 안의 백골은 죽어서도 참회의 숙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생전에 쌓은 악업으로 인해 소림에 갇혀 끝끝내 불가의 계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악인인 채로 죽은 자들.

범여는 그들을 위해 짧게 불호를 외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악인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구우우우.

범여의 웃기가 펄럭였다. 공력을 끌어올린 범여는 반장을 한 채 다른 손으로 연신 주먹과 장을 뽐었다.

퍼엉! 핑!

나한권과 반야신장을 적절히 섞어 움직이는 시체들을 날려버렸다.

“성불(成佛)하십시오!”

범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맹하고 무거운 주먹을 날렸다.

범여의 볼에 가슴 아픈 눈물이 흘렀다.

그는 역시 무인이기 이전에 소림의 제자였고, 그 이전에 불가의 승려였다.

단형과 청풍, 문주희도 각각 따로 떨어졌지만, 이들 역시 걱정할 것이 없었다.

역시 문제는 임완춘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그저 돌맹이 하나 건어찼을 뿐인데.....”

임완춘도 해 볼건 다 해봤다. 진명과 범여를 부르며 괴성을 질러대기도 했고, 출구를 찾으려 동굴 안을 헤매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시체군단이었다.

“임완춘아, 임완춘아. 대체 너는 뭘 얻어먹겠다고 이 험지를 따라나선 것이냐. 그냥 낙양 땅에 남아 모두 떠난 지부를 지키겠다고 할 것을. 방금 전까지야 고수들 틈바구니에서 어찌어찌 목숨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대체 어쩔 셈이냐.”

武極 - Story Book

임완춘의 푸념에는 절망이 짙게 깔려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이 일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덩달아 실혼인들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는지도 똑똑히 확인했다.

자신은 감히 쫓아갈 엄두도 못 내는 고수인 한태방이나 단형도 좀 전까지는 꽤나 고생하지 않았느냐 말이다.

캄캄한 눈 앞으로 실혼인을 상대하던 한태방이 나가떨어지는 모습이 스쳐갔다.

단형이 부상을 입고 피 흘리던 모습도 생각났고, 진명이 두들겨 맞던 장면도 떠올랐다.

‘아이고.’

발 끝이 달달 떨리고 있었다.

임완춘은 어둠만큼 이나 답이 없는 절망 속에서 질끈 눈을 감았다.

‘누가..... 제발 좀.....’

武極 - Story Book

2.3.12. 제 108 화 [파진]

퍼억!

손 끝에 감각이 전해졌다.

이미 몇 번이고 경험해 보았던 느낌이다. 진명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마지막 시체가 산산이 바스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후우후우.”

철혈무투는 썩은 내를 풍기는 더러운 것들로 지저분해졌다. 진명은 그것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쉬었다.

“겨우 끝났다.”

시체들은 거의 수련용 목각인형과 비슷했다. 움직임도 빠르다고 할 수 없었고 무공이 뛰어나다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몸이 썩은 지 오래 되어 조금 굵히기만 해도 독이 올라 살이 퉁퉁 부어 올랐다.

서서히 다가오는 시체들을 한대도 맞지 않고 쓰러뜨리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몸을 크게 박살내지 않으면 상체만 남아서도 바닥을 기어 오는지라 매 공격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명의 몸 여기저기에는 굵힌 상처들과, 그 상처들이 퍼렇게 부풀어 오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끄응.”

진명은 그답지 않게 신음소리를 냈다.

얼굴은 물론이고 전신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독에 부풀어 오른 상처들이 후끈 열을 내면서 쿡쿡 쑤셔왔다.

“빨리 출구를 찾아야.....”

진명은 말을 하다말고 입을 다물었다.

그르륵.

가래가 끓는 듯, 혹은 짐승이 낮은 목소리로 위협을 하듯 그런 소리가 다시금 들려오고 있었다. 진명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좁은 동굴의 양쪽 길을 가득 메운 시체들이 진명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으음.”

진명은 신음을 삼키며 철혈무투를 꼭 움켜쥐었다.

추욱.

마지막일거라 생각했던 시체를 쓰러뜨린 한태방이 동굴 안쪽, 아니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모를 곳에서 우글거리고 몰려나오는 또다른 시체들을 보았다.

“뭐야? 또 있어?”

한태방은 피식 하고 웃더니 살기등등한 미소를 머금었다.

“좋아. 얼마든지 오라고. 한 번 죽었던 악인들을 또 한 번 더 죽이는 것 뿐이잖아?”

한태방은 다시 공력을 끌어 올렸다.

“회개는 했는지 모르겠군! 아직 못했으면 염라대왕에게 가서 개방의 후개 한태방이 보냈다고 해라!”

타구봉법의 초식이 연이어 펼쳐면서 한태방은 시체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한태방은 시체들을 수백 구라도 혼자 쓰러뜨릴 자신이 충분히 있었다. 더구나 부수고 때리는 무기인 봉을 들었으니 시체들을 상대하기가 한결 수월했다.

단형은 벽을 등지고 기대 앉았다.

계속된 싸움에도 불구하고 단형은 그리 지친 기색이 아니었다.

“또 몰려오는군.”

단형은 침착하게 품에서 검을 손질하는 도구를 꺼냈다.

피가 잔뜩 묻은 무량진천검을 길게 세우고 손잡에서부터 검극쪽으로 봉서지를 이용해 피와 기름을 닦아냈다. 아주 고운 돌가루를 칫척해진 무량진천검의

武極 - Story Book

검신에 뿌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쓸어내렸다.

싸악 싸악.

정성스럽게 일단의 손질을 끝낸 무량진천검은 예리한 날을 번뜩이며 새하얀 검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윽고 단형은 기름을 먹인 면포로 무량진천검의 검신을 다시 닦았다. 새 기름을 먹인 무량진천검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과 다름없이 순백색의 광택을 빛냈다.

“다시 해볼까.”

단형은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일어섰다.

싸움의 시작과 끝은 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싸움 전에 검을 손질함으로써 완벽한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무량진천검은 무당의 보검이다. 사이한 기운을 가진 시체들에게 무량진천검의 현묘한 기운이 작용한다. 대부분의 사악한 술법에 걸린 시체는 무량진천검에 베이기만 해도 술법이 깨어지며 본래의 흠으로 돌아가고 만다.

해서 단형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어떨까?

단형은 마냥 여유롭게 시체들을 상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나 시체들을 상대하지 않고는 이곳을 벗어나는 것도, 이 기괴한 함정을 깨뜨리는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우웅.

단형이 공력을 일으키자 무량진천검이 검명(劍鳴)이 울었다.

최대한 빨리.

하지만 그 뒤에 있을 무언가를 대비해 최소한의 힘으로 시체들을 쓰러뜨린다.

그것이 단형의 목표였다.

청풍은 의외로 상당한 기력을 소진했다.

“아가씨-!”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 그는 목청이 터져라 문주희를 불러댔다. 문주희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자 평생 짊어져야 할 의무였다.

청풍은 강렬한 도법을 사용한다. 도는 검보다 단단하고 베기에 특화되어 있다. 반쯤 부식된 시체들을 갈라버리는 건 그에게 일도 아니었다.

하나 문주희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그를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바람에 청풍은 꽤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마와 눈두덩이 독이 올라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고, 도를 잡은 손목도 크게 부풀어 있었다.

퍽!

미친 듯 도를 휘두르며 시체들을 베어가던 그의 등에 뜨끔한 감촉이 왔다.

“크윽!”

청풍은 몸을 돌리며 자신의 등에 손톱을 박아 넣고 있는 시체의 팔을 잘라냈다. 그리고는 태산압정(泰山壓頂)의 초식으로 시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동강내버렸다.

청풍은 등뒤로 손을 돌려 잘린 채 등에 박힌 손목을 쓱 뽑아냈다. 피와 섞인 걸쭉하고 검은 진물이 튀어나왔다.

청풍은 고통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아가씨를 찾기 전에는 결코!”

그의 사형은 청풍을 살리고 목숨을 잃었다. 청풍에게는 사형이었지만 문주희에게는 평생을 약속한 약혼자였다.

“결코..... 결코!”

청풍은 크게 기합을 지르며 도를 휘둘렀다. 강맹한 바람이 일며 주변의 시체들이 썰려 나간다.

“아가씨!”

청풍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를 곳으로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다.

武極 - Story Book

“대체 얼마를 더 잡아야 하는 거야!”

일령은 기가 질렸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벌써 두어 번은 더 된 듯싶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수의..... 어쩌면 그보다 많은 수의 시체들이 몰려들었다.

일령은 한숨을 폭 내쉬며 쌍검을 들었다.

“옥!”

복부를 쿵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계속된 싸움으로 내공이 고갈되면서 공양주와 싸우면서 입은 내상이 다시 도지고 있었다. 일령은 물러날 곳도 없는 좁은 동굴 벽에 바싹 붙어 심호흡을 했다. 조금이지만 한 모금의 호흡으로 진기를 얻었다.

일령은 최대한 시간을 벌며 내공을 회복시키는 데 힘쓰기로 했다.

몇 번 눈먼 시체들의 공격에 팔을 굽혔는데 어느새 텅텅 부어 올랐다. 독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내공이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니 상처가 심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시체들의 공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참회동 어디에 그렇게 많은 백골들과 시체가 있었는지 끔찍할 지경이었다.

느릿한 시체들의 공격은 위협적이지 못했으나 시체들, 혹은 시체들의 파편이 좁은 동굴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었고 멀쩡한 시체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이 상태가 몇 번 더 지속된다면 그때에는 피할 곳도 없어지리라.

일령은 조금씩 내공을 모으면서 최대한 천천히 시체들을 상대했다. 지금은 언젠가 일행들이 구하러 올 거라 생각하면서 버티는 수밖에는 없었다.

물론 진명이 제일 먼저 달려올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일령은 불현듯 무언가를 생각해내고는 공포에 질렸다.

일령이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진-며-영!”

범여는 끝없는 시체들의 공격에 낮게 신음을 내뱉었다.

시체들의 손톱이나 이빨에 긁히면 독이 오른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반야신장으로 시체들을 물리쳤다. 반야신장은 불가의 무공이며 범여는 정종심법으로 익힌 정순한 내공을 가졌다.

사악한 술법에 조종되는 시체들은 일장도 견뎌내지 못하고 바스러졌다. 하나 그것도 계속해서는 불가능하다. 한돌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체들이 몰려드니 범여도 내공이 소모되는 반야신장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범여는 내공을 회복하기 위해 보법을 밟으며 나한권으로 시체들을 상대했다.

“아미타불. 어찌 이리도 많은 망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었던 말인가! 마교도들이어! 그대들은 이 업보를 어찌 다 감당하려는가!”

시체들은 옷까지 썩어 문드러져 대부분은 그 본래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나 빛 바랜 승복을 입고 있는 자부터 유명 세가의 표식을 달고 있는 이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있었다.

범여는 ‘아미타불’을 읊조리며 계속해서 시체들을 쓰러뜨려갔다.

그러던 중 문득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일행 중 가장 내공이 깊은 범여조차 이 시체들을 상대하기 힘든데 다른 이들, 특히나 임완춘과 진명은 어떠한 것인가!

“명아!”

범여는 크게 놀라 부르짖었다.

진명이 눈 앞에 나타나서가 아니라 진명이 걱정된 탓이었다.

“이, 이 함정은 실로 무서운 것이었구나!”

범여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문주희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가쁘게 숨을 몰아 쉬었다.

“하아하아. 좁아.....”

유독 뛰어난 신법을 가진 그녀에게 이 좁은 동굴 안의 공간은 꽤나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바닥에는 온통 잘린 시체들로 가득 차서 차마 내딛기도 힘든

武極 - Story Book

지경이었다.

곱게 묶었던 머리칼이 흩날리고 땀에 젖어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문주희의 눈빛만은 생생했다. 그녀는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틀림없어. 참회동 초입의 그 수상한 안개도 그렇고..... 갑자기 이런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분명 강호에 알려지지 않은 기문진식(奇門陣式)이 확실해.”

그것도 보통의 기문진식이 아니다.

참회동의 협곡 전체에 이런 대규모의 기문진식이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그런 진식이 존재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었다.

“마교의 수법이 기괴막측하다더니, 역시 거짓말이 아니었어.”

문주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지금 당한 이런 진식이 아니고 다른 진식이 더 존재한다면 강호의 무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기문진식이든 사람이 만든 것이니 해법이 있을 거야.’

팔괘진과 주역에도 달통한 문주희였지만 이런 생소한 기문진식을 어떻게 파훼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문주희는 시체들을 다 쓰러뜨려도 소용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가능한 쓰러뜨리지 않고 몸을 피하는 데에 주력했다. 오히려 그 편이 더 쉬웠다. 시체들을 쓰러뜨려 봐야 공간만 더욱 협소해질 뿐이었다.

‘진에는 생문(生門)과 사문(死門)이 있어. 하지만 이 진식에서는 어디가 생문이고 사문인지 알 수가 없으니.....’

문주희는 문득 일령과 다투던 임완춘이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걸 기억해냈다. 지금의 이 상황은 그 직후 바로 일어났다.

‘그런 조작법은 주로 기관을 발동시킬 때 사용해. 만약 이것이 기관장치를 본따 생겨난 진식이라면?’

어딘가에 진식을 끝내는 장치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

문주희는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다른 일행들이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다. 제한 몸 간수하지 못하는 임완춘이 가장 걱정이었지만 그것도 잠시. 문주희는 진명을 떠올렸다.

“큰일이야!”

문주희는 오싹해진 기분에 이빨까지 덜덜 떨렸다.

지금의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문주희 혼자 뿐일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일행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때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이 누구일까.

두 말할 필요 없이 먼저 곱을 수 있는 것은 임완춘이다.

그리고..... 진명이다.

진명은 무투라는 권갑(拳甲)을 사용하기는 하나 적수공권(赤手空拳)이나 다름없다. 무공의 특성상 근접해서 박투술을 벌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법이 뛰어나더라도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고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진명은 머리를 굴려 편하게 하는 법을 모른다. 한구 한구의 시체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며 싸우고 있을 터였다. 내공심법을 익히지 못한 진명은 회복을 못해 어느 순간 체력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시체들이 가진 독에 저항할 수도 없다.

이 진식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진명은 반드시 죽는다.

진명이 죽는다.....

문주희는 아찔해졌다.

머리가 핑 돌아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어느샌가 진명은 그녀의 마음 속에 들어앉아 너무나 많은 것을 차지해버리고 말았다.

진명은 눈이 다 흐려졌다.

“허억, 허억.”

숨이 턱까지 차 온다. 너무 힘들어 전신을 낭자하는 듯 했던 독의 고통도

武極 - Story Book

잇었다.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몸을 피한다.

철벽, 와직.

발밑에서 무언가 부서지고 터지는 소리가 나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더이상 주먹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가벼워서 무게도 느껴지지 않던 철혈무투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무언가 진명의 죽어가는 감각을 일깨웠다.

“이건?”

진명의 눈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